



The Doctor's
Life
Support
4

Daily Devotional Readings
January to December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1 일

태초에

창 1:1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웅장한 창조 작품에 관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몇장에 걸쳐서 주님의 사역을 심히 좋아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신 일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는 창조물 중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도 역시 에덴동산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기쁨과 만족함으로 그것들을 돌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일하는 기쁨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고로움만 남았습니다. 일은 더 이상 기쁘지 않게 되었고, 때로 보람이 없고, 지쳤습니다. 어떤 동물은 적대적인 포식자로 바뀌었습니다. 식물들 중에는 잡초와, 독초들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생이 힘들어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중의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록 부르신 직업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명 의식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매년 새해 첫날 이 일을 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하는 일과 주님의 소명을 재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일 할 수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피조물들과도 잘 조화되도록 은혜주시길 빕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쁨을 나누게 되기를 빕니다.

추가요절: 창 1 장

기도: 주님, 우리의 일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2 일

소명을 발견하기

벧전 2:18-19 "사환들이 법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기도하는데 시간을 보내나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두드러지고 "명예로운" 역할을 맡게 되기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이 보지 않고 품위를 떨어뜨리고 가혹한 고통에 직면 할 때도 우리의 소명이 굳건한 태도로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못살게 괴롭힘, 학대는 잘못된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적절한 통로를 의지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만큼은 아니지만 어렵고 불쾌한 상황이 있습니다.

성질이 사나운 상사, 병동에서 굴욕감을 느끼는 후배들을 즐기는 선배의사, 나에게 더 힘든 일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동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편지에서 우리의 태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 시켜줍니다. 시험에 직면했을때 인내의 참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롬 12:2 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갈 5:22 말씀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를 나타내려고 노력한다면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무언가를 보여줄 기회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벧전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불평이나 논쟁을 하지 않고' 시험을 인내해 나간다면 (빌 2:14),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될 겁니다.

추가요절: 창세기 1 장

기도: 주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내와 겸손을 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3 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고후 3:5-6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의 성경 구절들에서 바울은 이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를 격려하고 채워 주시고 주님의 사역이 매우 효과적으로 되게 하신 주님 자신에게서 온 것임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 의사로서 우리의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능력도 역시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내가 살면서 느낀 것은 도전받고, 압력을 느끼고, 철저히 자신감을 잃어버린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노인 환자 혈액을 처음 채취할 때 내 손이 심하게 떠는 것을 보고 나이트 아주머니는 친절하게도 뭐라도 잡아 줄까요 하고 내게 물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상 의사가 되고 나서는 임상적인 측면의 내 역할에 상당히 자신이 있다고 느꼈지만 경영적, 행정적인 측면의 역할은 전혀 새로웠습니다. 심지어 여러해 경험을 쌓은 후인 지금도 환자와 또는 직원들과 어떤 어려운 대화나 과거 해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분은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요. 우리의 소명에 대해 "딤후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히 13:20-21

기도: "우리의 약한데서 내가 강함이라"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주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4 일

직장에서 탁월하기

잠 22:29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병원에서 일하는 후배 치과의사로서 나는 진료 보조원중 다른 사람과는 너무 다른 한명에게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분은 방을 깨끗하게 정리했고, 보조 약품인 세멘을 정확하게 준비했고, 매 환자마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진료실을 재 준비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흠이 없는것 처럼 보였습니다.

성경에는 탁월함을 의인화한 모범적인 사람들에 대해 말해줍니다. 외국에서 노예로 시작한 히브리인이지만 모세는 왕에 이어 제 2 인자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노예가 통치자의 두번째 계급에 올라 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바로왕 아래 총리의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바로는 이 히브리 노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 했습니다. "창 41:38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므로 역시 탁월함의 비밀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천한 히브리 노예이며 아름다운 에스더 여왕의 삼촌입니다. 그도 역시 문지기라는 낮은 신분에서 위대한 아하수에로 대왕의 두번째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탁월해지기 원하거나, 주께 하듯 모든 일들을 하고 싶은 소망을 품으면, 주님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때 보다 더 나은 능력을 주십니다. 일반 치과의사로서 탁월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끊임없이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위에계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새로운 통찰력으로 "정확하고, 더 좋은" 방법의 통찰력을 주실 겁니다.

추가요절 : 다니엘서, 창세기

기도: 매일 삶의 고된 과정을 통해, 탁월하게 직장과 가정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훌륭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 하듯 하게 도와 주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5 일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부르신 하나님

마 10: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그들이 직접 사역을 하도록 보내실 때는, 예수님이 무리를 "목자없는 양" 같이 보시고 측은하고 민망히 여기신 사건 이후입니다. 추수할 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권을 인식하고,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런 인식과 기도 후에 예수님은 12 제자를 추수할 땅에 보내심으로서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12 사람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명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가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죄로부터 구원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의 문맥과 내용이 주님과

제자들에게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취약한 상태로 주님은 내보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보내고, 보냄을 받는 마을에는 상호 의존하도록 내보냈습니다. 보냄을 받는 지역사회에 대한 의존 때문에 반응과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순진하고 겸손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가서 접하는 상황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고, 통찰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파견된 지역사회에서 거절과 반대, 그리고 박해를 예상했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끈기과 인내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반대와 거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호,보존, 주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위의 말씀은 본 받기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우리 주위 어려운 필요들에 대해 우리는 중보기도와 그들을 위해 동정심 있는 반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결과는 돌보실 것입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10:1-33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 특권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6 일

축복

마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2-3)

축복이란 말은 풍요로운 단어입니다. 시편 103:1 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송축할때 쓸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특권, 행복, 호의, 유익의 상태를 한 단어로 축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시편 1:1-2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 말씀에서 축복은 잘 번성하는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노안으로 끝나치게 됩니다. 축복의 증거중 하나는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번성이 찾아 옵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을 합니다.

엠편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팔복에서 나오는 동사의 시제를 보세요. 미래의 복이 아니고 현재의 복입니다. 복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며,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따라 풍성한 축복을 모두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축복을 받을 지 모르겠다거나, 미래에 축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요절: 시편 103, 엠편 1:3-14

기도: 내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모든 은총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가 병원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7 일

예수님과 무리들

마 5:1-2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설교는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거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인 군중들은 어떨까요? 4 장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 갈릴리 지방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셨음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 중에 있는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명성은 퍼져 나갔고, 무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외래병원의 현황을 나열했습니다. 약한사람, 병든 사람, 통증환자(일부 번역은 만성질환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이 병은 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귀신들린 자, 간질환자, 마비환자 입니다. 마태의 질병 분류법은 오늘날 우리가 질병 분류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효과적인 치유사역에 엄청난 수요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진료소에서 물러납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지 않으셨나요. 그럴리 없습니다. 마 6 장 36 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께 들판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받을 수 확 했나요. 가르치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 냄으로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방법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깨어진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마 9:11-13).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의 선포는 말씀과 행함으로 선포됩니다 (눅 24:19).

추가요절: 마 9:35-38

기도: 주님 ! 오늘 진료실에 나갈때, 주님의 동정심을 가지고 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8 일

의를 위해 받는 핍박

마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의롭게 살면 핍박을 받을까요.

예수님 자신은 심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다른 관점의 의로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지도자의 의로움은 불가능하고, 엄격하고, 용서가 없었습니다. 규칙과 통제로 가득차서 자비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이상 좋은 곳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쳤고,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질병과 속박의 불의함이 치유와 구원으로 대치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통치자들과 군인들의 힘과 권력에 도전이 되어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마 21:1-11).

왜 핍박을 당해야 했나요. 하나님 왕국의 힘없는 권세는 통치자들의 권력을 자극하여 그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 권세자들의 공포는 그들을 비난하게 했습니다. 다른 생활방식을 가져와 그들에게 도전하는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왕국의 본질입니다. 매일 하나님 왕국은 권력 구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권력 구조는 시기와 핍박으로 대항합니다. 하나님 왕국은 절대로 권세의 두려움 때문에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기 위해 부당하게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오늘 우리는 병원에서 질병이라는 불의함과 질병을 다루기 위해 설계된 조직 구조의 불의함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의롭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추가요절; 요 18:28~19:16 예수님이 그 시대의 세속적인 권세에 어떻게 담대하게 맞섰는지 보세요.

기도; 주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늘 하루 용감하게 의를 위해 서게 도와주세요. 기쁘게, 예민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만일 내가 그 권위의 위치에 있다면 힘을 정당하게 사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9 일

핍박이 오면 중단하나요?

마 5:11-12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비판이나 핍박을 받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방어입니다. 더 나아가 보복하거나 복수를 피하기도 합니다. 위의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과 듣는 사람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폭력이 증가하는 반복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이것을 끝낼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모든 증오를 태울 번개를 전달해 주는 피뢰침일까요? 피뢰침처럼 그 선을 예수님께 연결하면 증오는 사라지고 새로운 평화의 길이 만들어 지길 원하나요? 더 나아가 점점 더 커지고, 더 나아져 가려는 경쟁의 증가를 그리스도의 생활 방식이 끝낼 수 있을까요? 약한 자의 자리를 더 강한자가 대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크고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세상은 더 크고 강한 군마들을 만듭니다만 예수님은 당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세상은 훈련된 병사들을 점점 더 많이 모집합니다만 예수님은 어부나 세금 징수원들을 모집합니다.

세상 왕은 궁전에 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린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를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반자라는 축복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오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일하는 장소가 평화와 축복의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평화의 사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단없이 영광 받으시도록 해야
겠습니다.

추가요절: 요 15:18-16:4

"사도요한의 예수님의 가르침" 은 핍박에 직면하고 담대해 질 필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 주님, 성령의 평안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내가 폭력과 보복의 압박이
일어나는 것을 멈출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의 창조적인 평화의
방식이 확장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10 일

예수님을 따르는 고난

마 5:11-12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팔복의 뒷부분은 일반적으로 첫번째 것의 뒤에 덧붙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장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의
팔복에서 의로 말미암은 핍박은 비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겪는 개인적 핍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들은 개인적인 핍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써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은 거짓되고 불쾌한 말들과 함께 학대와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적개심은 제자들을 낙망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활력을 줄 것입니다. 그런 적대감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모임과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사회의 불의에 직면해
왔습니다. 현재의 역경은 최후에 받을 상급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ICMDA (세계기독교의사치과의사회) 동료들을 깊이
생각해봅시다. 어떤 분들은 먼곳에 떨어진 지역사회에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으로
파괴를 겪고있는 난민들과 굶주린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에
적대적인 광신자들의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감옥에서 고통받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속적 인간주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그들의 인내에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추가요절: 마 10:5-42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닥쳐올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기도: 주님,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그들의 권력에 위협으로 여기는 사람들로 부터 어떤 반응을 불러올지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11 일

팔복을 재조명하다

마 5:1-12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의 진료 환경을 생각하며 팔복을 하나씩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낙담한 분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어오를 때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받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같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로움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자비없는 의는 없고, 정의, 자비, 마음의 청결함 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상처받은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만 평화가 찾아 옵니다. 이 모든 과정중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가 세워질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평화를 이루셨으므로 의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 나라, 하나님 왕국이 임할 것입니다.

추가요절: 산상수훈을 고찰해 보세요. 마 4:23 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소부터 찾아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진료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요?

기도: 주님, 절망한 자들에게 제가 희망을 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가게 하소서. 항상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12 일

팔복

마 5:1-2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쁜중에,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장소에서 잠시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축복이 군중들에게 있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팔복을 세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네가지 없는것, 3 가지 있는것, 두가지 일어난 사건입니다.

천국의 축복은 심령이 가난한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은 긍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일반적인 핍박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더 특별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산위의 빛이고 그들의 선한 행동이 명백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무리를 바라보세요.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릅니다. 그들이 온유하다면 천국의 유익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고, 제자로서 자비로운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의를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십시오. 달라지십시오.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진료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의와 긍휼을 전하는 자인가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강하고, 기뻐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눠주러 가세요.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추가요절: 팔복을 좀더 넓게 바라보세요. 마태복음 4 장 23 절 처럼 예수님의 치유사역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16 절 처럼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에 도전하십시오.

기도: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애통하는자들을 위로하고, 의와 자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13 일

본이 되어 가르치기

빌 4: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밝고 젊은 여자 레지던트 의사가 펠로우쉽 프로그램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내방에 나타났습니다. 함께 환자를 몇명 치료한 후 "왜 종양학을 택했나요?" 라고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 처럼 그의 가족중에 질병의 훌륭한 치유 경험을 이야기 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1년차 일때 암으로 죽어가던 환자분이 응급실에 실려와서 호출을 받고 갔습니다. 그때 이 병원의 스텝 에릭이란 의사가 응급실에 와서 그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분은 환자 옆에 앉아서 대화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치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두시간 동안 옆에 머물러 앉아서 위로해주고 그분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죽었습니다. 에릭의사의 환자에 대한 동정심과 그것이 환자의 남은 몇시간 가져다 준 평안을 보면 나는 종양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성격은 교육으로 배우는게 아니고 내가 발견해 잡는 것입니다.

내 옆에서 걸어온, 주위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의사가 된 것은 내가 과학을 좋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가끔 병실 회진돌때 나를 데리고 가곤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병실 환자 방문 위해 간호사실에 나를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즐겁게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그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과 지급된 돈을 되돌려 주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정직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머리를 곧추 세우고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어려운 역경을 만나도 인내심을 가지고 버팁니다. 우리가 위대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우리의 가장 높은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나, 에릭 리델, 윌리엄 윌버포스, 디트리히 본헤퍼 같은 분의 이야기에서 그 감동을 흡수하다 보면, 그 방향으로 우리 인격이 자라고 커집니다.

추가요절: 빌 4:8

기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 뜨게 하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연민과 순수함을 보게 하소서.

성령님의 섭리하심이 내 인품을 연단하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내게 보여지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14 일

지도력은 영향력입니다

출 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된 포로생활에서 풀어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 진을 쳤습니다. 잔인한 노예생활이 점점 극에 달했을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 해방시키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노예들의 노동력을 잃어 버렸다는 것을 인식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와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심하게 원망하였고 자기들을 내버려두어서 그들은 이 사막에서 죽느니 돌아가 바로를 섬길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야할 곳에 가기 원치 않았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책 "21 가지 반박할 수 없는 지도력의 원리에서 지도력의 진정한 척도는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고 오로지 영향력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 자신은 뒤로 돌아가는 것보다 앞길이 좋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가지 않고 앞으로 나가게 할 확신을 심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기 원하는 곳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곳으로 가도록 설득해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의 부인, 로잘린 카터는 말하기를 "평범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원하는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만 할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영향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 전문가이자 지도자로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종던 싫든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과 일치하고,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의 유익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야할 길로 더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어 그들을 더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출 20:28

기도: 주님, 내 삶 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돌보는 환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해 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16 일

섬기는 지도력

눅 22:26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수련의 면접을 볼때 내게 물어보는 많은 질문중에서 여전히 기억에 남는 한가지는 "당신의 지도력 중에 특별히 다른 것이 있나요"라는 것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 이미 상임 전문 수련의 이지만 아직도 좋은 지도력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뛰어난 기독교 지도력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참 수련의에서 상임 전문 수련의로의 전환은 가파르고 훨씬 더 많은 책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후배 의사 팀의 복지,사기, 교육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떻게 내가 가장 잘 격려하고 잘 조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GMC 에서 나온 좋은 의료 실무 가이드북에서도 찾지 못한 답변입니다.

나는 내안에 뛰어나고 차별된 지도력의 모델을 가지려고 스스로 노력해 왔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여주신 '섬기는 중' 의 리더쉽 모델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통적이고 계급적인 의학의 모델과는 매우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오늘날 성경은 기독교의 지도력을 겸손에서 시작한다고 상기시켜 줍니다. 겸손한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 것보다 우선시하며 그들이 속한 팀의 최선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후배 의사에게 흥미로운 환자 케이스를 발표할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겸손한 지도자는 병실이 성공적으로 하루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팀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잘했어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겸손한 지도자는 그들이 이끄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의 사랑을 보면서 그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당신 팀원들 각 사람 사람마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은 사랑한다는 멋진 표현입니다.

추가요절 :스가랴서:4:6

기도: 섬기는 지도자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17 일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미 6: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당신의 일기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하루종일 어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할건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을 남들과 함께 일할 겁니다. 그들은 환자들, 의료 및 간호 동료들, 그리고 기타 임상 및, 비임상 직원들 입니다. 아마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도전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공평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옹호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너무나 공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체이면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8).

이로서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한 하나님은 자비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른 사람이랑 만날때 우리의 판단과 평가를 공정하게 합시다. 그러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 정의를 부드럽게할 큰 마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화가나 있는 환자나, 성적이 나쁜 동료이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해오는 사람들을 상대할때도 그렇게 합시다. 무엇보다도 힘든 일은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따라 주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감사함을 통해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야고보서 2:12-13

기도: 주님, 당신처럼 우리도 정의를 자비로 누그러 뜨리도록 도와 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18 일

하나님이 택하신자

골 3:12-13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 불리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보다 더 나은 추천장을 우리가 바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대신 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도인 우리에게 모든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대로 좋은 성품을 덧입어야 합니다. 매일 옷을 입듯이 매일 좋은 성품을 덧입으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흰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좋은 성품의 옷을 입도록 초청받았습니다. 그 옷은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인내 입니다. 밖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모두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마도 우리와 견해가 같은 환자에게 자비롭고 친절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치료에 불만을 품고있는 환자들에게는 어떤가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환자나 동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우리를 그토록 파괴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올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평생 동안 지은 모든 내 죄를 용서해 오셨고, 사랑해 오셨음을 나는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도 역시 내 동료직원과 환자들에게 전달해 줄 것이 많습니다.-동정심과 인내와 역사입니다.

추가요절; 베드로전서 3:8

기도: 주님, 오늘 만나는 환자들, 동료들, 그리고 학생들을 만날때 마다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19 일

직장에 대한 기대

창 2:15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조용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일하는 근무장소를 꿈꾸어 본 적이 있나요. 분쟁과 갈등이 없는 직장이 있을까요. 내 대답은 "예"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러 가서 일상적인 도전을 겪게되면 ,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느낍니다. 새 직장은 현재보다 좀더 좋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기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반대편 산에는 더 푸른 풀이 있다" 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입니다.

나는 메마른 땅에 강이 흐르고 ,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할 것이라는(이사야 41:18)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이미지와 형상이 우리안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직장,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중심의 직장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성결하고, 주님께 구별되어 드러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거나,

우릴 위해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일을 해야합니다

추가요절:요한복음 15:1-20

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직장을 만들게 도와주세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20 일

격려하기

골 4:17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바울서신의 이번 장은 아킵보 형제에 대한 격려로 끝납니다.그러나 내 관심은 이 소식을 아킵보에게 전달하는 한 이름없는 형제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킵보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그 형제의 역할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그들 주위에 있는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의 진보에 관심을 기울일 때만 완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셉에게 양떼를 치던 형들의 위치를 알려준 낫선 사람입니다. 그 조언이 없었다면 요셉은 길을 잃어버렸거나 형들을 찾아 헤매느라 더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 겁니다. 이와같이, 우리는 우리중 약한 사람들이 신앙생활과, 개인적인 추구에서 목적없이 헤매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격려속에서 방향과 충고를 받을 수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역할이 칭사받기를 구하지 말고, 언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에 남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백 그라운드에서 일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호소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그 여자를 데려오라 심부름 했던 그 사람은 공식적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과 가까운 사람 중에 아무도 그에게 충언을 해줄 수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 일을 맡아서 다윗에게 그가 행한 악한 행위를 꾸짖었습니다. 우리를 늘 점점해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하기 전에, 미리 진리에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알아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간호사들, 수련의들, 인턴들, 간호보조원들, 청소원들, 등 --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이는 우리의 일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요절:히브리서 10:24-25

기도: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격려의 원천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1mon21-31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월 21일

마음이 청결한 자

마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는 단순히 감정의 중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품, 정서, 지적 행동, 의지, 이 모두의 중심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말은 이기심에 휘말리거나,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틴데일, 마태복음 주석).

세금징수원 마태는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정복자 로마를 섬기려고 했었고, 그의 민족 유대인과의도 함께 살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그는 단순한 나사렛의 목수가 아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도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단지 말썽꾸러기 선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적인 권위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실제로 누구인지 몰랐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서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후 4:2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

추가요절:요한복음 9 장--소경으로 태어난 자 . 그가 어떻게 진리를 알기 시작했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안다고 외치지만 사실은 그들의 죄안에 남아있습니다.

기도: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진리를 보게 하셔서, 나 자신의 소경된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청결한 마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소서. 숨어있는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길을 충성되게 말하고,행하고, 살게 도와주세요. 두가지 마음을 품지않고, 당신만 전심을 다해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22 일

빛과 소금

마 5:13 -15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직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중에도 모인 우리들을 돌보고, 평강으로 이끌며, 정의, 평화, 자비를 위해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염려에 대해 , 우리속에 섞여있는 세상 욕심에 대해 , 또 세상을 닮아가거나 타협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극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지, 맛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그 독특한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습니다. 등불이 바구니 밑에 감추어져 있다면 그 역할을 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먹게 하셨습니다. 위선과 맞서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평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평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11). 여기서 선한 일은 병고치고,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선한 일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위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료사역을 하는 우리의 동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료현장에서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평강을 구하고, 선한 일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별됨을 나타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요절: 주님은 험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5-42)

기도: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당신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23 일

서로 용납하라

롬 15: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트란스케이에 머무는 동안 회심의 체험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도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이 회심의 통해 내 조국 인도 타밀라두로 인도하셨습니다. 6년간 기독병원에서 의사로 봉직후 주님의 인도로 마지못해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우고 믿고 예배하고 실천해왔지만 아직 내 마음에는 청소할 부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생각안에는 아직 거미줄처럼 혼란과 바로 잡아야할 가치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 의료사역을 통해서 자주 나를 연단시키셨습니다.

한번은 몸이 불구인 아이 집으로 왕진와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 소년은 14 세이고 나이보다 컸습니다. 그 소년은 개구리 자세로 바닥 매트에 드러누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다른 기능은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은 소년 주위에 모여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상기도 감염이 있어서 나는 가족에게 약을 복용하면 건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전 가족이 나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왕진와 준것과 약을 복용하면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소년의 형제중 한명이 감정이 격해져서 내게 말했습니다. 만일 동생이 잘못되면 온가족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주님께서 내게 인간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왕진와서 보게 하셨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혼란된 가치관으로는 이 불구 소년이 차라리 죽는다면.

은 가족의 짐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족은 그 소년을 무의식중에 전부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집 방문을 마치면서 더 나은 기독의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만일 누구를 도와주려면 먼저 서로를 무의식적으로 전부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추가요절: 시편 8 편 4-5

기도: 주님, 주님이 창조하신 각 사람들의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나도 그들을 당신의 자녀들로 여겨 대하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24 일

평강을 전하는자 되기

마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내가 망쳐버린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몰랐습니다. 심사숙고해보니 몇주전 비슷한 사고에 대한 분노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동료직원 사이에서 내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내 화를 적절히 다스리지 못했습니다(에베소서 4:26). 내 분노를 안으로 흡수하고, 충동을 피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역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한분을 다음날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를 의뢰했던 경험많은 전문 간호사가 즉시 전화해서 당일 입원이 필요한 이유를 논의하고 싶어했습니다. 무뚝뚝하게, 거만하게, 그 팀의 의뢰가 부당한 점을 끌어내서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놀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한 행동에 대해 불편한 마음의 무게가 나를 눌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그에게 주지도 않았고, 그에게 존중하는 태도로 말하지도 않았습니. 그날이 지나기 전에 그분에게 전화하고 사과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날밤 그분이 내게 전화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잘못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분은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고 싶어했고 우리의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시키고 싶어했습니다. 즉시 나는 즉시 겸손하게 전적으로 사과하고 그분이 뛰어난 간호사와 동료라고 높여 주었습니다. 사과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의 요인이 양쪽에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나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라고 정당화하고 변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과는 겸손이 필요하고, 회복하고 복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당화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하고 싶은 말보다 사과는 상대방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적이건 직업적이건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신실한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5:5).

추가요절 : 마태복음 5:23-24

기도: 주님, 내 잘못을 깨닫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겸손함과 정직함을 주소서 !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25 일

소금

마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행동보다 정체성에 대해 말하셨습니다. 소금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생명을 보존하고, 신선함을 가져다 줍니다. 용해되면 보이지는 않지만, 역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사랑과 인품의 여러가지 맛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상황속에서 소망, 사랑, 기쁨을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직장과 사회에서 건강한 관계를 보존하고, 타락한 말과 행동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화려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 필요는 없습니다. 안보인다고 소금의 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창조주와 물처럼 녹아 하나되는 친밀한 삶을 통해 보이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식을 나눠주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염화나트륨 분자 한개만 있어도 소금의 독특한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안다면 왜 예수님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소금이 돌조각과 함께 혼합되어 있는 채로 팔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혼합된 소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금맛이 없는 돌조각들은 더이상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 우리의 하는 일에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가 임해 있도록 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대로, 즉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온세계를 여행하면서 나는 많은 의료기관들의 커피룸이나 쉬는 방을 방문하면서 비슷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방들은 자신들이 속한 기관에 대한 험담이나, 부정적인 농담들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있음으로서 긍정적인 대답과 농담과 또는 그냥 향긋한 커피를 건넌으로서 이 땅의 향기를 바꿀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빌립보서 4:8-9

기도: 주님, 제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써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26 일

등불

마 5: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그 자체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 자체가 가장 깊은 뜻의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시편 119 편 105 절에서 빛의 기능들을 말해 줍니다. 그기능들은 우선 안내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와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자유케 합니다. 어둠을 물리쳐서 두려움과 걱정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빛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빛은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빛은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적군은 언제나 빛이 비추어 보이는 곳을 목표로 공격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빛으로 살면 ,자주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오직 예수님의 힘과 사랑,보호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매일 하는 일에서, 또는 기본적인 윤리 원칙면에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이 세계의 어떤 곳에서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핍박을 받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비추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16"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본분을 인식한다면 빛을 비추기위해 높은 위치를 구하는게 우리 일이 되서는 안됩니다. 의료사역 분야에서 우리의 빛이 더 잘 비추이게 하려고 더 높은 계급의 계단을 올라가려는 목표를 가지려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 반대로, 단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여서 비추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세밀하게 선택하셔서 각자에게 꼭 맞는 등잔대 위에 우리를 올려 놓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추가요절:요한 1 서 1:5-9

기도: 우리의 마음과 또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27 일

우리 주위에 있는 므비보셋을 돌보기----분에 넘치게 도와주기

삼하 9:8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른 직업보다 기독의사들의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매일 같이 다른 배경과 계급, 문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 그들은 모두 건강과, 의료 지식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들은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최소한 기본적인 예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1-13 에는 므비보셋에게 분에 넘치는 긍휼이 기록된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전에 다윗은 므비보셋을 알지도 못했고 만나본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리를 저는지도 몰랐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긍휼은 친밀함 때문이 아니고 ,므비보셋이 그럴 가치가 있거나 그만큼 일을 한 댓가도 아닙니다. 다윗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불러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자비는 므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과 다윗간의 언약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증거할 큰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먼곳에서, 가장 가난한사람, 부자, 매우 아픈사람, 절망감,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긍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긍휼은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깊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빛을 값는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표현된 긍휼은 우리의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영원한 삶으로 새롭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긍휼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그럴만한 가치와 요구가 없을 지라도 환자들과 사람들에게 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추가요절:사무엘하 9:1-13, 사무엘 20:14-17, 42, 사무엘 16:2-4, 19:17,26,29

기도: 주님 모든 이들을 긍휼로 대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비판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 DA
1 월 28 일

나의 간증

나는 의사 에릭 니눔보나 입니다. 부룬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의학을 전공하기 시작할 즈음에 나는 주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3 학년때 하나님이 나를 의학을 전공하게 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료분야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훈련받던 병원에서 학생들과 환자들에게 신앙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다른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부룬디 기독교 의료인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400-500 명의 의사, 간호사, 학생, 심리상담사, 기사, 약사등이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6 번째 모임이 이번

4 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공부가 끝나면 선교병원에 가서 매년 1 년에 2 달씩 봉사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2016 년 12 월 8 일부터 시골마을 무람부아 언덕에 세워진 선교병원에 가서 약속대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내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두달이 아니라 1 년을 일했습니다. 봉사가 끝난후 그 선교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해달라고 내게 요청했습니다. 나는 2018 년 1 월부터 일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까지 615 명의 환자들과 환자의 보호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90%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보 취급을 합니다.

나는 내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고, 성령께서 부흥시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거나,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카톨릭교회가 방해했지만 이미 그 끼친 영향력이 커서 헛수고였습니다

2017 년 9 월 하나님께서 그 부흥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매주일 마다 백명이상 모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28:18-20

기도: 당신이 선택하신 곳에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29 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일

민 4:19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멜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맡아서 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각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록 주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 일이 크던 작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도록 원하시는가 하는 것과 이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맡은 일이 크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일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우울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감당하기 힘들때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이고, 그분이 도와 주실것을 기억한다면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할 때, 그분의 짐은 쉽고, 가볍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1:29-30).

주님을 찬양합니다.

추가요절: 고린도전서 1:26-31

기도: 하나님, 할 일과 시도해 볼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 맡겨진 일들을 행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월 30일

하나님 사랑으로의 초청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 여기 저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어지러울 만큼 정렬된 단어들, 형상들, 표현들, 예화들, 서술들이 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의 명확한 서술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그것은 자기희생, 헌신, 다른사람 중심, 자아포기,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갈보리에서 외아들이 고통당하시고 우릴 위해 죽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집니다.

사랑의 동의어를 들어 보세요. 친절, 긍휼, 섬세한 자비로움, 절대적인 충성, 영광스러운 은혜 등 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엄마가 아기를 잊지 못하듯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누가복음 15 장에는 잃어버린 것과 사랑에 대해 비길데없는 세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열심히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양을 들에서 찾아 집으로 오는 이야기, 집 나간 아들을 다시 껴안고 맞아들이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광스러운 사랑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 십자가에서 비추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빛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내가 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내가 고난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것은 내가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신령한 가족과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의 사랑의 띠 안에서 사귀도록 초청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분이 비추는 사랑의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도록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이웃과 세계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추가요절: 요한 1 서 3:1-3

기도: 주님,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 월 31 일

당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세요

벧전 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 아내와 나는 크리스마스때 선물을 주고 받는 특별한 행사를 갖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시기에 단순하고 값싼 선물을 포장해서 서로에게 선물하기를 실행했습니다. 장식용 소나무 밑에 깔끔하게 포장된 선물을 두었다가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이름을 불러 선물을 나누고 열어보았습니다. 가족 모두 한사람이 가족 전체에게 한개 이상씩 포장을 했기 때문에 각 사람은 언제나 여러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대학교 가기전 어린 아이들에게서 받은 선물중 가장 기억에 남을만한 선물을 4학년인 둘째 아들로 부터 받았습니다. 여러 겹의 종이와 테이프에 싸여있는 것은 동전 네개, 1 달러의 가치였습니다. 그 돈은 그 아이의 1 주일 쓰도록 허용된 액수였습니다. 그 아이는 선물을 살 시간과 돈이 부족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선물이 맘에 드냐고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물론 " 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각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들을 후하게 주셨습니다. 생명, 예수님을 통한 구원, 지성, 교육, 친구들, 좋은 경험들 등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특별한 재능을 받았습니다. 음악, 목소리, 예술, 글쓰기, 언어의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밖에도 즐겁고 환한 웃음으로 우리의 집이나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단순한 재능,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재능, 모임을 기획하거나, 말로 이끄는 재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친구들한테 받는 선물은 잘 보존하고, 받는 사람이 즐기면 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재능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만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추가요절: 에베소서 4:7-13

기도: 주님,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내게 주신 은사들을 매일 사용함으로써 당신의 은혜가 증가하게 하소서. 이 은사들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을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mon1-1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일

모세의 빛난 얼굴

출 34:29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범죄과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는 에드워드 루카스의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그 얼굴이 빛났습니다. 빛이 나는 피부를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히브리어의 본뜻은 광선을 내보낸다는 개념입니다.

라틴어 성경은 이 점에서 번역의 오류가 있어서 "광선을 내보내는" 말을 "뿔이 돋았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예술에서는, 예를들어,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의 동상" 에는 (로마, 빈콜리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이마에 뿔이 돋아 있는 모세를 만들었습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현상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18 절은 놀랍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빛을 신약의 그리스도의 뛰어난 영광(10 절)과 비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때 베일을 벗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는 우리 마음의 베일을 벗기십니다. 닫혀진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의 베일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주시할 수 있다는(고린도후서 3:18) 것은 신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육체적인 또 다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또 다른 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 장 8 절에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사도행전 17:26-27

기도: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세요. 당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 월 2 일

기쁨수 없을때

요 15:9-11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은 틀림없이 성도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쁘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업무가 지나치게 많을때, 그리고 시험날짜가 곧 닥쳐올 때, 개인적인 비극에 부딪혔을때, " 항상 주안에서 기뻐하라" 는 (빌립보서 4:4) 사도바울의 교훈은 공허한 울림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그리고 스페인으로의 선교여행의 계획이 연기되었을때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교회의 성도간의 분쟁이 있다는것을 듣고나서 즉시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외부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일이 잘못되고 있는데 가장 잘되고 있는척 속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우리 주위에 무슨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부터 생겨납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 영성을 일으켜 줍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안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의 명령을 지킴으로서 이루어 진다고 예수님은 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2). 우리 자신의 환경에 집착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원해 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볼 때 기쁨은 찾아 옵니다

추가요절: 시편 65

기도 :

고통 중에도 나를 찾아오는 기쁨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 바라보기를 쉴 수 없습니다.

비 속에서 무지개를 찾아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엔 눈물이 없을거라는 약속이 헛되지 않음을 느낍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3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갈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원하나요. 우리 세대에는 소셜미디어가 발달해서 어릴때부터, 그리고 예전의 생활때 부터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거나 또는 다시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의 칭찬이 더 큰 압력이 될거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들과 비교하면서 칭찬받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소망을 가져서도 안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후 6:14 -16 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우리 주위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한가지 절대진리는 없다고 하며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말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12)에서 "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33 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격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때문에 배척받거나 조롱당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혹은 방심해서 이런일이 우리에게 닥치거나 빠져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를 섬길때 우리가 비난과 핍박을 겪게될 것이라고 성경에 충분히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 장,12 장에는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추가요절: 사무엘상 15:24-26

기도: 주님,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4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시 103:7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공정한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안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마음에 이것을 이해하려는 욕구가 있어서 여러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동방의 현자들은 고행을 했고, 산에 올라가거나, 바다끝까지 건너갔습니다. 지금 시대의 현자들은 공허한 영혼을 위해 바다 깊이,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끝 모서리 땅의 보잘것 없는 목자이지만 성경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더 많이 알아가도록 계시해 주십니다.

노예신분에서 자유를 위해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뒤쫓아오는 원수들을 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였고, 썩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시는 일과 그의 법도를 모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의사로서 여러분들은 많은 환자들과 그에 따른 일들을 처리하느라 혼잡하게 일합니다. 또 자신만의 어려움들과 부족한 점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삶과 환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마치 자식을 그 아버지가 돌보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은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13).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법도를 가르쳐 주실겁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지혜입니다 (잠언 9:10).

우리들과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 모두에게 삶을 변화시킬 결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직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결단을 위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추가요절: 로마서 12:2

기도: 주님, 모세에게 베푸신 것처럼,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해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5일

란단단두

"하나님 사랑으로 "이라는 암하리어 말

행 2:11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성령님은 언어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인간의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에티오피아에서 그분은 공용어인 암하리어를 하십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는 선교사 가정으로서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습니다. 미래의 우리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기본적인 소통을 위한 3개월간의 언어학교에 다녔습니다. 그것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결과 작은 대화를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매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내 모국어가 아닌 특별한 언어를 말하게 주셨고 이때는 누구와 다투거나, 자리를 잡으려고 애쓸때 였습니다. 두가지 그런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있는 병원에서 날마다 함께 경건의 시간할 동안 나는 조금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암하리어의 단어들, 구절들, 문장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에티오피아 사람이"란단단두"라는 말을 누구에게나, 혼자인 사람에게 자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말은 내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말이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 시골마을 보내졌을까요 라든가, 왜 우리가족은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한 남자, 한 여자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그들의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소식을 듣기원하십니다. .란단단두 (암하리어)

내 사랑하는 장인이 한번은 영어강좌를 들은 후에 손녀에게 영어로 편지를 썼습니다. 내 장인과 그의 가족 모두는 덴마크어를 잘 합니다. 그러나 장인은 "내가 영어로 내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서 영어로 편지를 썼단다 "라고 하며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썼는데, 그것은 그들이 절대 맞지 못할 편지였습니다. 편지 마지막 인사가 "사랑하는 morfar 로부터 (덴마크어로 할아버지), 라고 쓰였기 때문입니다

추가요절:사도행전 2:11, 누가복음 15:1-10

기도: 하나님 당신 자녀 모두에게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절망가운데 살고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소식을 나눌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6일

그분의 사랑에 만족하기

사 43:4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는 의과대학에서 만난지 25년만에 모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서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더 흰머리가 나고, 중년이 되어 살이 찼습니다. 재상봉 모임이 한창 진행중 일때 한사람씩 일어서서 그들의 삶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 내 친구 쿠마르를 여기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학생때 내 시험 답안지를 복사해서 통과하곤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를 보세요, 지금 그는 이식외과의사가 됐고 나는 그저 미생물학자가 됐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 반은 농담이지만 반은 악의가 숨겨진 저의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경력에 민감한 사람들 입니다. 더 멋있는 전공자나, 우리분야에서 좀더 높은 계층에 올라선 사람을 시기질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잊어버리거나 , 즐거워하고 생산적이 되기를 잊어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잊어버립니다. 그 미생물 학자의 예를 들어 봅시다. 수술하는 자리는 언제나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 아주 잘된 수술이라도 패혈증으로 당황해 할때가 있고 절대적으로 미생물학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위험은 우리의 주체성이 전문의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에 우리의 목표와, 성공과, 가치와, 중요성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 않고 변치않는 반석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중요성이 달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한 경쟁으로 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좇아 따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일이든지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

즉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만족을 느끼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일이건 충실해야 합니다.

추가요절:마가복음 9:33-37

기도: 주님 제 인생과, 제 직장의 자리에서 제게 향한 당신의 목적을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신실하도록 부르신 것을 저는 압니다. 제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7

서로사랑하라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후 그를 배반할 가롯유다에게" 네 할일을 속히 행하라" 말씀하시며 유다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27).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전에도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 5-12). 예수님은 유다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하신 일만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선구자이십니다. 우리는 심지어 죽기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5 절에서 " 이로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인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12,13). 우리 주위에 이런 것을 볼때도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 1 서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추가요절: 요한 1 서 3:18,19 요한 2 서 2:3-11

기도: 우리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 눈속에 사랑이 있기를 빕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나라에 퍼지기를 빕니다.

우리가 일어설 수있게 도와주세요.

실제로 형제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나눔이 있게 하소서.

사랑이 있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8

우리의 가장 우선 순위----사랑

요 21:15 -16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많이 있으며, 합법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 가족, 개인적인 필요한 것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 것들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이 것들 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우리의 직업, 소망들, 출세와 비교해서 그 모든 것들 보다 나를 더 원하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면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좀 더 구체적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의 뜻은 내가 요구하면 네가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스스로 독립하게 되면, 나를 향한 네 사랑이 얼마나 깊을까를 묻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댓가로 주어지는 것이 없이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도, 그럼에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19:16-30

기도: 모든 것보다 당신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9

절대 포기하기 말라

빌 3: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이지리아, 즉 우리나라는 수련의 과정이 6년입니다. 3년은 초급과정이고, 3년은 상급과정입니다. 그러나 나는 수련의 과정을 11년이나 소비했습니다. 초급 과정 6년에다가, 상급 과정 5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어진 시간에 예정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여러해 동안 반복해서 시험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는 너무나 힘든 기간이었으며, 한때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과 그의 백성(교회)을 멀리 떠나온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걸사람은 상처받아 후퇴하나 내 속사람의 의지와 열정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16).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은 내가 의지하는 말씀이며, 몇가지 성경 말씀도 내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내 간증은 이렇습니다. 나는 구강 악안면 외과 의사이며, 서부 아프리카 대학 외과 교수이며, 유럽 두경부 악안면 외과학회 회원 등입니다.

여러분이 실패, 거부, 고난, 불운, 집안의 재앙, 은행 파산, 장애물,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쇠약해지거나, 또는 죽음에 직면 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온 마음을 바쳐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잠언 3:5, 히브리서 13:5).

사도바울의 이 말씀을 반복하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 1:12).

추가요절: 예레미야 29:11, 로마서 5:3-5, 이사야 43:18-19, 에베소서 3:20

기도: 주님, 모든 상황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합력해서 모두 선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0

주는 것과 받는 것

요 17: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대신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잘 성장시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삶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훈계, 교정, 징계, 교육시키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위해, 우리의 삶에 보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격려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셔서 인도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도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다로운 부모님들을 주셔서 우리의 최선의 노력도 허사가 되어,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게, 우리의 지식과 기술을 자랑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 하십니다.

지나온 시간을 뒤돌아 보면, 위대하신 직공이신 주님은 우리 인생 곳곳에 여러가지 점들을 놓아두었고, 이 점들을 이어보면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가도록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 진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을 주님을 경배할 이유를 한없이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건들, 상황들, 사람들, 경험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우리는 진심어린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기쁘게 그들을 맞을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측은하게 보이는 아픈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시다. 그분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그 자리에 와있습시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선물입니다.

추가요절:요한복음 17 장

기도: 주님 제게 선물로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2mon11-2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1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을 연구하기 쉽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몰두할 시간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인생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젊은 의사 시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묵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성경의 작은 부분들, 한두 구절을 깊이 파서, 정확한 뜻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짧은 본문을 읽고, 차안에서, 혹은 당신의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찬송가를 배우는 것도 똑같이 도움이 됩니다. 시편기자가 복 있는자는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지만, 조용한 방에 하루 종일 아무일도 안하고 성경을 펴놓고 앉아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기를 선택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보다 더 낫습니다. 히 4:12 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심령이 새로와지게 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12:2).

만일 성경을 읽기 위해 애쓰려면, 오늘 말씀 한두절을 외워 내것으로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추가요절: 시편 119:57-60

기도: 당신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할때 지혜와 총명이 자라게 도와 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2일

자비의 컵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비함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약하게 들리나요? 구체성이 없나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선함, 점잖음, 인자함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자주 이 자비란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인 의사인 우리는 자비를 보여줄 훌륭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 중심이거나 환자의 의학적인 필요성, 수행해야 될 업무들, 회진 돌때의 명단들, 오후 회의 주제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때로 시간을 내서 우리의 치료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비함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각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 형상의 가치와 위엄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자비를 베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쳐있거나, 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도 항상 자비를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 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요절: 미가 6:8

기도: 주님, 자비를 행함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만을 섬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 월 13 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 136: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 차의료기관에서 수련의로 있을때, 약하고, 병든 아이가 엄마뒤에서 휠체어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 아이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희귀한 소아 폐암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엄마는 하루 벌어 먹는 노동자였고, 아빠는 지방버스 정류장의 짐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가 짐이 될 것 같은 환경에서도 이 부모는 죽어가는 아이에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가장 좋은 간호를 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화학치료와 방사선치료가 계속 되면서, 아이는 더 허약해지고 있었지만 명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퇴원하게 되었고, 나는 그 여아의 집을 방문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아이의 마을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 아이가 미리 말해준 이정표를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 아이의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방문하러 왔다는 소식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었나 봅니다. 아이는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나의 의사선생님이 내게 왔다! 나의 의사선생님이 내게 왔다!" 며 그 동네 모든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병은 아이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아이의 집에 오는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집은 벗집 지붕에 방바닥은 소 똥으로 깔아 놓은 작은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이 작은 오두막 집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함께 점심을 먹자고

즐랐습니다. 팔이 조금 들어 있는 쌀죽이었지만 사랑이 넘치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부와 재물로도 이 기쁨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후 그 아이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디서 살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장막이 어디가 파괴되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추가요절: 에베소서 2:4-5

기도: 주님, 무조건적인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하고, 찬성하는 분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4

다 끝날때까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 90: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완화치료를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삶의 진리에 친숙하게 됩니다. 임종을 맞는 침대에서는 경력 부족이나, 기업체의 계층적 서열 부족, 재산 낭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적었던 것들을 주로 이야기 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성공한 많은 이력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만족감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환자에 대한 의료기술적으로 충분한 진단과 관리가 중요합니다만, 환자와 좀더 깊이 공감하고, 말을 더 들어주며,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을까요. 미카엘 스미스는 노래가사에서 " 다 끝나기 전에는 사랑이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가지고 환자를 만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일하는 사람만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서, 가능한 빨리 말은 케이스를 끝내 버리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 하루는 우리가 벌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아낌없이 사용합시다.

추가요절: 갈라디아 6:9-10

기도: 주님 내가 가진 시간을 관대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특히 통증과 절망중에 있는 이들에게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5일

온전함

잠 20:7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함이란 말은 그 뜻의 정의된 것보다 더 쉽게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중받는 성품입니다. 온전함은 도덕적으로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성품의 선택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모든 숫자를 뜻하는 interger란 말처럼 모든 성품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의학과 수술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의사들에게 온전함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삶의 영적인 요소는 강조하지만, 도덕적인 성품의 근본 기초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은 강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온전함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이유는 크신 지혜와 은혜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의 모든 변화하는 환경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다 남들이 검사하고, 평가합니다. 온전함을 유지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곳을 찾아 그 이유를 알아 보려하고, 우리 자신 안의 문제를 고치려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일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과 인간 관계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포기하기 또는 일어나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일어나세요.

사소하고 미미한 일들을 끝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중입니다

추가요절: 시편 1편

기도: "나는 정직하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청결하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료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해지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감하렵니다.

왜냐하면 도전해 보아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6

증인

마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두가지 종류의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 하는 증인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보완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열정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같습니다 . 또 다른 사람들은 말과 행함을 비교한후 , 두번째 좋은 것을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말보다 행함이 더 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 당신의 인생이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서 당신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던지 없던지,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고후 3:18)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세요 .

존 테일러는 요한복음 1: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를 인용하여 현재의 시몬과 장차 변할 베드로를 비교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성향의 말도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전도 열정의 대부분은 말로하는 전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일로 표현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 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추가요절:마태복음 5:13-16

기도 : 주님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7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마 6: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개발 도상국의 교도소 방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전략적인 구절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감옥은 수용자들에게 악명높은 취급을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식량, 위생, 주거지 부족으로 수용자중 일주일 마다 두세명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 추운 겨울 간수들이 수용자들을 운동장에 집합시킨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마치 2차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캠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환경이 전혀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신, 근처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음식 봉사하고, 질병들을 치료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은 우리의 삶의 첫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보다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프고 허약할때 예수님은 먹이시고 고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기도문 말씀에 명시된대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동반되어 합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의 곤경을 보고난 후 우리의 반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식량 공급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을 설득해서 많은 수감자들을 풀어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사람들의 고난을 위해 우리는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을 진정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25:31-40

기도: 주님,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8일

하나님의 뜻을 매일 구하기

시 25: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중 하나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간절한 소망과, 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결정은 도덕적으로 중립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확실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십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개인적인 취향, 문화적 편향, 사회적 관습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이성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윤리적 결정을 내릴때 고려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온전함--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중함--존재하지만 종종 가려져 있거나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각의식--옳고 그른 것을 알려주는 내적인 기능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소망이나, 개인적인 부분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내면적인 자아입니다. 자각의식이 잘못되면 우리를 잘못 인도함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잘 깨어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중함--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혜입니다.

직관--분석이나, 어떤 노력없이 지식을 펼쳐 나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경험 축적돼 섬세한 발전을 노력한다면, 하루하루, 그리고 일주일을 통해서 나한테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추가요절: 호세아 14:9

기도: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진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9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 46: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의료인들은 빨리 걷는 습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복도에서 사람을 만나면, 빠르게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속도, 효율성, 생산성을 좋아합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빨리 걷고, 빨리 말하고, 빨리 결정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이렇게 살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단어 전체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내 인간관계는 좁아졌습니다. 내 들어주는 능력이 떨어졌고, 내 반응이 비적절해져 갔습니다. 몸의 움직임의 속도가 마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있도록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그 다음 한 주 할 일을 위해 우리 하던 일을 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강조해서 주일은 아무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던 일을 중지하고, 잠잠하라 하십니다. 불필요한 모든 활동을 정지하십시오. 주일날에는 생산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식의 쉼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차별없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들 중간에, 수술들 중간에, 환자치료들 중간에 우리는 잠깐씩 쉬고, 또 침묵할 수 있습니다. 분주한 와중의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을 초대하고 우리가 서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산만해졌을 때 이 정지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서로 하나되도록 해주셔서 전인적으로 주님앞에 설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스바냐 3:17

기도: 주님, 저 자신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분주한 제 영혼에 안식주셔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0일

담대함

행 4:29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임상병리강의를 위한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2학년 갓 올라온 의대학생들이 모여 폐암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폐 전문의사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200명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다가오는 시험 기준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 어떻게 학생들이 준비하도록 그가 도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일 나의 위대하신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이 공부 돕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할 것입니다." 그 의사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 위대하신 선생님이란 예수님이라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나는 학문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분의 담대함에 놀랐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방에서 박수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박수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분의 용기 때문인지, 예수님 때문인지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난 왜 용기가 없나요?

포장용 테이프로 내 몸을 어떤 사람이 묶어 놓은 것 처럼, 내 인생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을 외치려고 해봐도 이 포장 테이프 안에 그 소리가 막혀 있었습니다. 내 좌절 속에서 세밀한 질문이 내게 들려 왔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침묵이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까?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음성적인 불안정함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러 다른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 하나님의 피아노의 또 다른 음색, 하나님의 교향악단의 또 다른 악기, 부드럽고 감미로운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 말고도, 트럼펫같이 크고 강한 소리도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내 직업이 사용되어야 함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결박하고 있던 테이프를 잘라내고 성령께서 입술로 증거하라고 인도할 때 담대해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운데,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하신대로,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증인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추가요절: 고린도후서 3:11-12

기도: 사랑의 하나님, 담대함을 내 안에 채워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3일

경건함의 시작점

딤후 6: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함은 현재의 유행어가 아니고 생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경건한 삶은 가장 흔한 일상의 평범한 활동까지 포함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쉽게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분리하는 마음의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기도, 성경읽기, 예배, 영적인 경험 나누기 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와는 전혀 분리해서 직업적인 할 일을, 여가활동을, 삶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합니다. 우리 삶이 바빠지면, 우리의 영적 활동은 축소되고, 결국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함은 매일의 삶의 본질이며, 생활 양식입니다. 경건함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이 둘러서서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찬양하다." 고 (이사야 6) 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사야는 소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단순한 경외함의 느낌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경외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합니다(요한 1 서 4:19).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을 받아주시는 변함없으신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히브리서 4:16).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의 두 진리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차원적인 하나님의 경건함이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추가요절; 베드로후서 1:5-8

기도: 주님, 제 행동과 태도가 더 경건하게 되길 빕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4일

어떤 종류의 기쁨입니까?

시 30: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그 여자는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작은 편의점의 현금 출납원인 그 여자는 근무시간 중에 누구에게나 매우 즐겁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나요" 그 여자는 대답했습니다."물론이죠. 내가 살 날이 많은데요. 불행한데다 조금도 그 날들을 써버려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상업방송은 무엇이 행복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제공합니다. 비싼 차에서부터 한 개인의 전면 성형 수술에까지 다룹니다. 이 상품과 그 과정들이 보통 자기 욕구의 충족, 자긍심, 그리고 적절한 자기 의존을 이용합니다. 사실 미국 독립 선언서에 보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세상

물질에만 그 한계가 묶여있습니다. 그 보다 성경의 팔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5:3-12) 다른 성품을 발전시키는 사람에게 따로 주어지는 축복의 행복(기쁨이 내재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겸손: 마음이 가난한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완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죄를 깨달을수록 커져가는 온유함.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 즉, 예수님의 자비와 공의로우심을 닦고자 하는 열정.

양선, 청결,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 핍박중에도 평안한 마음입니다.

성품을 발전시키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런 기쁨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짧고 그 만족이 작습니다. 이 한주간 천국의 기쁨을 함께 추구합시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5:3-12

기도: 주님, 기쁜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늘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5일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기

마 25: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나는 1983년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들간에 있어서 복음의 연관성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나는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는 응급실에서 오래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곳은 환자와 의료인들간의 압박의 수준이 심했습니다. 오랜 대기 시간, 불편함과 피로감이 겹쳐서 매우 지치고, 압박이 심했습니다. 환자와 의사들 간의 다툼도 심했습니다. 나는 매주일 마다 아침 6시 30분 기도시간을 갖고 환자들, 의사들, 간호원들 그리고 그외 직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언제나 나는 우리나라의 환자들의 고통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어려움들을 동료 의료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함을 알기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형제애와 공동체 의식 감정을 일으켜 줄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환자들이 자기가 모르는 의사를 만나게 되면, 관심 부족, 참을성 부족, 치료 소홀등을 자주 느끼므로, 환자들은 친밀함이 있는 의사를 원한다는 것을 동료 의사들에게 상기 시켜주었습니다.

우리 일터는 우리의 선교현장입니다. 환자와 동료 직원간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좋으면 우리 직장이 더 환영받고, 친절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진찰 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다리에 상처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 병원은 어린이 병원이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자신에게도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냐고 내게 물어 왔습니다. 그 여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희생때문에 이 병원에 있다고 말하면서, 치료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주님의 도와주심을 감사함으로 조용히 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자들, 버림받는자들, 아픈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주님의 형상을 보라고 하십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25:31-45

기도: 주님, 어려운 사람들 얼굴에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기꺼이 십 리를 더 가게 하여 주세요. 아멘. (마 5: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6일

베푸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시간과, 힘과,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빈궁한 곳에, 또는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충동적으로, 죄의식에서, 자랑하기 위해, 남에게 사용합니다. 칼 미카엘이란 분은 "사랑없어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사랑은 남에게 주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만드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기 싫어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나 상상속의 꾸며낸 이야기 입니다.

사도요한은 한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자 하는 욕망뿐 아니라 주는 행함이 있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사도요한은 요한 1서 3:18 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스스로 극대화 했습니다. 요한복음 3:16 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과 로마서 5:8 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증거는 주는 행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베풀고 싶은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베푸는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 과부의 두렵돈을 바치는 구절이 나옵니다. 금전적으로 그 여자가 바친 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여자 가진 모든 것을 바쳤고 예수님은 그 예를 인정하셨습니다.

추가요절: 고린도후서 9 장 8,9 절

기도: 주님, 제가 당신이 제게 베푸신 것 처럼 후하게 베풀게 도와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7일

주님의 얼굴

출 33:18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랫동안 많은 성인들이 천국의 시현 모습에 대해 기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물질적, 이성적인 문화는 이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얼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 영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얼굴을 보옵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완전한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거울로 보는 것같이" 주님의 얼굴을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둡게"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죄인들도 성도들과 똑같이 주님의 모습이 비추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뜰때의 영광, 질때의 장엄함, 높이 솟은 산들, 거대한 바다, 흘러넘치는 강물, 가을의 무지개 빛갈의 색들에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시나마 쉬게 만들고, 믿는 영혼들은 무릎꿇고 예배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주님의 얼굴의 희미한 그림들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베일에 싸여 가리워진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때문에 주님은 죄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죄를 떨쳐버림으로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님의 전 바로 앞에까지 인도함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편에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늘로 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는 동안에 은혜 가운데 자라갑니다.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말씀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확실히 도움은 되지만, 마음이 뜨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책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걷는 것이 이루어 집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단지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을 포함합니다. 순종을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그 모습이 완전해 집니다. 예배중의 의로운 성도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얼굴을 하늘 이편에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요한복음 14:8-11

기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매일 우리의 삶속에서 주님의 희미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영광가운데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인도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8일

무조건적 인자

잠 19:22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무조건적인 인자함을 기준으로 하는 직원들의 새로운 도덕성 향상 운동의 효과의 증거에 대한 연구발표를 인사부장이 우리에게 설명할 때 속으로 나는 웃었습니다. 성경적 진리에 다가가는 또 하나의 세속적인 세상 논리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원리를 만드신 주님은 불인정합니다. 나는 이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인자하기에 대해 교육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직무중 하나입니다(고린도후서 6장 4-6).

인자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느헤미야 9:17, 요엘 2:13). 인자함은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에베소서 2:7, 디도서: 3:4-5). 인자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갈라디아서 5:22). 서구 세계를 감염시키는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문화에서 인자함은 보기 힘든 성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자함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자함을 발견할 때 그것을 알아 봅니다. 내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의 어린 아이들도 인자함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자함은 사람들에게 물 한잔을 주는 것이든,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든, 꽃을 사주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거나, 동료직원의 호출을 대신 받아주거나, 그들이 피곤해하는 것을 볼때 대신 근무 해줄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인자함을 표현할 방법은 그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뿐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인자함을 행할 환경과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추가요절: 사도행전 9:36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2mon11-2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1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을 연구하기 쉽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몰두할 시간을 찾기가 어렵습니까? 인생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젊은 의사 시절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묵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성경의 작은 부분들, 한두 구절을 깊이 파서, 정확한 뜻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짧은 본문을 읽고, 차안에서, 혹은 당신의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때로는 성경말씀이 많이 들어있는 찬송가를 배우는 것도 똑같이 도움이 됩니다. 시편기자가 복 있는자는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지만, 조용한 방에 하루 종일 아무일도 안하고 성경을 펴놓고 앉아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기를 선택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보다 더 낫습니다. 히 4:12 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심령이 새로와지게 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12:2).

만일 성경을 읽기 위해 애쓰려면, 오늘 말씀 한두절을 외워 내것으로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추가요절: 시편 119:57-60

기도: 당신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할때 지혜와 총명이 자라게 도와 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2일

자비의 컵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비함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약하게 들리나요? 구체성이 없나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선함, 점잖음, 인자함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때 자주 이 자비란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인 의사인 우리는 자비를 보여줄 훌륭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 중심이거나 환자의 의학적인 필요성, 수행해야 될 업무들, 회진 돌때의 명단들, 오후 회의 주제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때로 시간을 내서 우리의 치료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비함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각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 형상의 가치와 위엄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자비를 베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쳐있거나, 또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도 항상 자비를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요절: 미가 6:8

기도: 주님, 자비를 행함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만을 섬길 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섬긴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3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 136: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 차의료기관에서 수련의로 있을때, 약하고, 병든 아이가 엄마뒤에서 휠체어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 아이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희귀한 소아 폐암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엄마는 하루 벌어 먹는 노동자였고, 아빠는 지방버스 정류장의 짐꾼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이가 짐이 될 것 같은 환경에서도 이 부모는 죽어가는 아이에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가장 좋은 간호를 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화학치료와 방사선치료가 계속 되면서, 아이는 더 허약해지고 있었지만 명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퇴원하게 되었고, 나는 그 여아의 집을 방문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그 아이의 마을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 아이가 미리 말해준 이정표를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 아이의 할머니가 꽃을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방문하러 왔다는 소식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었나 봅니다. 아이는 달려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습니다. "나의 의사선생님이 내게 왔다! 나의 의사선생님이 내게 왔다!" 며 그 동네 모든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나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병은 아이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아이의 집에 오는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집은 벗집 지붕에 방바닥은 소 똥으로 깔아 놓은 작은 오두막 집이었습니다. 이 작은 오두막 집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함께 점심을 먹자고 즐랐습니다. 팔이 조금 들어 있는 쌀죽이었지만 사랑이 넘치는 음식이었습니다. 어떤 부와 재물로도 이 기쁨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기도후 그 아이와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디서 살던,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장막이 어디가 파괴되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추가요절: 에베소서 2:4-5

기도: 주님, 무조건적인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원하고, 찬성하는 분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 DA
2 월 14

다 끝날때까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시 90: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완화치료를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삶의 진리에 친숙하게 됩니다. 임종을 맞는 침대에서는 경력 부족이나, 기업체의 계층적 서열 부족, 재산 낭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적었던 것들을 주로 이야기 합니다. 많은 의사들이 성공한 많은 이력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만족감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환자에 대한 의료기술적으로 충분한 진단과 관리가 중요합니다만, 환자와 좀더 깊이 공감하고, 말을 더 들어주며,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을까요. 미카엘 스미스는 노래가사에서 " 다 끝나기 전에는 사랑이 사랑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가지고 환자를 만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일하는 사람만이 사랑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서, 가능한 빨리 말은 케이스를 끝내 버리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 하루는 우리가 벌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아낌없이 사용합시다.

추가요절: 갈라디아 6:9-10

기도: 주님 내가 가진 시간을 관대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특히 통증과 절망중에 있는 이들에게 사용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5일

온전함

잠 20:7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함이란 말은 그 뜻의 정의된 것보다 더 쉽게 다른 사람들로 부터 존중받는 성품입니다. 온전함은 도덕적으로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성품의 선택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모든 숫자를 뜻하는 interger 란 말처럼 모든 성품의 온전함을 말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의학과 수술을 가르치는 대학에서 의사들에게 온전함의 필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삶의 영적인 요소는 강조하지만, 도덕적인 성품의 근본 기초를 충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은 강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온전함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이유는 크신 지혜와 은혜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가정과 직장의 모든 변화하는 환경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다 남들이 검사하고, 평가합니다. 온전함을 유지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곳을 찾아 그 이유를 알아 보려하고, 우리 자신 안의

문제를 고치려 하는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일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과 인간 관계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포기하기 또는 일어나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일어나세요.

사소하고 미미한 일들을 끝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중입니다

추가요절: 시편 1 편

기도: "나는 정직하렵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청결하렵니다.

왜냐하면 내가 치료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강해지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감하렵니다.

왜냐하면 도전해 보아야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 월 16

증인

마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두가지 종류의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다른 하나는 행동으로 하는 증인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보완해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열정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같습니다 . 또 다른 사람들은 말과 행함을 비교한후 , 두번째 좋은 것을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말보다 행함이 더 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 당신의 인생이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서 당신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던지 없던지,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고후 3:18)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세요 .

존 테일러는 요한복음 1: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를 인용하여 현재의 시몬과 장차 변할 베드로를 비교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성향의 말도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전도 열정의 대부분은 말로하는 전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일로 표현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 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추가요절:마태복음 5:13-16

기도 : 주님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내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7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마 6: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개발 도상국의 교도소 방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의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전략적인 구절에 대하여 크게 감사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감옥은 수용자들에게 악명높은 취급을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식량, 위생, 주거지 부족으로 수용자중 일주일 마다 두세명이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 추운 겨울 간수들이 수용자들을 운동장에 집합시킨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마치 2 차세계대전 당시 죽음의 캠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환경이 전혀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신, 근처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음식 봉사를 하고, 질병들을 치료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은 우리의 삶의 첫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는 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을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보다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프고 허약할때 예수님은 먹이시고 고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기도문 말씀에 명시된대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동반되어 합니다.

교도소 수감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의 곤경을 보고난 후 우리의 반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식량 공급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을 설득해서 많은 수감자들을 풀어 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사람들의 고난을 위해 우리는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을 진정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25:31-40

기도: 주님,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8일

하나님의 뜻을 매일 구하기

시 25:5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중 하나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간절한 소망과, 각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결정은 도덕적으로 중립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확실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십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개인적인 취향, 문화적 편향, 사회적 관습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이성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윤리적 결정을 내릴때 고려할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온전함--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중함--존재하지만 종종 가려져 있거나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각의식--옳고 그른 것을 알려주는 내적인 기능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소망이나, 개인적인 부분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내면적인 자아입니다. 자각의식이 잘못되면 우리를 잘못 인도함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잘 깨어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중함--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혜입니다.

직관--분석이나, 어떤 노력없이 지식을 펼쳐 나가는 능력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경험 축적돼 섬세한 발전을 노력한다면, 하루하루, 그리고 일주일을 통해서 나한테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추가요절: 호세아 14:9

기도: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진리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19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 46: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의료인들은 빨리 걷는 습관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할때는 서두르는것 같습니다. 복도에서 사람을 만나면, 빠르게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속도, 효율성, 생산성을 좋아합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빨리 걷고, 빨리 말하고, 빨리 결정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단어 전체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점점 내 인간관계는 좁아졌습니다. 내 들어주는 능력이 떨어졌고, 내 반응이 비적절해져 갔습니다. 몸의 움직임의 속도가 마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조용히, 가만히 있도록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그 다음 한주 할 일을 위해 우리 하던 일을 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강조해서 주일은 아무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던 일을 중지하고, 잠잠하라 하십니다. 불필요한 모든 활동을 정지하십시오. 주일날에는 생산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식의 쉼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차별없이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들 중간에, 수술들 중간에, 환자치료들 중간에 우리는 잠깐씩 쉬고, 또 침묵할 수 있습니다. 분주한 와중의 이 짧은 시간에 주님을 초대하고 우리가

서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산만해졌을 때 이 정지의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서로 하나되도록 해주셔서 전인적으로 주님앞에 설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스바냐 3:17

기도: 주님, 저 자신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분주한 제 영혼에 안식주셔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0일

담대함

행 4:29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임상병리강의를 위한 강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2학년 갓 올라온 의대학생들이 모여 폐암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폐 전문의사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의사입니다. 200명 학생들에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다가오는 시험 기준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 어떻게 학생들이 준비하도록 그가 도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만일 나의 위대하신 선생님이 허락하시면, 이 공부 돕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할 것입니다." 그 의사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 위대하신 선생님이란 예수님이라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나는 학문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그분의 담대함에 놀랐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방에서 박수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박수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분의 용기 때문인지, 예수님 때문인지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난 왜 용기가 없나요?

포장용 테이프로 내 몸을 어떤 사람이 묶어 놓은 것 처럼, 내 인생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을 외치려고 해봐도 이 포장 테이프 안에 그 소리가 막혀 있었습니다. 내 좌절 속에서 세밀한 질문이 내게 들려 왔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침묵이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까?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음성적인 불안정함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실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여러 다른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위해, 하나님의 피아노의 또 다른 음색, 하나님의 교향악단의 또 다른 악기, 부드럽고 감미로운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 말고도, 트럼펫같이 크고 강한 소리도 원하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내 직업이 사용되어야 함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나를 결박하고 있던 테이프를 잘라내고 성령께서 입술로 증거하라고 인도할 때 담대해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운데,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뜻하신대로,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증인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추가요절: 고린도후서 3:11-12

기도: 사랑의 하나님, 담대함을 내 안에 채워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1일

직업에 대한 기쁨

신 12:18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받은 일입니다. 그들의 얼굴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우리 얼굴에도 미소가 절로 생깁니다. 그들의 눈가의 미소는 우리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자신의 직업을 즐거워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즐겁고, 자비로운 의료인들을 만나는 환자는 어떨까요. 우리가 즐겁게 일하는지 아닌지를 그들은 구별할 수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소지으며, 친밀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분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은 지겹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소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얼굴을 찡그립니다. 일이 고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몸이 피곤하면서도,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고, 직업에 기쁨을 갖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18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가능한 일임이 분명합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면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그 주님이 틀림없이 도와 주실 겁니다.

추가요절: 시편 68:1-4

기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내 일을 할 때 당신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다른 이들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2일

진리

마 5: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자녀에게 진실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자녀 중 한명은 어릴 때 이 진실을 배우기 힘써야 했는데요. 왜냐하면 심하게 믿기 어려운 거짓말을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그것을 직시해 볼 수 있었으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딸은 신실한 숙녀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해야 하는데요 이중에는 말의 온전함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 라고 대답하던지, 아니요 라고 대답하던지 우리의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중간 지대의 불명확한 입장이 적당하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트외인은 "늘 진실을 말한다면,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적용할 때 아마 두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환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처럼 일관성을 가지도록 닦고자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환자에게 오늘 검사결과를 알려 주기로 약속했으면, 또는 검사하기로 했으면, 보호자에게 설명해 주기로 했으면, 또는 협진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아니면, 왜 못하는지, 설명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환자와 그 보호자들과 정말 명확한 소통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는 정보가 명확해야 하며 환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경험에서 배운 것은 나쁜 소식을 환자에게 전달할 때는 보통 명확한 소통을 하되, 반드시 동정심과 자비를 가지고 사랑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에베소서 4:15).

추가요절: 베드로전서 3:10-12

기도: 주님, 제 행동과 말이 일치하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3일

경건함의 시작점

딤후 6: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함은 현재의 유행어가 아니고 생생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경건한 삶은 가장 흔한 일상의 평범한 활동까지 포함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쉽게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분리하는 마음의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기도, 성경읽기, 예배, 영적인 경험 나누기 등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와는 전혀 분리해서 직업적인 할 일을, 여가활동을, 삶의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합니다. 우리 삶이 바빠지면, 우리의 영적 활동은 축소되고, 결국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함은 매일의 삶의 본질이며, 생활 양식입니다. 경건함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식에서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이 둘러서서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찬양하다." 고 (이사야 6) 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사야는 소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단순한 경외함의 느낌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경외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사랑합니다(요한 1서 4:19).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 놀라우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단점을 받아주시는 변함없으신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히브리서 4:16).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의 두 진리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차원적인 하나님의 경건함이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추가요절; 베드로후서 1:5-8

기도: 주님, 제 행동과 태도가 더 경건하게 되길 빕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4일

어떤 종류의 기쁨입니까?

시 30:11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그 여자는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작은 편의점의 현금 출납원인 그 여자는 근무시간 중에 누구에게나 매우 즐겁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나요" 그 여자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내가 살 날이 많은데요. 불행한데다 조금도 그 날들을 써버려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회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상업방송은 무엇이 행복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제공합니다. 비싼 차에서부터 한 개인의 전면 성형 수술에까지 다룹니다. 이 상품과 그 과정들이 보통 자기 욕구의 충족, 자긍심, 그리고 적절한 자기 의존을 이용합니다. 사실 미국 독립 선언서에 보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물질에만 그 한계가 묶여있습니다. 그 보다 성경의 팔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5:3-12) 다른 성품을 발전시키는 사람에게 따로 주어지는 축복의 행복(기쁨이 내재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겸손: 마음이 가난한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완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죄를 깨달을수록 커져가는 온유함.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 즉, 예수님의 자비와 공의로우심을 닮고자 하는 열정.

양선, 청결,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 핍박중에도 평안한 마음입니다.

성품을 발전시키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런 기쁨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짧고 그 만족이 작습니다. 이 한주간 천국의 기쁨을 함께 추구합시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5:3-12

기도: 주님, 기쁜 마음을 주소서, 당신의 자비하심을 늘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5일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기

마 25:36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나는 1983년에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의료인들간에 있어서 복음의 연관성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나는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는 응급실에서 오래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곳은 환자와 의료인들간의 압박의 수준이 심했습니다. 오랜 대기 시간, 불편함과 피로감이 겹쳐서 매우 지치고, 압박이

심했습니다. 환자와 의사들 간의 다툼도 심했습니다. 나는 매주일 마다 아침 6시 30분 기도시간을 갖고 환자들, 의사들, 간호원들 그리고 그외 직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또 언제나 나는 우리나라의 환자들의 고통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어려움들을 동료 의료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함을 알기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형제애와 공동체 의식 감정을 일으켜 줄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환자들이 자기가 모르는 의사를 만나게 되면, 관심 부족, 참을성 부족, 치료 소홀등을 자주 느끼므로, 환자들은 친밀함이 있는 의사를 원한다는 것을 동료 의사들에게 상기 시켜주었습니다.

우리 일터는 우리의 선교현장입니다. 환자와 동료 직원간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좋으면 우리 직장이 더 환영받고, 친절한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진찰 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다리에 상처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 병원은 어린이 병원이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자신에게도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냐고 내게 물어 왔습니다. 그 여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희생때문에 이 병원에 있다고 말하면서, 치료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주님의 도와주심을 감사함으로 조용히 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자들, 버림받는자들, 아픈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주님의 형상을 보라고 하십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25:31-45

기도: 주님, 어려운 사람들 얼굴에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 기꺼이 십 리를 더 가게 하여 주세요. 아멘. (마 5: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6일

베푸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기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람들이 시간과, 힘과,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빈궁한 곳에, 또는 순수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충동적으로, 죄의식에서, 자랑하기 위해, 남에게 사용합니다. 칼 미카엘이란 분은 "사랑없어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사랑은 남에게 주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만드는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기 싫어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거나 상상속의 꾸며낸 이야기 입니다.

사도요한은 한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자 하는 욕망뿐 아니라 주는 행함이 있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사도요한은 요한 1 서 3:18 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스스로 극대화 했습니다. 요한복음 3:16 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과 로마서 5:8 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증거는 주는 행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베풀고 싶은 마음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베푸는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 과부의 두렵돈을 바치는 구절이 나옵니다. 금전적으로 그 여자가 바친 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여자 가진 모든 것을 바쳤고 예수님은 그 예를 인정하셨습니다.

추가요절: 고린도후서 9 장 8,9 절

기도: 주님, 제가 당신이 제게 베푸신 것 처럼 후하게 베풀게 도와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 월 27 일

주님의 얼굴

출 33:18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랫동안 많은 성인들이 천국의 시현 모습에 대해 기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물질적, 이성적인 문화는 이것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얼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는 영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얼굴을 뵈옵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완전한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거울로 보는 것같이" 주님의 얼굴을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어둡게" 우리가 본다고 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죄인들도 성도들과 똑같이 주님의 모습이 비추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뜰때의 영광, 질때의 장엄함, 높이 솟은 산들, 거대한 바다, 흘러넘치는 강물, 가을의 무지개 빛갈의 색들에서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시나마 쉬게 만들고, 믿는 영혼들은 무릎꿇고 예배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주님의 얼굴의 희미한 그림들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베일에 싸여 가리워진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때문에 주님은 죄와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죄를 떨쳐버림으로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님의 전 바로 앞에까지 인도함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편에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늘로 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았듯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는데 은혜 가운데 자라갑니다.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말씀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확실히 도움은 되지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책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묵상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걷는 것이 이루어 집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단지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을 포함합니다. 순종을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그 모습이 완전해 집니다. 예배중의 의로운 성도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얼굴을 하늘 이편에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요한복음 14:8-11

기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매일 우리의 삶속에서 주님의 희미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인도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2월 28일

무조건적 인자

잠 19:22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무조건적인 인자함을 기준으로 하는 직원들의 새로운 도덕성 향상 운동의 효과의 증거에 대한 연구발표를 인사부장이 우리에게 설명할 때 속으로 나는 웃었습니다. 성경적 진리에 다가가는 또 하나의 세속적인 세상 논리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원리를 만드신 주님은 불인정합니다. 나는 이미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인자하기에 대해 교육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해야 하는 직무중 하나입니다(고린도후서 6장 4-6).

인자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느헤미야 9:17, 요엘 2:13). 인자함은 우리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동력입니다(에베소서 2:7, 디도서: 3:4-5). 인자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갈라디아서 5:22). 서구 세계를 감염시키는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문화에서 인자함은 보기 힘든 성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자함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자함을 발견할 때 그것을 알아 봅니다. 내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의 어린 아이들도 인자함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자함은 사람들에게 물 한잔을 주는 것이든,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든, 꽃을 사주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거나, 동료직원의 호출을 대신 받아주거나, 그들이 피곤해하는 것을 볼때 대신 근무 해줄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인자함을 표현할 방법은 그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할 뿐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역시 인자함을 행할 환경과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추가요절: 사도행전 9:36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3mon1-1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 월 1 일

은혜

딤후 2: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논밭에 위치한 작은 선교병원의 수술 방에, 뛰어난 수술실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의 깊고, 내 수술 장갑의 위치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주의 깊어 살펴보다가 필요할 때 빨리 움직여 도와 주었습니다. 수술과 수술 사이 잠깐 쉴 때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라고 물어 보았습니다. "기독교는 나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친구중에 기독교인이 있는데요, 잘못해 놓은 후 용서해 달라고 해서 용서해주면, 다음에 또 반복해서 잘못하고 또 용서를 바랍니다. 너무 쉽습니다. 불교에서는 덕을 쌓기 위해 (선함이 악함보다 많기위해), 힘들게 일합니다. 당신들의 종교는 제가 보기에 어리석습니다." 몇 년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사도바울은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어 새로운 신자들을 조직하고 장로들을 세우게 했습니다. 디도에게 교훈과 격려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 이 모든 것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삶, 그리고 사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 간호사 티다와 나는 오랫동안 서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만났습니다. 최근에 세례받았다고 그 여자가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 일까요. 그 여자를 처음의 회의적인 생각이 녹아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교 병원의 하는 일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여자 주변의 기독교인들의 삶과, 특히, 새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티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행동으로 나타는 은혜). 그리고 그것이 그 여자를 예수그리스도의 인도하고, 그 여자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추가요절: 고린도후서 3 장 12-18

기도: 주님,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해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2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나요?

행 17:28 우리가 그를 함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닥친 분이라면 주로 피할수 없는 질문은 "왜 저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쌓아올린 계획들과 꿈이 갑자기 병이 닥치면 다 무너집니다. 고통을 겪는 분과,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과 아픔입니다. 경제 문제, 치료, 좋은 간호를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고통스러운 놀라운 충격은 다른 일들로 인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파괴,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재정 위기, 또는 또 다른 위기입니다. 지혜와 이해를 가지고 분별한다면 고통스러운 상황은 큰 교육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기간동안, 그 동안 살아온 삶과 영혼을 생각해 보고,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고, 실수들을 수정해 보고, 내면의 죄들을 교정하고, 자신의 거친 성품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질병이나, 어떤 위기는 "만들거나", "부서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로 인해서, 사람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절망과 자기연민의 블랙홀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중대한 질병이나 위기때에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라는 위로의 말을 친구, 가족, 동료 직원들에게 사용합니다. 이 "신뢰"라는 말의 명확한 증거는 오직 위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저입니까?" 라는 말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에릭슨 (저자, 가수, 라디오 진행자인데 수영중 사고로 사지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와 휠체어 재활 전문가인 마리아는 질병과, 불구가 아니었다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왜 저입니까?" 는 " 왜 제가 아닙니까?" 가 되었습니다. 그 분들은 은혜와 자비를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추가요절: 시편 34

기도: 주님,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약할때 당신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남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3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은혜

롬 12: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각자는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를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전과, 질 나쁜 의료환경, 사회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남수단에서 봉사하는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이다 난민 구호소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여러 인간관계, 도전, 기회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역 보건 사업을 시작하고, 태양열 급수장 설치와 전도자 훈련, 지역병원 옆에 다용도 건물을 세워 이웃 주민들과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면서, 주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활동을 무럭무럭 자라게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이다 난민캠프과 같은 은혜를 누구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나도 혈액학자가 되거나 큰 도시에서 일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록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빌존슨의 최근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왕은 그가 치루도록 태어나게 된 전쟁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가 행하도록 은혜를 받지 않은 분쟁에는 '아니요' 라고 말 못했습니다. 주님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디모데전서 6:12 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고 디모데에게 강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은혜로 주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은 미리 겁먹거나, 지쳐있거나, 아니면 너무 안락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멍에를 맵시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배웁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합시다.

추가요절: 에베소서 5:15-20

기도: 주님, 주님이 내게 싸우라고 주신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당신을 신실하게 섬길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4일

멈추지 마세요

계 3: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멈춤은 믿는자들의 사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멈춤은 인내의 싸움에서 쉬운 탈출구입니다. 멈춤이란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의 패배로 들립니다. 멈추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투쟁하여야 강한 인품이 만들어 집니다"

선배의사들의 지식과 기술을 보면서,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해야 할 일들을 보면서 나는 부적격하다고 느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욕망이 강했습니다. 나는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기간에 하나님은 계속 남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나는 인내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32:22-31 을 읽어보세요.

멈추지 않는 야곱의 삶으로 부터 배우세요.

야곱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중지하는 대신 계속했습니다.

야곱은 패배중에도 그의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견디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야곱은 그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투쟁을 절대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그의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야곱의 천사와의 싸움은 야곱의 결단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천사는 야곱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영구히 위골시키고 떠나갔습니다.

야곱의 상처는 그의 위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가 싸우는 상대가 단순한 세상사람이 아닌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야곱은 실패하고, 불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고, 승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추가요절: 야고보서 1:12

기도: 시련의 기간을 지날때 강하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도와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5일

불확실할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민 9:23 곧 그들이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와 명령을 따라 여호와와 직임을 지켰더라

선교병원에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환자의 진단일 수도 있고, 정부 행정기관과 대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다양할 수도 있고, 많은 것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의 끝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대하 20 장 1-20 절을 읽어 보세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좋은 왕중 한명입니다. 이 본문은 그가 국가적인 위기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닥쳐오는 어두운 전망가운데서 여호사밧은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해냈습니다. 그 핵심은 기도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봅시다.

6 절: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7-9 절: 여호사밧은 그의 조상들이 도우시고 그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역대하 20:7 "우리 하나님이지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역대하 20:8-9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2 절: 여호사밧은 그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갔습니다. 여호사밧은 주님께 내가 어려움에 빠진 것을 주님이 아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12 절 후반: 여호사밧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불확실한 때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런가요.

추가요절; 열왕기상 17:3-4

기도: 주님, 어려울 때 당신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을 알려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6일

영성의 회복

출 33:1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휴식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 삶을 조화시키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 몸의 부조화가 오면, 우리 몸은 휴식하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때로는 입원해서 드러눕는 일이 필요하게 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들은 대부분 거기 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단지 입원이 필요한 것을 알거나,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서 입원해 휴식하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환자가 입원해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 24시간 감독을 받습니다. 상태가 위중한 환자이면, 심지어 자신이 계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의료인들이 그들의 몸을 회복시키고, 증진시키고,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몸이 회복되면 그 환자들은 자신이 계속 간호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라면 그 회복이 더 빨랐을 겁니다.

우리 몸처럼 우리의 영혼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는 몸처럼, 우리 영혼도 영적인 휴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 신호는 불규칙한 영적인 신앙 생활, 영적인 흥통 처럼 불안정한 행동, 괴로움, 영적생활의 기쁨이나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이 가난해지면, 영적 생활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휴양을 떠나거나 기도장소에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생활이 회복되어 우리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체험하고, 우리 생활 전체가 그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껴야 우리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재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이사야 40:31

기도: 주님 제가 잠잠히 기다리며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내가 지쳐 있을때 내 영적인 열정을 회복시키시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도록 돌보아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7일

믿음을 굳게 하기

눅 22:31-32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만 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중보기도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믿음이 적어 흔들릴 때 주님 자신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할때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약해지거나 결점이 보일때, 그 부족함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도, 예수님은 그를 쓰셔서 초대 교회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역사는 베드로의 뛰어난 지도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주님이 베드로를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의 영혼은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강점은 자랑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경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라고 있는 형제들의 믿음과 삶을 보강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로서 여러분의 지위의 목적은 젊은 동료들, 학생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힘을 보강해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사랑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 힘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큼 강인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외로움을 느끼며, 자기의 능력 부족의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되면 그들을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요절: 에베소서 6:18-20

기도: 주님, 우리가 우리 주위의 형제들에게 격려해 주는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8일

내 아버지의 일

요 5:17-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은 이세상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마음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당신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루어 보려고 노력해볼 때, 자주 어려운 결정앞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요? 친구, 혹은 동료들과 언제 맞서 싸워야 하고, 언제 그냥 있어야 하나요? 어떤 경력의 기회는 취하고, 어떤 기회는 포기해야 하나요?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까요?

예수님도 역시 초기 사역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할때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 신성한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었습니다(눅 4:3).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권세를 얻으려는 유혹(눅 4:6)이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기보다, 세상 왕국을 얻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요 6:15). 병든자들을 고치기 위해 몇번이나 안식일을 범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매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유혹을 물리치시고,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만을 선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에 참여하셨습니다(요 5:17-19). 이 목표와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대한 핍박과 비판에 직면해도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앞에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족, 공동체, 국가의 문제 입니까?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추가요절: 잠언 3:5-6

기도:

주님,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오! 주님,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은혜로 도와주셔서,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옳은 일을 행하게 하소서.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하늘의 빛으로 비추셔서 저를 인도하소서.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9일

기다림이 고통스러울때

시 61:1 하나님이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 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글을 쓰면서 윌리엄 라클리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은 보살핌이 필요한, 지친 영혼이신가요?

당신은 짐이 무거워 쉼을 찾고 있는 영혼인가요?

방황하고 있는,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당신의 눈이 무엇을 드러내고 있나요?

당신이 안식의 도움을 구할 때에 누가 들어주나요?

오직 슬픔만 느낄때 당신의 실망을 누가 알아주나요?

당신이 울고 있을때 매번 누가 들어주고 있나요?

당신의 걱정들을 누가 이해해 주나요?

당신의 눈물을 누가 닦아 주나요?

의대 졸업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수련을 받지 못했나요. 또는 5년 마지막 학기인데, 면접시험에는 다 통과하고서도, 수련의 길이 열리지 않나요? 동급생들은 이미 자기 차를 끌고, 결혼도 했는데, 혼자 뒤쳐지고 있다고 느끼나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당신에게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은 당신이 주님의 완전한 뜻을 기다리느라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래전에 하나님이 당신에 주신 "참 예언의 말씀"을 포기하도록 많은 이유를 당신에게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은 그것들을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참으세요. 인생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쓸모 없는 자가 되지 마세요. 주님의 때가 가까운 것처럼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바보처럼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금식하며 기다리세요. 밖에 나가지 않고 기도와 금식을 해야할 상황도 있습니다. 사단을 꾸짖으세요. 밝은 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두운 곳에서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 바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추가요절: 이사야 49:27-31

기도: 주님, 당신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제 삶에 두신 당신의 뜻은 결코 가로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10일

사역으로서의 의료

눅 9:1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세상 어디서나 의학은 축복받은 직업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직접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료라는 직업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직업이 점차 하향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의 목표의 중심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 치료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직업의 선배들은 스스로를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의료를 사역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를 발판으로 삼아 삶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힘썼습니다. 그분들은 전혀 자기 스스로 각광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은 오직 연약한 생명인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업적은 부인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만족과 성취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축적, 성취, 지위는 이 땅에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의학을 만드신 목적은 온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학을 통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의 돕기위해 우리 자신이 겸손하게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사역이란 교회와 강단의 설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사랑의 합계의 결과가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중요한 무대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피부색의 종류와 필요의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를 일하는 직업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일하는 열심이나 일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터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주님을 소개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출하며, 사람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길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추가요절: 호세아 6:1-3

기도: 주님, 우리의 소명이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일터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사역으로 보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3mon11-2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11일

예수님의 첫번째 치유 모델

마 12:13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한손 마른자, 즉 소아마비 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다면, 구하기 위해 꼬집어 낼 것 아니냐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 마른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손마른자는 손을 내밀었고, 마른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른 손을 잡아 내어 완전히 정상적인 크기와 기능을 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단순한 비유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연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료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아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담배피는 사람들도 관상동맥 질환이나 폐암에 걸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성 생활이 문란한 사람도 에이즈에 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양문화의 의학에서는 환자들을 훈계하거나 비난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업 자득" 이란 생각을 공공연하게, 또는 비밀리에 합니다. 우리는 비평,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그 평가절하 인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모델에서 또 배우는 것은 한번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거기서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강한 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한손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픈 사람을 수렁에서 끌어 올릴 강한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7:1-5

기도: 주님, 우리가 환자들을 대할때 비난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대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12일

예수님의 두번째 치유모델

마 12: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15절에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모든 아픈 자들을 고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이 이사야 42장 1-4절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온 세상에 공의를 선포하도록 기름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불의가 있는 곳에 공의를 선포하고 공의를 나타내는 것과 동일시 합니다. 결론은 결국 이것입니다. 쇠약, 질병, 장애는 모두 불의한 것이고, 예수님이 매번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 마다,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가져 오신 것입니다. 만일 질병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안다면, 불의의 하수인인 제 삼의 무리가 있음에 틀림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단은 질병이라는 불의의 하수인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으로 부터 오지 않습니다. 질병은 사단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28세의 승모판협착증 여성이 동맥세동이 있고, 방금 그녀의 세째아기를 출산한지 5일만에 발작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불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는 우리에게 분노와 화를 내도록 감정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불의에 무관심하지 말고, 불의를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쇠약, 질병, 불구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셨을때, 그들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해놓은 일들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분노와 동정심은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추가요절: 잠언 18

기도: 주님, 불의와 질병과 싸우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어둠을 밝히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13일

온유한 자

마 5: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하라는 말씀은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지키기 가장 어려운 팔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전문 직업의 영광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층의 더 높은 계단을 향해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는 의학지식의 힘을 가지고, 아프고 연약한 환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더 높아 질수록 더 거만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만한 자는 제외되고,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배반당하시던 밤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성기는 종으로 오신 지도자 예수님은 교만한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높은 하늘에서 이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으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셨고, 권세자들의 함정을 피해 다녔으며,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결국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빌린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온유함의 태도를 배웠다고 추측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찬가에서 마리아는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온유한 자가 칭송받는 것을 보는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시편 37:11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에서 쉽게 연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온유함은 의로움과 연결되며, 악한자와 착취자와 대조되어 있습니다. 악한자는 그들의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중독환자 전문의로 일하면서, 대개 환자 스스로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전까지는 그들은 변하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야 그분들은 병의 회복을 위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46-55, 시편 37

기도: 주님, 오늘 제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만날 때에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소서. 그들을 힘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이해와 관대함으로 그분들과 나란히 함께 하도록 해 주세요. 주님의 온유함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14일

공홀히 여기는자

마 5:7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공홀입니다. "내가 공홀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마 9:13). 그리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마 12:7).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만 두번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 다 바리새인들의 비판주의에 예수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 구조는 공홀이 아닌 비판적 사회였습니다.

팔복에서 의, 공의를 기록한 후에 공홀이 기록된 것이 흥미롭습니다. 의와 공홀 두가지 주제는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주제가 필수적인 주님의 성품임을 나타냅니다. 이 주제는 금송아지 사건후 모세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반석틈에 모세를 숨겨두고서, 모세는 주님의 뒷모습만 겨우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세를 지나 가실 때에, 모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출 34:6). 이것이 바로 공의와 공홀의 긴장과 조화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용서의 주제는 중심 주제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마 6:14). 그러므로 예외를 두지 말고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51 편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홀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갈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곧 바로 주님의 용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의 공홀을 구하는 기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공의와 긍휼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충족되고, 죄의 용서하고 이루어졌습니다 .

추가요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21-35

기도: 주님, 오늘 당신의 의의 기준을 조금도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긍휼을 베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저도 긍휼을 베푸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15일

화평하게 하는 자

마 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화평 (히브리어: 샬롬)이란 뜻은 온전함, 완전함. 행복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조화, 합의, 물질적인 번영, 그리고 영적인 안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샬롬(화평), 샬람(회교도인사), peace(평화) 를 기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능동적입니다. 분쟁을 소극적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성취하기 위해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런 활동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문자적으로 성품이 닮은) 라고 불리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팔복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병든자에게 평안을 주셨고, 마태처럼 따돌림 받은 자에게 화평을 주셨으며, 광야에서 목마른 자에게 화평을 전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가져오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말썽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화평의 아버지이신 하늘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모방하려고 노력해서 예수님이 화평, 즉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전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화평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진돌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화평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료를 통해서 화평과 온전함을 창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요절: 요한복음 14:27, 16:33, 20:19-2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주 예수님, 오늘 모든 우리의 진료와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평과 공의를 창조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16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에는 엄청난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저자는 복음의 진수를 감추어 놓았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특히 상처받고, 절망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율법의 글자 하나 하나를 지키도록 엄중한 요구를 함으로써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거나, 율법을 지킬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4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 그들은 지나치게 엄한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 규칙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법은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실패한 것을 보여 줌으로써,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공한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짐이 무거운 자들을 초대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게 하시고, 적당한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상하고, 아픈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 실패, 가난, 부족함으로 위축된 사람들의 것입니다. 마태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 마 9: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 앞으로 나갈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선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하나님의 공의는 불쌍한 자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거꾸로 된 가치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천국의 복된 소식을 먼저 받아들인후, 어려움속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복음을 적용하세요. 천국 복음의 원리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이 복음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쁘게 아픈 사람을 고치시다가 멈추시고, 시건을 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파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위해 시간을 내세요.

추가요절: 마태복음 9:9-13. 세리 마태와 예수님의 대화와 음식 잡수심

기도: 주님 제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희망을 찾고있는 가난한 영혼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17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마 5: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불의의 불법은 하나님 나라와 대치됩니다.

팔복중 오늘 말씀은 관점에 따라 두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성도들은 개인적인 의로움의 기준에 못미쳐서 목마르고 갈급함을 느낄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위대한 마틴 루터의 말처럼,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죄와 결점의 짐들을 제거하기를 힘씁니다. 누가 내 대신 내 죄에 대한 공의를 대신 줄 수 있나요. 이 세상엔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의 의로움을 주신 그리스도에게서만 의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주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여, 죄의 무서운 짐에서 벗어나 의로움을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경에 확고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다른 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특히 만연한 악한자들때문에 허덕이며, 철저히 빼앗김을 당한 온유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공의롭게 되기를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두 해석은 다 존재하며 유효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첫번째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믿음의 선물로 주어진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서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시편 72.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의로운 사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의 불의함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인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사회의 불의, 특히 사회의 소외된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소서. 말과 행동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18일

애통하는 자

마 5: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은 인정이 넘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요구는 매우 엄격하지만 예수님은 불가능한 요구를 명령하는 교주가 아닙니다. 팔복의 첫번째는 희망을 주고, 두번째는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근심을 대신해서 지시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권세와 영광을 쫓는 신앙생활은 상처받고 약한 이들을 비웃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어떤 슬픔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는지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큼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뒤에 잠재해 존재하는 것은 바로 낙원을 잃은 근본적인 슬픔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슬픔이며, 결과적으로 에덴동산을 잃어버린 슬픔입니다. 슬픔은 곧 손실에 대한 것 입니다. 의사로서 다른 직업보다 더 손실이 심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은 환자, 혹은 사랑하는 식구를 잃은 친척들을 만납니다. 사고, 질병, 상해로 인해서 기능을 잃어버려 이전에 하던 일을 못하게 된 환자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직업을 잃거나, 결혼이 파혼되거나, 살아갈 이유를 잃어서 우울증에 빠진 환자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늙어서 능력의 제한이 늘어나는 것을 깨닫는 환자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때문에 부끄러워하는 환자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들로서 복음의 위로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요한계시록 7:9-17, 모든 슬픔이 사라진 후의 큰 잔치의 기록입니다.

기도: 슬픔과 근심을 대신 지신 주님, 우리를 근심에서 위로하소서. 오늘 하루 일과중에 근심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기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19일

인도하심

잠 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세번 놀라운 일치를 통해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나는 전쟁 이후 오스트리아에 있는 영국군 치과 군의관으로 부임했습니다. 나는 제대후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고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비엔나에 있는 기독모임에서 한 청년을 만났고, 그의 집이 런던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내가 전쟁 중에

있을때 어머니가 이사한 지역이었습니다. 두번째 일치는 이것입니다. 그가 집에 돌아가서 그 교회 지도자에게 그가 제대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기독교인 치과의사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교회 관리 책임자였고 또 그의 친구 관리 책임자도 치과의사였습니다. 세번째 일치는 이것입니다. 그 치과의사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개업중이었는데, 아버지가 막 은퇴를 하는 중이었고, 외과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새 의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스트리아에 있는 동안 함께 일하고 싶다는 제안을 묻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대후 가보니 집에서 5분거리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면접시 우리는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고, 결국 동업을 해서 36년간 같이 일했습니다. 기독교인끼리 일하고 있어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함께 했고, 대기실에 기드온 성경과 기독교 서적들을 비치했습니다. 바로 그 대기실에서 환자 한분이 주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을 듣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는 병원옆 도로 바로 위에 위치한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마침 빌리그래함 집회에서 믿음을 갖게 된 젊은 여성, 마리아가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여성은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최근 기쁘게 온 가족이 모여 우리의 60번째 결혼기념식을 축하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나는 업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추가요절: 시편 16

기도: 주님, 모든 일에 우리를 인도하고,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예비하심을 믿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20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벧전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를 느낀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는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나던 간에 주님은 그때마다 나를 돌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과 삶의 문제들을 균형있게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이 어려울 때는 나 혼자 뿐이라고 자주 느낍니다. 학생때 시험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못했을때, 환자 면담시 어려움을 느낄때, 동료들 간이나 직원들과 문제가 생겨서 대화를 해야 할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서야 나는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의료의 어떤 부분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입니다.

두번째 구절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는 말씀도 외워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을 떨쳐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걱정하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환자들, 동료들, 직원들은, 그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의료적인 결정은 결코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심에 빠져 꼼짝 못하게 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 "영려를 다 주께 맡기고" 숨을 크게 쉬고, 오늘 할 일을 민첩하고 명쾌한 마음으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추가요절: 예레미야 17:7-8

기도: 사랑의 주님, 저를 돌보시고, 내 근심 모두 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민첩하고 명쾌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3mon21-31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21일

하나님과 친밀함

창 3: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 3: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낙원을 보호하려고 입구에 천사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후에 하나님은 이집트를 떠난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거하기로 작정 하셨습니다. 그대신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주님의 임재를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에 천사를 자수로 새겨 넣으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인간이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오직 1년에 한번(속죄 절기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때 장막 커튼이 초자연적으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드신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죄가 더이상 우리를 주님으로 부터 분리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더이상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못하도록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요절:시편 16

기도: 주님,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임재가운데에 우리가 거할수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22일

감사하는 종이 되는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시 7:17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감탄하게 하기 위한 일들을 준비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겪지 않도록 하신 모든 어려움들을 감사하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 받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같은 자리에, 같은 환경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축복없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사전에서 불평의 뜻은 항의, 불평, 한탄, 소란 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했을때 40년 동안 같은 장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여행을 11일만에 끝낼수 있었지만 , 11일도, 11년도 아닌 40년이 걸렸습니다.

의사인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하루의 시작을 불평으로 시작하는것이 당연합니다 . 일정치 않은 당직 변경, 요구사항이 많은 환자들, 불공평한 의료전달 구조, 믿기 어려울 만큼 낮은 급여와 과중한 긴장, 우리는 매일 24시간씩 일주일간 쉼없이 일합니다. 이 모든것 말고도 그위에 의사라는 자존심이 또 있습니다.

교만과, 불평 두가지는 중요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자를 좋아하십니다. "시편 106:25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그들의 장막안에서 불평하고, 주님께 순종 않았습니다.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과 불평과는 정반대로 , 우리 자신이 감사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잠언 17: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과, 야고보서 4: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현재 상황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예레미야 29: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요절:빌립보서 4:8

기도: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하여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23일

주님 저의 비전이 되소서

잠 29:18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성공적인 지도력에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성한 하나님의 계시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큰 미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목표뿐만 아니라 그가 가야할 길도 알려 주십니다. 창세기 12:1-3 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람에게 편안한 집, 가족, 소유를 떠나 모르는 곳으로 가라고 하신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은 위대한 유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즉시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의 가족과 함께 갈데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서 어떤 이유에선지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11:31). 여호수아 24:2 에는 데라는 "다른 신"을 숭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분리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자식이 없는 아브람(존경스러운 아버지) 이 아브라함(많은 사람의 아버지) 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생동안 하나님의 주신 비전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19 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로 되어 있습니다.

몇년전에 내 편안한 직업을 떠나 위대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쉬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작고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고, 또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후,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때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비전을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비전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행함이 평생 우리의 소명이 되었습니다. 판다 라마바이 여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에 헌신하여 케다옹푼 에 목티 선교회를 세웠고 오늘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극빈의 여자들, 어린이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비전을 이루기위해 그 여자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용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의 소명으로 만들 의지가 있나요.

추가요절: 사도행전 26:19

기도: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녹여, 새로 만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24일

작은 것으로 부터 큰 것으로 자라기

막 4:31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최근 텔레비전에 "작은 것으로 부터 큰 것으로 자라기"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오병이어 소년의 이야기가 그런 종류의 두번째
이야기이고, 인도 뭍바이의 어린 소년 이야기가 세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안하든지 우리는 미리 그 효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안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그 영향을 우리는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우리를 시키셔서 행한 일이면 더욱 그
영향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몇년전 뭍바이 8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우기에 큰 나무가 도로를 덮쳐
쓰러졌습니다. 도로 붕괴가 마음이 아파 소년은 폭풍중에 뛰어나가 나무를
치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여러명의 소년, 소녀들이 그 소년을 보고, 폭우속에 함께 시도했습니다만 진도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무를 치우고 장애물을 철거했습니다. 이것은 한 작은 아이의 기도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오천명과 이야기할 때, 8 세 또는 10, 12 세 정도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말라버린 오병이어를 왜 드리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경우 다
명백하게 아주 작은 우연한 일입니다. 교통 마비와 방해물 불편을 개선하려는
소원과, 엄청 많은 음식의 필요성 앞에 작은 한 접시 분량의 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할 일과 할 말을 하도록 시키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므로, 그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 길을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누가 말한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 지는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추가요절: 열왕기상 17:7-16

기도: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실 것을 믿고, 작은 시작을 만들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25일

직장과 예배때의 태도

창 4:6 -7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모든 우리의 하는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같습니다. 경쟁의 의미는 결코 없습니다. 만족, 감사, 신뢰, 희생의 태도는 예배때의 행동일뿐 아니라, 직장에서 일할때 가질수 있는 태도입니다. 일찌기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벨은 정직한 마음과 의로운 태도로 일터에서 얻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좋으신 참 하나님이고, 그의 가장 좋은것을 바칠만한 전능하시고 훌륭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가인의 태도는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신하는 태도였습니다. 가인은 그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을 보기 원했습니다. 즉 그것은 인간인 가인을 시종들 책임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나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우리 환자들, 동료 의사들, 윗 사람들에게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사나요?

또는 우리 직업이 지루함, 불평 가득함, 비교함, 자기 연민, 시기심, 증오심이 가득합니까. 우리 마음이 뿌루통하고, 화가나 있나요. 속임을 당한 사람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태도입니다. 가인의 잘못된 태도가 죄의 그림자를 그의 마음에 안내해서 들어와 숨어 있는 것을 가인이 알도록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 직장에서도 이 경고는 매우 유효합니다.

추가요절: 골로새서 3:23-24

기도: 사랑의 주님, 주님으로 부터 오는 은혜로 일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에 대해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내 직장의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26일

성공합시다.

눅 13:7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들나무에서 뿌리를 뽑아내서, 육체의 일인 죄를 제거하고 주님의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맺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포도원에서 잘려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혹은 어떤 지위와 서열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맺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누가복음 13:8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나 기다려 주다가 때가 너무 늦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사, 치과의사, 의료종사자분들, 환자들을 향해 사랑,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과 긍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추가요절: 갈라디아 5:22, 요한복음 15:4-5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일하는 곳에서 다른 것이 아닌 열매를 맺기위해 주님을 섬기라고 소명을 주신 것을 압니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열매맺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27일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을 갖고 삽시다

갈 3: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누구의 자녀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기쁠때 또는 슬플때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매우 자주 ,우리는 가정에서나, 일하는 병원에서 놀라운 성공을 경험할때, 그냥 우리 마음의 리듬에 맞춰 행동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우리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우리 자신을 뽐냅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신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린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계신 주님의 자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때로는 장애물들로 가로막혀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때도 많습니다. 앞으로 격랑에 휩싸일거라고 생각만 해도 슬픔이 찾아 옵니다. 이때도 역시 , 우리는 불평을 버리고,누가 우리의 아버지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꼭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왕처럼, 언제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되면, 실패처럼 보이는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구하고, 그 안에 있다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지 않고 모세처럼 될 것입니다. (시편 103 편 7)

추가요절:시편 77

기도: 제 삶에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보여주셔서 길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28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요일 3: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하나님의 큰 자비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 주셔서 죄의 권세를 관리하고, 또 이기고, 경건한 삶을 살게 권세를 주십니다. 뿐만아니라 주님은 성령을 보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요, 주님의 왕국의 상속자요,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무료로 누구한테 상담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이사야 48:17) 아십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도록 인도함을 받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나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수있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이고 생명입니다." 란 말씀중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기 위해 매일 시간을 쓰는 이유입니다. 시편 119:105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쓰여져 있지 않은 상황도 역시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리면 이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가요절: 이사야 48:17

기도: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게 도와 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29일

서로 돌아보기

빌 2: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단강 맞은편 동쪽 땅에 거주하려는 부족들이 모세에게 요청해서 여기 요단 동쪽에 거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큰 가족의 일부 부족이니, 너희가 거주하기 전에 먼저 다른 형제들이 거주하게 할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족은 이 말에 동의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우리는 서로 같은 가족이고, 우리는 서로 돌봐야 한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몇년 후, 이 말이 성취되었고, 이 부족들이 그들의 약속을 다했을때,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즉 그들이 해야할 일들을 다 끝냈지만, 그들이 가족의 일원임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좋은 의도로 기념 제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더 큰 가족의 일원임을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강건너 부족들은 (들은 소문에 기초해서) 약속을 깬 것으로 이해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 자신의 형제 부족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일은 어떤 공동체에서나 흔히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만 이해하거나, 우리가 들은 소문이나 뉴스에 근거하거나, 직관적인 추측에 근거해서 반응합니다. 소문에 의해 분열이 만들어지면 가족이 다 망한다는 것을 지도자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들어주는 교제와 잊지 않도록 당부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주님이 그들 모두의 하나님이며, 그들은 모두 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같은 형제 자매로서 서로 돌보아야 합니다.

추가요절: 갈라디아서 6:9-10

기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하기 위해 애쓸때, 한 가족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월 30일

예수님의 외래진료소

눅 17: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베데스다 외래진료소에 오셨는데, 그곳에는 맹인, 절름발이, 마비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매우 바빴습니다. 한 간호사가 예수님에게 뒤에 있던 38년동안 걸어보지 못한 특이한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환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비통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낫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나를 돕는 사람들이 오래전 포기해서 나를 버려 두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누구,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때, 놀라운 힘이 그 사람의 다리에 전해졌고, 일어나 걸을수 밖에 없음을 느꼈습니다. 30 년만에 처음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 5:19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 5: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나는짐바브웨 하라레에 있는 외래 환자 진료소에서 에이즈로 방금 진단받은 23 세 젊은 여자를 치료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진찰후 치료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메모를 기록하는 동안에 그 여자는 방문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내 오른편에서 불기둥이 느껴졌고, 내 노트에서 눈을 떴고, 그 여자에게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그 여자를 들어오라고 한후, 잠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3 분만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여자는 슬픔의 재를 뒤집어 쓰는 대신 아름다운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 여자는 설명할수 없는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내가 몇달 동안 상담한다 해도 그런 결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3 분만에 그여자는 하나님이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요절: 요한복음 5:1-20

기도: 우리가 치료할 때, 당신은 병을 낫게하시고 병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낫게 하신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3 월 31 일

예수님의 직무

눅 4: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어릴때 자라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의과대학을 갓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온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으실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40 일간의 힘든 금식과 많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셨고, 그 큰 시험에서 승리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케 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의과대학 졸업생이 의사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과 같았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때 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직무를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부터 읽으셨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질병과,

허약과, 비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몸, 정신, 영혼을 가지고 입원한 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 눈을 회복시켜,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케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기름부으셔서, 예수님께 부탁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직무가 우리의 직무와 똑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4:18-19 절을 크게 읽어보시고, "나"라는 단어대신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이사야서 61:1-3 과 58:6-14 를 묵상해 보세요. 이사야 58: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에서 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님처럼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명이며, 직무인가요.

추가요절:이사야 61:1-3

기도:주님, 당신의 위대하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4 월 1-1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 월 1 일

주님안에서 만족하기

딤후 6: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은 자족하십니까. 자족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옥스포드 사전에는 '행복, 평안함의 상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이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시대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와 재산을 누렸던 솔로몬은, 그 지혜와, 재산의 풍부함속에서 진리와, 영원한 가치를 찾기위해 애썼지만 허무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5: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나는 초급 의사 시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수고" 라는 단어를 보고 반가웠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의 내 직업의 상태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지치고, 감사함이 없고, 정서적으로 탈진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감사함을 찾아보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청교도 작가 버로우씨는 "기독교인으로서 자족감은 귀한 보석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1648 년도 출판될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책은 우리에게 적절한 책입니다. 전도서에 "해 아래 새것이 없다" 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나는 환경, 인간관계, 재산에 대한 유혹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시기의 감정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소망과, 꿈은 우리 시대에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외의 곳에서 만족을 찾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6:25-34

기도: 오늘 우리의 환경을 되돌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게 하소서. 모든 일에, 심지어 고된 노동을 주셔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족함이라는 귀한 보석을 발견하게 도와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2일

성김의 위대함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마지막 주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특별한 간청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아들들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해 예수님은 계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예수님이 성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성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기는 종의 리더쉽은 사실 모순된 어법입니다. 어떤 리더를 살펴봐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신호와 호출로 움직이는 많은 종들을 가진 권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젊은 부자 청년에게, 모든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기는 종의 리더쉽을 이야기할 뿐만아니라, 이땅에서 매일 그렇게 사셨습니다. 요 13:3 -5 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음을 아시고도 ,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되면서 , 오히려 그것이 더욱 극도의 겸손의 행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로버트 그린리프씨는 성기는종 리더쉽이란 말을 만들어 낸 분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는 먼저 성기는 종으로 보여져야 하고, 이 단순한 사실이 그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성기는

종의 성품의 특징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든지, 피라미드식의 관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도자는 그 맨 위에 있습니다. 섬기는 종 예수님의 리더쉽에서는 피라미드가 거꾸로 되어 있어서 수혜자, 혜택받는 이들은 위에 있고 리더는 피라미드 맨 아래에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거꾸로 되어 있으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기술과 재능이 주님의 선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추가요절: 요한복음 13:12-15

기도: 주님, 세상을 거슬러 가기를 선택할 은혜를 주시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3일

교만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기

잠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의사선생님이 계시나요?" 라는 질문은 많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의사들이 많은 다른 상황에서 그 날 하루 환자들 살리기 위해 일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 의사들은 이 구원자적 심리에 어느 정도씩 젖어 들어서,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자랑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봅시다.

창조: 우리는 창조주의 절대 복종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님입니다.

떨어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반역의 빛이 쌓여서, 우리 스스로는 그 빛을 절대로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지위, 자랑은 파괴되었습니다.

구속: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지위와, 자랑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회복: 우리는 현재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사이에서 압박을 받으며 일합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누구이며, 누가 세상을 구원하셨는가를 찾아보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무얼 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지 찾는 교만에 빠질 유혹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볼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나요. 잠언의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기평가: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자랑의 단순한 외적 모습보다 그 자랑의 실제인 사단의 유혹을 깨달으세요.

헌신: 가장 먼저 여러분이 헌신해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후엔 경건하고 정직한 친구들입니다.

추가요절: 빌립보서 2:3-11

기도: 나의 약함을 알기에 겸손하고 싶습니다. 어려울 때 위엿 것을 바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웃고 사랑하며 힘을 얻기 원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4일

방향과 회복

창 13: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뽀엘에 이르며 뽀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 사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실제로 이복 누이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대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바로가 사래를 취한 덕분에 아브람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반은 거짓입니다. '악의 없는 거짓말' 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모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떠나오게 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업으로 후에 받을 땅으로 가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아브람은 순종했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면서 떠났습니다(히브리서 11:8).

바로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그의 거짓말 때문에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아브라함은 돌보아 주었나요? 그는 즉석에서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아브람은 네게브로 갔습니다. 즉, 그가 처음 단을 쌓은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나온 걸음을 조사해 볼 필요가 우리도 있을까요? 물질주의나 다른 사람의 두려움에 의해 우리도 유혹되지는 않았나요? 아마 우리들은 좋은 봉급을 받고, 안락한 집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처럼 부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흔들렸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제단이 아니라,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할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드세요. 혹시 우리가 방황했을지라도, 주님은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들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감사하세요(요엘 2:25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팔중이가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주님은 깨지고, 통회하는 심령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시편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추가요절: 사도행전 3:19

기도: 내가 잘못된 길을 갈때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두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5일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지십니다.

마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린 누구나 때로 피곤하고 짐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이 두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 되어 있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피곤해집니다. 여러 형태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생활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의사로서 많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압박과 시간, 기구, 인력부족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나 스스로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비현실적인 큰 기대치에 대한 압박입니다.

우리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력을 자랑하지만 끊임없는 짐들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우리 모두는 지치게 될겁니다(우리 직업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세대의 높고 화려한 기억을 자랑합니다).

이사야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게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 는 약속으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친숙한 비유였습니다. 멍에는 섬세하게 만들어진 기구로서 두 동물이 함께 밧을 갈거나 짐을 나르도록 할때 쓰였습니다. 어린 동물은 훈련을 위해 더 나이 들고, 경험 많은 동물과 멍에를 같이 지게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더 나이많은 동물에게 짐의 무게가 더 쏠리도록 벨트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걸어 가면,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추가요절: 디모데후서 1:7-11

기도: 주님, 주께 왔사오니 내 능력을 새롭게 해 주소서. 주님의 능력과 인도없이 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확신과 희망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 월 6 일

선지자 역할을 하는 의사, 의사 역할을 하는 선지자

막 16: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히스기아왕의 질병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0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민족이 부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38 세 되었을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직 결코 죽을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암이 자라고 있었나 봅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찾아와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때, 흥미롭게도 왕의 죽음을 전했던 바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방에 따른 약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날마다의 진료중에 기적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더 살지 못할 것 이라고 예측했던 환자들이, 살아서 걸어 병원 문을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 시골지방에 위치한 선교병원에 극도로 병든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그분은 응급 복강경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수술중 사망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취를 시행하기 전에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는데, 그 순간 그 환자는 환상중에 자신이 무덤에 묻히는 모습과, 곧 이어 흰옷 입은 분이 그의 손을 내밀어 자신을 무덤에서 끌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정말로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났으며, 예수이름으로 그의 온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환자들에게서 우리는 희망과 치유의 선지자로 불립니다.

추가요절: 열왕기하 20 장

기도: 주님, 저를 주님의 치유의 소식을 환자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 월 7 일

가족의 선지자인 의사

고후 5: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2004 년에 17 세인 우리 아들 데이비드는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쪼개지는 듯한 두통과, 구토때문에 깨어나서는 잠시후 곧 의식을 잃어버리고, 몸의 왼쪽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날은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날들 중 하나였습니다. 첸나이의 바쁜 도로 위를 구급차로 달려가면서 나는 필사적으로 그 사랑스러운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쉬지않고 기도했습니다. 큰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모여 뇌의 컴퓨터 단층촬영을 포함한 일련의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데이비드가 극도로 불안정해서 컴퓨터 단층촬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집중 치료 의사로 부터 기도 삼관을 해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취과 의사인 나는 아이의 생명징후가 비정상적이어서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정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식물인간이 되면 어쩌나, 이제는 끝인가. 컴퓨터 단층 촬영실을 나오면서, 주님께 자비를 구하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편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평안이 찾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임재였습니다. 내 상상력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내 깊은 슬픔 속에 빠져서, 나는 이 시편 23 편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병은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하셨나요. 내 아들이 살아날 건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생각이 기억난 것이었나요. 후에 데이비드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를 회복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데이비드가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ICMDA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되돌아보면, 그것은 분명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병이 죽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당시 데이비드가 살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머지 가족들에게 이야기 하기가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추가요절: 시편 23

기도: 주님, 성령의 지시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계시를 가족에게 전달하는 선지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 월 8 일

나라의 선지자 역할- 의사

시 2: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의료인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과 또 그런 상황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신앙, 피부색, 신조, 카스트의 환자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심지어 전쟁 지역에서 병원들은 보호받습니다. 전쟁 중에는 더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국가에 대해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기회입니까?

국제병원선교회(HCF International) 의 설립자인 그림박사는 "사람들은 교회보다 병원을 더 많이 갑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희망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은 없어서는 안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한번은 인도의 가장 위험한 지역중의 한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격적이고 쉽게 화를 냅니다. 한 의료팀이 거기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는 유일한 목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의사들을 도와주고, 수술을 해주러 자주 갔습니다. 그중 한번은 상황이 심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령인 도로에는 아무도 없고, 폭력꾼들만 있었습니다. 항상 여행의 가장 어려운 구간인 60킬로미터 도로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폭도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빨리 정부 병원 부지로 대피하였고, 정부기관에서 길을 엄호해 주어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좋은 일들의 소문을 듣고 그 지역 지방행정관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는 장안의 화재였습니다. 그는 최신형 무기를 가진 경찰들과 많은 사진기자 팀과 함께 왔습니다.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화 도중 나는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그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추가요절: 시편 71:14-15

기도: 주님, 당신은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요한처럼 나라의 선지자 소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9일

근본적인 부르심

미 6: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의사들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주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아픈 사람을 고치고, 마음이 상처 입은 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할 일들에 비추어보면, 가끔은 우리가 충분히 일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중에는 선교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자주 환자들과 주님께 관한 의미있는 대화를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아까운 경력을 버려두고, 일생을 헌신해서 자신의 남은 여생을 저개발국가에 가서 치료해 줍니다.

불행하게도 만일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시작한다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환자들과 수천번 신앙적인 대화를 나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에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일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의무감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심지어 해외 선교와 같은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토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며,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상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보일까요. 그 모습이 믿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속에 겸손히 행하며, 기도와 성경 묵상 생활을 하는 일 일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입니다.

추가요절: 히브리서 13:20-21

기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방법으로 주님이 제게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 월 10 일

주님 왜 저입니까?

욘 1: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어느 오후에, 내 전임 교수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1년반 동안이나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 환자의 치료를 맡기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우리 환경에서는 감염질환이 매우 흔해서, 그 교수님은 온갖 종류의 항생제를 썼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양전문의, 내분비 의사, 위장전문의와 협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여자아이의 상황의 원인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는 어머니인데,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검사 후 우리는 최종적으로 자가면역질환으로 진단했습니다 (몸 안에서 스스로 싸우는 병). 진단이 내려진 후에는 이병의 치료법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불행하게도, 약에 대한 반응이 최적상태에 못미쳐서, 간헐적 고열이 왔습니다. 내가 치료를 시작한 후 퇴원할 때까지 입원 치료 및 검사비가 3만불 가량 나왔는데 대부분 엄마가 빌려서 갚았습니다.

헌신된 기독교인인 엄마는 아이의 회복을 위해 여러 기도 그룹을 만들고 기도 부락을 했습니다. 만성적인 질환으로 오랫동안 입원한 관계로 가족들은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 아이에게 베푸신 주님의 자비에 감사해서 아침 일찍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아이의 대변에서 피가 옷에 묻어 나왔습니다. 엄마는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심한 출혈로 아이는 도착할 때 이미 사망했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왜 저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라고 계속 울었습니다.

추가요절: 사무엘하 12:14-31

기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가까운 이와 의 사별과 걱정으로 힘든 분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적절한 언어와 태도를 사용하게 해 주셔서 슬픔 중에도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빕니다.

4월 11-2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 DA
4월 11일

제자도

마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최근에 누군가가 우리 대학에 있는 지도자 과정 과목을 전부 세어 보았습니다. 각 단계별로 19개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더 많은 강의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력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바로 그 지도자라고 불립니다. 그들이 속한 각 팀별, 각 과별, 각 병원별, 그리고 때로는 그 이상의 조직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지도자는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좋은 지도자로 계속 유지되기는 더 어렵습니다.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고, 로드액톤이란 사람은 말했습니다. 또 "절대권력은 절대로 망한다" 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범적인 지도자들이 거만해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법을 어기고, 자신만을 위해 가장 충실했습니다.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좋은 지도자가 되라고 결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고 예수님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 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제자도(제임스 에밀리가 만든 말입니다) 는 중요합니다. 하버드 경제잡지에 정의하기를 "목표와 원칙 또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충실하기" 그리고 "용기있고, 정직하고, 믿을 만함" 입니다. 우리가 지도자에게서 너무나 보기 원하는 것이 이것들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큰 지도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직업을 위해서나, 인품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으세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사용하세요. 우리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귀기울이기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아직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16:13-28

기도: 주님, 저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의 세밀하고 고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12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미 6: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1991년 42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트란스케이 라는 도시에서 나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나는 트란스케이 대학병원의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새롭게 산지 일주일도 안되어 주님이 얼마나 깊이 내 전문 직업에 관심이 있는지 내마음에 명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외래 환자 보면서 환자의 정밀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병력과 검사결과를 차트에 기록하였습니다. 진료한대로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후, 마지막으로, CNS:NAD (중추신경계-아무 이상징후 없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이고 외관상의 검사였지만 나는 그동안 하던대로 기록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추신경계를 철저히 검사하지 않았으면서 기록하면 안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내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몇가지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내게 오실 수 있으십니다. 더구나 특별히 듣고자 하지 않을 때도 내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내가 하는 전문 직업의 일에 관심이 있으시며, 주님은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관심을 기울이시기에, 나는 언제든지 그분을 부를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은 인슐린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 환자는 59세 정도였고 많은 당뇨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심하게 숨을 헐떡였습니다. 약으로는 호흡 장애를 완전히 완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14세인 딸이 보호자 대기실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를 살려주세요". 나는 작은 소리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 어린 아이의 아빠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 한가지를 놓고 함께 구합니다". 그 환자는 좋아졌고 몇년을 더 살았습니다.

추가요절: 마가복음 16:20

기도: 주님, 내 생활에 항상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13일

일꾼은 적으니

눅 10:2-3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미국 버밍햄에서 일반의사로 개업을 하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선교사로 일하던지, 대부분의 의사들은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많은 환자들입니다. 더 많은 동료의사들과 함께 근무하며 짐을 분담하기를 원해 본 적이 다 있을겁니다. 우리는 의학적인 질병들 뿐만 아니라, 심한 고통, 통증,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박탈에서 오는 결과들을 봅니다. 할일은 많고, 자원은 너무 적습니다. 주님, 저희 할일을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은 이 문제 많은 세상을 바라 보시고, 그 중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음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런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만 일꾼은 너무 적습니다. 이 많은 할일을, 누가 가서 그 일을 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누가 가서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까. 어느나라에 있는지 무슨 전공 의사이든지 우리 모두는 이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분명히 스스로 반항적인 생활을 한 결과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만든 이 좋은 세상에 해를 끼치는 죄로 알려진 질병의 경우에는, 더욱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일꾼을 보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문제로, 너무 바빠서 영적인 일도 덤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런 하찮은 일들을 하게 하십시오. 의료적인 일만 하게 나를 내버려 두어 주세요.

아니면 우리는 3 절 말씀처럼 "갈지어다" 로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라고 말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고, 그들중 몇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있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 그 특권을 사용하세요.

추가요절:누가복음 10:1-20

기도:주님, 당신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당신을 섬기는자로 사용해 주십시오.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 월 14 일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 6: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으로다 하였더라

오래 전에 뛰어난 세탁효과, 특히 셔츠를 하얗게 해준다고 해서 세제가루들이 팔렸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아이들이 아주 흰 셔츠를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엄마들이 볼때 멋진 흰 셔츠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그 세제로 옷을 빨래한 셔츠를 아이들이 입었을때 티브이 광고 흰색과는 다르게 회색빛, 그리고 지저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우리의 거룩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보다 무한대로 더 뛰어나시고, 다르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극도로 월등하십니다. 거룩하심은 주님의 성품중의 하나입니다. 무한한 사랑, 은혜, 자비, 긍휼도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주님을 대하고 어떻게 되었나요. 이사야는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고 매우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망하게 되었습니다(5 절). 그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본래의 죄악된 모습으로 서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앞에 나올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7 절) 에서 비유적으로 핀 솜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화시켰습니다.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와 같이, 이사야는 정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0:1-13 에서 모세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성을 내었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으며 경솔한 말들을 했으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명예를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 댓가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처벌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빌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함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7: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 율법을 받은 산꼭대기에서 모세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 하늘나라였습니다.

추가요절: 이사야 6:1-7

기도: 주님, 제안에 거룩하고자 하는 소망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비와 청결함을 올려 바로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15일

두 산 이야기

출 19: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하실때 불가운데, 어둡고 컴컴하고, 폭풍우, 나팔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산 가까이 가기만 해도 사람이건 짐승이건 죽음의 형벌이 있습니다. 위대한 모세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자기 힘(자기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므로서, 거룩하신 주님앞에 나가려고 하는 죄악된 인간을 묘사하는 무서운 광경입니다.

출애굽기 19:22-24 에서 또 다른 산, 시온산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요한계시록 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예수님,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시는 거대한 기쁨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영혼들이 거룩함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중보자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전에 나갈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출애굽기 30:19-21, 히브리서 9:18-22).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상징적으로,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물건에 동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면,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에베소서 2:8-9).이 피뿌림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입니다. 이 산 위에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를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의 질문은 어느 산에 내가 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선행으로 주님의 전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있습니까, 혹은 예수님 안에서 내게 주신 주님의 자비에 나자신을 맡길 건가요.

추가요절: 히브리서 12:18-24

기도: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나의 모든 필요에 충분함을 압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할때 이 확신안에 거하게 도와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16일

주님 언제까지 입니까?

시 13:1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의 힘든 일들과 시련들을 얼마나 더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님 언제까지 입니까? 이런 고난과 실패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건강 문제, 친한 사람의 사별, 재정 결핍, 인간관계의 어려움, 중독이나 심한 유혹과의 투쟁등이 닥칠 때입니다.

의과대학의 교수로서, 수천명의 학생들이 의학교육을 몹시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입니까?" 라고 반복해서 외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외침은 대학원에 가서 허덕일때도, 전문의로서 적합한 지위를 얻을 때도, 전문의의 삶을 시작할때도, 반복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투쟁을 그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네번 연속해서 "언제까지 입니까?" 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계속 기도해야합니다.

다윗은 주님께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저를 돌아보면서 응답하소서"

계속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3:5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모든 일이 잘되면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안될 때는 매우 어렵습니다.

계속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시편 13:5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그의 시선을 사람으로부터,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구원으로 돌렸습니다.

계속 경배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가 겪은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문제에 대한 균형된 시각이 생깁니다. 누구든지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보기를 나는 권합니다.

추가요절: 야고보서 1:2-4

기도: 주님, 오늘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닥쳐올 싸움에 맞설 힘을 주시고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17일

천국이 정말 있나요?

고후 5: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브라질에 선교사로 다녀온 후 리차드는 우리 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선교사 생활 하던중 딸이 심장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슬픔 절대로 잊지 못했고 그의 많은 설교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차드는 희망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고, 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친한 친구인 톰 불루머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전 꿈속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처음엔 리차드 목사에게 이야기 못했다고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이 용기를 주어서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에서 톰은 자신이 죽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낸 시간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생생하게 느낄수 있었습니다. 한 사랑스러운 어린 여자아이가 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그의 손을 잡으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바로 선생님의 목사에요"

천국이 정말 있나요? 진짜 내가 다시 사는 걸까요? 아니면 죽음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나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만일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본 적이 없다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년 전에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에 대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 모두 아버지를 만날겁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어머니는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는 그렇게 믿지.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단다. 그러기 때문에 믿는 거란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와주심을 여러번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건너 영생으로 우리와 함께 가실겁니다.

추가요절: 요한복음 14:2-3

기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18일

당신의 기반은 어디입니까?

시 61:2 -3 내 마음이 약해 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가족과 함께 세계 여행중에는 27 개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한 곳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아내나,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양육의 안정에 대해 염려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거주하여 고국을 떠나있는 사람들이나, 고립된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또 손자 손녀때문에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부처럼 우리 자녀들도 지구 곳곳에서 일했고, 손자 손녀들은 친구 관계가 계속 바뀌고, 집도 이사를 많이 해야하고, 여러 학교로 옮겨 다니는 어려움의 폭풍에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기반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안식처는 4 에이커의 숲속에 싸인 장인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는 그 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부모들이 항상 그곳에 있어서 도와 주고, 먹여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우리집이 그들이 그 부모와 함께 인도, 키르기즈스탄, 태국, 일본, 그리고 각 도시들로 이사다닐 때에 기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셀윈 후게가 쓴 매일 성경 노트의 주제중 하나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반을 삼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일하는 동안, 생존하는 동안 단단히 매달려야 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 생명과 능력이 거기서 흘러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시며,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추가요절: 시편 91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기반으로 단단히 붙어있게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 월 19 일

부서짐을 통한 해결

요 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사건전에 일어난 일들이 겉으로는 연관이 없는것 같지만 ,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신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서짐을 통해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은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 , 직관적으로 추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뚫고 나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에 대해 군사적인 전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승리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 부터의 해방 대신 유대인들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초청받았습니다. , 죄의 굴레로 부터의 해방,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그들의 인생의 고통에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대한 확신을 삶에 대한 공개적인 초청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목표를 뛰어넘어 주님이 건축하시고, 창조하시는 포괄적인 치유 공동체의 방법으로 주님의 목표를 결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의 네가지 사건은 기꺼이 부서짐의 삶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모방할 본보기입니다.

첫번째는 값비싼 향유를 가득 담은 병을 부수어 뜨리는 것입니다. 그 향유는 마리아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계급 구조를 부수어 뜨렸습니다. 세번째는 빵을 부수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기억하며 따라 행하게 하셨습니다. 즉 한 교회 공동체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서짐임을 계속 기억함으로서 새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십자가에 달리시기전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죽음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죽는 고통을 미리 겪으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추가요절:고린도후서 5:17

기도:이 네가지 부서짐을 깨달아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새로운 치유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여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20일

하나님의 사랑이 환난 중에 임했습니다.

롬 5: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롬 5: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롬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1989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나는 환난에 대해 설교해 달라고 우리 모임에서 요청받았습니다. 나는 로마서 5장 1-5 말씀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 입니다. 설교한지 얼마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두번이나 연이어 여자와의 사귀기를 실패한후 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리고 외과 수련과정에서도 탈락되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무너졌고 고통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달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점점 더 주님을 갈망하고 목말라했습니다. 황폐한 내 인생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찬양과 예배에 귀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존 화이트는 뉴질랜드 도메인을 방문했을때, 학생들과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할때 눈앞에서 환자의

두드러기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본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인도하는 기도모임중에 성령의 불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내 신앙이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실감하는 것 보다도 주님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불신으로 내 마음을 닫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편 95 편과 히브리서 3:13-15의 말씀이 내 인생에 역사했습니다. (히 3:12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3: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3:14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3:15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느날 퇴근후 아파트에 오후 5시쯤 도착해서 음악 앨범 "우리는 당신을 환영해요"를 들었습니다. 세번째 곡 "거룩하신 주의이름" 을 듣는 도중 주님의 임재가 어둡고 침침한 아파트 내방에 충만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후 6개월동안 강렬하게 매일 직장에서, 예배가운데 내 삶에 임재해주셔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마 내 마음이 처음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가요절: 로마서 5:1-5, 히브리서 3:12-15

기도: 주님, 내 마음 문과 인생의 문을 열고 당신의 변화시키시는 임재하심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아멘.

4월 21-3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21일

예수님처럼 다 이루기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흔히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유망하게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이루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결심이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는 말씀처럼 우선 순위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특히 더합니다. 나는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면접을 보아 왔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원한다고 열정적으로 약속합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의 이상은 인생의 변화와 함께 갈 수 없고, 곧 회의적인 태도로 대처됩니다.

예수님은 우선 순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극복했습니다. "요한복음 4: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몇가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대감으로 찢어진 이 세상에 공의의 삶의 모델의 역할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훈련을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중 한명은 배반했고 자살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란 말은 최고의 목적 또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뜻하는 그리스말 텔로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전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의 삶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우리 의대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지 않으면, 졸업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젊은 이상은 대부분 심각하게 손상될 것입니다. 의지력만 가지고는 힘이 없습니다.

추가요절: 디모데후서 4:7

기도: 주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이루었다(테텔레스타이)" 라고 말할 수 있을때 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 월 22 일

능히 하실 이에게

엡 3: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의료 전문 분야에서 부름을 받아 일하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배워 익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하기전 이 모든 것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예측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생각하다보니, 우리 인생의 자수를 짜고
계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운동력을 가리워 버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굴복하면, 우리는 우리손의 바늘과 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것들을 넘겨드립니다. 그런식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꿀때,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할때, 우리의 의지는
주님께 맡겨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세대에게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영광을 전파하도록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는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이루실 겁니다.

당신의 손을 주님께 넘겨서 주님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이 당신을 감동시키도록 하세요.

추가요절: 골로새서 1:9-13

기도: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제 삶을 맡아 주소서. 당신께 저를 바칩니다.

제 손을 맡아주시고, 인도해주소서. 주님이 내 배의 키를 움직여 주소서.

제가 주님의 모범적 본보기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세상의 진로를 비추는, 당신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동정심을 담아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즉, 환자들, 동료들, 선생들, 가족들, 친구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당신의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길을 보여줄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행복하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23일

내 삶의 가장 방치된 부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시 139: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 139:2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시 139:3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밟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루는 지역 학생 사역 담당자가 내 치과에 방문했습니다. 그의 동생의 치아를
치료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동의하고 나서, 무료로 그의 치아들을 치료해주고
스케링도 해주었습니다. 그 동생은 젊은 학생인데, 그의 치아에 대해 관리도
안하고, 한번도 치과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어서 도달하기
어려운 구치부의 뒷면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의 상악 우측
제 3 대구치의 뒷면의 충치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그가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았던 그의
치아의 방치된 부분을 치료해 주었듯이, 나는 네 인생의 가장 방치된 구석을
너를 위해 치료한다" 그때 나는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내 가슴은 감사함으로
압도되었고, 내 인생을 놀랍게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마치 치과의사는 환자의 치아의 모든 문제를 알고, 더욱이 환자 자신이 모르는
것도 알듯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며, 심지어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삶의 잘못된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등한시 했던 부분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 부분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은 우리를 큰 근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추가요절: 베드로전서 5:6-7

기도: 주님, 주님께 저의 모든 근심을 아립니다. 주님은 우리자신이 알지 못하던
문제까지도 돌보심을 기억합니다. 지금 저의 가장 큰 근심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24일

고통의 도가니

계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냐 곡하는 것이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나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요한복음 16:33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멸망의 시대에서는
아무도 헤어날수 없습니다.

고통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옵니다. 질병이든 암이든 건강문제는 도처에 흔합니다.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은 죽음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여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병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죄의 결과입니다. 고질적인 죄들, 고통스러운 중독들, 단순한 어리석음, 부주의, 무지함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질병은 또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 생깁니다. 차별대우, 부당한 태도, 배반, 부당하게 우리에게 행해지는 사사로운 것들로 인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때도 질병이 생깁니다. 잔인한 이 세계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핍박이라는 추악한 삶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라고 불리는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원인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 고통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구름의 뒤편은 은빛으로 빛난다는 (괴로움 뒤에는 기쁨이 있다). 서양속담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이르도록 해주는 시련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도가니를 통과하면서 순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금보다 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고통은 끝이 납니다. 고린도전서 15:54 에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확실하고 기쁜 운명은 하늘나라 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슬픔도 없고, 더이상 아픔도 없으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추가요절: 이사야 65:17-25

기도: 주님, 주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주신다는 희망과 인내로 고통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 월 25 일

슬픔의 깃털

요 11: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그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의 실제 모습을 마주하면서,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슬퍼하는 이들을 마주하면서 우셨습니다. 얼마후 예수님은 자신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고치실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연민을 이기지 못하시고, 더 나아가 분노하셨습니다. 의학에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고통을 직접 마주하게 됩니다. 시편 23 편 4 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에서 일하는 동안 내 뒤에는 고통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의료라는 직업의 겉 표면을 예쁘게 포장한다해도,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적나라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병원에서 20 세 초반에 죽은 한 여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젊고, 생기가 넘치며, 그가 마주친 무서운 상황에서도 활발하고 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죽음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감과 깊은 허전함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을 마주 대해 볼 때마다 슬픔의 깃털이 우리의 어깨에 쌓여갑니다. 마음의 짐을 건강한 방법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그런 깃털이 쌓여 견디기 어려울만큼 무거워집니다. 우리의 큰 슬픔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밖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쉼을 얻으라는 말씀이 마음에 끌리며, 생명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고통에 계속 노출이 되어 쌓이면 흉터가 남습니다. 죽어가는 임종환자를 20 년 넘게 진료하면서, 맨처음보다도 더 고통을 마주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후회하거나 두려워할 것은 아니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한 마음은 우리의 공통된 인간적인 품성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품성한 토양입니다 (욥기 12:22). 또한 상한 마음은 우리를 주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약한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는 (고린도후서 12:9),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추가요절: 이사야 53:1-7

기도: 주님,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 월 26 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신 10:12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미 6: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구약의 두 책에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 장 5 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에게 완전하고 절대적인 헌신을 분명히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100 퍼센트 마음과 뜻을 다해서, 100 퍼센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오랫동안 진료하면서 쌓은 기술과, 지식과, 교육을 받은 의사라도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내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 다시 회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완전함이 되어주시고, 내안에 그 완전함을 보게됩니다. 의로운 활동, 자비의 사랑,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것은 변화된 내삶의 결과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완전함이 가능합니다.

추가요절: 신명기 6:1-17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외아들 예수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 죄를 씻어주시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게 완전함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 월 27 일

열린 마음

계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의 호스피스에서는 좀 더 나은 봉사를 하는데 전념합니다. 그들의 배경, 신앙,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필요한 분들은 누구나 우리가 준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호스피스 사역을 집없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창의적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문화권의 환자들에게도 호스피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모습이 좋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20 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은 넓게 열려있고, 누구든지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은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서구에서는 많은 불신자들의 생각은, 교회가 제일 환영받지 못할 마지막 장소라는것이 나를 슬프게 합니다. 어쨌든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대해 대응할 규칙들, 행동 규범, 비판적인 태도등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왔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총만함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진리보다 은혜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요한복음에는 이 순서대로 두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할 지 모른다면 진리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물론 때로는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해야 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은혜입니다.

죄의 결말, 회개의 필요성, 정의, 심판의 실재함등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단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환영하고, 함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들은 더 자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거절하기 힘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기 전에 먼저 부르셨고, 그들이 잘 행하기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추가요절:마태복음 7:12

기도: 주님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자비와 연민을 드러내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28일

어둠의 보물

욘 12:22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내 환자들과 그들을 간호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고와 고통을 당한후 다양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손실과 곤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에 위축되고 균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기엔 과정이 있습니다. 실망과 혼란이 와서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둠속에 있는 보물과, 감추어진 곳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는 신비로운 결말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아주 친밀할 수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유리 창문을 통해서 어둠속을 들여다 보면 그속에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어둠속을 비추면 유리창에 멋진 모습이 비추입니다. 주님이 비추이면 그림자 조차도 밝아지고, 중요한것은 낙담한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우리에게도 비추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띄게 됩니다.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선적으로 하는 두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내 믿음을 흔들 만한 그 어떤 것도 용인하지 않도록 합니다. 주님이 이 어려움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수 있음을 압니다. 어떠한 경우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아픔과 혼란중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경배드림이 가장 어려운 때이지만, 이때야말로 헌신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고통과 질병, 영생을 위한 고난이 없고, 그곳에서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드릴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예배는 더 없이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추가요절; 베드로전서 4 장 13-17

기도: 주님, 고통중에 인내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월 29일

일터에서 전도하기

마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누구이고,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하는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정말 훌륭하고 실제적인 두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13-14 절에서 성경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추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똑같은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위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여서 세상이 주님이 누구인지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듯이 의사로 살기 위해서는 경력을 쌓아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인간관계를 넓혀가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환자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능하지 않으면, 거치는 돌이 됩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주의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기독교인 의사들은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태도로 우리의 직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의사들과 다른 반응, 업무, 결과,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알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 말과 행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매일 하루 하루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장애물들과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5:13-16

기도: 주님, 주님의 은혜를 입술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게 도와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4 월 30 일

분노 조절

약 1: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의사로서 매일 많은 사람들과 일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바보부터 천재까지, 우리 동료부터 윗사람까지 만나야 합니다. 병원의 환자치료, 사무실일들, 그리고 그외의 잡다한 일들을 그들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서로 좋아하고 일을 같이 잘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다른날은 고집이 세어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고,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를 헐뜯거나, 단순히 서로 싫어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주는 자리에 있으므로 쉽게 화를 내거나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동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선배의 뒤에서 험담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공격자가 되거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분노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함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듣고, 받았고,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강건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야고보서 1: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할 권리가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바꾸는 상점을 운영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 대신 잠을 자고 있을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목적이 있고, 이성적인 분노였습니다. 야고보서 1 장 19 절에 듣기를 더하고, 화내기전에 정말로 두번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번 화를 내려고 할때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세요. 이 화내는 일의 뜻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목적에 맞게, 건설적으로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게 간구하세요

추가요절:야고보서 1:19-26

기도: 주님. 화내기를 더디하게 도와 주소서. 함께 일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일에는 빠르게 도와주세요. 아멘

5 월 1-1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 월 1 일

직업과 몇가지 교훈

약 1: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구약 옴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옴의 친구들은 선한 사람들이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 거리에서 왔고, 옴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간단히 들은후, 그들의 가진 믿음에 기초해서 충고해 주었습니다. 듣는 것, 정말로 들어 주는 것이 우리는 때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위해선 들어야 합니다. 충고를 하려거나 잘 알려진 성경구절을 들려 주려하지 마세요.

듣는 것은 예술이며, 또한 기술입니다. 그것은 많은 인내력이 필요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교훈은 옴 자신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옴 42:7 "여호와께서 옴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옴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는 말씀같이 기도할때 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할레스비 교수는 그의 책 "기도" 에서 두가지 필요 조건을 썼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무력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옴기의 많은 교훈들 중 두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위해 들어주세요.

하나님 신뢰하기를 배우세요.

추가요절: 옴기 1:1,11-13

기도: 우리 구세주 예수님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은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십니다.

더 높은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2일

다른 차원

사 55: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그 사람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아니라"
라고 대답하면서, "나는 여호와와 군대 대장" 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여호수아는, 내 편, 아니면 적 이외에 세번째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복종의 뜻으로 여호수아는
엎드려서 절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느쪽 계획에도 단순히 맞지
않을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편이 되거나, 진보 아니면 수구쪽에 서라고 요구 합니다. 이런 모순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 통치에 대해 예수님이 찬성 또는
반대 했나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편이고, 부자를 싫어했나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했지만 부자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한 열심당원 가롯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차원의 생각은
양자택일의 이분법에 대해 수직으로 있습니다. 그 수직의 양 끝은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라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적인 생각입니다.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면, 사물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치적인 편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덜 절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가롯유다가 보수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의 팀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소속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높은 질서 안에서
서로 함께 했습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6:33

기도: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지 않고, 각각 인격체로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애쓰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3일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마 2:16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증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사람들은 분노하면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분노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안된다고 종종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온순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항상 맞는 말일까요?

아마도 분노는 가장 조절하기 힘든 감정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왕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을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왕상 21).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화가나서 십계명 들판을 던져 부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행상인들과 돈바꾸는 이들을 내쫓았습니다.

두가지 종류의 분노를 좀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통으로 인한 분노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때로 소리치르고 싶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서 상처받으면 우리는 상황을 외면하고 떠나 버립니다.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배워야만 할 겁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의 분노.

분노를 느낀 것은 여러분이 그 일에 관련되었음을 나타내 줍니다. 내게 소중한 그 무엇이 위협을 받으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는 에너지를 분출 시킵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서 4: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종류의 분노를 구별해야 합니다. 부드럽고, 관대하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저를 어떤 경우에 분노해야 할 지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워 악과 싸워 이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추가요절: 에베소서 4:26

기도: 주님,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나타 내실 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불의와 악행을 바로 잡으려는 뜻이 있음을 알게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4일

불평

빌 2:14-15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 모두는 불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날씨는 습하고, 버스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틈을 헤집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서 인수 인계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오늘 추가 할 일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립니다. "자, 거기까지 만" 그리고 일이 시작됩니다. 누구나 불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소한 좌절감을 터트리는데 기꺼이 동참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도 불평합니다. 여러분이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끼어든 그 사람에게 항의하기보다, 그대신 뒷사람에게 돌아서서 불평한 적이 있나요.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사와 문제점들을 여러분은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공정하게 처리합니까. 이렇게하면 불편한 대립을 만들 수도 있고 공적인 발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고.말다툼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기간에는 불평으로 처리하는 것이 쉬운 길 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되면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일하는 조직과 직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불평을 주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불평할 때 동참하는 것도 거절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주시합니다. 만일 당신이 불평에 대해 긍정적으로 맞서서, 실제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건설적으로 그문제를 처리하도록 제안한다면, 분위기는 바뀝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할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들의 불평하는 자리에 당신을 불러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문제를 긍정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사람인 것을 감사하게 여겨서, 당신의 건설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 (뒤에서 당신을 불평하지 않고) 직접 달려올 겁니다.

추가요절: 전도서 9:7-10

기도: 주님, 제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 할 수 있는 즐거운 마음과 능력을 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5일

주님이 침묵하실때

사 45:15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천정에서 도로 울려나오는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시기를 겪습니다. 마틴
스콜세세의 "침묵" 이라는 영화에는 일본의 17세기 기독교인의 박해라는
상황안에서 이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어울리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왜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또는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처럼 보이나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나요.

나는 여러번 젊은 간호사시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장 예민한 경험을 한것은 북아프리카 선교여행을 기독교인
의료진들과 연구원 팀과 함께 갔을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를 기대하며 갔습니다. 그러나 고갈되고, 병걸리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달 후에 내 문화밖의 더 넓은 세상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음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팀에게 행하신 일들과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아직도 행하시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놀라운 일들을 아무 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야는 임박한 추방의 위험에 직면한 그의 백성들에게 이 글을 썼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면에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 또 다른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따라 그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신실함과,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말씀하시거나,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추가요절: 신명기 4:5-8

기도: 지금 어디 있던지, 주님의 임재와 축복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때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매 발걸음마다
곁에서, 조용히 그리고 신실하게 함께 걸으시며, 바로 그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에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6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시 71:20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최근에 젊은 여자 한분이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악성 암때문에 화학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치료 도중에 그 여자는 마음이 동요되었고 치료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치료 도중에 일어나 오랫동안 나가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친구들이 나중에 와서 사과했습니다.

그 여자는 힘들어 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차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삶의 중심은 주님이었고, 예수님이 그 여자의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으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이상 모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우리가 겪는 이 일들을 통과하게 하시나요. 시편에는 이런 후렴 구절이 반복됩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요. 왜 나를 잊으셨나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이 잠잠하실때도 주님은 옆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도 길고 메마른 시절이 있었습니다. 20대에 영적인 광야에서 몇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대해 하는 말이 확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과, 친구들, 동료들, 환자들의 고통을 놓고) 나는 허덕거렸습니다. 그러나 수년동안 몇몇 기독교인들이 나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나는 주님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허덕이고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에게 그런 신실한 친구, 동료, 간호사가 되어줄 마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의 가족들과 함께 겪는 것입니다.

추가요절: 사도행전 17:26-28

기도: 주님, 제 컵을 채워 주셔서, 제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 주소서.

하늘 양식을 주셔서, 저를 배부르게 먹여 주소서.

제 잔을 채워주셔서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7일

전인치유

잠 18:14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현대의학은 기계적인 우주관과 모든 것을 분자 및 원자로 단순화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접근으로 말미암아 의사가 환자를 전인적으로 보지 못하게합니다. 의사들은 자주 환자들을 그들의 질병에 따라 신분을 파악함으로써, 이름을 가진 인격체로, 서로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복잡한, 원인과 작용기전을 가진 건강과 질병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정서적, 영적인 상태들이 그것입니다. 현대의 생명의학에 대한 기계적 우주관과 환원주의적 접근은 오직 생물학적인 면에만 관심을 두어, 의료가 약을 주는 것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건강의 회복에 약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자의 정서적, 가족적, 사회적, 영적, 생활 타입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의 호전, 복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전인치유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있으며, 이 세가지가 하나로 통합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 인간의 영과 혼의 목적에 순응하지만 혼과는 어떤 경우에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건강과 질병은 이 통합적인 몸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간을 분류해서 "이 문제는, 몸의 문제, 이것은 정신의 문제, 이것은 영의 문제"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추가요절: 누가복음 10:25-37

기도: 주님, 총체적인 면에서 섬세하게 우리 환자들의 필요를 돌아보게 도와주세요. 평안과 동행함이 우리 진료의 특징이 되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8일

은퇴를 맞이하기

사 46: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복잡한 마음으로 우리는 은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업으로서 갖는 압박이 없어져서 매력이 있지만, 사회적 지위와 직장의 교체를 잃는 것은 불길한 느낌입니다. 하루종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일주일 며칠만 근무하는 점진적 은퇴는 이런 충격을 완화 시켜줍니다. 은퇴에서 우리가 즐길 가장 큰 상품은 시간입니다. 예술, 음악, 정원가꾸기, 운동, 수공예, 등 취미생활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직장의 일 때문에 못하고 두었던 것들입니다.

사회단체의 중고품 가게, 식사배달 서비스, 여러가지 단체의 보조참여등 우리 사회에는 많은 할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재능은 교회와 선교 여행 분야에서 쓰여질 수 있습니다. 많은 선교단체가 장, 단기로 와서 자원봉사 하실 전문의와, 경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만족에 사로잡혀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갈렘처럼 도전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여호수아 14:12)". 사도바울은 로마서 12 장 1-2 절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 삶에 주신 주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인도하시기를 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퇴하자마자 내게 일어난 두가지 사건을 개인적으로 간증합니다. 기독교의사회 이사회 모임중에 매일기도 달력을 만들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장이 "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일을 준비할건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시간이 많으므로 자원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기독교의사회 모임중 앤디 패칭선교사가 그의 장비아 이동 치과 진료 차량 사업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을때 그분은 "누가 와서 나대신 한달만 대신 일해 주어서 내가 휴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제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세번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 선교사 일을 철저히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요절:빌립보서 4 장,예레미야 18 장

기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9일

하나님의 지혜

약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최근에 남편을 잃은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두가지 치료 방법중 한가지를 택하라고 권했습니다. 그 여자는 "결정, 결정"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 여자가 집과 가족의 모든 문제를 상의하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이제는 스스로 혼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크건 작건, 결정을 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의 합계가 우리의 인격을 만듭니다.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고백할 것은 희생적인 봉사에 직면할때 외면한 적이 많았습니다. 내 안락함을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세가지 선교협회의 회장으로 뽑혀서 섬길 때 특별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는 남아프리카 관련, 하나는 런던 동부지역 관련, 하나는 노숙자를 위한 협회였습니다. 회장 역할은 정말 '뜨거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토론을 이끌어 가면서, 모두에게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의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게 해야합니다. 여러개의 위원회를 맡고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나는 헌신적인 기독교인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헌신 위원회에 속한 기독교인입니다" 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위원회 모임들의 성경적인 모형은 아마 사도행전 6 장에 나온 집사의 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 배경 (추천받은 사람) 사람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총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을 하게 함입니다. 경고의 말씀은, 위원회 일은 우리의 생각들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시간을 너무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의 책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사, 즉 영적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추가요절: 열왕기 3 장, 사도행전 6 장, 에베소서 1 장 15-23

기도: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화목을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 DA
5 월 10 일

인격의 온전함

25:21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리더의 가장 큰 어려운 일 중의 하나는 유혹에 대한 것입니다 . 하나님은 높은 수준의 성실한 인품을 리더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유혹합니다. 여호수아 7 장에는 이스라엘이 강한 성벽을 가진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패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이라는 병사가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의 전리품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혹을 받아 밋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반드시 죽이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지도자의 지위와 그로부터 나오는 권력 때문에 이 두가지 끔직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에 대해 맞서자,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대부분의 시편을 썼는데 그중 51 편은 하나님께 자비와 회복을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시편 15 편에서 다윗은 지도자의 성품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 15: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많은 권력이 지도자에게 주어지고, 이것이 그들의 성실함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의사로서, 병원 운영자로서 나는 자주 우대 보너스(incentives)를 제안받아서 특별한 의약품들이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선물이나 해외여행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때로 지도자중에는 이 비밀스러운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7 에서 다윗은 다시한번 알려줍니다 "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실패했으면 다윗처럼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추가요절:시편 26:1-4

기도: 주님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리고 저를 굳건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5 월 11-2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 월 11 일

잘 끝내기

4: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아마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이며 고별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한 혈통을 가진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아래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고, 날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

핍박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신성한 책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핍박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감금되고, 회초리로 맞고, 채찍질 당하고, 막대기로 두드림 당하고, 돌로 맞고, 배가 난파당하고, 몇번 위협에 부딪치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1 장 23-28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고린도후서 11:30,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명백하게 연약하고 몸의 불완전함이 있을때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했습니다.

나는 많은 지도자들이 시작은 잘 했으나, 그들의 삶은 슬프게도, 급락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큰 열의와 열정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부패를 척결하기로 시작했으나, 끝에 가서는 그들 스스로가 부패 케이스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심이 없는 봉사를 하겠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점차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번 난관과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이 소명에 대한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잘 끝낼 수 있었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 을 주님이 주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힘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빌립보서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확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굴복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주님의 병기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추가요절: 사도행전 20:22-24

기도: 우리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당신의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12일

조언하기 1

2: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특히 선후배간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어느 인간 조직이나 좋은 관계, 나쁜 관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는 이상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모델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선배들이 더 나은 위치에서 인간관계를 이끌어 주고, 모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이끌어 갑니다. 후배를 조언해주는 일은 선배 직원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야

직장의 목표와 이상을 이어갈 수 있는 직업의 철학과 가치체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조연자는 기꺼이 기술과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들은 후배에게 전문지식 전달이 가능하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긍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에 집중하면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와 직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인격을 성장시키는 일에 열심입니다. 자신의 동료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힘들여 노력합니다. 그들의 지도와 결과에 대한 평가는 건설적입니다. 그들은 다른사람들의 의견과, 계획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은 모범이 됨으로써 다른사람들을 동기유발 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한 것은 실천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쁜 조연자들은 자신이 하는일에 자주 자신이 없어합니다. 새로운 계획에 쉽게 겁을 먹습니다.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 안주하려 합니다. 전공분야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사람에겐 일의 진전이 없음을 비판을 잘 합니다. 조언하는 일은 많은 선배의사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후배동료들에게 조언하는 일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손실은, 개인별, 과별, 기관별로 합산되어 총체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면에 충분히 조언의 기회가 부여가 된다면, 조연자와 조언하는 자의 관계는 모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추가요절:디모데후서 2:2

기도:주님, 제가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에게 좋은 조연자가되고 행동으로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함으로서 당신의 나라 건설을 돕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13일

조연하기 (mentoring) 2

히브리서 13: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조연을 받는 사람은(mentee) 단지 조연자(mentor)가 제안하는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해야 합니다 . 조연자 시스템은 일방통행식입니다.이 관계에서 조연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나요. 이 조연자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연자가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서 조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조언하는 사람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그렇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알아준다는 표현은 적당히 해야 합니다. 외형적인 감사의 표현을 하는 적극적인 감사를 하라는 것으로 여기면 안됩니다. 이것은 직업적으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조연자로부터 지도와, 교정과,교육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두사람사이의 인간관계가 처음 시작할때 또는 중간에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둘 사이의 인간관계가 형성될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이고 서로

도움이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조언받는 사람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지 않고 조언과 상담을 행할 방법의 지혜를 조언자는 필요로 합니다. 또한 조언받는 사람은 배우려고 해야 하고 또 어깨 뒤에서 서있는 선배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숙과 지혜가 양측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상대가 요구하는 것보다 오리를 더 가시고, 다른쪽 뺨도 돌려 대셨습니다.(마 5:39). 그러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충분히 인품에 내면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성장시킬지 우리 행동을 반성하고 분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동료로부터 교정받거나 비판을 받을때 여러분은 환영하나요,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단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합니까. 여러분은 서로의 성공을 도울 수 있습니까.

추가요절: 잠언 13:20

기도: 주님 나를 인도해주고 격려해준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모범을 감사합니다. 내 전문지식과 영적인 성장에 대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잊지않게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14일

위기의 지도력

13: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권세 잡은자나, 광고업계 유명 예술가가 아닙니다. 모두를 즐겁게 하는 사고 전문가도 아니고, 고관의 연출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대중을 잘 다루는 사람이나, 과시욕이 강한 선동 정치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지도력 위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구하는 일은 필요한 일입니다. 교육분야, 국제 정치분야, 기독교 교회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도력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대중은 진정한 지도력을 찾고 있습니다. 엘리트 집단처럼 사랑과 동정의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로 부터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사람들을 세상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의 인간관계는 실제 인간관계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무관심한 사회,또는 사회교육 부재로 묘사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 젊은이들과 청년들은 물리학, 수학, 자연과학 분야는 200년전 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교제의 가치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헌신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해 주는 남자와 여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의 파급효과는 유익한 효과를 보장해주는 도장과 같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올해보다 내년엔 1억명이 더 증가합니다.

누가 그들을 이끌어 갈 것입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향상시킬까요, 아니면 파괴할까요. 이 지도자들이 이 세계를 향상시킬까요 아니면, 이 지구촌을 위험에 빠뜨릴까요. 이 새로운 세상의 시민들의 지도자는 훌륭할까요? 아니면 타락할까요. 그들은 훌륭한 모범을 보일까요. 누가 변화의 흐름을 막을까요. 아마도 당신일 겁니다. 여러분은 도전과 위험에 맞서고, 기회가 오면 행동할겁니까.

(존 에드문드 학개의 책의 개념을 인용했습니다.)

추가요절: 히브리서 13:7-8

기도: 주님, 온전하고, 동정심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가르쳐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15일

부지런한 지도력

롬 12:8 혹은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롬 12: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바울의 이 책망의 말씀가운데 지도력에 대한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책망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나태함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 헨리의 주석에 따르면)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라는 것은 조심과, 근면함으로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넘어진 자를 책망하고, 충고하며,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실행하는데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고 일이 잘되고 진보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유진 패터슨은 메세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으스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둘리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 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11 절은 주님의 일을 할때, 열정을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우리 직장의 일과 가정의 일을 다함께 할 수 있다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추가요절: 빌립보서 2 2:5-8, 사도행전 10:38

디모데전서 3:1-4

기도:주님,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모방해야만 합니다. 모든일에, 모든 방법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16일

인신매매에 비추는 빛

시편 10:8-11 저가 향촌 유복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혈에 엮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엮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구푸려 엮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시편 10 편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지 않을 줄로 여기고 은밀한 곳에 엮드려 숨어 기다리는 비열한 착취자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인신매매범들은 의료인들이 그들의 범죄를 전혀 보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많은 의료인들은 과거 건강의 적신호 환자들을 (적신호를 받은 병력), 다시 정기적으로 리콜해서 볼 것입니다. 이때 상처의 모습이나, 환자의 감정, 환자와 동반한 보호자들의 모습이 좀 비정상처럼 보입니다.

구조된 희생자들의 연구결과 그중 십분의 구는 그들이 잡혀있는 동안 치료를 위해 의료인들을 만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자들은 주로 매춘 포주나, 인신매매범들이 함께 병원에 데려옵니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면 의료 전문가들이 피해자들을 단 한사람도 신고한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사는 모습이 다른 것을 기억하세요. 그 여자가 내 딸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일 그 만났던 의료인중 한명이 입증하는 질문을 하거나, 정부 기관에 전화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 이 중요성을 인식하는 운동과 의학교육과정을 통해서 의료인들이 증거를 발견하기를 배우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기독교의사회 (www.cmda.org/TIP) 의 경우, 인터넷으로 10 가지 훈련 이수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의학교육증명서를 발급해주며, 생명구조기술을 의료인들에게 제공합니다.

기민하고, 행동 대기하는 의료인들이 인신매매범이 숨어기다리는 어두운 소굴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해자들과, 불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계획에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예레미야 5:26-29

기도: 주님, 사회의 악, 특히 억압받고, 착취 유린 당하는 자들을 위해 일 할 용기를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17일

용감한 지도력

느헤미아 2:17,18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존 학개라는 분은 지도력이란 신중하게 어떤 집단에 열심히 영향력을 미치도록 노력해서, 그 그룹의 진정한 목표를 이를 유익한 성과를 목표로 향해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구중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향력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한마디로 한다면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라오면서 기관의 장이나 지도자라고 나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정, 교회, 친구들안에서 그들에 대한 내 영향력 때문에 이미 나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을 좋은 지도자 혹은 나쁜 지도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아 선지자는 뛰어난 좋은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때 그는 외국의 포로생활 중이었습니다.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그의 미래에 시도할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와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왕의 컵 시종관이라는 좋은 직업이 있었지만, 그는 어려운 위험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불의와 싸웠습니다. 정말로 그는 희망을 잃고, 파괴된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도력과 방향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믿음과 백성들에 대한 선한 영향력 때문에, 백성들이 52일만에 성벽 재건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성벽만 재건할 뿐아니라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확약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그의 단순한 기도로 끝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추가요절: 잠언 11:14

기도: 주님, 하나님 나라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내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18일

혀를 길들이기

3: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때로 공격적인 글이나, 웅변, 불쾌감을 주는 속삭임들은 난폭한 결과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개혁주의자 마틴루터의 유대인인 관한 강한 논쟁은, 후에 20 세기 홀로코스트 학살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동성애 행동에 대한 비판은 때때로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난폭함을 유발한다고 여겨집니다.

이 주장은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2년전 미국 오레곤의 대학에서 총기발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병을 가진 사람이나, 원한을 품은 말썽장이가 총기를 휴대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살인자는 진술하기를, 과거에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조직화된 교회에는 다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기 발사할때 그는 기독교인 학생들만 특별한 과녁으로 분리해서 총을 쏘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는 기독교인들만 선별하여 공격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회의 세속주의자들과 급진적인 무신론자들로부터 기독교인 대한 언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히첸은 조직화된 교회에 대해 "이 세상의 증오, 폭력, 불합리, 편협, 인종 차별 연대, 종족주의, 고집불통, 여성 경시, 어린이 강압적 통제의 주요 근원지 라고 서술 했습니다. 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교회의 이름으로 부끄러운 일, 잔학행위, 핍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격적인 무신론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판이 필요한 것은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특히 의료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그것을 말하는 방법에 대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12:33-37

기도: 주님 제 말의 제어를 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영광과 존경을 가져오는 말만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19일

내 분깃

16:5 여호와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분깃에 만족하나요. 내 남편은 네명의 형제중 하나이고 그의
엄마는 가끔 맛있는 사과 파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어머니는
파이를 중심부터 자르지 못해서 길이와 넓이와 심지어 깊이가 조각마다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테이블 밑에 냄버를 매겨 감춰놓고,
제비뽑아 나누어 주었지만,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편 16 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난 후에 쓰여졌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체포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왕은 예측 불가능하고
비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분깃과 내 잔을 지키는
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시편 16: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미래는 안전하며, 음부에 버려지지 않으며,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6:10,11 절에 "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깃에 대해 불평하기 쉽습니다. 내가 수술한 환자중 20 명의
즐거워하는 환자들을 본 후에, 때로 한명 정도는 불평을 했는데 그분은 쉽게
만족하지 않고 다루기 어려운 환자였습니다.

시편 16 편 5 절은 ESV 번역은"여호와는 내 분깃과 나의 잔입니다" 또는
Authorized 번역은 " 여호와는 내 유산의 분깃과 나의 잔입니다"입니다. 이것은
전지전능의 하나님 (창세기 17:1 EL SHADAI),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이 충만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창세기 15:1) 이시며,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순례길의 도착지"입니다.

추가요절:시편 37

기도: 주님, 저의 인생과 시간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제 앞에 무엇이
있든지 주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20일

누구의 판단이 중요한가요

사도행전 10:42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내 아들 제임스는 '영재 재능 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A 학점 결과서를 받으려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지역신문사에서 사진기자 나와서 , 학교의 똑똑하고,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사진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아 여기 모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토론회의장을 둘러보며 손가락으로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루시, 쿨딤, 잭, 이리 나와라". 그리고 잠시 멈춘후 "그런데 제임스, 너는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후에 제임스를 옹호하는 학급들에서는(아주 탁월하지는 않은 학급들) 차 마시는 시간에, 이 이야기는 웃고 떠드는 소재가 되었고 , 우리 가족의 화제거리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것이 유명한 신문사의 평결문과 같이 우리 아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사람을 판단하고 ,또 판단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건설적이기도 하고, 매우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은 편파적인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심판자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시요, 유일하게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심판대앞에 서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님의 심판입니다.

기독교인은 믿음 때문에 국가의 적이 되어 값비싼 댓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구세계의 지배적인 풍습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해체해 버리고, 정통적인 믿음을 비웃는것에 자랑을 느낍니다.영국에서는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승진에 방해가 됩니다). 환자들이 부탁했어도 위험합니다. 동료들이 비난하고 경멸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때문에 조롱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념을 지키다가 협박이나 업심여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 누구의 판단이 중요한가요.

추가요절:고린도후서 4:8-12

기도: 주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소서.

5 월 21-31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 월 21 일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갈라디아서 4:6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당신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은 도전이 될 수 있고,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생명을 변화시키는 초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답해야 할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믿는다는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잠언 23:7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나는 의사, 의학 교수, 남편, 아빠, 동료, 설교가로서, 많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것이 나에 대한 정의일까요. 우선 순위는 무엇일까요. 이런 영역에서 성공과 실패는 무엇일까요.

만일 어떤 특정한 역할에 내 정체성을 둔다면, 내 진정한 우선권에 혼란이 올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서 실패 혹은 성공에 따라 내 영적인 온전함에 대한 비난에 취약해질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가치관이 내가 수행하는 정도에 따라가게 되어 인질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특히 이럴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존경을 받는 직업에서 일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죽음의 책임을 수행합니다. 고성급자의 보상은 수익성이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막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온통 마음을 다 빼앗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핑계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내려 놓습니다만 사실 우리 직업은 남을 위한 삶을 살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는 직업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랑을 받는 자,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 너무나 충격적인 용서를 받은 자, 터무니없이 많은 축복을 받은 자, 영원히 보장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하십니다. "이는 내사랑하는 아들/딸 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나를 정의하는 말이고 내 관점이고 내 우선권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모든 기회를 노리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요절: 갈라디아서 3:14-19

기도: 아바, 아버지 하나님, 매일 당신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22일

안락사

요한복음 10: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많은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여러 주들이 말기 환자들에게 안락사 실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락사에 반대하는 기독교인 의사들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기독교 성경의 전통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안락사는 제 6 계명 "살인하지말라" 라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락사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의 원칙에 역행합니다.

두번째로 안락사법은 의사 환자간의 신뢰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세째로
안락사법은 연약한 환자들이 그들의 삶을 너무 일찍 끝내도록 압력을 가해서,
환자 스스로의 의지로 인간관계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고, 유산분배를 촉진게
하려고 하게 만듭니다.

내 진료 중에 위의 두번째 주제를 강조해주는 사례가 생각납니다. 한 나이 많은
뇌경색 앓고 있는 여자가 대퇴부 골절로 입원했습니다. 아침 일찍 회진시에
그여자를 방문했을때, 그 여자는 자기 자신을 죽일 수있는 특효약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영국법을 어겼습니다.

그대신 그날 바로 골절 접합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나는 그 여자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술후엔 유능한 의사가 돌보아 주었을 겁니다. 능숙한
물리치료사가 재활치료를 해주었을 겁니다. 2 주후에 그 여자는 휠체어를 타고
웃고, 손을 흔들며 퇴원했습니다. 만일 안락사 우리의 표준치료 규범이었다면, 그
여자가 특효약을 요구했을때, 안락사팀이 신속하게 와서,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
주었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그 여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었을까요.

추가요절: 욕기 1:20-22

기도: 주님, 삶과 죽음은 주님께만 달려 있음을 알게해 주십시오. 죽음을 직면한
분들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혜와 연민을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23일

두려움 가운데서 신뢰

이사야 43:1-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 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때, 단지 큰 인생의 시험에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움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사소한 일들, 아마도 어느정도 하찮고 시시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에 여러분이 닥칠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도 역시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난 10년 이상을 나는 아프리카에서 주로 지내면서, 여러나라에서 몇가지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글을 쓸때는 주로 비행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이미 오래 지난후에도 이 공포가 남아 있는 것이 우습기도하고, 당황스럽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일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을겁니다. 아마도 대중연설할 때, 복잡한 일을 수행할때, 환자나 가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할때, 다른 사람의 장래에 대한 결정을 할때, 큰 돈이나 다른 일을 다룰때 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그 일도 맡기셨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비행기 탈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언젠가 사람들이 비행기로 여행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을 생각하며 때때로 감탄했습니다. 시편 139 편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이 이미 계획되어 있음을 명심합니다. 내 두려움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할 필요를 상기시켜 주며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신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추가요절: 시편 62:11-12

기도: 주님, 당신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대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24일

여러분의 컵의 물은 반밖에 없나요, 아니면 반이나 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산드라는 부어오른 그 여자의 다리를 보여 주었습니다. "조금 부실해 보일겁니다" 그 여자는 옷을 접어들리면서 말했습니다. "1992년 프랑스에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다리를 바라 보았습니다. 튼튼한 다리인데, 몇센티미터

부분은 더 두껍고, 열십자 모양으로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 살은 등에서 떼어 이식한 겁니다." 라고 산드라는 말했습니다. "15 번 나는 이 자리를 수술했습니다."

"끔찍하군요" 라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오 아닙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아주 멋집니다. 나는 큰 정형외과 외상병원에서 5 마일 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만일 그보다 먼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다리를 잃을 뻔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한 마음의 감정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에 의해, 슬프고, 분노하고 혼란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의지의 행동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는 영감있는 작가요, 블로거 입니다. 17 세에 다이빙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후 그 여자는 이 글을 썼습니다. "이 18 절 말씀은 내가 처음 마비가 된 후 내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체념의 감정을 밀어내고, 의도적으로 모든 것, 병원의 차가운 옥수수 죽에서 부터 물리치료 까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감사의 감정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 밝은 태도는 더 큰 일들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후에 또다른 기적이 생겼습니다.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컵은 반이나 비어 있나요? 아니면 반이나 차 있나요?

추가요절: 빌립보서 4:6-7

기도: 풍성한 주님, 우리의 삶 동안 우리와 함께 하소서.

기쁜 마음과 축복된 평화로 우리를 격려해 주소서.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고, 난처한 때 인도하소서.

이 땅에서부터 다음 세상까지, 모든 아픔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 월 25 일

하나님의 동정심

마태복음 14: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내 무선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소아과 소생팀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단을 내려가서 소아응급실로 뛰어 갔습니다. 적어도 8명의 사람들이 침대 옆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아과 의사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수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기대하는 눈으로 여덟명의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시간후 나는 응급실을 걸어나왔고, 조의를 부모들에게 전했습니다.

10년전 그 같은 상황은 눈물속에 잊혀졌습니다. 부모님들의 슬픔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은 너무나 멀리 잊혀졌습니다. 나는 그대로이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병실에 있는 다섯명의 환자를 더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프기 전에 식사 시간전에 그 환자들을 다 치료했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들 모두에게 동정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특히 그분들이 우리를 탐탁치 않게 여기거나, 더 나아가 적대적일 때는 어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동정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동정심의 피곤' 이라고 정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치고, 피곤해진 의료인들에게서 동정심의 감정이 사라져갑니다.

자주 우리는 동정심이란, 감정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정심의 감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정심은 우연히 생겨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거나, 사탕 발림의 연민에 의해서 좌절과 배척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인하고 실제적인 동정심의 모범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 살다보면, 그런 실천적인 반응이 뒤따를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다 보면 이루어 질 겁니다. 자비(혹은 동정심)의 열매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추가요절: 고린도전서 1:3-5

기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동정심을 가지고 제 마음에 품겠습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26일

공감을 감정이입으로

고린도후서 1: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감정이입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8 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사도 베드로는 기록했습니다. 감정이입은 다른 삶의 감정, 생각, 태도를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감정이입을 배우는 것은 의료사역에서 필수적 입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므로 기회를 놓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감정이입의 내면화는 의료 직업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낮에, 임신 38 주인 나는 선교병원에서 임신부 클리닉을 의사로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 잦은 방해, 불가피한 전력 차단, 나 자신의 임신으로 인한 불편함등으로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의식이 없는 만삭의 여자가 실려들어올때, 내 이런 생각은 갑자기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장작더미에 올라갔다가,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의 뒤엔 웃이 형클어진 남편과, 눈물을 흘리며 불안해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이 여자가 겪고있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환경을 바라보기만 하고, 슬픔을 느낀다면, 그건 단지 공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의 관점에 똑같이 들어가서 고통을 함께 느낀다면 그것은 감정이입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공감은 위로의 표현이고 그 반대로 감정이입은 동일한 신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한사람 한사람 개인별로 알아주십니다..

추가요절:시편 56:8

기도:주님, 저에게 열정과 능력을 주셔서 저의 공감이 주님이 보여주신 감정이입에 이르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27일

화해의 사역

고린도후서 5:18-19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병원 책임자로서 나는 회의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불만스럽기도 하고, 내게 보람을 불어 일으키는 직접 환자를 보는 생활과는 다른 세계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봉사하고, 전도하는 또 다른 의견교환 장소임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모임을 할때 한가지 나를 넘어 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신성모독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평소보다 더 안일한 태도를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전문 의료인들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민망해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독하는 분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불쑥 말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내 믿음을 알고있는 사람들에게 장벽을 더 만들지 않기 위해,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때로 이런 상황에서나 다른 사소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방법으로 고심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에 의한 영광에 다시 한번 감동받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터무니 없이 많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을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우리는 다른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해의 사역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정죄대신 예수님은 사랑과, 축복과 용서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나는 회의장에서 신성모독을 듣게되면, 용서를 속삭이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5:23-26

기도: 주님, 화해자가 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28일

중보기도를 통한 치유

야고보서 5:16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내가 일하는 응급실에서 하루는 우연히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교적인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여자가 이 병원의 응급실에 와 있는지 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것은 그 여자의 딸이라고 (내가 가르친 학생) 대답했습니다.

나는 즉시 계획을 바꿔 그 딸이 어떤지 보러 갔습니다. 그 딸은 건강이 좋지는 않았고 시티사진을 찍기 위해 예약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약속이 있어 나왔습니다. 후에 다시 되돌아가니 시티결과가 나왔고, 정상이었습니다. 그 딸은 불안해하고, 부어있고, 소변이 검은색이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과거 내 학생이라서 잘 알기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가족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방문해보니 그 여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심지어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날의 내일을 하기위해 나왔습니다.

다음날 그 여자를 방문했을때,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산소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 염려에 더하여, 그 여자의 주치의는 의학적으로 해줄수 있는게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기도 동역자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분들은 과거에 내 기도에 함께 해 주어서,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의지할 신앙 경험이 나는 있었습니다.

기도한지 24 시간이 되지 않아서, 그 여자의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2일 뒤에 정상으로 돌아왔고, 퇴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이미 간구했나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적은 벌써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요절: 누가복음 38-41

기도: 주님, 우리가 치료하지만, 낮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은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도와 주소서. 주님의 치유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29일

더 깊은곳으로 가세요

로마서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더 깊이 들어가세요", 스쿠버 다이빙하는 친구의 이 격려의 말은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생각해보긴 했지만, 나는 스노클링에 만족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방에 드는 시간, 체력, 위험이 너무 컷습니다. 깊이 잠수하는 것은 일상적인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귀를 서술했습니다. 에베소서 (3:17-18)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는 우리 창조주와의 깊고 풍부한 사귀를 경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주님과의 깊은 사귀를 가지려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헌신하려는 것보다 더 많은 위험을 주님은 요구할 수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흥미로운 일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귀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 깊은 하나님과의 경험이 ,향수처럼 기억에 도취되어, 지금은 주님과 피상적
얕은 사귄데 머무면서도 만족하도록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귄데서 깊고 풍부한 기회를 유지하는 기회를 놓칩니다.

주님과 사귄데 나누기 위해 헌신하십시오. 주님의 측량할수 없는 깊은 사랑의
사귄데는 우리가 헌신한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할것입니다.

추가요절: 로마서 11:33-36

기도: 오 깊고 깊은 예수님의 사랑, 모든 사랑중 최고의 사랑..

주님이 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깊고 깊은 사랑,

축복의 바다이신 주님.

하늘 위의의 하늘에 계신 주님

영광을 주셔서 주님께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30일

시험을 당할때

고린도후서 1:3 -5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요
자비의 아버지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

학생때 기독교인 연합모임에서 연자가 " 좋은 환난의 기회를 낭비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이상한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7절에서
흠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시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4절 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첫 딸이 생후 3개월만에 죽음을 맞이 하면서 내 생애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당시 우리 가족은 아프리카에 살면서 병원과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면서 주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나는 너무 큰 축복을 받아와서 어려움과 가난에 싸여있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사는 도시에서는 아이들이 5살되기 전에 8명중 한명이 죽습니다. 내 인생이 단순할 때는, 너무 많은 고통이 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며 때때로 주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딸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전보다 더욱 주님과, 주님의 사랑과, 통치권, 영생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인간의 고통은 서로 이상한 관계를 아니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생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몇달동안 내가 배운 것을 남들과 나눌수 있게 되었고, 그들을 격려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요절: 베드로전서 5:10

기도: 주님 시련의 기간동안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게해 주십시오. 주님이 제게 가르쳐주신 것을 가지고, 고통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있기를 원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5월 31일

엄마역할(그리고 직장)의 큰 소명

빌립보서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린시절 학생때 부터 우리는 좋은 성적과, 진학을 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격려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엄마로서 그리고 직장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위축되고, 자주 이 둘의 균형을 잡을 수 없게 됨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은 신처럼, 모범적으로 이 길을 가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홀로 남겨져서 자신을 방어하는데 급급해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엄마들에게 두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더 잘 하도록 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설득해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계속 가게하며, 엄마의 역할 외에도 세속적인 직업의 큰 소명을 재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일은 내게 너무 많아요" 라거나 "나는 집과 직장 둘다 할 수 없어요" 라는 태도를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일들을 함께 할 수있는 선천적인 능력을 주기때문에, 자기자신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거짓에 속지마세요.

시작만 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계속하시고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날 동안에 매일 서로 격려 하십시오. 이 어려움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직장 여성들과 연락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중보 기도하십시오. 나이든 신실하신 여자들의 모범을 보고 어떻게 일해 왔는지 배우면 이 긴 여행에 격려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의견을 나누면,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일하도록 고무하고, 직장에서의 짐이 쉬워질 것입니다.

추가요절: 잠언 31

기도: 빌립보서 3:14 "뾰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는 말씀처럼 살게 하소서. 모든 세상의 어머니에게 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6 월 1-1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 월 1 일

가게 해야 할 것 세가지(Three Goes)

요한복음 2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렸을까요? 그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가복음 7 장에서 향수를 예수님께 부은 죄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이 사함을 받는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는 말씀 처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일곱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성금요일 십자가 사건으로 마리아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깊은 슬픔으로 낙심하여,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습니다. 빈무덤을 보고, 또 천사들의 만나고 나서 매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두렵고 어리둥절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여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손에 못자국 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만들지 않으시면,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들을 자주 기억하는 것은 좋지만, 붙잡고 있으면 안됩니다. 가게 내버려둬야합니다.

"형제들에게 돌아가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해야할 명령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했다면, 주님은 당신이 이루기 원하시는 어떤 일을 남겨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도 함께 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아버지께로 가서" 왜 예수님은 가야만 했나요? 요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 16:7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세가지 가계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지 말고 가계(go) 하세요

여러분도 가서(go) 주님을 증거하세요.

예수님도 가서서(go)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추가요절: 이사야 40:31

기도: 주님, 제게 가야할 곳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맡기신 일들을 완수하게 해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2일

계속 정진하세요

디모데후서 2:3-4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우라" 고 말했습니다. 이 싸움은 힘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강력한 적군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유혹과 싸웁니다. 우리는 세상과, 육체와, 악마와 싸웁니다.

삶은 바깥입니다. 우리는 민간인의 일에 산만해져서, 우리가 병사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왕은 그의 군대가 전쟁하는 중에 집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다윗이 그의 책임들로부터 위축되고 있었다고 합니다만, 의사이자 나는 다윗이 그당시 아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게으르거나, 겁을 먹었다는(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가 낮잠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프고,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육체의 갑옷이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영적인 갑옷을 둘다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단이 잠을 자지 않고 기회가 있을때 다윗에게 덮쳤습니다. 다윗이 있었고, 밧세바가 있었고, 다윗은 낙졌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아플때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요. 군인처럼 보초병이 필요하고,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한 친구는 "텔레비전에 붙어있는 스위치를 리모콘으로 원격 조종하듯이 나 자신의 자제력을 원격 조종하라" 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거나, 어려운 처지의 기독교인들은 버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주신 축복들을 간증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다른 회의적인 구경꾼들에게 생생한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플때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뿐 아니라,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추가요절: 로마서 8:28

기도: 주님, 거룩한 일을 위해 잡고 있는 봉사의 손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3일

응급의료인 예수님

이사야 61:1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응급차를 불러본 적이 있으니까. 특히 누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때, 기다리는 시간이 불안합니다. 또는 꼭 필요한 순간에 진단 기구나, 치료장비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 61:1 절은 병들고, 부상입고, 응급조치를 위해 소독과 붓대가 필요한 이스라엘을 묘사했습니다. 누가 와서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히브리말로 "붕대를 감지 못한" 이란말은 "lo khuvashy" 입니다. 이 백성들중 많은 사람들이, 응급조치요원, 응급의료인들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앉으셨을때 이사야 61 장 1 절을 인용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고치며' 는 히브리말로 (붕대로 감으며 lakhavosh) 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붕대 감아야될 필요가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인 (khovesh), 응급처치요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하고, 붕대를 덮는 일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치유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한 응급처치요원, 응급의료인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고 함께 일하는분들 중에 상처입거나, 상심한 분들을 고쳐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를 가져다 주실 수있는 첫 번째 응급처치 요원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찾아가도록 격려하십시오. 어려운자들과 붕대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궁극적인 응급의료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을 기억하십시오.

추가요절: 시편 46

기도: 주님, 내 인생의 위기의 모든 순간마다 계속 곁에서 계시고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4일

우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2:6-7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최근에 전문의가 되고나서, 의료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경이로움과 죄의 파괴적인 비극을 극대화해서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성공적인 응급 출생이나, 중대한 외상을 안정시키고, 죽음의 문턱에서 많은 환자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집에 불이나 피하지 못한 아이들과, 비교적 안정된 것처럼 보이던 환자의 흉통과 심근경색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어깨를 흔든 후 다른 환자들에게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부담을 덜기위해 다른 분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까요? 주님은 이 급변하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골로새서 2:6-7 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줍니다.

골로새서 2 장에서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 절). 우리는 세상을 행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절).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9 절)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과 (2:13 -14)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불멸의 관계(2:10)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고, 소중히 여기며, 깊이 뿌리를 박으면,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나 자신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위대한 의사인 예수님께서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게 하도록 힘쓰세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예수님께서서 죽으심으로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아십시오. 이 진리에 뿌리를 내리고 확고부동해 지십시오. 앞으로 예비된 것을 알고서, 당신의 희망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10:8

기도: 주님,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기쁨으로 오늘의 도전들을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 월 5 일

소망중에 참으며

로마서 5: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때로 일상적인 업무가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열정적인 바쁨속에서도, 때로 어지럽고, 단조롭고, 영혼을 깎아내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심하게 중압감을 느끼고 요구사항이 끊임이 없어서, 우리의 영혼은 일시적인 휴식과 평온을 외칩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끊임없는 통증과, 고통들은 깨지기 쉬운 방어선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어선은 자기 보존과, 의미있게 고통을 참아가야 할 필요성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할 때, 주님이 멀리서, 침묵하신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나는 배워왔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들은 환자들이 그들의 말기 병중에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감정과 경험들을 내가 이해하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동질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들은 또한 내가 일하는 동기부여를 새롭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인내하시고 견뎌주시는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에 주님에게 무한히 소중한 것, 즉 예배를 내가 주님께 드림으로서 헌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간은 내게 소중합니다. 내 힘든

감정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해도, 어려울때 더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금방 혹은 천천히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이 높아집니다. 내가 치료하는 수많은 환자들이 자신들의 닥쳐올 죽음에 대해 슬피 울때, 그런 힘든 시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생각나게 하므로 소중합니다. 나는 기도와, 밝은 인사와, 부드러운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추가요절: 이사야 40:28-30

기도:주님, 절망과 영적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6일

독약 섭취

마태복음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무엇을 섭취했나요? 얼마나 많이 먹었나요? 먹은지 얼마나 되었나요? 토했나요? 알약, 독초, 또는 다른 독을 섭취한 아이를 둔 많은 부모들은 이런 질문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 독 때문에 생명이 위독하다면, 독을 제거하거나, 해독제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표지에 12 가지 독성 이야기라는 커버 스토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독을 먹는 몇가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의도적인 섭취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려는 사람들)

살인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려는 사람들)

고의가 아닌 섭취 (화학,독성, 방사선등에 의한 환경적 섭취)

어떤 경우이든 독은 우리 몸을 오염시켜서 엄청난 결과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주는 독은 어떨까요? 이런 독에 노출되고 섭취한 죄가 있나요?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보며, 잡지를 읽고, 라디오를 들을때, 그 내용이 주는 독성에 나는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합리화를 합니다. 단 하나의 나쁜 장면, 단 하나의 천박한 페이지, 한번 뿐인 추론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독소를 피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유익한 영역들을 기꺼이 포기해야 할까요? 순수함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애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독성에 대한 해독제는 빌립보서 4 장 8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추가요절: 시편 119:9-16

기도: 내가 만나는 노출된 독성들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당신의 뜻에 따라
그들을 처리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7일

굳건한 기도

히브리서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은 자신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기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의사들이 직면한 압력들을 주님이 실제로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지
의문을 가집니까? 내가 겪는 유혹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기도중에 언급도
못하나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모든
시험을 겪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위의 남용에 대한 유혹, 하나님을 시험하고,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주님은 굳건하게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없이,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가 겪는
시험의 유사한 점을 많은 주석학자들이 고려해 보았으며, 우리 삶에서 이러한
시험들을 상기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유혹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한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으로 주님은, 우리의 허약함과, 연약함을 이해할 수 없는 먼 '완전한 인물' 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고통, 아픔, 굶주림, 고독, 유혹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면, 숨기고, 자신의 힘으로 전투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추가요절: 고린도전서 10:13

기도: 주님,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삶의 부분들을 바로 잡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8일

우리의 우울함을 아시는 분, 예수님

이사야 53:4-5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정신 건강 질환의 낙인을 찍는 어두운 우울증은 사람들이 쉽게 인정하는 질환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우울증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우기 동료들, 교회 가족들, 우리 선교동역자들이 우울증이라고 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제한된 자원과 전문성을 가지고 온 세계에 커져가고 있는 정신의 질병을 의료분야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이사야의 이런 것에 고통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 53:4-5,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상함" 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dakah" 입니다. 우울증이란 단어 "dikaon" 과 어원이 같습니다. 즉 우리 죄악을 위해서 우울증을 겪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울증의 짐과, 절망감과, 어두움을 이해하는 분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이 그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추가요절: 시편 40:1-3

기도: 어려울때 당신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우울하고 두려울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9일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9:42 "올 때에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낮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구약에서는 귀신 들린자의 발생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귀신에 대한 그분의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서양의 사람들은 악마나 귀신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위에서 악을 봅니다. 신문에서 우리는 술, 중독, 분노, 폭력을 가하는 형태로 악마에게 마주쳐야 하는 유명인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심령집회나 주술을

경험한후 심하게 혼란스러워 합니다. 귀신들린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외과의사로 일하면서, 정신과 의사로부터 의뢰받은 단 한명의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리에 다쳐 치명적인 부상을 받았고, 큰 고통을 겪었던 정상적이고, 분별있는 여성의 경우였습니다. 귀신들려 생긴 고통은 기독교 목사의 기도로 치유되었습니다. 열상은 수술로 회복되었습니다. 두배의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러운 영" 에 붙들린 어린 아이를 보았습니다. 신체 증상은 간질의 대발작과 비슷합니다. 의대에서 배운 것 처럼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시작하는 일반적인 대발작, 비명, 몸이 경직되어 바닥에 쓰러짐, 머리와 얼굴 근육 및 팔다리가 뻣뻣해 지면서, 입안에 거품을 물거나, 혀를 깨물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간의 무의식 상태후 다양한 간격을 두고 회복됩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더러운 영을 꾸짖어, 소년을 고치시고, 소년을 그의 부모에게 돌려 보냈다고 기록한 것은 흥미롭습니다. 기독교인 의사로서 이런 매우 이상한 현상을 다룰때 실질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추가요절: 사도행전 16:16-18

기도: 주님, 우리가 종종 이해할수 없는 사람들과, 문제들을 다룰때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10일

나는 섬기는 종으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빌립보서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는 하루 많은 시간을 병실에서 환자앞에 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나는 침대나 의자옆에 무릎을 꿇고, 약간 기울여서 환자들의 편안을 위해 개개인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항상 신체적인 접촉을 하기위해, 그들의 손을 잡거나 팔을 만지며 때로는 가끔씩, 때로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자세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극도로 강력하고, 치료적입니다. "중요한 의사" 가 그들의 육신의 어려움에 찾아와 자신들과 같은 인간성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만드는 것을 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받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치료를 받는다고 자신있게 그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날때 사람들이 가장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치료했는지 보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 입니다.

내가 가진 지위와 내가 받은 의료 교육이 내 주변의 환자들을 더 잘 봉사하도록 해주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므로서 이런 낮아짐은 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의 정신과는 정 반대 방향으로, 타인을 위해 하향 이동하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대생으로 선택과목인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런 겸손의 광경을 처음으로 목격했을때 처럼, 지금의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이 있습니다. 매우 저명한 의사가 이전에 내가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환자들과 상호 교류하는 것을 처음 본 것은, 마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주현절 사건처럼,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소명의 씨앗을 내 안에 심어놓았습니다.

추가요절: 고린도전서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누가복음 22:27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기도: 주님, 오늘부터 곤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과 만날때, 의와 떡에 굶주린 그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들을 안아줄 새로운 손을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 주소서.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우리를 하나되게 해주소서.

6 월 11-2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 월 11 일

전통,문화,종교

마가복음 12:17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가나의 아산티 왕국은 300년 이상 존재해 온, 아프리카의 가장 긴 왕국중 하나입니다. 가나의 전통과 문화의 상징입니다. 아산티왕은 가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격자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아산티 왕국에서 황태후를 앓았습니다. 1 주일에 걸친 장례식은 2017년 1월 16-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1월 16-18일까지 안치되었고, 장례식은 2017년 1월 19일에 행해졌습니다. 장례예식은 비 핵심가족은 볼 수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뿌리깊은 전통적 신념이어서 아산티왕국의 국제성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례예식 전에 모든 방송을 통해 몇가지 공지사항과 주의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9일 밤

(1월 19일 18시부터 20일 04시까지) 깊은 의식의 시간이고 모든 국민과 가족은 실내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장례예식이 이뤄지는 지역들중 하나의 옆에 붙어있는 병원에서는 회의가 열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제기된 질문중 하나는 "그시간에 응급환자에 가기 위해 전화를 받으면 법을 어겨야 하나요?" 입니다. 기독교인은 문화와 전통이 비기독교적인 경우 법을 어겨도 되나요?

되돌아보기

예수님은 사람들의 신앙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식적인 방법으로 관여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예수님이 전형적인 예화입니다.

추가요절: 사도행전 17:16-34

기도: 주님, 때로 적대적인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11일

전통,문화,종교

마가복음 12:17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가나의 아산티 왕국은 300년 이상 존재해 온, 아프리카의 가장 긴 왕국중 하나입니다. 가나의 전통과 문화의 상징입니다. 아산티왕은 가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격자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아산티 왕국에서 황태후를 앓았습니다. 1주일에 걸친 장례식은 2017년 1월 16-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1월 16-18일까지 안치되었고, 장례식은 2017년 1월 19일에 행해졌습니다. 장례예식은 비 핵심가족은 볼 수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뿌리깊은 전통적 신념이어서 아산티왕국의 국제성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례예식 전에 모든 방송을 통해 몇가지 공지사항과 주의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2017년 1월 19일 밤 (1월 19일 18시부터 20일 04시까지) 깊은 의식의 시간이고 모든 국민과 가족은 실내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장례예식이 이뤄지는 지역들중 하나의 옆에 붙어있는 병원에서는 회의가 열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제기된 질문중 하나는 "그시간에 응급환자에 가기 위해 전화를 받으면 법을 어겨야 하나요?" 입니다. 기독교인은 문화와 전통이 비기독교적인 경우 법을 어겨도 되나요?

되돌아보기

예수님은 사람들의 신앙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식적인 방법으로 관여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예수님이 전형적인 예화입니다.

추가요절: 사도행전 17:16-34

기도: 주님, 때로 적대적인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 월 12 일

자신에게 말하기

요한복음 15: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때로 빨간 신호등에 기다리면서 자기자신에게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마도 발표를 연습하거나, 상사에게 자신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연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빙긋이 웃으며 그 혼잣말의 내용을 궁금했습니다. 몇년전 의과대학의 한 정신과 교수가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하게 혼잣말을 한다면, 많은 정신 건강상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하느냐 안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의사이면서 목사인 마틴 로이드존스는 그의 저서, '산상설교 연구'에서, 영적 단계에 대한 문제를 소개했습니다. "기독교인 생활에서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이 말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는 만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다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큰 소리로 자신에게 말해줌으로서 확신을 주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말씀을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듣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이름이나 "나" 라는 단어를 그 말씀에 넣어서 부르면 말씀을 개인화 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약속의 말씀이나, 고려해야 될 말씀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31:8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로마서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사야 43:2-3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생각해 보세요. 빨간 신호등에 서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빌립보서 4:6-7

기도: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말씀들을 상기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13일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14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인도네시아의 일부 저개발 지역에서는 앞니에 커다란 검게 색이 변한 충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들의 치아 건강을 돌보려 할 때 두가지 잘못된 그들의 믿음들을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첫째는 충치를 정상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나이가 들고 성장하면 치아를 잃는것은 절대적으로 정상입니다. 둘째는 문제있을 때 마다 마을의 전통적인 치과 기술자에게 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이 전통 치과 기술자가 치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끔찍하고 위험한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농양과, 건강상태를 악화될 수 있는 치아 충치의 위험에 대해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전통 치과 기술자에게 가는 것이 치아 건강에 해롭다고 말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돌보는 경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어느날 나는 "전국 치과 건강의 달" 행사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달에 사람들은 일부 병원에서 며칠 동안 무료 치과진료와 충치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복음에 대해 상기 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생활이 정상이라는 믿음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만의 방법으로 "영적인 만족" 을 얻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 그들이 필요한 주님을 만나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요절: 시편 63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알게 하신 이름들과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14일

광야의 샘물들

열왕기하 8:6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 주라 하였더라"

위의 말씀은 엘리사를 섬겼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이 여인은 7년 동안 가뭄이 오기전에 그녀의 땅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 만연한 가뭄때문에 얻은 손해로 그여자가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여자는 여호람왕에게 그 여자의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간청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적절한 시간에 왕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왕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서 선지자 엘리사의 공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을 살린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중의 하나인데, 마침 그 여자는그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후 왕은 명령을 내려 그 여자의 소유를 다 돌려주고, 심지어 그동안 없는 동안에 얻은 수익도 되돌려 주라고 했습니다.

요엘서 2:25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놋과 황충과 팻종이의 먹은 햇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다보면, 여기서, 또는 저기서 강도만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주로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증상들은 대부분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들의 손실의 증상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음을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추가요절: 요엘 2:18-27, 이사야 62

기도: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회복과 자비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 영원한 소명을 따라 섬기도록 도와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15일

민망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마가복음 1:41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내 친구는 의사인데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매우 저명한 유방 외과 의사와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의사중에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수술기술이 그녀의 질병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술 경험 많은 의사를 선택 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마음보다는 전문적인 우수성을 추구합니다. 요즘에는 전문성이 인간성, 도덕성과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탁월함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문둥병자 환자를 낫게하는 기적의 이야기에서 문둥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은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문둥병은 즉시 그를 떠나갔고,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은 육체적인 치료를 위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망히 여기는 마음은 추가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치료의 힘보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의 만남은 육체적인 치유의 힘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 줄 수 있고, 우리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히브리서 6:10

기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열려하는 모범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제 직업에서의 성공하기보다 자비롭고 신실한 종 의사으로 부르신 뜻을 상기하게 하소서. 연민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소서. 전문적인 우수성을 추구하듯이 환자들에게 인간적인 연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16일

누가 보고 있나요?

시편 33:18 "여호와와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노란 신호등이 켜지자, 나는 가속기를 밟고 빠르게 교차로를 지나쳤습니다. 제 딸은 나와 함께 여행하면서 "아빠, 필라델피아 웨인시에선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교차로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아빠같이 노란불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다" 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테스트는 사적으로 자신의 행동에서 발견됩니다.

일시적인 영적 기억상실증의 발작으로 주님의 끊임없는 임재하심을 우리는 잠시 잊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시선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눈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는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비추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견해에 비추어 내 행동을 판단하는 경향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기록했습니다. "시 139:1-4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장 높이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갈구하십니다.

하루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하심에 대해 예리한 인식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매우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교통 카메라 보다도,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다듬어 나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는 우리의 지갑 주머니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하나는 영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요절: 신명기 11:1-9

기도: 주님이 항상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기위해 노력하게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17일

전인치유

요한복음 5: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 줄 사람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치유는 성경의 이 이름 없는 남자에게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의미하셨나요, 아니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완전한 치유를 의미하셨나요. 이 사람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환자가 3개월에 한번씩 혈당 체크하러 와서 당신 앞에 앉아 있을때 이같은 질문을 하나요. 그분이 당화 혈색소가 정상인지만 알기 위해 왔을까요. 돌아가서 그것 때문에 가장 좋은 병원에 다녀왔고, 건강을 인증 받았다고 할 수있을까요.

그들이 당신에게 다른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고통, 재정 불안정, 노년에 어려움이 닥쳐서 뒤집혀진 나의 삶을 보아 주십시오, 들어주세요. 시간을 좀 내주세요. 의사선생님 저를 좀 알아주세요."

혹시 이 노인은 자식들이 다른 어느곳으로도 가지 못하게 해서, 한달에 한번 겨우 얻을 수있는 유일한 외출인줄 아시나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침부터 예측한대로 실행되지 못해서 환자의 말을 중간에 막은 적이 우린 얼마나 많습니까. 환자에게 아내의 소식이나, 갓 결혼한 자녀 소식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러한 손실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 환자가 휠체어에 타고, 보행 보조기를 달고, 단지 그 혈당에 대해 들으려고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에게 알게하고 싶은 특별한 분,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해야될 무수한 일들 중에, 잠깐 멈추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미소짓고, 공감해주시고, 그분이 절대로 혈당검사만 위해 다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세요.

추가요절: 요한복음 5:3-9

기도: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기도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18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복음 9:2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밤낮으로 따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배고픈 우리들이 떡 몇덩어리와 물고기 두마리로 배부르게 먹었고, 완전히 연약하고 마비된 사람이 온전해졌고, 장님이 눈을 뗐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불구자가 힘을 되찾고, 만성적으로 피를 흘리던 여인이 즉시로 나음을 얻었으며, 심지어는 나사로처럼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며, 푸른 올리브 나무가 시들어버리는 것 같이 자연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과 어울리면서 제자들의 기분이 상승되어 있다고 나는 추측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데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지는 생각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 예수님은 즉시 이는 네게 알게 한이는 혈육이 아니요 육체와 피로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17)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은 그가 교회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18-19).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로 둘러싸여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즐기고 있습니다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진실된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추가요절: 누가복음 9:35

기도: 주님,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며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19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나쁜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성경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까. 좀더 주의깊게 읽어봐야 되지 않나요.

때로 성경의 유명한 구절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의미를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가정하고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무엇을 말했나요. "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했습니다. 모든 일은 즐거운 일뿐 아니라 슬픈 일도 있습니다. 즉 원하거나 혹은 원치않는 일들이나 사건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만이 저술 하실 수 있는 거대한 계획에 맞도록 만들어집니다.

사도바울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또는 "우리가 희망하기를 " 이 아니고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거니와" 라고 표현한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채워줍니다.

주님은 점들을 연결하십니다.주님의 놀라우심과 지혜로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비록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주님께 고백하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점들에 대해 관할권과 권위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점들을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주님앞에 내려놓고 복종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28)

추가요절:시편 37:5-6

기도: 주님과 함께 하는 특권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들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20일

시편 90

시편 90:1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대대로 우리의 처소이신 하나님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두가지 하나님의 그림으로 시편을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통과해야 할 어려움이 극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면, 하나님이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일시적이며, 짧았음을 우리를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볼때, 하나님이 누구시며,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빨리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의 날들을 정확하게 계수할 수있기를 간구하고, 이를 통해 지혜의 마음을 얻기를 간청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주님께 네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주님이 변호를 매겨 알려주시는 삶의 지표인 것처럼 말입니다.

1. 상황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해 매일의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2. 고통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간구했습니다. 고통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주신 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3. 하나님이 영광중에 행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부정적인 면이 아니고,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보게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4.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은 쓸모가 없다는 깨달음을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수하심을 아는 삶입니다. 기뻐하고 만족하고, 환난중 즐거워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 한 일들을 들어쓰시는 주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6-7

기도: 우리의 삶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대한 확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6월 29일

의로운 분노

에베소서 4: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수님의 생애에 한 사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기를 요구했습니다. 광란, 분노 독선적인 폭도들이 앞으로 나아가 유죄를 선고하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폭도들이 법을 자신의 손에 들고, 의로운 분노로 분개하며, 스스로 법을 집행하고, 처벌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두가지 질문을 열어줍니다. 첫번째는 우리는 무엇에 분노하며, 두번째는 이 분노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분노하게 할 수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모욕당했을때 분노합니다. 우리의 신앙, 신념, 명예, 우리가 지지하는 입장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세계관이 다른사람들에 의해 도전받을때, 우리는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는 화를 표현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험하게 상대편과 다투기보다 앞서서 상대편과 커피를 마시는 것이 논쟁의 다른 측면에서 확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 이상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모욕당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겪고있는 사회적 불의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가 격려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지역 사회에서 약자들을 압제하고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까.

느헤미야의 경우 그의 좌절감을 단순히 풀기보다,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엄격한 책망을 베풀고, 더 나은 행동에 대한 약속을 이끌어 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분노가 아마도 의로운 분노하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추가요절: 느헤미야 5:1-12

기도: 주님 제가 불의와 억압에 분노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생산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인도해주소서. 아멘

7 월 1-1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 월 1 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10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말씀은 우리집 벽 문서로 걸어놓을 수 있는 놀라운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훨씬 더 깊이있게 해줍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황폐된 것을 보았습니다. 심각한 정치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에 대항하여 도시를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율법학자 에스라는 성전회복의 일환으로, 성경의 처음 다섯권, 즉 모세의 율법 (Tora) 에 대한 책을 읽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날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대신 축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진료와 상담중에 우리는 종종 자신들의 죄를 아주 잘 알고 있는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살지 못했다고 더 확신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그로부터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한 회복에 대해 경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사함의 기쁨에는 주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의 경축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인들이 종종 만나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주님의 기쁨을 경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이 우리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줍니다.

추가요절: 느헤미야 7~9 장

기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2일

육체는 선합니다

사도행전 17:30 -32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수많은 종교에서 인간은 약하다고 믿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을 순수한 영혼을 가두는 잔인한 감옥으로 봅니다. 인간의 몸은 일시적이고, 비 영적이며, 물질적인 중심이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악한 욕망을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썩어가는 악한 몸에서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을

향한 첫걸음으로 간주됩니다. 그리스인들조차도 선한 영혼과 악한 육체라는 이원론적 이해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바울이 매우 철학적인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왜 악한 몸이 부활되어야 하는가? 바울이 그들의 생각을 명백히, 매우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매우 반 직관적인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온전한 인간의 한 부분입니다. 자주 우리는 인간을 몸, 마음, 영혼으로 나누지만 이런 분할은 단순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통합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하기전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1).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몸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몸이 부활에 합당한 좋은 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어떤 다른 형태일지라도 인간이 완전한 몸을 가질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돌보아야 합니다.

추가요절: 고린도전서 6:18-19

기도: 주님, 우리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상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우리 환자들의 몸을 항상 존중하게 해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3일

공간 만들기

시편 62: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좇아 나는도다"

의료 직업은 매우 힘들고, 압도적 숫자를 상대하며, 응급과 위기를 겪는 삶의 방식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처입거나 소진되지 않도록 보호벽을 쌓아 마음과 계획표에 일정한 생활 패턴을 창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점점 황폐화되고, 거칠고, 무적의 사람이 되어 갑니다.

때로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이런 우리 자신을 위해 짜놓은 틀의 방식이나, 우리가 가는 방식에 따라 달려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표정에 불안이나 과민반응을 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여자아이를 고치는 중요한 사명중에, 몹시 바쁜 시간과 혼잡한 군중들 사이에서 생리 병으로 부정확한 여인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또한 절름발이를 지붕을 뜯고 내린 몇몇 남자들로 인해 또 다른 방해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우리를 자세히 살피고, 계획되지 않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계획된 긴급한 활동만큼이나 예수님께는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미 정해진 계획에 하나님께서 가져다주시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받아들일 공간을 우리는 만들 수 있을까요? 예기치 않은 공간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모셔들이고, 깨닫기 위해, 내 혼잡한 삶을 깨끗이 하고, 주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요절: 마가복음 5:25-34, 2:1-12

기도: 주님, 오늘 너무 바빠서 주님이 제게 보내 주시는 사건들과 사람들 안에 있는 주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 월 4 일

예쁜 포르투갈 소녀

사도행전 4: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스티브 라이스 박사는 정신과 의사로서 늦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티브는 내 친구이기도 하며 오늘 그의 거실에 앉아서 중요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 두마리를 산책 시키는 일을 하는 15 세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의 아버지처럼 무신론자였습니다. 그 소년은 기독교에 대한 모든 논쟁을 알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언급할 때 마다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라이스박사는 그 소년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그가 예수님께 나오도록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차가운 얼음 상태가 계속되다가, 그 소년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쁜 포르투갈 소녀를 만나, 그녀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깨졌습니다. 그 소녀는 소년에게 성경, 특히 야고보서를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소년은 그렇게 했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그의 형제도 주님 앞에 인도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때로는 유모감각으로 나를 놀라게 합니다. 이 학식있고, 다정한 정신과의사가 책상에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주장은 벽돌로 된 벽을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년의 마음을 연애감정으로 흔들어서 놀랐고, 놀랍게도 그의 벽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내 자신의 간증도 스티브 라이스와 그의 개 산책하는 소년과 비슷합니다. 나는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할 때, 더 보람있게 해달라고

계속 간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순종을 원하시며, 우리가 전도하도록 부르실 때 우리의 목소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추가요절: 로마서 10:15

기도: 사랑의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저와 제 목소리를 사용해 주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해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5일

느낄때 까지의 의지력

야고보서 4:17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폭우후 샌디에고 산 허리는 비정상적일만큼 푸르롭니다. 의학 모임을 위해 서부에 올때 마다 방문하는, 교도소에 수감중인 친구를 방금 만나고 떠나왔습니다. 회의장에서 세시간을 비워두고 감옥에 달려갔다가 중요한 회의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자주 있는일인데 이날도 만나는 과정이 지연이 되어서 계획한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서로 안아주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한시간후 나는 시계를 보며 회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회의를 참석못할까봐 본능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내 마음과 본능은 나를 끌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 의지는 남아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내 의지의 힘으로만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놓치고,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어릴때 부모로부터 누구나 듣는 말입니다. "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잘 할 가치가 있다."그리고 편집된 어른 버전은 "할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 잘 할때까지 못해도 할 가치가 있다." 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두가지 모두 나의 삶에 사실입니다.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후 주님은 천국에서 완전하게될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거의다 이땅에 사는동안 완벽에 도달하지 못합 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중 누구도 우리가 될 그리스도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동안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거기 도달할 때 까지,그리스도안에서 느낄 수 있을때 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의지적으로 하고자 해야 옳습니다.

추가요절:이사야 41:10

기도:사랑의 주님, 내 마음이 스스로 항상 옳은 일을 원할때 까지, 의지적으로 옳은 일을 할 수있도록 주님의 힘을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6일

부서짐의 축복

마태복음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오늘 나는 내친구이자 환자인 앤드류를 방문했습니다. 앤드류는 기독교인인데, 암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고있고, 마비가 왔고 계속되는 통증이 있습니다. 오늘 그는 내게 "왜"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가 아니고, " 왜 이렇게 아프데 주님은 나를 하늘나라에 안 데려가시나요" 였습니다. 나는 이 불가능한 질문에 대해 내가 할수있는 최선을 다해 꼭 짚어서 답변을 했습니다.

"앤드류 주님은 네 고난을 통해서 아주 좋은 선물을 네게 가져올거야. 그것이 너를 여전히 이곳에 주님이 두신 이유야. 나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몰라. 너도 이 땅에서는 그게 무엇인지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야." 나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네 고통으로 부터 오는 선물은 직접적으로 네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네 주위의 사람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자 그리고 너도 사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내나 딸들에게 갈 수 있지. 천국 이편에 네가 아직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네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단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었습니다. 우리중 대부분은 우리의 넘쳐는 것으로 이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을때, 여분으로 줄 것이 생깁니다. 우리는 보통 풍부함 가운데서 축복을 베풀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의 부서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축복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풍부함가운데 축복을 나눠주는 것, 우리의 부서짐을 통해 축복을 나눠주는 것 모두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가 행복으로 가득 차면, 매우 슬픈 사람에게 그 행복을 나눠 줄 의지가 있습니까? 내가 부자일때, 내 재산을 줄여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병들고 약할때, 주님을 영화롭게하여, 내 신앙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부서진 가운데서의 축복, 넘치는 가운데서의 축복, 둘 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추가요절: 하박국 3:17-19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 내가 부요하건 가난하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7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모든 의료인들은 매일의 진료에서 식염수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식염수는 생명을 구할때 뿐아니라, 더러운 상처를 청결하게 하거나, 하루종일 관절경 수술같은 수술 절차에 날마다 필요합니다. 식품에 적당량의 소금을 넣을 때의 좋은 효과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료계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많은 기독의료인들은 강한 압박을 받고있고, 지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잊어 버릴 지경까지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동료, 의료진, 심지어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응대가 불쾌하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혹하고 상처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가혹한 말은 타인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갈등, 불일치, 평화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 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짐언 15:1).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므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고 대신에 평화와 현명한 덕목으로 인도하는 모든 일을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롬 14:19)

추가요절:빌립보서 2:3-4

기도 : 주님이 오늘 나의 모든 상호 작용에서 겸손과 이타심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8일

"아바 아버지"

로마서 8:14 -15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가 병원에서 방문한 환자는 그의 신앙이 그와 그의 아내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안을 얻으며 기도를 했는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로마 교황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아버지" 라고 소개하는 격려의 말을 회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런 것을 그는 결코 듣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아버지"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6:9)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개념이 200년 동안 성경에 있었음에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첫번째 교훈이었습니다만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가 어려운 진단을 받았을 때 먼저 번 의사와 10분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아내의 건강에 대해 기적을 경험했는지를 환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의 그의 보살핌 계획에 대해 더 논의한 후에, 나는 기도를 제안했고 그는 받아들여 "사랑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나는 그의 담당 간호사에게 기도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전체 대화의 매 단계마다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병원의 의료팀에게 몸 - 마음 - 사회 - 영적 지원과 및 필요한 채플린 서비스 계속 제공하도록 병원 차트에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중요한 건강회복의 원천인 것 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바, 아버지" 라는 말씀에서 그는 위로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7:9-11

기도: 이곳은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내 마음이 왜 슬퍼해야 하나요?

여호와는 왕이시니

하늘이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세상이여 기뻐하라.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9일

시간의 가치

야고보서 4:13-14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일을 시작한 경우, 시간은 가격으로 표시됩니다 (즉, 시간당 60\$). 우리 인생에 시간당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시간을 보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한된 자원은 시간입니다. 아무도 그가 남은 이 자원의 양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은 매일 빠져 나갑니다. 의사로서, 시간은 높은 할증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합법적인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돈과 마찬가지로 시간은 다른 활동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수익을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씨를 파종하고 수확을 거두거나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합니다.

전도서 11:1-4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한 것들이 실제로 열매를 맺을 것임을 결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모지에 시간의 노력을 쏟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후에 많은 두통거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서로 사귀는 우정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시간을 투자해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노력은 그 자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씨앗으로 뿌리는 법을 배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요절: 야고보서 4:13-14

기도 :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모든 자원에 대해 현명한 청지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는 당신의 더 큰 영광을 위해 현명하고 유익하게 시간을 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 월 10 일

시간관리

야고보서 4: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인스턴트 메시지, 메일, 레시피 및 결혼과 같은 "인스턴트"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모자랍니다.우리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깊은 진실은 시간이 짧고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시간은 귀중한 자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 좋은 청지기가 되기를 기대 하십니다. 모세는 시편 90 편 12 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에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한된 시간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는 우리의 욕망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지나가는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삶을 압박하고 우리의 영혼을 굶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하고 쉬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에서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강렬한 생산 활동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자신은 휴식의 가치를 아시고 6 일간의 활동 후에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새롭게되고 일주일 동안의 모든 활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일치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땅에서 주어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삶에 대한 주님의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땅에서 우리가 가진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효율적으로 우선 순위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마태복음:25:1-10

기도:주님, 저의 귀한 시간 선물에 대한 현명한 청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7 월 11-2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 월 11 일

평범한 먼지, 전능하신 창조자

고린도후서 4: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먼지는 남 수단, Yida 난민촌 어디에나 있습니다.

먼지 폭풍으로 몇 초 안에 다소 깨끗한 집이 더러운 두꺼운 막으로 뒤덮입니다. 내 남편과 아기는 그 먼지 덩어리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놀며 쌓기를 좋아하며, 종종 그것에 덮혀 있습니다. 내 부엌도 먼지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종종 나는 그것을 멀리 쓸어 버리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라워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이 아주 평범한 먼지로 창조하기로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이 먼지로 그는 우리 "진흙 항아리" 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보물을 이 항아리 안에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이 항아리들이 매우 부서진 채 우리에게 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힘과 영광을 보기 위해 깨진 항아리, 그 뒤를 바라 보라고 요청합니다.

요한 1 서 4:7-1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추가요절: 요한일서 4 : 7-12

기도 : 주님, 우리가 환자의 평범하고 또는 깨진 항아리를 통해 그 내면의 영원한 보물을 보도록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12일

믿음, 꼭 있어야 할 도구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어원적으로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확실한 사실로 판단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특정 사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서에 따르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확신,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무엇보다도 영입니다. 이 영은 육체에 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질은 육신 (육체의 오감을 통한 지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안에 넣어 주신 영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신성하며 성경은 우리가 신이라고 단언합니다.

사실 우리는 의사, 치과 의사 또는 의료 종사자로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모든 것 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앙은 Wi-Fi 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진료에 필요한 가방을 준비해야함을 상기 하십시오. 과학적 수준에서 우리는 맨 꼭대기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다. 주님과 Wi-Fi 를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환자가 과거 병력(history)이 있다고 말할 때, 때로 그 환자에게 영적 배경의 원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 복음 17:20 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추가요절: 디모데전서 4 :10

기도: 제 안에 주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13일

주님과 주님의 사역

마가복음 1:32 -33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어 예수님이 이들에게 붙잡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마가 복음 1:33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늦은 저녁이나 밤까지 지속되는것은 그의 "공공 사역" 에서 자주있는 일이었습니다.(마가복음 1:32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공공 사역에서 개인적인 시간은 밀려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제공될 수있는, 공공 장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일부 중요한 분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개인별 돌봄을 위한 시간을 냈습니다. 주님은 모든 바쁜 일정 가운데 베드로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를 돌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통해 함께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시 재충전이 되었을까요.? 주님은 이른 아침에 집에서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힘을 재충전하고 그의 존재감을 되찾게하기 위해 주님의 개인적인 시간은 보호되고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마을 사람들이나 그가 머무르고있는 마을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에게 몰려와 그의 시간을 압박할 때에도, 다른 마을들과 다른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셨습니다 . (마가복음 1: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하신 것은 "이것을 행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마가복음 1:38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은 공공 장소에서 매일 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방 할 수있는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재충전하며 비전과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개개인에 대한 관심, 사적인 시간, 적극적인 이동등, 이 모두가 예수님의 삶의 초점과 방향을 되찾는 단계라고 나는 믿습니다.

추가 요절 : 마태 복음 14 : 22-23

기도 : 주님, 불이 꺼지지 않고,오히려 불꽃을 일으킬 수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지향하고 조직 할 수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불을 일으킬 수 있으시므로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14일

우리의 말을 묵상하십시오

에베소서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기독교인 커플 캠프를 위해 호텔을 임대했습니다. 매니저를 만나자고 한 후, 처음 보자마자 그는 나를 알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사이고, 당신은 저에게 초음파 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초음파 검사가 끝나고 나서, 당신은 제가 두려워 하는 모든 것을 풀어 주었던 믿음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나는 건강합니다.

사랑하는 의사 들이여.

우리의 환자에게, 같은 수준의 동료 의사에게, 우리의 아래 계급 동료에게, 간호사들 및 고위급 동료에게 대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묵상해 보라고 나는 권합니다.

그 사람의 속한 범주가 무엇이든, 우리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들은 상처 받고 굴욕감을 주고 조롱하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친절의 말로 가득해야 합니다.

환자에 대한 연민의 말

고통에 대한 이해의 말

환자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짓게 하는 단어

안심하고 격려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발전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토론과 논쟁은 피하십시오.

추가요절 : 골로새 4 : 2-6

기도 : 저를 평화의 통로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 월 15 일

연민에서 나오는 자비

마태복음 15:32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15:37-9 "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던라 예수께서 우리를 흠여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이 4 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의 기적의 배후에 있는 예수님의 동기를 보면서 나는 놀랐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사람들을 위한 연민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봉사위의 내 자신의 동기를 되새겨 볼 때 나는 자주 도전을 받거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일을 안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봉사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동기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나는 현재 대리의사 직업을 하고 시간당 돈을 받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이 식사는 나의 시간의 30 분 가치가 있다" 또는 "이번 주말 여행은 내시간 5 일의 가치가 있나?"

병원에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을때 내가 잘 나가는 의사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시간을 반성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숨은 동기를 전혀 갖지 않았습디다.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후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설교하거나 전도사역을 하려 하지 않았습디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기분을 좋게 하려는 시간을 가지려 하거나,개인적인 손실을 계산하거나, 힘든 일에서 벗어날 수있는 시간을 구하지 않았습디다. 예수님은 바로 다음 장소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했습니다.

추가 요절 : 마태 복음 15 장 29 ~ 39 절 : 마태 복음 20 : 29 ~ 34.
시편 139:23-24

기도 : 주님, 제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연민으로 채워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동안, 내 속에 숨은 잘못된 의도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 월 16 일

이미 우리가 가진 것

요한 1 서 5:14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나는 이른 아침 컴퓨터에 올라온 병원 차트를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로 부터 "나를 위해 기도 해 주세요" 라는 문자 텍스트를 받았습니다. 그가 오늘 아침 면접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기도했단다" 라고 나는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위해 문자를 보냈나? 아니면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라고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일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텐데, 내기도 때문에 주님은 아들의 면접시험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일하셨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미신, 합리화, 의심 및 소망의 씨앗이 자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 할 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 기도하거나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스위치를 누르기 위해 기도합니다. 때로 의심의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행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때로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절망감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주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그의 손에 쥐고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의 창조물 그리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계획, 나를 위해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부를때 언제나 임재하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임재하심은 나를 무릎 꿇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 일하시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새겨져있는, 제가 볼 수 없는 놀라운 계획 때문에 계속 일하시는 방식이 변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도 방법과 나쁜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요절 : 역대하 7:14

기도 :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쉬지 않고, 항상 기도로 주앞에 나가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17일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9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녀는 지금 실제로 그녀의 수술 전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었습니다. 불치 암의 한가운데서 그녀는 쾌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남편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여서 "지난 주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영원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으려면 우리가 인생을 마감 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영원한 삶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 부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 이것이 우리가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입니다. "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 되었다면서 나는 아직도 죽음이란, 죽음의 다른 쪽에 있는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 기어서 통과해야 하는 암흑의 구멍으로 보아야 합니까?

만일 영원한 생명이 시작 되었다면,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단단히 잡는 사람은 우리중 거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된 경우,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삶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 펼쳐질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왕국에서 누리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세상은 훌륭한 조각가의 상점입니다. 우리는 조각상들이고 우리 중 일부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상점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우리 영원하신 왕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을 가치가 있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완성할 영원한 소명 있습니다.

추가요절 : 누가 복음 17 : 20 ~ 21.

기도 :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왕국이 오셨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18일

자신의 삶을 사는 또 다른 기회

시편 90: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는 통증 완화 치료분야에서 일합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에 대한 직업은 쉽지 않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때 인생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 7:2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 환자를 방문할때 나는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봅니다. 그 여자는 매우 염려가 많아서, 화창한 날에 단순한 것들을 즐기는 것들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을까요? 그는 일 중독이어서 가족과 아이들을 제쳐 놓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를 알았을까요?

그들이 살았던 방식을 바꿀 수있는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바꾸려 할까요?

그래서, 환자를 볼 때, 저는 제 인생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아는 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가지고 있는 매우 서두르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중요한 일, 즉 하나님과 대화하여 그분의 뜻을 알고 ,그뜻을 우선 순위로 삼기 위하여 시간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큰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7)

추가 요절: 마태 복음 16 장 24 ~ 26 절 ,이사야 55:6

기도 : 주님, 모든 것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19일

경손, 제자도

빌립보서 2:2-4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성경은 이기적인 야망이나 허영심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낫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 우리 자신의 지위,

우리 자신의 평판을 위한 의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특전, 자신의 지위, 우리 자신의 명성을 위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택, 성, 궁전, 왕국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고, 다른사람들의 연민과 치유와 정의를 위해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라도 겸손, 자기 부인, 희생,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자만심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며, 헛된 자존심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장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것만이 값을 초월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있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다른 이가 아닌 주님만 선택할 때 그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요절 : 히브리서 13 : 16

기도 : 주님, 제가 이 권면을 따르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20일

인간적인 감동

마가복음 10:16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최근에, 폴 투르니에가 편집한, 내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인 "현대사회의 피로" (Atlantic, GA : John Knox Press, 1965) 를 다시 읽었을 때 감명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진보가 의학적 진보의 주요 요인이지만 의료 활동의 실질적인 효능은 과학적 진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인품의 영향과 의사와 환자의 만남도 치유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Tounier 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

"환자의 인격, 자라온 환경,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여 그를 더 넓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환자와 친구가 되어야하며 환자에게 인격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것은 1965 년에 작성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진리이지만, 실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의학은 도약하고 달려가며 발전해 왔습니다. 의학기술을 구세주로 보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환자와 개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보다 약물을 처방하고 및 치료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인치유에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인격적인 차원을 이해하셨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국에서 단지 어떤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디다. 주님은 직접 이땅에 오셨습디다.

그래서 말씀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 사이에 거하셨습니다. 그는 무한한 사랑과 성실로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 : 14)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인격적인 감동의 수혜자가 아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분의 사명을 계속하도록 세상에 파견되었습니다.

추가 요절 : 누가 복음 8 : 40 48

기도 : 주님,제 환자들에게 ,특히 매우 어려운 환자들에게, 어떻게 인격적인 감동을 가지고 만져 줄 수 있는지 보여 주십시오. 아멘.

7 월 21-31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 월 21 일

하지만 그건 소총일 뿐이야.

누가복음 9:23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오늘 저는 제 아들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과거 체인톱으로 그의 다리가 다치는 것을 내가 볼 때보다 더한, 거룩한 무서움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처음 전화했을 때 병원에서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서, 끝나고 그를 다시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은 결혼하여 어린 아기를 키우며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에게 정말로 의미있는 것을 몇 가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가지는 수제 소총입니다. 그 총으로 600 야드의 거리에서 물로 채워진 우유 주전자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총은 몇 천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총쏘기의 스틸과 정밀함을 좋아합니다. "나는 오늘 내가 소총을 팔았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알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것을 팔아서 돈을 선교병원의 선교사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했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목사가 되거나 외국 선교사로 헌신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 생활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삶을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그리고, 또한 어려움으로 이끌 수 있는것을 압니다. 그런 삶은 내

아들을 위해 내가 내적으로 원했던 세상적인 행복의 삶과 상반됩니다. 나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원하나요 혹은 거룩함을 원하나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럴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적 삶은 그것이 우리 삶이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든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헌신의 삶을 찾아야 합니다.그러한 삶은 세상과 상반되고, 종종 세상에 의해 휩쓸립니다. 그것은 세상의 불신에 직면 할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를 주님과 대면하게 합니다. 그것은 두려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매우 적은 경험만 있습니다.나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그들의 인생을 쏟아 부은 삶을 보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단지 소총 일 뿐이지만 무섭고 멋진 길을 걷는 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한 그 길에 ,내 아들이 서 있습니다.

추가 요절 : 고린도 후서 8 : 3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 월 22 일

인품 터득하기

빌립보서 4: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우리과 임상조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밝고 젊은 여자 수련의가 병원 클리닉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몇 명의 환자를 함께 본 후에,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종양학에 당신이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 답변처럼 나는 그 여자가 가족 구성원의 치유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련의 1년차때, 당직 날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 왔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강사중 한 명인 에릭 의사가 응급실에 찾아와 그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그 의사는 그 남자와 함께 앉아 그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살리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2시간 동안 그는 거기에 머물며 그를 위로하고 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에릭 의사의 연민과, 그것이 그 환자의 마지막 시간에 가져온 평화를 보면서 나는 종양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인품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터득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만나는 위대한 남자들과 여자들을 지켜보고 터득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학을 사랑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환자들을 회진할 때 나를 데려가서 간호실에 나를 머물게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나는 아빠의 기쁨을 보았고, 나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부르신 소명을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존 타 플리 (John Tarpley) 박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헌신과 에너지와 희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우리가 관찰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의 방향으로 자랍니다. 나도 확실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관찰하는데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들의 인품이 더 잘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까?

추가 요절: 빌립보서 4:8

기도 : 사랑하는 아버지, 제 주위에서 제 삶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야 할 책임이 제게도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23일

큰 실수

시편 32: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인턴쉽 2년차 때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재발성 급성심근경색의 심전도 해독을 놓쳤습니다.

밤낮 하루 종일 잠 못자고 열심히 일한 후에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혈관성 질환을 다루는 병동에서 심전도 결과를 하도록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 나는 거기에 갔었고, 심전도 결과가 정상이고 환자에게도 어떤 임상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직원을 보내 다시 병동 회진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때 그는 내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다른 검사지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2일 전에 왔을 때의 첫번째 EKG 결과서를 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재발성 심근경색증이 있었습니다. 나는 결과지의 날짜와 시간을 체크 못했고, 그래서 나는 잘못 해석했습니다. 환자는 즉시 인터벤션을 위해, 제

시간내에 보내졌고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치료 후 곧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는 부서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 졌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 너무나 미안해 했습니다. 내 잘못이었고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회의실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선배 선생님 중 한 분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 시작해서 잘하도록 하세요." 나는 기도하고 내 잘못을 예수님께 가져 갔습니다. 그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또 다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2 주 동안 비상대기 업무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었습니다.

추가요절 : 시편 32:1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32: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셀라).

기도 : 주님, 당신의 자비와 보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다 주의깊게 그리고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24일

못 본 체하지 말라

신명기 22:1-24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네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찌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잃은 아무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체하지 말 것이며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찌니라"

어떤 것을 못 본 체하는 일이 쉽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1-4 말씀에 "네 형제의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이나 소가 아니고, 하물며 형제나 자매가 길을 잃거나 빠져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더 무시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또는 "나는 관여할 수 없고 또 도울 수 없다." 또는 "나는 바쁘다." 고 말하기 쉽습니다. 주님은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들이 일어서도록 돕기 원하십니다 (22:4).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일 5:16). 조심스럽게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엡 6 : 1).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길 잃은 것을 본다면, 그것을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우리 배우자가 열의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되면 그것을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우리 친구가 타락한 것을 본다면 그것을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또한 병원에서, 환자가 실내용 변기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추가 검사 또는 주의가 필요한 징후가 환자에게 있음을 내가 알았다면, 이를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환자에게 주님을 증거하도록 이끄셨으면 그것을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특정한 환자를 다시 병실로 찾아 가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신다면, 그것을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 자신의 삶에 대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보여 주신다면, 그것을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추가 요절 : 빌립보서 2:4

기도 : 사랑하는 주님, 내가 길을 잃고 넘어졌었을 때 주님이 나를 못 본 체하지 않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똑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이것을 간구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25일

가르치는 재능

신명기 32:2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우리 모두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일의 일부일 때가 있습니다. 그 교육은 환자 또는 동료이거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끔찍했던 가르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에서 자랄때, 학교 혹은 대학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말하고 가르치기 원합니다. 모세는 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신명기 32:2 에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르치기를 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처럼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사람처럼 가르치려 하지 않고, 군대의 상사처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앞잡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굴욕감을 갖게하거나 다른 사람을 내려다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그들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재치 있고 부드러우며 진실되게 가르치고, 이 구절에서 읽은 특징처럼 가르치기 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주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부드럽게 내리고, 새로운 잔디에 샤워를 하는 것처럼

상쾌하게, 부드러운 식물위에 비가 풍성하게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과 성장과 치유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슬처럼 내리는" (부드럽게, 상쾌하고 효과적으로) 말을 하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식물위에 비가 풍성하게 내리는 것과 같이" (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물과 영양을 공급함)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잔디에 샤워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번식하고 풍부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함)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 : 사랑하는 아버지, 모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고 방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격려가 되고, 낙담시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는 생수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26일

우리의 약한데서 하나님의 강함을 발견하는 것.

누가복음 22:60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22:62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마지막인가요? 의료를 수행하는 우리는 모두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대가가 크고, 대개 우리보다 환자에게 더 심하게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겁에 질린 의사는 상담실, 병실, 수술방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내 친구 중 한 명은 외과수련을 시작할때 앞으로 평생 수술 중의 실수로 죽음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환자의 수가 6명 이상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은퇴 한 후 그 예상 케이스가 사실이었냐고 묻자 그는 냉소적 유머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오, 그건 너무 적게 잡은겁니다" 가장 우리가 돕고 싶었던 곳에 오히려 피해를 입힌 후에 어두운 통회 자복의 시간을 우리 각자는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우리는 계속 진료 할 수 있습니까?

용서는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발견되는 개념입니다. 출애굽후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큰 죄를 짓던 아론이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극단적인 실패후에 되어진 경우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알면서도 하찮은 여종에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해 회복된 것을 압니다. 그는 심지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의 용기를

사랑했었습니다 (요 13:37). 그러나 대제사장의 안뜰에서 몇시간의 간단한 질문만으로 죽기까지 맹세하며 세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부활절 아침까지의 시간은 암울한 자기 혐오로 과거의 잘못에 묶여 있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와의 두 번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사도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약한데서 강하게 되는 주님의 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추가요절 : 이사야 40 : 31

기도 : 주님께서는 나의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셔서 회복시키시며,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27일

새 위임명령

요한복음 21:15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

나는 수석 연수생 시절에, 만족시키기 불가능했던 자문의사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내 실수를 지적하고 또 그것을 병동 회진때 자주 퍼뜨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만 그 메시아를 베드로는 결국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후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에 의해 그의 아들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불렀었던 그 사람, 베드로의 주요 재건 계획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사관리의 걸작품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베드로와의 첫 번째 만남은 개인적이었고, 고린도 전서 15 장 5 절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고전 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러나 그 만남에서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미래 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 어부 베드로가 그의 과거 직업인 어부로 다시 돌아간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데다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거대한 수확을 가져다 주어서, 자연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 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음식에 대한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된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은 단 둘이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세번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전의 사실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라는 사랑과 헌신에 대한 세번의 맹세로 말미암아 씻겨지게 되었고,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베드로의 회복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위임명령이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이것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 명령은 먼저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 로 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목자의 자녀가 수시로 맡고 있는 일입니다. 그후 성장한 양 "내 양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폭 넓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 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말 안듣는 양을 설득해서 어떤 지역에 데려가서 풀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아는 예수께서는 , 이 책임을 베드로의 어깨에 단단히 맡깁니다. 풀을 준비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굶주린 이들이 먹고 회복 되었는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 는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힘든 소명을 지키기 위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일을 해 낼 수있는 길은, 주님과 가까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 요절 : 출애굽기 3 : 11 ~ 14

기도 : 주님, 당신을 섬길 특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실패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능하게 만들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 내 부름의 소명에 인내하며 따를 수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 월 28 일

죄책감은 제거 될 수 있습니다.

시편 51:7 -12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당신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당신이 말했거나 행한 (또는 말하지 않았거나, 행해지지는 않은) 것에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어렵습니까? 동료와 싸웠습니까?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했습니까? 기독교 의사들도 이 세상의 유혹으로 부터 항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고립과, 불규칙적인 교회 출석과 기독교인과의 교제가 결여되면 죄에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되돌려서 다르게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맙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 ,가장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말합니다. 시편 51 편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죄를 저질렀고,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로 이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간통 상대방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의 냉혈한 살해를 조장했습니다.

그것들은 방대하고 부인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이며 다윗이 완전히 절망에 빠지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편 말씀이 내게 매우 강력하게 느껴짐을 발견합니다. 즉 이 죄의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용서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죄는 벗겨집니다.

추가 요절: 요한 일서 1 : 9

기도 : 용서를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태도와 생각을 바꾸게 도와주셔서, 제가 진정으로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 월 29 일

기술에 대한 기독교인의 접근

요한복음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요소인 물을 사용하여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정보 폭발시대에, 의료 정보, 의학 교육, 의료 물품 등 하나님이 주신 의료 자원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불평등으로 고통 받고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의료 전문가들로서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며 더 나은 삶을 누릴 수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압니다. 첫 번째는 영어 Cyberite 기술을 통한 환경 보호, 두 번째는 컴퓨터를 통한 의학 교육, 세 번째는 스토리지 클라우드 기술입니다.

영어 Cyberite 기술을 통한 환경 보호 : 화상 회의 시스템은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으로부터 환경을 보호 할 수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해외 회의나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데 드는 여행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oogle+ 행 아웃 시스템 및 Skype 인데, 그것들은 쉽고 저렴합니다. 다른 시스템 Vidyo ([http : /www.vidyo.com](http://www.vidyo.com)), LifeSize UVC 비디오 센터 ([http : //www.lifesize.com/](http://www.lifesize.com/)) 및 DVTS plus ference 시스템 (<http://conf.dvtsplus.org/>)과 같은 다른 시스템은 ,초당 30MB 이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화질의 비디오 및 오디오 흐름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ICMDA 동아시아모임은 페이스 북을 통해 고품질 회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E-gathering 은 ICMDA 동아시아모임의 미래에 대해 토의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학 교육을 컴퓨터 과학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새로운 JVC DV plus 태블릿, iPad4 레티나 디스플레이 또는 AMOLED 가 포함 된 삼성 태블릿은 수술의사였에서 수술장면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몇시간씩 리트랙터를 잡고 있는 수술 보조원의 불평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클라우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추가 요절 : 요한 복음 15 : 5

기도 : 우리의 진료 봉사를 향상시키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기도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 월 30 일

성스러운 곳들

시편 133: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로마서 12: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년 전 나는 동 아프리카의 시골 선교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서로 매우 다르며, 우리가 각각 상대방 선교사를 선택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각자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정치적 재정적 상황은 매우 어려웠고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기도하고, 함께 커피를 마셨으며, 병동에서 함께 일했고, 함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어느 날 주교가 방문했습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선교사들이 일하는 곳들은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의 장소로 여겨지는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나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주교는 말하기를, "나는 그곳들을 성스러운 곳들로 봅니다." 그 후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 교제를 위한 더 큰 기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곳에 있는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 그 대신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지만 너무 서로 달라서, 서로 듣는 일, 이해하는 일, 돌보는 일에 대해 따로 노력해야 하는사람들과의 교제에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 주님께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 장소들에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을 함께 조화롭게 살며, 함께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눈에 보이는 간증이 될 기회를 주님께서 주었다고 주교는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다른 관점입니까.

나중에, 나는 의사의 대부분이 신자가 아니었던 병원에서 파트너십으로 일했습니다. 갈등은 때때로 발생했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평화롭게 살며 함께 잘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들어주고, 또 팀원 모두의 유익을 위해 내가 일하는 방식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추가 요절 : 갈라디아서 3 : 26-28

기도 : 주님, 기독교인과 비그리스도인인 제 동료들과 일하는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제가 할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7월 31일

놀라운 음성

에베소서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6:4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일이 잘 되어가는 좋은 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이 들어야 하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직업에 대한 과도한 헌신이 기독교인 의사의 결혼생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혼 생활의 자녀들은 부모가 믿는 것에 대해 환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집에서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리고 묻지도 않고, 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특히 그 누구에게가 아니고 벽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일터에서 나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고맙게도 아무도 저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즉 힘든 하루 일과 후에, 나는 부당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셨습니다. 나는 자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관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평상시보다 집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하는 바쁜시기였습니다. 침대에서 자려는데, 예기치 않게 그리고 묻지도 않고 아내가 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30년동안의 결혼 생활중, 그녀가 나에게 그렇게 소리 지른 이전의 사건을 한번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불만있으면 우리는 고향치는 것보다 얼굴을 찡그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맙게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제가 듣기를 바라는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부터 내 일하는 패턴을 바꾸기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국제 선교사들과 ,열심히 일하는 헌신된 신자들과 관련돼 일하는 것이 내게는 영광된 것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주님은 나를 부르신 소명이, 내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또한 나의 할 일에 대해서도 덜 염려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추가 요절: 요한일서 2:17

기도 :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저를 주님의 임재로 채우시고, 저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2일

주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골로 6 4:5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중앙 아시아의 내 의사 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슬림이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 당신의 종교와 우리 종교는 매우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관심사를 표명했습니다.

나는 그의 관심을 없애지 않기 위해 논쟁없이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와 교회를 가기를 요청했고, 제 두뇌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를 도와서 그가 이번에 우리 문화를 관찰하도록 해서,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려는 욕망으로 그를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 "그리고 내가 성서 연구 시간을 인도하니까, 아마도 내가 그를 위해 더 효과적이 되도록 공과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역사하기 위해 그런 생각을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나의 실수를 깨달았고, 주님의 역사를 조종하려는 내 어리석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사용함으로써 가장 잘 수행되지는 않습니다. 전도는 내 삶에서 경험된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 정직한 증거를 함으로서,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 증거함으로 인해 가장 잘 성취됩니다. 전도는 내가 진실되게 살면서, 내 믿음에 대해 진실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사랑으로 매일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과 함께 심사숙고하며, 보통으로 살아가는것입니다.

추가 요절 : 디모데 전서 4 : 5

기도 : 사랑의 주님, 주님을 증거하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3일

두려워 말라

말라기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친구는 그리스도인 의사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사람인데 위암이 생겨서 항암 화학 요법 중입니다. 오늘 나는 그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질병중에 있는 내 친구의 중요한 적 중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보다 그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극복 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위에 기록된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보게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그에게 분명하게 말씀 하였고, 피아노로 가서 그는 이 말씀을 대한 노래를 썼으며, 의로우신 주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원래자리로 되돌려 보내고 이겨냈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두려움은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가장 충실한 크리스천들의 삶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두려움이 널리 퍼져있지 않았다면 주님이 여러 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 인용했듯이, 존 맥 머레이 (John MacMurray)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께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큰 손실이 있는 냉혹한 현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둘로 찢을 수 있는 손실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든, 결국은 잘 될것입니다. 그분은 그 두려움의 짐을 우리에게서 대신 취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것은 먼저 우리의 손실없이는 절대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회복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추가요절 : 신명기 31:8

기도 : 사랑의 주님, 두려울 때,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가져가게 해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4일

주님이 방금 변화시켜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27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펠리시아 (Felicia)는 수련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직전에 첫 아이, 엘리 (Eli)를 낳은 밝고 젊은 임상조교입니다. 임신 전반에 걸쳐 의사들은 자궁에 있는 아기에 대한 나쁜 예후를 보고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기도를 많이했고 엘리가 태어날 때까지 수련의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가장 나쁜 뉴스는 엘리의 창자가 몸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나오기 6 주 전에 펠리시아의 주치 의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즉시 아기를 분만해야 합니다." 펠리시아가 부모님을 부르지 않고 직접 병원에 갔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엘리가 출산되자마자 ICU 로 즉시 데려갔습니다. "아기의 창자가 매우 탁한 색깔입니다." 그 여자가 들은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여자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장은 분홍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 주 후, 건강하게 아들 엘리가 퇴원해서 펠리시아는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펠리시아가 내 사무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려 주면서 그녀는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방금 그것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중 일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간섭밖에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뚫고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 구원할 수있는 시간, 주님이 권능으로 오셔서 불가능한 일을 변화시키는 분명한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자인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변화시키신 일들을 ,우리 삶에서 적어도 두 번의 사건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 각 개인의 창조입니다. 과거에는 "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그러나 지금 "나"는 존재합니다.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불가능한 것은 우리의 재창조입니다. 과거의 "나" 는 잃어버린바 되었습니다. 새로 이제의 "나"가 찾은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적어도 두 번이나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펠리시아처럼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추가요절 : 로마서 8:28

기도 : 사랑하는 아버지, 내 인생의 "불가능한 일들"을 사랑으로 계속 극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 월 5 일

전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입니다.

역대상 14:13-17"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뿔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곧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서 전투는 "고난" 또는 "갈등"이라고 봐야 합니다. 일단 기독교인이 되면 삶이 부드럽게 향해하고 고통과 아픔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진실에서 더 멀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일단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을 찾던 것처럼 고난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Carl Jung 은 사람은 누구나 "합법적으로"고난 당하거나 "신경질적으로"고난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합법적인 고난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주님을 따르면서, 옳은 일을 하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더 적은 보수를 받고도 참고 견디며, 자제력을 실천하고, 유익한 일보다는 옳은 일을 한다면, 아마도 고난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고난이며 좋은 일입니다. 만일 합법적인 고난을 원하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의미한 고난을 선택하도록 되어, 신경질적으로 고난 받게됩니다.

추가 요절 : 디모데 후서 2 : 8-13

기도 : 주님, 신경질적인 고난보다는 합법적인 고난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 월 6 일

나의 간증

에베소서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전쟁, 혼란,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콩고 민주 공화국 (DRC)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기독교 목사님의 집안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랐습니다. 12 세에 에베소서 2 : 8-9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는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을 통해 은혜로 구원 받았으므로 아무도 자랑해서는 안됩니다라고 강조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회심의 눈을 열어주셨고, 나는 내가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게되었습니다.

의사가되고 싶다는 소망은 자라면서 주변에서 고통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싶다는 갈망에서 왔습니다. 그들을 도울 사람은 없었고, 일상 생활은 너무 벅창고 ,끊임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꿈도 접었습니다. 산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꿈과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온 가족은 내가 학교에가도록 돕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모든면에서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6 ~ 7 년이 걸렸을 의학교육이 내게는 10년 걸렸습니다.

의대를 마친 후, 나는 외과 의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필요성을 깊이 느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난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도중 ,2010 년 남아메리카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국제 기독교 의사회 (International Christian Medical Association) 행사에 참석하도록 후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참석한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유일한 의사였고,이 회의에서 나는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한 주님의 간섭하심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기독교의사치과의사회 CMDA 의 CEO 인 미국의 David 스티븐스선생님에게 내소원을 이야기하도록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화도중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과 의사가 되려는 내 꿈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PAACS 에 관해 나에게 알려주었고, 책임자인 Dr. Bruce Steffes 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분은 나에게 신청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신청서를 받고보니 프랑스어를 쓰는 콩고와는 달리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나는 우간다 캄팔라에 공부하러 가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돈이 거의 없었고 PAACS 에 신청서의 성공에 대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3 개월간의 공부 끝에 나는 돈이 떨어졌고 다음에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절 주말이었고, 며칠 동안 나는 단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해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 하시고, 공급해 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충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시편 37:25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부활절 아침 나는 PAACS 에서 카메룬에 있는 Mbingo Baptist Hospital 의 프로그램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외과 의사가되는 꿈을 이루도록 도와 준 PAACS 에 감사드립니다. PACCS 는 나의 영적 삶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되었습니다. 내 직업을 사용하여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여전히 부서지고 혼란스럽지만, 돌아가서 내 백성을 돕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나라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보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대해 지극히 고마운 마음입니다.

기도: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길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

참조

PAACS 란

Pan African Academy of Christian Surgeons 약자입니다.

이대영선교사님 설명참조

미국 ICMDA 가 집중적으로 돕고 있고, 최근 10년 동안에 이집트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저도 부분적으로 예수병원과 함께 돕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집트 쪽에서 예수병원으로 레지던트를 파견하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한국 ICMDA 를 통해서도 협력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7일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기

느헤미야 1: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요한계시록 2: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인도네시아의 많은 기독교 단체에서 일한 내 경험으로는 조직의 목표에 도달하는 동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심어 놓으신 초기 소명을 잊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직에서의 많은 활동, 관련 인원의 증가, 재정적 압박 등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에 기록된 이 두 성경 구절은 개인과 조직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떠나지 않도록 항상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억압으로 인해 하나님께 홀로 굴복함으로, 느헤미야는 소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고정되는 닻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지도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갈등을 줄이며, 조직에 최고의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이끌고,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해서 그들의 일하는 생활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도록 할 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문제를 겪어본 나의 경험 중 하나는 하나님께 홀로 항복하는 것이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평화롭고 강건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한 때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견딜 수 있도록 조직안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고 상기하도록 해주며, 때로는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요절 : 하박국 2:2

기도 :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8일

삶의 균형

전도서 3:1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나는 젊은 시절 힘든 기독교 지도자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그런 종류의 지도자 훈련을 하기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병원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부모님과(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많은 소중한 기회를 잃었습니다. 나는 그 때의 시간들을 기억할때마다 그리고 내 건강 문제, 인간 관계 문제, 내 생각의 급진주의적인 발달 등 그 모든 결과들을 기억할때마다 우울함을 느낍니다.

병원에서의 저의 일은 병원 업무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의 실현을 위한 것이지만 가족을 위한 시간과 균형 잡힌 건강한 생활 방식 또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병원 직원들이 가족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병원 직원들에게 균형 잡힌 일과 삶의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운동하기, 그리고 휴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하여 영적인 공동체로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을 위한 시간, 하늘 아래 모든 목적을 위한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직장의 할일들을 위해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여가 활동을 위한 시간을 단축 할 것을 성경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체, 정신 및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삶과 일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우리는 휴식 할 시간이 충분합니까? 정기적인 운동활동 시간이 있습니까? (소셜 미디어 활동 또는 전화 통화 활동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직접 교체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추가 요청: 에베소서 15 : 15-17

기도 : 주님, 제게 대한 주님의 뜻에 따라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9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는 산부인과 의사 수련의 1년차 과정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환자가 낙태를 위해 내원했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계속한다면 그녀의 생명을 잃을 위험이 높은 상태 때문에 의료위원회로부터 의학적으로 낙태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1년차 수련의중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시편 139 편에서 기록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아이도 귀중하며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내 믿음이 항상 내 동료들과 공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곤경과 내가 느끼는 긴장감은 나 자신을 심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열렬히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내 기도를 듣지 못했던 것처럼, 멀리 느껴졌습니다. 저는 동료의사들에게 제가 절차대로 낙태 수술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결정이 많은 사람들을 곤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그 후에 환자는 몇 가지 합병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부서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그토록 반대했던 낙태를 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나는 내 행동으로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 기도에 대해 자신의 시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 시간은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적당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더 신뢰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신앙을 훈련할 시간을 주십니다.

이 경험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욱 더 참을성있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모든 내 인생의 상황에서 그분에 대한 나의 신뢰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단의 시간은 나를 성숙하게 성장시키고 더욱 친밀하게 그 분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때때로 나는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나는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추가요절:예레미아 1 : 4 ~ 5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3 FROM ICMDB
8월 10일

주님 안에서 힘을 찾음

사무엘상 30:6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어려운 지점에 와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을 파괴하여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납치했습니다. 슬픔에 빠진 나머지 군인들은 반란을 위협했습니다. 다윗 본인은 울었지만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위험에 직면했음을 선포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서둘러서 보복하는 대신 주님 안에서 자신을 강화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롭고 해로운 방식으로 드러나는 숨겨진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를 비효율적이고 쓸모없게 만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우리의 모범입니다.

다윗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시끄러움, 혼란, 위협 및 잡담소리에서 멀리 떨어진 혼자만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친한 친구마저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안으로 회피하지 않고 온 세상의 주이시며, 창조주, 구세주, 친구이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성공을 제공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과거 경험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 계명 및 약속을 상기하며 기도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집트에서 속박에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뛰어난 구원사건을 다시 회상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모없이 우울하게 낙심하거나 복수하기 위해 전략을 짜기 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죄와 죽음과 사탄의 힘을 멸하셨습니다. 그분의 승리에 대한 회상은 우리를 우울함으로부터 기쁨과 확신과 승리로 가득찬 하늘의 성결한 공기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더 나아 갔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에 맞는 행동 계획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 참모들, 조언자들, 또는 규칙서 또는 지침서의 지시를 사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한 후에 앞으로 나아 갔습니다.

묵상 :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에 확실한 해결의 장소가 있습니다.

추가요절: 사무엘상 30:1-6

11-20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11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예레미야 17:9 -10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인간의 심장은 우리가 의학에서 배워서 알고 있듯이 중요한 부분이며 매혹적인 창조물입니다! 나는 해부학 및 생리학을 배우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단지

심장의 과학 및 기능은 공부 과목으로만 가르쳐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심장의 근육 펌프는 가슴속에 뼈와 근육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자율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리듬 박동은 누가 원격제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임상 의학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심장이 우리의 수련의 중심 단계에 있습니다. 심장을 검사하고, 목에 매달고 다니는 청진기는 처음으로 우리를 의사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이 당신의 집입니다"는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현명한 솔로몬 왕은 잠언 4:23 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고 말했습니다. 한 부유한 청년이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왔다가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 엄청난 보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곳은 좀과 동록이 해하는 곳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 보물을 기꺼이 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선과 악을 저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누가 복음 6:4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 그래서 우리는 은밀하게 , 계속해서 우리는 자랑과 편견과 소유욕의 보물과 즐거움을 우리 마음에 쌓아둡니다.

영적 세력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위해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육체의 정욕, 눈의 정욕 및 이생의 자랑으로 부터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끝없는 사랑과 한 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보살핌으로 할 수 있음을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곤경에 처한자들, 아픈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펴야합니다.

추가 요절 : 요일 2 : 6.

기도 : 주님 만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항상 주님의 사랑에 제가 매료되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 월 12 일

바쁜 시간

마태복음: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수련의들은 바쁩니다. "윗사람은 당신에게 커피를 마시도록 허용하지만 커피를 마실 시간은 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커피 마시는 습관을 터득했습니다. 그것은 "하프 커피" ~반잔의 커피에 반잔의 찬물을 타서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믹스된 커피는 빨리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외과 수련의의 경우 손이 움직이기 전에 여러 컵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식사도 똑같은 형태를 따라갔습니다. 주로 "빨리 먹는 패스트 푸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련시절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Dickens 의 말을 인용하면, "그것은 최고의 시간이자 그것은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건강한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지만 습관은 그대로입니다. 습관은 상황이 좋을 때에도 지속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커피와 차가운 물의 혼합물을 마십니다. 습관은 철제 옷이며,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영양 공급은 어떨까요? 예,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 "Doctors Life Support" 책자가 출판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짧은 밤잠을 지낸 후에 지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묵상 시간"이 없으므로 주머니에 있는 이 책으로 잠시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자라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련 기간이 끝나도 이러한 습관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와 기도에 시간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다른 책임이 주어지며 비퍼를 대신 이어받은 스마트 폰에서 당신의 호출이 5 분마다 충실하게 울리며 당신의 마음이 교란됩니다.

성경을 읽고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성장하려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요절 : 시편 85; 마태복음 6.

주님, 제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며 성장할 시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주님의 자리를 내어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13일

눈물과 희망

시편 56:8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는 매일 고통을 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요?

"... 모든 고통은 이상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통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기 싫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진실해지고 섬세해질수록, 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 아무도 예수님께서 고통을 싫어 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이 고통을 싫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주님은 그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는 같은 편입니다. 예수님은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비통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축복받은 우주에서 쫓겨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지 맥도널드저 (우리 주님의 기적)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주님은 그 고통을 던져 버리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이 고통을 허용할 만큼 합당한 값어치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오직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고난이 무엇인지 압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며, 잘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역시 잘못된 취급을 받으셨으며, 사랑받지 못했으며, 거부 당하고 배신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며 우셨고 유혹의 고통과 죄의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거나 혹은 마음이 아플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가 고통중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것들은 주님도 아프게 합니다. 고통은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유하기 원하십니다. 언젠가는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고통의 유일한 열매는 내 마음이 항상 그분의 뜻대로,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해 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요절 : George MacDonald, 우리 주님의 기적, 이사야 53:11, 시 30:11, 요한 계시록 21 : 4.

기도 :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고난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참을성있게, 비이기적으로, 용감하게, 심지어 감사한 마음으로 견디게 해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 월 14 일

공공의료사업의 어려움

에베소서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영국 NHS(국민건강서비스)의 생존능력과 가치는 지금처럼 위협의 대상이 된 적이 과거엔 없었습니다. NHS 직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극도로 피곤해 소진되거나, 의기소침으로 고통받는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요구들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NHS 사업의 변화와 변형이 흔히 이루어 지는 보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관련된 사람들과의 대화를 제외시키고, 제도, 정책, 수행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러한 변화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에게 거부감, 폄하, 환멸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노예처럼 대우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NHS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환자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저질의 진료가 된다면 반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도움을 주는 성경의 다음 구절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주인을 섬기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2:21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고 되어있습니다. 짐이 무거워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눈에 옳은 일만을 하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에게 달려있는 한,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 자리를 남겨 놓으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12:19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기도: 우리가 언제 인내하고, 언제 시스템에 대항해서 말해야 할 지,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15일

부모의 영향력

사무엘상 2:11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은 유대 국가의 영적, 그리고 세속적인 역사에서 독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높은 지위는 어머니 한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맹세와 그 실천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은 레위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제사장교육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무엘상 1: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 어머니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나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그의 어머니의 헌신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평생을 드리겠다는 어머니의 헌신은 어린 사무엘의 삶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어머니의 소망을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부모의 열심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인도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인 의학생들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도록 도와 주십니까? 나는 젊은 의대 졸업생들이나 학생들이 선교 병원에서 일하기를 선택할 때 부모들이 반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녀를 일반 의과 대학, 또는 명문 기독교 의과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수련을 마친 후 선교 병원에 봉사하기로 결정할 때 장애물을 제시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나와 같은 인물을 잊고 훨씬 열등한 것을 선택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료 분야의 "사무엘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추가요절 : 시편 76 : 1-8

기도 : 우리가 부모로서 또는 선배로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도록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16일

하나님의 시간

사도행전 2: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프리카에 우리 성경 전도자 한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공산군 통치기간중 에티오피아에는 Gildole 병원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혹하고 곤란한 기간이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고 상황이 민감했고 많은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개인적으로 ,또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전도자인 여자의 이름은 에스더이고 그 이름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그녀의 가족은 이 지역의 첫번째 기독교인 가정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녀는 매일 우리 병원에서 방에서 방으로 매우 단순한 메시지를 전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자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삶에 들어와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당신의 삶에 왕으로 거하기

원하신다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결과 우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소망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연결시키던 부적들과 장식들을 부수어 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때때로 에스더는 병원 예배 말씀 봉독자였습니다. 그러나 더 자주 그녀는 그냥 그 모임에 참석했었고,이 짧은 성경읽기시간 동안 평안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종종 아이들은 시끄러웠고, 어른들도 잡담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그녀는"이제 침묵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합니다."그러면 그녀의 조용한 권위로 인해 듣고 기도하는 평화로운 시간이 종종 이루어졌습니다. 종종 나도 이 몇분의 시간 동안 내 바쁜 일을 중지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 그리고 나중에도 나 자신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시간? 그것은 소음과, 라디오, 휴대 전화를 끄고 회복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내 문간을 두드리고 내 구주와 왕이 되기 원하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인생의 악의 속박을 깨뜨리고자 하십니다.

추가 요절 : 갈 4 : 4, 마태복음 6 : 6

기도 :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 오셔서, 이 시간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17일

알 수없는 미래

요한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차는 방금 나의 고향의 철도역을 떠났습니다. 나는 불안했습니다. 나는 방금 뉴 델리에 가는 이틀간의 긴 열차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래 여행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문제가 되는 것은 모르는 곳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나는 왕복권도 없이 편도 여행을 하고 있었고, 예약한 숙박 시설이나 뉴 델리에 머무를 곳도 없었습니다. 나는 몇 달 전에 대학원 졸업식을 마쳤습니다. . 나는 A, B,C 의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중 어느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떤 기독교 병원에서 일하고자 신청했지만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는 뉴델리에 가서 시험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차가 떠나자 내 성경을 열고 요한 복음 14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 복음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 갑자기 내 미래를 둘러싸고 있는 우울함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조종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실거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요한 복음 14 장의 마지막 구절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뜻 중심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여행하심을 나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교차점에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또는 어떤생활이 우리를 이끌어 갈 지 모를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이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1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십시오. 이사야 30:21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

추가 요한 : 요한 복음 14 :

기도 : 내 인생에서 주님의 인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세요 .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 월 18 일

어린아이 처럼

마태복음 18: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나의 조카 샌디아는 잠시 아프후, 38 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다운증후군 가진 그녀는 우리 가족의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녀의 순수함과 솔직함과 자발적인 그녀의 기억만 남게 되었습니다.

샌디아는 그녀가 수집한 핸드백과 지갑들을 사랑했고 , 항상 숨겨둔 동전더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자나 장난감으로 교환할 수있는 돈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경제적인 의미로서 그 돈의 가치를 정말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동전을 사랑했지만 지폐는 관심이 없어서 주로 찢어지거나 구겨졌습니다. 그녀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두가지 상황에서만 돈을 사용했습니다. 교회에서 나올때 가난한 사람을 돕기위한 " 가난한 상자"로 향해 가서 지갑의 돈을 그앞에 놓인 그릇에 다 넣었습니다. 또한 거리에서 거지를 만나면, 그 앞에 놓인 그릇에 지갑의 돈을 다 넣곤 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친구들은 동전을 다 비우지말고 다음 번을 위해 일부는 비축하라고 조언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한 말씀을 생각해 볼때, 예수님은 이런 의미가 아닌가 궁금합니다.내 필요한 것들과 소원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관대하게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때 가능합니다.

추가요절 : 고린도 후서 9 : 6~ 8

기도 : 주님, 어떻게 사심없이 살고 나눠 줄 수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으로 제 돈과 시간과 재능과 보장들을 나눠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 월 19 일

어떻게 내 탈진 증후군을 이길까요!

빌립보서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남편이 개인 병원을 시작했을 때 나는 겨우 26 세에 불과했습니다. 내 부모는 의사가 아니며 아무도 내 영혼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30 대에 처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35 세가 되기 전에 나는 불안감으로 인해 반 우울증 상태에 있었는데, 너무 심해서 동료 정신과 의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전기자극치료 5~6 회 하면 곧 나을 것입니다"

정신과의사가 처방해 준 Amitriptyline (만성통증치료제)와 로라 제팜 (안정제) 내 약알들을 남편이 내다 버렸습니다. 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당시 남편은 Skopje 에 있는 UMC 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내게 개인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은 Gillian Barre 병(신체면역계가 신경을 공격하는병)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끔찍했지만 하나님은 후유증 없이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후에 몇 달 후, 나는 농흉과 급성 담낭염으로 인한 결과로, 합병증인 담즙성 복막염이 발생해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를 수술한 외과 의사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일 주님이 약없이 살도록 나를 고쳐 주시면 나는 아이를 낳아 주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3 개월 후, 우리는 세 번째 자녀인 테오도라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5 년 동안 단단히 탈진해 있었지만, 장기간의 후유증없이 나는 충분히 회복되었습니다. 나는 내과 전문의과정을 마쳤으며 현재는 심장학을 부전공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한편, 남편은 UMC 에서 설교자로 있습니다. 그는 정치학 박사

학위, ThD 신학학위도 마쳤습니다. 2010년 네 번째 자녀인 마리 엘라 (Mariela)가 태어났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기적으로 나를 고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추가요절: 시편 107 : 19-21.

기도 :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는 선물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사용하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실하게 증거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20일

예수님의 손을 대심

마태복음 8: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모리스 매독 (Morris Maddock) 은 그의 책 "기독교 치유 사역 Christian Healing Ministry" 122 페이지 에서 "사랑은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여 표현됩니다. 어머니의 첫 번째 본능은 자녀를 안아 줘서 출산시 겪었던 외상과 외상을 치유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종종 손으로 접촉하여 명백한 치료의 결과를 얻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들과 기독교 사역자들도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기쁨을 바를때 몸을 만집니다. 위대한 모범 의사이신 우리주 예수님은 육체들을 만져 치유와 위로를 가져왔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의 손을 대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그의 문둥병은 정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만졌고 ...열이 그녀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손을 만졌고 그 여자는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만지셨으니...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만졌고 ...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러한 접촉은 몇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치유와 생명의 손길.

축복의 손길.

확신의 손길.

곤경에서 구출의 손길.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만나는 법을 배우니까?

자비롭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에 민감해짐으로서입니다.

추가 요절 : 이사야 6 : 6-7

기도: "내 삶에 주님이 손을 대는 것을 내가 느낄때, 주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나는 하게됩니다."

21-31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21일

자비

호세아 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불안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분의 급한 전화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의사로 일하고 있는 그의 남편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말했고, 나는 관심을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남편은 전립선 암 치료 후 PSA 레벨(전립선특이항원)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남편의 검사 결과가 나빠짐에 따라 그녀는 불안, 스트레스, 불면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극도로 적극적이고 굳건한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문제는 그녀에 의해 해결되어 왔으며, 남편은 부양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와왔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자비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훌륭한 아버지, 배우자, 주님의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매우 온화하고 침착한 성품은 그녀를 매우 과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부인이 되어 종종 남편을 몹시 압도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화는 그녀가 자유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비를 위해, 그리고 우리 남편과 부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용서할 수 있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만남을 마쳤습니다.

추가요절 : 시편 51 : 1-2.

기도 :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가 당연히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22일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무엇이 성취 되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자신을 몸값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떨어져 잃어버린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이 무슨 은혜입니까! 종종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이 세상 사람들을 관찰 할 때 이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었고, 생명도 없고, 주님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 이제는 주님과 참된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이 일,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부어 준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해야 하며 그것의 가치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보는 깃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바라보아야 만합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 마태 복음 28 : 19-20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과 같았고, 생명이 없고, 돕는자가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져야 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그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성취 된 위업은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새겨져 있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가질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 이사야 46 : 8-11

기도 : 주 예수님, 저를 위해 하신 일을 항상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증거 할 수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23일

지도력의 시험

히브리서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도자 역할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었는지 궁금해 하는 삶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지도자로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는 비슷한 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러한 시기를 거쳤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다윗, 바울, 엘리야 등이 그 몇가지 예화입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이들중 최악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 그는 심지어 자살 경향이 있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상기해 보면서 우리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을 겪을 때, 붙잡을 네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됩니다.

1. 외로움, 의문과 의심은 우리 삶의 여행의 일부이며,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소명을 상기하고 전진해 가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2.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세대의 천사들은 여러 모양과 크기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이자 동료들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들이 그러한 어려운 경험을 할 때 그들에게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을때 그들이 우리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한 일은 음식을 제공하고 회복할 시간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3.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산에 접근하여 주님을 기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왜 이산까지 오게 되었느냐" ---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은 엘리야에게 바쁜 일상으로 되돌아 가도록 요청합니다.

추가 요절: 디모데후서 1 : 6-7

기도 : 주님, 기도와 격려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 월 24 일

지도자의 변화

고린도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때 그는 주저함이 많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몇년 후, 우리는 그가 변화되어 40 년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유대 국가를 옮길 수 있었음을 봅니다.

그가 거친 첫 번째 변화는 자신의 청각, 인식 및 지식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 것, 보시고 아시는 것대로 듣고 보고 알게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는 내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겪고있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많은 잡음으로 그의 귀에 들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해서는 하나님이 그 앞에 놓아 주시는 문제를 듣고, 보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이러한 변화 즉 하나님의 감각을 통해 문제를 보고 인식하는 능력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들이 기관이나 조직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고 파송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동안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 해결을 찾습니다.

그가 겪은 세 번째 변화는 자신의 능력, 기술, 자신감으로부터 주님의 능력과 힘의 공급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네번째 변화는 외로운 지도자에서, 팀을 만들고 팀 플레이어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아론과 미리암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팀을 구성했습니다. 리더는 서로 상호 의존하고 팀을 구성하고 팀으로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추가 요절 : 골로새서 3 : 12-17

기도 : 주님,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 삶에 두신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25일

리더쉽 실패

전도서 10:17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리더십이 실패한 이야기는 요즘 드문 뉴스가 아닙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 사울왕의 삶은 탁월한 "리더십 실패"의 예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지켜지고", 또 "하나님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위기 상황" 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적대적인 적과 마주하여 당황하고 공포에 사로 잡힌 동료들과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사울도 너무 당황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받기 위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는 예상을 깨고, 사울은 공포에 떨었고, 그의 역할과 책임의 한계를 넘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고, 하나님에 의해 버려짐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상황은 승리의 가능성에 직면할 때 가능한 한 빨리 승리를 완료하여 가능하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음식을 먹지말라는 "맹세로 사람들을 묶는"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독재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울에게서 이 법령을 듣지 못하고 자신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꿀을 짝어 먹었던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죽음과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승리가 이뤄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완전히 파괴하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좋은 양과 소,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남겨두도록 원칙을 굽혔을때의 상황이 또 있습니다. 국가와 군대의 자원을 자신에게 모으는 기회를 올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가치와 원칙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이 틀렸다는 증거에 직면했을 때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실수의 결과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왕권에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주님의 영이 그를 떠났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미 제거해 버린 권력과 지위를 붙잡은 채로 불안정하고 우유부단하고 복수심이 강한 지도자로 계속 남았습니다.

추가 요절 : 열왕기상 3 : 7-14

기도 : 주님은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인내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B
8 월 26 일

죽음을 극복하기

요한복음 11:25-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의료계에서 우리는 때때로 죽음을 보게됩니다. 어떤 진료과목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다른 진료과목에서는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우리는 죽음을 보게될때 의사로서의 자세를 가질 것을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조언하여 죽음을 연기시킬 수 있고,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해서 환자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환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확실히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한 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의사로서 우리가 최대한 그들을 돕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생존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마음 깊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손주들이 전쟁놀이를 할 때 분명하게 그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장난감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의 5 세된 손자의 말은 처음에는 미소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신은 모르면서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어야 할 날이 닥쳐와도, 극복하여 살아남기를 소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기, 실제로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로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연기 시킬 수 있습니다. 암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들은 이전에 이 질병으로 사망할 수 밖에 없었던 환자들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게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분만이 그것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주님은 이미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를 믿는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장수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추가요절 : 빌립보서 1:21, 시편 16:9-10, 요한 3 서 14 장.

기도 : 시편 139:23-24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 월 27 일

최고의 장소

시편 73:28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의사와 치과의사로서 우리는 통증에 익숙합니다. 통증은 우리가 일상 진료중에서 만나는 가장 흔한 증상중 하나입니다. 육체적 통증에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창조주이신 우리의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기는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1 년 전,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심한 치통이 내게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까지 내 주치 치과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나는 이웃 마을의 응급실 치과 의사에게 찾아가 진찰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내 치아를 마취했을 때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것은 치과 의사가 내 고통의 원인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치과 의사에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요일에 나는 치과 의사의 의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소라고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제거해 고쳐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중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몇년전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환자 중 한분은 "내 팔을 자를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그보다 더 나은 선택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긴밀히 접촉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와 치과 의사로서 때로 우리는 일시적으로만, 예를들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으로, 진통만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질병에 관해서는 오직 한 분, 즉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어깨의 고통의 짐을 벗기고서 대신 지셨습니다. 이사야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영적 고통을 덜어 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통증과 고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장소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추가 요절 : 이사야 53:1-12, 고린도후서 4: 16-18, 요한계시록 21:4-5

기도: 예수님, 저의 고통과 고난을 대신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해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 월 28 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히브리서 4:9-10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의료인들은 빠르게 걷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매우 중요한 임무 때문에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복도에서 만날 때면 그들은 빠르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속도, 효율성 및 생산성을 칭찬합니다.

나도 무의식적으로 빨리 걷고, 빠르게 말하고, 빠른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일을 할 때 나는 오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끝까지 다 하지 않습니다. 내 인간 관계는 점점 알아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내 능력이 저하 되고 따라서 내 반응이 부적절해 갑니다. 신체 움직임의 속도는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가만히 있기를 요구하십니다. 다음 주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재검토하고 재평가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활동을 중단하도록 안식일에 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주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를 묻지 말고, 가만히 있어 모든 것을 중지하십시오. 불필요한 움직임을 모두 중지하십시오. 우리는 주일에도 생산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식일의 쉼은 심지어 평일 일상 생활에서도 응용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이나 수술, 환자 및 절차가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시간에 우리는 고요함과 침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도기적 시간에 주님을 초청하여 바쁜 스케줄 사이에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삶이 함께 모여져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추가 요절 : 스바냐 3:17

기도 : 주님, 제가 주께 헌신합니다. 불안정한 내영혼을 잠잠케 하시사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29일

실패로 하나님께 부르짖음

이사야 43:18-21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랑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의학 분야에서 학생이든 의사이든 간에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패턴은 보통 먼저 고통을 겪고 그후 영광이 뒤따릅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서짐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자주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시 51 : 7, 에스겔 36 : 26-27). 로마서 8 장 28-30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적을 위해, 즉 그리스도를 더 닮아 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슬픈 일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분을 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장학 첫번째 수련의때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 매우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내 상사가 나를 불러 내 수행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고 나는 동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물속에 잠겨, 침몰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것들을 잊어 버리며 과거에 거하지 말아라.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단다.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 일을 더 잘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격려가 되는 것은 심지어 나의 상사가 변화를 알아 차렸고,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으로 인도합니다. 아마도 첫번째로 하나님이 상황의 변화를 위해 오시는 곳은"나" 입니다.

추가요절 : 민수기 23:19

기도 : 주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비틀거리게 되었을 때 우리를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 월 30 일

성공적인 환자 치료의 비밀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공적인 환자 치료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비밀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먼저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 (창 1 : 1)입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있는 모든 것, 즉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만들기 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 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할 때" 계셨으며, 하나님은 " 시작" (계 21 : 6)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시작할때"계시다는 것과, 우리가 하는 일의 "시작 "(창시자)이 되신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주님이 오늘의 시작일때, 가정안 관계의 시작일때, 대화의 시작, 상담의 시작, 회의의 시작, 우리의 병실 회진의 시작, 우리의 치료의 시작 (그리고 수술), 우리의 일의 시작, 우리의 관계의 시작,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될때, 우리의 삶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며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입니다

주님이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매일의 "시작 "이 되시는 방법 중 하나는 날마다 ,아침 일찍, 말씀을 그 분 안에서 만날 때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 ...메시지 성경. 요한복음 1:1" 라는 말씀을 페이스북, 카톡, TV, 최신 뉴스 게시판, 신문, 이메일 및 인터넷, 태블릿, iPad 또는 iPod 에서가 아니고 주님의 귀한 말씀에서 읽습니다.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 계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추가요절 : 마태복음 : 31-32

기도 : 오 주님, 당신은 시작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오늘 내 존재의 시작이 되어 주시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시작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8월 31 일

하나님의 처방전

1:5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종종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없는 삶의(혹은 직장에서) 상황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극복할 수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요르단 강이 홍수중에

있었고 여리고 성벽이 높았고 원수가 많았고 산속에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이것을
깨닫습니다.

※ 하나님의 약속, 주님은 그에게 믿음의 발판을 놓는 모든 곳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 절).

※ 그와 개인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하느님의 임재의 약속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5, 9 절).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5 절), "나는 네가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9 절).

※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 이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처방입니다.
여호수아 1:6 -9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훌륭한 처방전입니까! 이것은 효과가 좋은 처방입니다! 우리는 항상 길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길에 닥쳐 오는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도와 주신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처방의
일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상기하고(생각하고, 묵상하고),
분석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기억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즐겁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처방전이 희망을 주고, 격려하며, 확고한 약속을 주며,
해방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니라 우리가 날
수있는 날개입니다.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이루어 집니다. 주님이
영광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요절 : 잠언 3 : 5 ~ 8

기도 :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약속, 당신의 임재, 당신의 처방 및 우리를 우선
순위에 두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도움만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1일

지도자 육성

사사기 1: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모세의 생애가 끝날 무렵에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그들의 여행의 다음 단계로 인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하면서, 모세 보좌관으로서 살면서 모세의 삶의 여러 측면을 배웠습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막에 남아서, 모세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때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로 준비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이끌어가야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큰 계획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따를 경우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후 몇 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삶이 끝날때, 그의 투명한 삶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사사기는 주님의 방향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묻는 여러부족의 리더들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죽음후 몇 십년 안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났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은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의 그림을 잃어 버렸고 자신의 부족과 가족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열심히 다음 세대로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몇몇사람들은 지도자로 일하면서 하나님께 방향을 묻는 경우가 있었지만 주님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리더나 하나님이 직접 교제를 나누는 리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이 나아가면서, 공동체는 분별력을 잃기 시작했고 주님과 주님의 목적을 아는 지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이상 의도적으로 모세와 동행하면서 "함께있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음 단계의 여행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차세대 리더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하며, 능동적으로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추가 요절 : 디모데후서 2:15

기도 :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 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과 삶에서 좋은 모범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2일

적대적인 증인

시편 96:3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적대적인 증인의 정의 : 질문에 답하지 않으려는 어느쪽 당사자의 증인 ,그래서 재판 심사관이 해당 증거를 증인이 말하도록 질문을 주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성공적인 수술 후에 집에 돌아 왔을 때, 또는 모든 면에서 다 만족스러웠다고 느낄때, 배우자에게 자녀 또는 친한 친구에게 그것이 얼마나 멋진 지 말하고 싶을 겁니다. 당신의 열정은 전염되어서, 이 순간들을 공유한 당신의 지지자들은 너무 기뻐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풍성하여서 복음의 메시지에 흥분되어 오르면 구세주의 발 앞에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머뭇거림이 있겠습니까? 결국 당신은 그런 경이로운 경험 또는 가르침을 다른사람과 나눕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까요? 내 환자가 언짢아 할까요? 제 동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바쁜 일정때문에 시간을 내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구직 신청서, 여권 또는 인구 조사서에만 "기독교인"라고 적습니까? 그리고 나서, 당신의 동료들이 반응하는 것이 무서워서 전하기를 포기합니까. 모든 세계를 위엄과 웅장함으로 다스리시는 당신의 유일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때, 당신의 친구들의 반응을 두려워합니까.

복음은 많은 말로 말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접촉, 작은 머리 말의 기도, 미소, 관심의 작은 표현을 통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접촉한 사람은 당신안에 남과 다른, 강력한 무엇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적대적인 증인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설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복종하여 복음을 전합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입니다. 그냥 순수한 사랑입니다.

추가 요절 : 이사야 43:10.

기도: 주님 나는 항상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게하여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3일

우리의 내면의 새로와짐

고린도후 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다"

목에 혹을 발견하고 나를 만나러 온 여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장 암의 병력을 갖고 있었으며 약 3년 전에 부분 결장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암의 재발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조직분석 보고서 및 PET 스캔을 보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장암의 재발, 복부 림프절, 간, 폐 및 여러 골격에 다발성 전이를 보였습니다.

암의 재발과 전이에 관한 소식은 그녀를 걱정스럽고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내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치료가 가능한가요?"입니다.

전이 암은 보통 물리적으로 난치병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의사로서, 우리는 환자의 정신 사회적 및 영적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완화 치료도 또한 치료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 정신 사회적 및 영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와 함께 이 어려운 길을 걸으며 희망을 불어 넣고 사랑스러운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 고린도 후서 4 장 7 절, 고린도 후서 4:18.

기도 :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환자들을 돌보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들과 함께하며, 미래의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돕기 위해 온전히 인내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4일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들을 찾아보기

고린도전서 4: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요한복음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는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에 관해 아름답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었던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 내가 경험한 현실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내가 의대를 시작했을 때, 고통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 대해 이야기할 엄청난 기회에 대해 모두들 저에게 말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면 사람들은 안심을 약속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입니다. 더구나 병원 조직에서는 개종시키는 것에 대해 철저히 처벌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중환자실에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계속 진행성 불치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기관지 절개, 위루형성술, 인공호흡기, 여러 자동 주사기에 의해 둘러 싸여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일출을 보도록 돕기 위해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태양이 그의 침대 뒤에서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밝게 빛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광경은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희망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주님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은 얼마나 많은가!"

추가요절 : 시편 139:14, 92:5

기도 :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의 사랑과 동정심을 나타내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5일

공포로 부터의 자유

히브리서 2:14-15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내일에 대한 두려움, 즉 "너희는 무엇을 입을 지와 무엇을 마셔야 할까?"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에 대해 걱정하고 수련의들은 은행 대출과 업무책임 증가에 부담을 느끼며, 의사들은 삶이 복잡하고 바쁘고 무의미 해져서, 환자들이 "심각합니까?"라고 걱정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즉 백성과 왕되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망의 권세에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평안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동료들과 환자들에게 전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진리이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진리는 산위에서 홀로 고독한 가운데 알게되며, 골고다의 길에서 도전받고, 십자가를 지며, 희생이 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과 행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평온과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둘 수 있는지, 왜 우리에게 속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앞 세우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닌 것처럼 격려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둘러싸인 이 세상은 우리를 보지 않고,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 볼 것이며, 모든 것을 가진 분, 즉 주님은 아무 것도 잃을 것이 없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추가요절 : 디모데 후서 1 :

시편 56 : 3, 시편 118:6

기도 : 우리의 두려움을 던져 버려 주시는 완벽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안내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6일

우울증

시편 40:1-3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신자가 우울증으로 고통받을 수 있나요? 우울증은 삶의 많은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복잡한 장애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표현됩니다 : 심리적, 정신운동성 신체적, 사회적 및 영적 증상입니다. 증상은 수면 장애, 섭식 장애 및 성기능 장애 등입니다. 그런 다음 우울증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중독, 삶의 품질 저하, 대인 관계 갈등 및 자살 고위험성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을 깊이 사랑한 섬세한 사람이었지만, 그 백성들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역은 완전한 실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슬퍼했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잃었습니다.

※ 정체성의 상실 : 렘 20:14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 동기 부여의 상실 : 렘 20: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 희망의 상실 : 렘 20:18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도움으로 예레미야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줍니다.

※ 동기 부여 : 렘 20: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 정체성 : 렘 20:11 그러하오나 여호와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

※ 희망 렘 20:12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격려한 말씀이 있습니다. 렘 29:1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렘 32:27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추가 요절 : 예레미야 20 : 7-12.

기도 : 주님, 매일 우리가 주님을 신뢰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7일

나의 고뇌 속에서

시편 6:3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시편 6:9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날은 내게 또다른 바쁜 하루였고, 내 관심은 몇 달 전에 일어난 중대한 실수에 있었습니다. 나는 증가하는 환자의 크레아티닌 값을 간과했고, 줄여할 약을 그대로 처방했습니다. 환자가 신부전을 겪을 것을 예측하고 내 마음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했고, 나는 자신을 잃었습니다. 시편 6:2 ~ 6 절에 나오는 시편 저자와 같이 나는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

매 순간 나는 신음했고 내가 저지른 실수를 통탄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애원했습니다. 환자에게 아무런 해가 없었으며, 환자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나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의 기쁨은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실제로 나의 울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시편 6 : 9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사건은 나에게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의료인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수를 저지를 만큼 취약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고 방심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유명한 의사라도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빈틈없는 의사라고 하거나 ,내가 훌륭한 외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해도 그것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야고보서 4:6 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의술을 주님께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요절: 시편 6 편.

기도 : 신령한 치료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각 환자의 건강에 대한 궁극적인 절대적인 관리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주님 치유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 월 8 일

하느님의 인내의 자비

시편 115: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오늘의
말씀에 대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광,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께 영광. 아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의 자비하심 영원하도다, 아멘 .그의 자비하심 영원하도다, 아멘 .

이 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사람들에게 의해 해고되고, 실패했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의과 대학
졸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심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병으로 죽었거나 그들이 정한 함정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했을 때, 우리 중 일부는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 신앙생활 오래 가지 못 할 것이다"같은 평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자비의 광대하심을 헤아리지
않습니다..자비는 "특별히 범죄자에게 연민을 베풀거나 자신의 능력 아래 있는
사람을 동정하는 것." 입니다(웹스터 사전). 우리를 구원하신 이 자비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영원한 것입니다! (벧 1: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자비의 힘으로 우리는 그 비밀스런 죄를 그만
두었습니다. 중독의 힘은 우리의 삶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부끄러움, 내면의
공허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거스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비웃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울 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아아, 그들은 우리가 헛되이 실패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실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 된 말씀 처럼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죄와 타협에 대한 유혹에 대해 계속 저항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뒤로 후퇴한 분들을 위해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아 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 오십시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샬롬.

추가요절 : 시편 103 : 8-13

기도 : 나의 연약한 삶이 주님의 놀라우신 자비로 인해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9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날개 안에 숨기

출애굽기 34:6-7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여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나는 남수단에서 삼년 살면서 전쟁이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살짜리 소년은 가족과 함께 덩불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말라리아 약물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산전 관리에 접근 할 수 없어서 죽은 임산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절망에 둘러싸여 있을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우리는 강인해서 우리가 숨어있을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슬픔을 억제하고 우리 주변의 악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손바닥만한 양탄자 아래 태아의 자세로 몸을 웅크리면서 그것이 너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 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1-2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처럼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새로운 은신처--주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 틈에서 숨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바위이신 그리스도안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신뢰함이 바로 우리의 지성소요, 안전한 은신처, 우리의 숨을 곳이며, 무너진 세상 가운데 있는 휴식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모세에게 계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네가 안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곳에서 모세는 능력을 받아 산을 내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숨어 있을 때에만, 또한 일어나서 모든 기존의 다른 은신처를 떠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임재와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추가요절: 시편 139

기도 : 주님,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무너진 사람들을 도와 나갈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 견고히 서 있기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 월 10 일

온전함

잠언 21:3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있는 곳, 기관, 프로젝트 및 의료사회에서 예언자의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어떻게 그러한 목소리가 될 수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표준과 특성을 가짐으로써 이렇게 할 수있습니다.

그러한 성품중 하나는 " 온전함" 입니다. 온전함이 없는 공동체들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의 이 온전함의 특성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 및 기타 자원의 활용에 있어서의 온전함은 우리가 개발해야 할 영역입니다. 우리는 금융 거래에서 정직성의 결여를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자원 활용에서도 우리는 형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반영해야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동등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용 가능한 자원들이 우리 형평성 및 정의 원칙에 맞게 활용되었는지를 지속적으로 고찰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다른 영역은 관계의 온전함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지 받고 양육되는 의료 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도덕성이나 인격의 몰살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돕는 팀과 가족으로서 우리 자신을 구축하는쪽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일하는 공동체 및 환자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상기해야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수입을 창출하는 사람들로 보기보다는 돌볼 필요가 있는 형제 자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실천하는 경우에 반영해야 할 세 번째 영역은 시간의 사용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공동체는 "변화의 통로" 와 예언자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추가요절 : 잠언 4 : 25-27

기도 :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의료사회 온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11일

영원한 영향력

요한복음 4:4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5000 명을 먹이는 것을 보고, 경험한 군중들은 매우 흥분하여 어디로 예수님이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보트를 타고 갔습니다만, 결국 군중들에게 발견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거기에 도착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 하셨습니다(요한 복음 4 : 22 ~ 34). "네가 떡을 먹었으므로 나를 찾는도다"

눈에 보이는 주님의 일의 즉각적인 결과물은 많은 군중들이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모여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병원들과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양공급, 치료, 보살핌 및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오늘날 우리와 관련이 있는 두 가지 관점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대면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마치 예수님은 그들이 먹은 음식, 치유 및 눈에 보이는 결과물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영원한 결과 또는 영향을 가져 오는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임상 치료, 숫자, 프로젝트 산출물을 위해 바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지도력을 키우고, 영원한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우리 삶이 변하고, 변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응답하여 군중은 요한복음 6:28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주는 대신, 예수님은 단 한 가지 할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초점은 주로 신앙과 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초점, 가장 중요한 초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 요절 : 마태복음 5:1

기도 : 주님,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넘어 영원한 정체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12일

제자

마태복음 16: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기대와 필요를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동반자와 진정한 제자를 구별하여 진정한 의미의 제자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도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리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동행자의 신분에서 제자로 바뀌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또는 직장 상황에 관계없이 기대치는 같습니다. 제자의 기대치는 무엇입니까?

1. 누가복음 14: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을 따르는 것은 다른 모든 관계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2. 이 관계 재설정의 예상되고 기대되는 결과는 십자가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거절, 외로움, 부당한 처벌, 당신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채 비난받고 처벌받는 것들의 상징입니다. 비록 어려운 결과이지만, 올바른 방향에서 보았을 때, 감당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요구되는 비용을 스스로 충당해야 하며, 자비량 하기로 헌신을 해야합니다.

4. 이 길을 따라 가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과 우리의 희생을 비교할 때 우리는 희생이 짐이 되기 보다는 특권과 감사함이 우려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추가요절: 요한일서 2:3-4

기도 : 주님, 저를 단지 동반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13일

창조주를 위한 삶 또는 직업을 위한 삶

에베소서 2:8-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나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심 이외에는 아무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또한 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는지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위에 인용한 성경말씀에 있습니다. 봉급을 받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비교하면 내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 놀라운 빛으로 인도하신 분의 영광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좋은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 하시고 창조 이전에 준비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아담의 타락 이전에 이 일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것이 아니며, 구원의 계획은 , 두 번째 생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일은

금융 위기의 위험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학위,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면류관을 포함하여 훌륭하게 지불됩니다!

이 무슨 특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창조의 시작 이후로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었고, 지금까지도 기쁨입니다.

추가 요절 : 빌립보서 1 : 9

기도 : 주님, 주님을 섬길 수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하는 모든 일에 충실하고 헌신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14일

집에 돌아가는 기념파티

빌립보서 1: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는 앉기가 너무 힘들어서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키가 크고, 얇고, 검은 피부, 움직일때 마다 찡그린 표정을 짓는 그 사람은 이미 통증 약을 다 써 버렸고, 리필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그의 처방전을 쓰고 있는 동안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조용해졌고 "토요일에 집에 돌아가는 기념파티를 가질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고있는 뜻을 알았지 만, 나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눈을 들여 그의 의미를 파악하기위해 "천국을 의미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다시 돌아 오지 못 할것임을 알고있습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후에 대해 옳게 알고 있었습니다.나는 간단히 "나는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당신 파티에 오나요?" "집에 돌아가는 기념파티" 라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며, 나는 단자 지나가고 있습니다.
;

내 보물은 모두 푸른 색 지평선 너머에 놓여 있습니다.

천사들이 천국의 문을 열린 것을 나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이 더 이상 내집처럼 느낄 수 없습니다.(Albert Brumley)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20) 라고 말해 줍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라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모든 행복과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행중 어느정도 즐거운 여관을 주셔서 즐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관을 집으로 혼동하도록 격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 만들어 졌고, 천국은 우리 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확실한 위로가 됩니다. 죽는 것은 중요한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추가요절 : 히브리서 13:14

기도 : 사랑하는 아버지, 언젠가 집으로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날까지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15일

올인(모두 투입하기)

골로새서 3:1-3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엿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내 환자 중 한 명이 최근 자신의 아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을 나와 나누었습니다. 아들 매트는 그의 아내와 오래동안 "저녁 데이트"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아내는 재미있는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매트는 웃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에 약간의 빵 부스러기가 있었음에 틀림 없었습니다. 그의 웃음은 심각한 기침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타일 바닥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의 머리 뒤쪽에 파열된 상처가 찢어져 생겼고, 심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일어나서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은 그녀의 남편의 모습에 놀라 서로 부딪치며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쁘게 옷을 입고 있던 한 여성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군중에서 나와 손으로 상처를 모으고 출혈점을 눌렀습니다. 매트의 피가 그녀의 멋진 옷을 더럽혔습니다. 제 환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서서 매트가 더 좋아지기만을 기다렸지만 그 여자는 모든 것을 다 투입하고(올인),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기를 바라보며 서 있나요? 아니면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투입하고(올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한 적이 있나요?"

논쟁하기가 어렵지만 "모든 것을 다 투입하고(올인)" 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창기 내 의사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투입하고(올인) 최선을 다한다는 뜻" 은 의료 선교사 생활을 의미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을 투입하고(올인)" 사는 삶에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비기독교인들 처럼 모든 압박감, 혼란, 유혹과 함께 세상에서 일하는 평범한 의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모든 것을 투입한다" 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지금이 나이지리아에 있을 때보다 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투입한다" 는 것은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나는 분명히 아직 "모든 것을"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계획에 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취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단계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추가요절: 갈라디아 6:9

기도: 사랑의 주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투입하고(올인)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 월 16 일

하느님의 교향곡

고린도전서 12: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제 환자 중 한 명이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나는 진료실로 다시 불러갔습니다. 환자 리처드는 그의 휠체어에 구부려 있고, 그의 아내가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말이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바닥을 응시하고 깨어있지만. 그러나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검사를 하기위해 코트를 벗길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맥박은 약하고, 쇠약해지고 불규칙했습니다. 나는 그의 휠체어를 움켜 잡고, 그의 아내에게 뒤따라 오라고 말하고, 두 채의 건물을 지나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서 도움을 요청했고 모두가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12 호실로 데려 갔고 나는 내 임무 완수를 위해 그를 침대로 들어 올리려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해주세요"라고 내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간호사는 "사실은 의사선생님은 지금 그 방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 멋있지 않습니까? 내 말뜻은, 모든 것이 내 능력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지 않은가요?

간호사가 내 능력으로 침대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허용했다면, 리처드는 부족한 내 능력때문에 바닥에 추락해서 불쌍하게 나를 쳐다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추락사고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었을 겁니다. 내 할일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일을 잘했고, 그 일에서 벗어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세상을 구속하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짜증이 났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른 방법으로, 내가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그 일을 완성 할 때,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대충 일하는 사람이어서, 섬세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들의 섬세함이 우리 일의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감탄합니다.

나는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비정서적이어서 냉정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그들의 냉정한 객관주의에 의해 무시될 뻔 했던 것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때 자주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료 팀이 함께하는 방식이며 교회가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목적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다른 모양의 조각 퍼즐이나 인상파 그림에서 페인트의 얼룩이 대조되는 모양과도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함께 하기엔 잘 맞지 않는 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삶의 퍼즐과 예수님의 모습이 마지막 완성될 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모아주시는 여러 가지 기술들과 인격들에 대해, 나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어색한 계획을 제시할 때 존경심을 가지고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악기를 사용하셔서 그의 위대한 곡을 연주할 것입니다. 내 임무는 내게 주어진 음악을 연주하며, 지휘자의 지휘봉을 따라 가며 그의 교향곡이 내 주변에서 퍼져나갈 때의 기쁨을 느껴 보는 것입니다.

추가 요절 : 고린도 전서 12:14

기도 :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다른 제자들 각각에게 감사 드리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 월 17 일

희망을 주기

이사야 61:1-3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그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통완화환자들의 질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며, 치유가 되지 않는 질병입니다. 그들은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및 영적인 면에서 고통받습니다.

깊이 진행된 폐암과 진행성 호흡 곤란증을 가진 33 세의 여성환자가 내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피치 못해서 할수없이 기도삽관을 받았습니다. 입원환자 병실로 이송 된 후, 주치의가 내게 협진을 의뢰했습니다. 그 여자는 삽관제거수술을 원하는데, 다른 의사가 하지 않으려 하고, 더 이상 해줄 치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서면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암과 열심히 싸웠으며 수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상태를 받아 들였고, 연명치료보다 편안함과 보살핌 만을 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모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동의했습니다. 나는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기도 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의지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몰핀을 주었고,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며 그 죽기 전 날 하루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나는 기뻐했지만 아직도 죄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나?"

의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러나 잊혀지지 않은 것은,이 세상에서 인생은 짧고,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연장하기 위해 무엇을 하든지, 죽음은 여전히 찾아 옵니다. (의료 윤리와 환자의 의지에 따라)적응증 환자에게서 의료보조장치를 제거하는 것은 자연적 죽음을 환자에게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구원과 영원한 삶에 대한 "생명"과 "희망" 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추가 요절 : 디모데 후서 2:11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완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환자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 월 18 일

온전히 따르기

여호수아 14:12-14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흑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렘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렘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갈렘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용기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을 과소평가 할때, 갈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85 세의 나이에도 그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14:12)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 갔기 때문에"라고 (14:14)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은 온전히 경청하고, 의지하며 그 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인도하지 않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가 사격할 총을 찾지"않고 ,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귀 기울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큰 결정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완전히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환자와의 관계에서의 행동과 대화에서 ,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그것은 모든면에서, 모든 때마다, 모든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끄시고, 나는 따라갑니다! 정말 멋진 삶입니다.

이것은 갈렘이 말하고 행한것처럼 "나를 돕는 주님"(14:12)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추가요절 : 데살로니가 후서 3 : 2 ~ 5

기도: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를 부르시고 나를 매일 이끌어 주시는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당신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19일

시험하고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사기 3:1-2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열국은"

우리는 때로 우리가 왜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해야 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원수들" 이 왜 우리에게 오랫동안 머물며, 방해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 원수는 우리의 내적 삶 (사고 생활, 감정, 상상력, 양심) 또는 우리의 외적인 삶(집, 직장에서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충돌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남겨놓은 국가들입니다. (주님은 아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3:1-2)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시험해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지를 보기 위해) 우리는 주님이 아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전쟁을 하도록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엡 6:12) 이들과 전쟁을 하도록 가르치기 원합니다.

"천로역정" 과 "거룩한 전쟁"을 쓴 John Bunyan (1628-1688) 에 따르면 "가장 헌신된 기독교인은 반드시 엄격한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주와 맞서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죄와 자기 자아와 악한 영들과 싸우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잘 싸울 수 있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

추가요절: 시편 28 : 6-9

기도 : 사랑하는 아버지, 제 마음을 시험하시고 저를 가르치셔서 싸울 수 있게 해 주세요. 오늘 나를 주님에게 진실하게 하시며 내 안에 주님과 주님의 영광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것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 월 20 일

Servant 리더쉽

요한복음 13:15-17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직장에서 잘 인도 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까? 마치 어제 새로 합격한 초년 의사였는데, 벌써 갑자기 우리는 스스로 팀을 임상적, 학문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경영 및 의사 결정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있게 해달라고 다른사람들이 우리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도자 훈련을 받은 적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성격 유형과 강점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도력 유형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발전시킬 수있는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까?

지도자의 직분은 우리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주님의 왕국을 건설 할 수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며 명예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팀의 일을 시작할때 의사 결정은 각자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고려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응급 상황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 극단적인 경우 모두, 우리 팀 단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요한복음 13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겸손한 일로 여겨졌고. 지도자들이 그대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하셨으며,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점점 더 높은 리더쉽의 위치에 올라갈 때, 빌립보서 2 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2:5-7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추가 요절 : 누가복음 22 : 24-2

기도 : 주님,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 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책임들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 주도록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21일

지도력의 종류

고린도전서 12:4-6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격 특징 구분법에 따라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지도력 특징을 알려주는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랄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휴식 및 원기회복을 주는 최선의 방법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강점과 약함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떤 역할이나 활동에만 결코 자신을 고정하거나, 한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힘의 영역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안정적 경계 밖으로 불러내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 이상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마도 해외 지역에서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 경우 단지 당신이 유일하게 적합한 사람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위급 학교 관리직으로 옮겨 갔을 때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리더십과 내 오랜 경험을 사용하고, 영향력을 끼칠 방법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명확한 목표 설정, 우선 순위 설정 및 책임 구조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주님자신의 계획을 아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추가 요절:시 139 편; 예레미야 29

기도 : 주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와 기회들을 감사합니다.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정 영역"을 넘어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22일

희망 속에서 인내하다

로마서 5:3-5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때로는 우리 사역이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 작업 도중에, 심지어는 정신없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나른하고 단조롭고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압박이 심히 무거울 때, 힘든 일이 끝이 없을 때 우리 영혼은 잠시 쉬고 평온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는 환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통증의 맹공격과 고통으로 인해, 허약해진 환자의 방어체계, 즉 자기자신을 지켜서, 고통을 받아들이려는 방어능력이 압도적으로 위협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 때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고 조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고통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고통들은 내가 치료하는 말기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감정과 경험을 공감하게 해주며, 그들을 더 깊은 이해하고, 일체감을 가지도록 나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나를 위해 견디고 고난 받으신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동기를 다짐하게 해 줍니다. 그것들은 또한 내가 하나님께 무한히 소중함을 되돌려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귀합니다. 바로 내 예배가 그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예배드릴 기분이 들지 않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더욱 힘들게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천국에 도달할 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고통이나 혼란이나 극심한 피곤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희생을 드릴 경험의 시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 조만간 주님이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천국에 항상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점점 높아집니다.

추가요절 : 이사야 40 : 28-30

기도 : 주님, 절망의 때와 영적 피곤한 때에 조차도 함께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23일

희망 가진자

시편 71:14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의사로서 일하면서 우리 환자들이 종종 우리에게 희망을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희망은 치유, 회복, 장수, 육체적, 정신적 안녕입니다. 말기 질환 환자에게는 희망의 색조가 다릅니다. 그것은 통증 해방, 또는 죽더라도 특정한 날짜까지 생명을 연장하는 것, 평화롭고 외롭지않게 죽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 뒤편에 더 나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가슴아픈 희망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중에서 우리 의료인들은 희망의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과 고통을 초월할 희망의 메시지이며 또한 이 땅에서의 사람, 장소 및 환경에 대한 삶의 변화에 대한 희망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변화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나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 희망을 유지하거나, 모든 상황에서 희망을 꿈꾸는 것은 전쟁입니다.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희망을 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희망이 결여된 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사단의 거짓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롬 15: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진리와 주님의 능력을 믿기로 선택할 때 소망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시편 71:14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전반부에 그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1:8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추가 요절 : 예레미야 29:11

기도 : 하나님 아버지, 희망이 절대로 필요한 이 세상에, 희망이 넘칠 수 있도록,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도와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24일

끝없는 일에 직면할 때

마가복음 6:30-31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알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간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우리는 할일이 너무 많아서, 멈추고 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 만족이나 휴식을 위해 무엇인가 하면 죄책감이 든 적이 있습니까?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늦게 오래 작업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하면서 이런 생활을 엄청하고 있습니다.

사역현장과 가정 모두에서 나는 끝없는 요구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낍니다. --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만성 질환, 교육에의 접근 부족, 영양 부족등으로 이분들은 절망에 자주 빠져 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휴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으로 매우 바빴으며 이제는 따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약한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 장 28 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예수님은 초청했습니다. 필요할 때 휴식을 추구하는 것은 약하거나, 부적절하거나, 영적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의사인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해 자신있게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데 익숙해져서 오늘의 특정 상황을 처리 할 수 없다거나, 잠깐 쉬이 필요하다는 인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이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에게 최우선 순위로 필요함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도 이 모범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추가 요절 : 시편 127 : 1-2

기도 : 휴식과 갱신의 시간을 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계속 섬길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 월 25 일

직장에서의 부진 상태

빌립보서 4:22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카이사르 집 사람들중 몇 성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왜 바울이 그들을 언급 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정부 공무원이거나 행정부에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집안은 투쟁, 시기심, 자랑과 음모, 육체의 정욕과 권력욕의 장소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부도덕함이 규칙이었습니다. 이런 사악함 한 가운데에 성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카이사르의 집안에 살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믿음의 집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악함과 불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 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카이사르 집안과 비슷합니까? 여러분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험담, 중상모함에 부딪친적이 있나요?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했습니까? 위협적이고,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상사와 동료와 같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직장은 빠른 진행, 지나친 추진, 까다로움, 성과 지향적, KPI (핵심 성과 지표)에 집착해 있을 겁니다. 이 체크 리스트외에 추가해서 날마다 환자 치료의 부담이 더 있을 겁니다. 환자의 높은 기대치, 규칙 불이행 태도, 또는 갑작스런 환자 사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학생교육과 멘토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골칫거리일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7:15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길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18 "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게 되면, 두 세계의 충돌의 필연적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추가 요절: 히브리서 12 : 14 ~ 15.

기도 : 좋거나 나쁜 상황, 슬픔 또는 웃음, 건강 또는 질병에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잘 정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의 보물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의 위대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 :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세상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 월 26 일

불확실성에 직면할때

마태복음 6: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중대한 인생 변화 과정중에 있을때에 기다림은 특히 어렵습니다. 환자가 되면 미래 예후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을성이 더욱 요구됩니다. 그것은 실직, 인간관계 어려움, 자녀 걱정, 재정 염려를 가져오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해결책이 생기길 원합니다. 의료인으로 살다보면 스스로를 문제 해결자라고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고, 자신의 필요가 즉각적으로 해결어야 한다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만일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낙망하고 좌절하며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불확실성 직면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적용될 때까지 모든 상황에서 인내심으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돕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계획하는 것은 추측이며 불경한 것입니다.

한 번에 그날 하루만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족 관계 및 직업에서 일하심으로써 우리의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간다면, 주님은 주님 자신의 미래의 사역을 위해 우리를 치유하실 힘이 있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귀중한 기회를 낭비하는 미묘한 함정입니다.

닥쳐오는 사건마다 우리에게 미치는 역할이 있지만 주님은 매 순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추가요절: 시편 123 : 3.

기도 :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시는 현재의 일에 전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맘대로 서두르지 않고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27일

기독교인 의사의 세 가지 유혹

요한 1서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는 말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세 가지 유혹은 기독교 의사들에게도 실재합니다. 그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시험받으신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유혹은 돈, 성 및 권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돈이 필요하며, 돈은 중립이며 사악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사랑만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의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의 유혹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수행하고, 단지 요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더 비싼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는 더 비싼 약품을 처방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의료 검사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섹스.

오늘날 성이 매매됩니다. 광고, 패션, 화장품, 성형 외과. 포르노는 인터넷에서 최고의 돈을 벌기 위한 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은밀한 관계가 문제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사적인 비밀과 감정을 알게됩니다. 기독 의사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힘.

환자에 대한 힘, 팀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힘, 병원 시스템에 대한 힘, 정치적 힘은 매력적입니다. 유명하고 성공적인 의사는 지역 사회에서 많은 권력, 존중 및 많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도 녹이 습니다. 깨끗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영향력있는 기독교인 의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종 판결은 환자, 동료, 지역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추가요절 : 히 4 : 14-15

기도 : 이 세상의 유혹에 직면할때, 주님의 완벽한 모범을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월 28일

존엄사

요한계시록 22:14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68 세인 내 여동생은 2 년전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폐암이 널리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통해 그녀는 예상을 뒤엎고 6 개월 이상을 살았습니다. 큰 고통과 절뚝거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활발히 봉사했습니다.

점점 더 호흡이 어려워져서 그 여자는 암 완화치료 병동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날이었는지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계속 산소유지 장치 공급이 피할 수 없는 것(죽음)을 단지 지연시키는 것인지 여부를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요청한대로 완화 병동에 가도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보살피겠노라고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초기엔 힘들어 하고 두려워한 후에 천천히 일종의 평화로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임종시 단어는 익숙한 친구들을 환영하는 것처럼 "들어 오시오! 들어 오세요!" 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순간 그녀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그녀가 방금 나가서 또 다른 삶의 상태에 들어간 것을 알았습니다.---그녀가 함께 한 사람들의 추억속, 그리고 모든 것이 온전한 새로운 장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종종 우리가 죽어가는 누군가를 소생시킬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을 피폐시킬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도록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 궁금해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죽음을 지연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주님은 죽기 전날 밤 깊은 슬픔으로 압도당하시고, 제자들에게 그와 함께 머물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 38-40).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는 심폐소생술 (CPR) 의 과장된 말들과 낯선 사람들과 튜브들과 함께 홀로 죽어가는 끔찍하고 품위없는 죽음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머물며, 죽어가는 사람곁에서 지켜 보게 할 수 있을까요?

추가 요절 : 롬 8 : 38-39

기도 : 주님, 우리는 당신이 늘 함께 하시며 죽음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 월 29 일

중심의 회복

시편 14:7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성경에서 회복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의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된 후, 처음보다 큰 재건이 있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은 종종 회복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인식과 그 가치를 되돌리려는 소망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배의 회복. 제단과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우리는 예배가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독의료인들의 예배를 회복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2 말씀의 회복. 말씀을 배우고, 연습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것과, 우리 공동체가 말씀에 중점을 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두는 일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의료인들이 개인의 말씀읽기를 독려하고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독려하고, 가르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과 병원들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읽기,배우기 및 나눔은 그 말씀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3. 증인의 시스템 복원. 이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과 가치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은 가난한자를 돌보며, 공평한 분배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시스템과 정책의 발전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추가 요절 : 신명기 3 : 13-39

기도 : 주님, 느헤미야와 에스겔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우리가 당신의 회복의 사명을 완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도합니다.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9 월 30 일

관용

로마서 14:1-4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관용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거나 승인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과 다른 행동과 신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의학에서 관용(내성)은 약물이나 환경조건에 의한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신체의 능력, 부작용 없는 치료를 나타냅니다.

영적 삶의 관용은 장점 또는 단점 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무비판적 태도는 공동체 생활을 즐겁게 만들고 화합을 조장합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생각, 행동진료, 태도 등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대다수일 때는 어렵습니다. 소수에 속한 사람들이나 힘없는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조롱할 수 있습니다.

관용은 공동체 미덕에 해가되는 것을 조장하거나 못 본체 할 수단이 될 때는 단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점들이나,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의 잘못을 더 용납하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그 잘못들이 미치는 영향을 변명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불의에 대해 관용을 나타냄을 봅니다. 그러나 약자와 무력한 자에 대한 불의 또는 억압에 대해 예수님은 항상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언제 관여하는 것이 미덕인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혹시 치료비 체납 환자, 잘못된 학생 또는 직원들을 친절하게 관용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도 : 주님,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대할 때 통찰력과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 월 1 일

하나님의 갑옷

에베소서 6:10-20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NHS 비상근의사로서, 마치 매일 전투에 나간 것처럼 내가 일했던 것을 회상합니다.

우리의 적군은 부족한 병원 시스템과 부족한 인력, 물질의 제한된 자원, 업무가 많고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질 높은 환자의 치료를 희생하는 대신 종종 관리자의 의도에 맞춰야 한다는 비뚤어진 권고제도는 "악마의 계획"입니다.

몇 년 전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말씀을 암기하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매일 믿음, 진리,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인도 하도록 한다면 우리 의료사역의 일상적인 전투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사역에서 초자연적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Oswald Chambers) 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반면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가 요절: 이사야 41 : 8~10.

기도 :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자원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전신갑주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지켜 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 월 2 일

그리스도 중심의 직업생활

골로새서 1: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는 것은 다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른 아침 하늘을 바라보았다면, 우연히 이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 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가진 하늘의 창조자인 누군가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 높은 산, 야생의 꽃과 끝이 없는 하늘에는 아름다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중의 아무것도 우리 앞에 서있는 사람만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와 그 친척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필요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육신이 치유 될 필요가 있고, 혼란스런 마음이 안식을 필요로 하며, 격렬한 감정이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할 수있는 최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보호와 사랑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에 너무나 관심이 있으며,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돕게 하십니다.

우리 의료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의 지속적인 교제를 계속한다면 우리가 속한 곳에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실히 압니다.

추가 요절 : 베드로전서 4:10

기도 : 주님, 제가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께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의 총만함을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 월 03 일

기드온의 양털

갈라디아서 5:16-18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인생 (관계, 소명 및 전공선택)의 주요 결정들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다면? 내 모든 삶이 불행해질거야! 그리고 "만일..."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연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많은 훌륭하고 칭찬할만한 활동들로, 심지어 선교 여행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우리가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드온의 양털을 온라인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세계 베스트셀러 품목중 하나가 될겁니다. (사사기 6 장) 그러나 그 응답은 그런식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의 행동을 위한 모델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당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알아보십시오. 아프리카 속담에 : "당신의 마음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당신의 깊은 내면은 그 재능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현재의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그 방향을 따르십시오.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실용적인 선택을 따르는 것이 아닌, 도덕적 암시를 따른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울부짓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전진하라" 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를 위한 명령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추가요절 : 출애굽기 14 장, 사사기 6 장.

기도 : 주님, 제가 , 당신이 제 앞서 가신다는 확신으로 전진하도록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 월 04 일

하느님은 아직 하느님입니다....희망이 있습니다.

시편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그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망이 서로를 갈라 놓으면 직업적으로 끝납니다.

전문가가 되기 전 아직 수련의 시절에 담당 교수가 내게 지시한 어린아이 환자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교수의 신뢰를 명예로 여기고 아이를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아이는 한동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니다. 많은 협진, 검사 및 치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섭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좋아지지 않다가, 추수 감사절날, 교회에 나가려고 했던 그날에 죽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지만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딸이 죽은 날수를 세면서 한 달 이상 슬퍼하며 잠을 못잤습니다. 아이가 죽기 2 년전부터 남편이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때문에 이 슬픔은 더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슬픈 소식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의사의 역할을 넘어, 슬픔에 잠긴 자매에게 영적 도움과 상담을 위해 나에게 가까이 다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녀를 방문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하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여자는 어려운 순간을 헤쳐 나갔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정들을 상담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추가 요절 : 고린도 전서 15 : 51 ~ 55.

기도 :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특권을 감사합니다. 매일 만나는 환자들의 신체, 정신 및 영혼들을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실천하고 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 월 05 일

사람 대 사업

마태복음 6: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명예롭게 들리는 단순한 개념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아 가기가 어렵습니다. 짐 콜린스 (Jim Collins)는 Good to Great 라는 책에서 처음에는 훌륭한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바꾸는 첫 번째 단계는 회사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사람들에게 그 새로운 방향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콜린스 그의 연구에서 발견한 것은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발전한 회사는 "먼저 버스에 적합한 사람들을 확보하고, 운전해 나아갈 장소를 나중에 결정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날 나는 미래를 위한 선교의 경향이 무엇인지 선교에게 익숙한 북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선교의 경향이 사람들보다는 사업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오실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계획을 방해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것의 마무리를 짓는 일의 강도는 격렬합니다.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 또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자주 사람들이 찾아와 우리는 방해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을 닮도록 시도해 봅시다. "사람을 위한 사업이 실제론 사람 우선순위에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추가 요절 :요한 일서 4 : 9-11

기도 : 주님을 닮아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기 원합니다. 내 계획과 사업보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더 앞세우도록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월 6일

우리 환자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마태복음 25:37-39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루마니아에서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노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성모 마리아여. 더 이상 울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에게 옷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거룩한 아기 예수를 감싸려고!

나는 이 노래를 듣거나 노래 할 때마다 알고, 가짜이며, 극적이며, 단순히 쓸모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며칠 전, 두 개의 커다란 상자가 내 이름으로 병원에 배달 되었습니다. 안에는 아기 기저귀들이 있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그 안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상자에는 아직도 아기 예수를 옷 입히는 사람들, 아기에수를 간호하는 손, 아기에수를 안고있는 손, 심지어 아기 예수님의 얼굴은 이상하게 보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질병과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신생아 의사로서의 내 직업은 사랑하기 힘든 형태로 태어난 그리스도와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사랑스럽지 않은 아기를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의 몸이나 유전자가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손이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계속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은 그리스도가 내 손을 만나 간호할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거하시도록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추가 요절 : 마태복음 25 : 31-46; 마가복음 12 : 32-3, 13 : 1-3 : 로마서 12 : 9-15.

기도 : 주님, 매일 모르는 사람들과 예상밖의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마주칠때, 제가 주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 월 07 일

기독교 의사의 삶에 닥친 폭풍

마가복음 4:35-41"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젊은 의사시절에 인생의 고비를 경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새 삶과 직장 환경 또는 직위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수와 실망들에 의해 부정적인 경험이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화가난 동료들을 직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손을 내밀고 우리를 도와 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합니다. 카테터를 정맥에 위치시키지 못하거나, 신속하게 차트를 작성 못하거나, 병이 복잡한 경우 진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단지 환자를 위로하기 적합한 단어를 찾으려 할때도 우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신을 차리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 할 수 있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성경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보트를 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관계없이 제자들은 폭풍우의 두려움에 압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폭풍우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집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어떤 폭풍이나 상황도 정복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요절 : 누가 복음 12 : 22-2.

기도 : 주님, 특히 어려운 때에도 저에게 지속적인 돌봄과 관여하심을 감사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 월 08 일

산뜻하고, 품미 있는

마태복음 5:13 -14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소금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적당량을 사용하면 양념으로 또는 보존용으로 가장 좋다고 각광받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많았으며, 특히 내게 주신 직장에서의 열매 맺기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이 성경말씀대로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살아 가고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일상 업무 중에 발생하는 환자 및 직원과의 상호 작용에서 많은 극적인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현재 내 경력과 삶의 전반에서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처럼 내가 "품미로운 맛이 있는"지 또는 "산뜻한 맛이 있는지 " 질문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질문은 아직 답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닫는 많은 것들 중 하나는, 내 성품의 특성과 태도가 빼앗길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것이 내가 최대로 결실을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휴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각사람의 삶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가 천국시민으로서 우리의 생산성을 자주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출산 휴가를 떠나 있거나, 또는 당신이 자신의 업무 효율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일때문에 압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소금"과 "빛"이 자신있게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굳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분명히 보고, 변화되고, 주님 성품의 살아있는 모범이 되기를 빕니다.

추가요절 : 요한 복음 12:24

기도 : 주님. 주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 월 09 일

근심중에 하나님을 부름

시편 40:1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나는 발트해 (Baltic Sea)의 한가운데 있는 섬에 살고 있으며, 폭풍우에 처한 날씨에는 바위 섬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바위 위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시편 40 편은 은유적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일상적인 의사의 업무에서 우리는 많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최선의 일이 무엇인지, 특히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확신 할 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부딪칠때 우리는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40 편에서 처럼 참을성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도와 달라고 소리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발을 단단히 딛을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응답을 항상 즉시 얻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이곳에 대해서 보다 우리 자신을 더 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파멸의 틈에 갇히고, 수렁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때 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도와 달라고 소리칠 때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 올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독 의사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지키기를 원하시고, 미리 정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엡 2:10).

추가 요절 : 야고보서 1 : 5 ~ 8.

기도 : 주님, 무엇이 옳은지 혼란되고, 확실치 않을때 마다 주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십시오.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 월 10 일

제목 ; 언제나 기억하세요

엡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태초에 무에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물질이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보는 모든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보존하고,생각하고,정리하고,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미혹에 빠져 드는걸 모르고 죄에 빠져 이 능력을 사단의 악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는 우리 의료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로 평생 진료하면서 그 많은 치아중 똑같이 생긴 치아는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다르고 유일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받은 지혜,지식,능력,재능은 주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믿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삶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사람들을 돕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환자들에게 훨씬 더 이롭게 해줄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료라는 직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방향을 갖게 해줍니다

의사이자 여성 선교사였던 이다 소피아 스쿠더라는 분은 평생 인도에서 독신으로 살면서 페스트와 콜레라와 싸우던 분입니다 여성에 대한 종교적 편견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1902년 인도 타밀나두 벨로르에

기독교여자의과대학을 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힌두교인이
88 프로인 이곳에 의과대학을 짓는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라고.



Ida S. Scudder with Mahatma Gandhi, 1928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생각하기에 따라 무한한 일을 펼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도해 봅시다.

다윗이 말한대로 그의 시대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추가구절: 딤후 2:1-9

기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가진 지혜와
능력이 주님에게 들려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 월 11 일

제목 ; 참된 예물

눅 21:3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 예수님께 헌신한다고 할때 우선 생각 나는 것은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십일조 교육을 별도로 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헌금 이상의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성격,능력,기술뿐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 하는 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이라는 생각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님의 뜻하신바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일을 분리하며 사는것 같습니다 .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크던지 작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 즉 하루의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판날에는 우리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하는가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추가 요절:골로새서 3:23

기도제목;의료인으로서 봉사하는 모든 일이 우리 주님께 받으실 만하고,주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예물이 되길 기도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월 12일

제목 ; 믿음에 굳게 섭시다

딤후 2:3-5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바울은 그 시대의 상황에 비유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가를 설명합니다.

먼저 군인에 비유했습니다. 군인은 국가나 기관이나 고용주가 고용했습니다. 스스로의 자유가 없고, 성실하게 그 주인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대 테러를 위한 국가 헌병대의 대장이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명령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도 가질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일예배에 참석 못 해본지 3개월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지경이라 너무 당황스럽지만 아직 보직기간이 남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바울도 기독교인이 이와같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운동선수에 비유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며 겨루지 않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도 주님이 만드신 명령이 있습니다. 헛된 경주를 하지 않으려면 이런 명령에 맞추어 경기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만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광야에서 40 일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 견고히 서야합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를 두드리며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추가요절: 고전 9:24-26

기도: 주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소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월 13일

제목 ; 시험

히 4:14 -15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땅에 오셔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우선 순위 문제에 부딪치셨습니다. 광야의 세가지 시험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것입니다. 40일간 금식하신 후 배고픈 긴급상황에서 본다면 먼저 굶주림을 면하려는 시도는 나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서 예수님에게서 배울 점은 급한 일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시급하다는 일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올때 그 연단의 과정을 무시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두번째는 성전탑에서 뛰어 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이 멋진 쇼를 통해 하나님의 보내신 계획을 이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한번의 멋진 쇼를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이걸 깨달아서 힘든 일상생활 하루를 인내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겪어가는 고된 생활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될 겁니다.

세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를 지름 길이 있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할지라도 마귀에게 절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을 단번에 주겠다는 사단의 유혹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지름길이 바로 그런것 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놀으신 방법대로만 이루어야 합니다.

추가요절; 롬 8:28-30

기도: 성공이라는 지름길이 아니라

일생동안 순종함으로 우리와 이웃들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화의 과정이 주님의 계획임을 알고 동참하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월 14일

제목 ; 미래에 대한 소망

요엘서 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에스겔서 끝의 몇장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의 디자인과 치수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미래를 선포하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볼 수 있게 북돋워 주는것,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인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사고구조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고 구조의 변화"...직업에 대한 세계관이 변하고, 의료에 대한 임상과 프로그램이 변화하고,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계획을 만들게 될 겁니다.

"성품의 변화"...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정의와 공의, 과부와 고아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자비심이 생겨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 나그네를 돌보는 방법이 생겨나게 될겁니다.

사고구조와 성품이 두가지가 다 변화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겔 43:4) 그분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성전" 에서부터 "생수의 강" 이 흘러 넘쳐서 황무지를 적셔서 살아나게 하고 사해에 흘러 들어가 살아있는 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환경이 변화되면서 풍성한 열매가 넘치고 땅도 축복받은 땅으로 변화합니다.

또한 의료사회가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성전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의료기관, 프로그램, 그리고 의료인들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겪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추가요절: 계 15

기도: 주님, 안에서 제게 주신 소망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게 도와주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0 월 15 일

제목 ;환자와 더 친밀하세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세요

고린도전서 1:4-6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모든 면에서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기쁩니다 예수안에서 살면서 주어지는 풍성한 것들 때문입니다 .

먼저 온갖 지식이 주어집니다.진리의 깊이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이는 예수안에서 교제하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언젠가 신부전증 환자에게 초음파로 검사중 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총만해져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중에 점차 검사실이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환자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순서를 기다리던 그 다음 환자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검사가 끝난후 하나님의 말씀을 환자에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환자는 내 팔에 안겨오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환자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을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기쁜 관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보니 내가 하나님안에서 잘 교통하고 있을 때, 그때 환자들과의 관계도 좋았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추가요절 :요일 4:13-18

기도: 주님 제가 주님으로 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내 행동과 말에 담기를 노력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16 일

제목 ; 주님을 닮아갑시다

고후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 중심에 있는 병원에 일하러 활발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데이티 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병원 앞에 많은 거지들이 줄서 있었습니다 .

아주 예쁘게 생긴 불쌍한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 보는 노인들도 담배 피우며 앉아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진료를 기다리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마지막을 통과해서 병원에 들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라" 고 하셨습니다 .

주님이 상기시켜주신 이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근무후 내 멋진 호텔로 돌아가는길에, 아침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달려 지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선택한 곳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긴 인생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요한 일" 을 수행하러 가는 도중에, 저 거지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혜사 주님이 함께하셔서 아직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우리의 희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내 인생의 많은 부분, 즉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자신감있게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할때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직 내가 온전히 서지는 못했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되고 늘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으며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이것을 괜찮다고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괜찮다고 하십니다. . 주님의 은혜를 통해 내 마음이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구걸하는 거자를 보지 못하던 내 모습도 있고, 반복되는 무지와 불순종의 옛 모습이 남아 있지만 ,예수님은 이런 부족한 저를 아시기에 미소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추가요절:빌 1:6

기도:하나님, 늘 저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당신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17 일

주님을 따라가기

마 9: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내 환자 한분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늙어 보입니다. 심한 피부암때문에 얼굴 피부의 반 이상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얼마 후에는 전신으로 전이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내 전공분야이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환자분은 "잘 압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나는 이 고통을 못 이겼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들 가운데 내가 아니었다면 고난을 못 이길 분이 한분이라도 있나요? 내 사적인 시간을 들여서라도 보다 효과적이고, 공감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 살고 있나요.

이 질문은 비단 진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찾아서 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립해서, 성공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들여 계속해서 찾아보아야 어려운 이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 삶의 의욕을 잃고 낙망한 분, 병에 걸려 심히 어려운 분, 정말 지금 당장 예수님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우리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추가요절: 마 25:37-40

기도: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 섬길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월 18일

주님을 의지하세요

왕상 19:11-1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응급실 안에서 정서적으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손을 잡고 있던 첫번째 환자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복도에서 울고있는 내 환자의 여동생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면서 나는 느꼈습니다. 때로 청진기를 내려놓고 손수건을 꺼내어 건네주면서 조용하게 함께 있어주고 울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고 생각했습니다.또 그날밤 죽음을 목격한 경험 못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른 교훈도 주셨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조용히 있기만 했습니다. 응급실에는 함께 있던 다른 환자가 두려움으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담당 의사가 와서는 조용히 그 겁에 질린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큰소리로 말하거나 병실의 분위기를 바꿀 어떤 잡음도 내지않고 너무나 조용한 음성이어서 나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죠 .제가 괜찮으면 당신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인디애나 의대 로시니 박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이 주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폭풍한 가운데서 때로 우리는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 주님이 옆에 계신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폭풍가운데서 꼭 천둥치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를 쳐다보아라" 주님은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은 혼란 가운데서 평강을 주십니다 "만일 내가 염려하고 있지 않다면, 너희도 염려할 필요가 없단다."

내가 너희를 격려해줄테니 나를 의지하여라.

추가요절 :찬송가 : 우리의 주님이시요 사랑하시는 아버지

기도:주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알고,주관하고 계심을 알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배우게 하소서.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19 일

제목 ; 생명을 살리기 위해 힘쓰세요

빌 1: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프리스라는 이름의 다발성 골수종 환자를 나는 수년간 치료왔습니다. 골수종은 최근 새로운 치료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관심이 집중된 병입니다.

제프리스의 골수종병은 하나의 치료법에 내성이 생겨왔을때마다 새 치료법이 나와서 다음해에 그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3 개월 전에

carfilzomib 이라는 다른 약으로 바꿔 봤는데 오늘 신약에 대한 그의 반응을 평가해 보니 너무 좋아졌습니다.

제프리스 환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나는 농담으로 "나같이 좋은 의사가 치료하고 있으니 당신은 절대 천당에 갈 수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환자들과 농담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농담으로 인해 멈췄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정말 애쓰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인으로서 병을 고치고 환자가 더 오래 살게하기 위해 과학을 연구하고 힘들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환자 누구라도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게됩니다. 우리가 이루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지 않고 있는 환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더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환자들도 하늘나라에 일찍 못가게 막는것도 정말 우리 직업이 할 일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반대쪽에서 누릴 영광보다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런즉 이제 내안에 사는것은 그리스도이다" 라고 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영광은 관계성에 있고, 이 관계는 이 땅에서 부터 시작해서 저 세상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편에서 더 오래 시간을 보내면 더 많은 영생에 이르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증거하며 살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더 오래 증거한다면 저 세상에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우리 기독 의료인들은 진료를 통해서 환자를 잘 치료하여 믿음의 일꾼들이 더 오래 살도록 도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특권이 있습니다.

추가요절:시 16:1

기도:하나님 제가 환자들이 덜 고통받고 오래 살도록 제 의술을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맡긴 소명들을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20 일

제목 ; 죄를 간과하심 (look over)

출 12:22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환자가 계산대 유리창 밖에 있어서 진짜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내 검사실을 떠나가면서 "앞으로 2 주 있으면 제 70 세 생일입니다. 그때까지만 사는게 제 목표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뒤따라 갔습니다.

수납 창구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왜 70 세로 선택했는가고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살아온 과거를 모르십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살 줄 몰랐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생님을 간과 (look over) 해 주신 것은 고마운 일이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전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해 망쳤다는 생각이 든적이 당신은 있나요. "하나님이 그냥 그분을 간과 (look over) 해주었다" 는 말은 원래 내가 의도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간과(look over)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고 있었지만, 계산대 유리창 앞에서의 잠깐 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 분 죄를 묵인(over look)하셨다" 는 말을 안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죄가 중요하지 않아서, 또는 해롭지 않아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너무 커서 그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인 (overlook) 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죄를 간과 (look over) 하십니다. 차라리 그 날 그분에게 죄를 간과 (look over) 하셨다는 표현보다는 넘어 가셨다는 (pass over) 말을 썼더라면 더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 12:12-13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유월절 날 밤 이스라엘 아기들에게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인쳐진 내 생명도 넘어가 줄 것을 믿고 찬송합니다.

추가요절: 벰전 1:18-19

기도: 주님, 내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21 일

제목 ; 미래와 희망

렘 29:1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렘 29:4 -6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못한다면 ..."약속한 모든 좋은 것을 이루어 주리라.",,, "좋은 계획"을 성취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 이나 "계획" 이라는 말은 "미래와 희망" 을 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겉보기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11 절).

2001 년 말리카라는 여인은 에이즈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 10 살 이하의 아이들이 3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 보면서, 그 여자도 죽는 것을 두려워 했습니다. 그 여자는 한 협진 의사에게 보내졌고, 그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의사에게 자녀 교육을 마치고,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손주, 손녀를 볼 때까지 살고 싶다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 의사는 주님이 도우시면 "미래와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상담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아이들과 나는 오래도록 침실 한칸을 임대해서 살았습니다...우리는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께선 신실하셔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17 년후 말리카여인은 자기집 벤치에 앉아 자녀와 손주 손녀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희망을 잃고 살던 한 젊은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믿음의 여인이 되었는지 회상했습니다. 그 여인을 둘러싼 가족 모두 주님이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 을 가져다 주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추가요절: 사 61:1-11, 요:10:10

기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22 일

제목 ; 새 시작

시 126: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나는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3년차에는 더욱 심해져서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일은 가치가 있지만, 상실감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적은 지원과 막대한 책임, 오랜시간의 노동, 불면증, 사회적 고립, 비판과 완벽주의의 문화에 있다보니, 내 건강한 대처 기제가 침식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일하는 동안, 한편으로는 건강, 개인생활, 가족, 친구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시 나는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이나, 셀 그룹 활동, 심지어 경건시간도 정기적으로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이 없어 바닥이 갈라져 있는 빈 댐 같은 느낌었습니다.

레지던트 교육을 마친 후, 5개월 동안 일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환경에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 부서진 시기에 주님과 나 둘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다가 오셔서 내 안이 깊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은 내게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곁에 있단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키리라(ESV)".

그때 나는 기분이 어떻든,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기다기로 했습니다. 몇달동안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뜻한 교회 가족들도 내 슬픔을 덜어 주었습니다.

1년후 병이 회복이 되었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자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동안 머리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에 정착 했습니다.

추가요절: 사 40:31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큰 일 (시 126) 을 행하신 주님. 기다리는 나에게 향하셔서 내 외침을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깊은 구덩이에서, 진흙과 수렁에서 건지셨습니다. 나를 반석위에 세우시고 견고한 곳에 세우셨습니다 (시 40:1-2). 이제는 나와 같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내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23 일

제목 ; 사랑을 배우시다

요 3: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제자 호스트 선생은 주님의 왕자로 불립니다. 겸손하고 거룩하며 남을 잘 돕고, 온전히 기도에 전념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분은 종종 세상에서 우리는 잊혀지고 예수님이 기억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사랑을 배우는 방법에 대해 그는 말하기를... 모든 진실한 기독교인은 더 큰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키우고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은, 사랑의 작업을 많이 요구하는 사람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좋게 대하려는 사람에게 친절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몹시 시험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과 잘 지내려면 사랑의 실천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키워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주님 제게 사랑을 채워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사랑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감정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매일 그렇게 사랑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지만, 그러나 대수학 일차 방정식 문제처럼 비례해서, 즐거워할 만큼 정확하게 실천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적은 수의 사람을 먼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가를 보아야,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봉독: 요일 3:18-20

기도: 하늘에 계신 주님,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특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그리고 나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24 일

제목 ;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요 15:9-11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나에게 아름다운 말씀이고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15:9)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즐거워 할 수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같이 사랑받는다면 다른사람의 사랑을, 인정을, 칭찬을, 환영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으며,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안에서 살라라 (요 15:9)"

포도나무에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 모든 필요를 얻음 같이 예수안에서 항상 모든 필요와 그의 사랑을 얻습니다.

가지가 항상 모든 것을 공급하여 열매를 얻게 하듯이 나도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축복합니다. 가지처럼 내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늘의 사랑을" 항상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처럼 나도 들어야 합니다! 10 절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듣는다는 일은 실용적인 일입니다. 환자 치료하는 일, 사람들을 돌보는 일,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이란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웃으며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주님을 기뻐하면서도 웃을 생각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자체가 사랑의 삶이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픈 환자들과 함께 있을때 특히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고전 13

기도: 당신의 놀라운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제 안에서 오늘부터 주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살아있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25 일

제목 ; 휴식의 이유

잠 21:1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붓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장을 만드셔서 경이로운 수축과 휴식을 항상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축기에는 신선한 산소가 든 피를 전신에 펌프질 합니다. 이완기에는 심장근육이 쉬고 이완되어서, 심방들을 확대해서 다시 수축할 준비가 될때까지 피를 계속 채웁니다. 이 휴식시간에 심장세포들의 재분극과 재충전 일어납니다. 또한 심장근육 자체도 산소 포화 혈액이 퍼지고 영양이 공급됩니다. 그래야 강력한 펌프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면 혈액을 잘 펌핑할 수 없으며, 심장근육 자체로 혈액이 퍼질 수 없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전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님안에서 휴식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펌프질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이완기를 배우지 못하면 인생의 수축기에는 최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1) 쉬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2) 휴식하고 잘 펌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추가 요절: 마: 11:25-30

기도: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 당신의 손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뜻대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잘 휴식하고, 수축하도록 가르쳐주십시오. 예수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26 일

제목 ; 실수

시 94:18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불드셨사오며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한번 또는 여러번 일을 모두 망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의료에 있어서 우리의 실수는 때때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방성, 책임감 및 사과는 해결책을 찾아 시정하기 위한 첫번째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때 현저하게 사람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그 과정을 진행하기가 종종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느:3:22-23), 실패는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분은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실패에 머무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목적에서 멀어지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된 길로 올려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한 후에, 어려운 현실로 다시 올라서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세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의 모든 상황에서 주님은 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장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해를 끼치기 위해 행한 것을 주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할지, 또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우리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과거를 떠나 하나님 나라의 그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시작한 것이 완성될 것을 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추가요절: 잠 24:6

기도: 주님,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새로 시작 할 수있게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월 27일

제목 ; 호흡

겔 37: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호흡문제로 고생하는 환자를 너무 많이 겪어왔고 언제나 괴롭습니다 . 다음번 호흡을 통해 부족한 산소를 얻으려고 고군분투 합니다. 오직 그 목표에 모든

의식이 쏠려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어느정도 진정치료를 통해 인식 못하고 숨을 거두도록 도와주어야 할만큼 끔찍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한 교회의 목사님과 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이 젊은이는 구원을 받았지만 목사님께 하나님을 볼 수 없는것에 대해 자주 화를 내며 슬퍼하곤 했습니다, 몇달간 조연해도 결실이 없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멀리 떨어진 냇가에 함께 가서 물속을 건넜습니다. 경고도 없이 목사님은 젊은이의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하다가 나중에는 미친사람처럼 되자 목사님은 그를 끌어내고 그를 도왔습니다. 목사님은 젊은이의 항의와 당황한 반응에 대답했습니다. 물 아래 있을때 다른 무엇보다 무엇을 원했나요. 젊은이는 "공기죠, 물론"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만일 공기를 마시기 위해 그렇게 애쓰듯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호흡은 그리스어로 프뉴마이고 히브리어로는 루아치 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보다 하나님은 더 친밀하십니다 .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요 3:8 ;20:22)

그분의 호흡은 우리를 살립니다.(창:2:7) 그 친밀함을 우리는 얼마나 갈급하고 있나요.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환자처럼 생명의 호흡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만 어디서, 어떻게 찾을줄 모릅니다 . 결국 그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엉뚱한것을 움켜 쥐다가 정말 필요하고 노력해야 할 것을 놓쳐서 서서히 호흡이 끊어지고 맙니다.

추가요절: 시 42

기도:하나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세요. 주님과 주님의 친밀한 임재를 더 갈급하게 해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28 일

제목 ; 실패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 의학을 전공하기로 했나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일 겁니다. 또는 과학을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또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고 싶어서 일 겁니다. 당신이 알고있던 훌륭한 의사나 또는 자서전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나요. 시험 공부하면서, 구직 신청을 하면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실행하면서, 직위를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임상의사로서 일하는 것 외에도 평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면서, 처음 가졌던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섬세한 초점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기 가장 좋은 곳이라서 특정한 일을 하기 원하나요, 아니면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그 선택을 하려고 하나요. 또는 단순히 다른 병원으로 이사가기 귀찮아서 인가요.

실망이 찾아올 겁니다. 내가 아는 한 시험볼 때 마다 한번에 모두 통과하고, 직장을 구할 때 마다, 연구 프로젝트 제안마다 이루어내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나 또는 명백히 "달려진 문" 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우리 앞길이 명확하지 않을 때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내 마음이 실망에 접했다면 무엇이 가장 나를 속상하게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섬기려는 목표가 좌절됐는지 아니면 다른사람들이 이번일에 내가 성공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조금 곤란함을 느끼게 되어서 인지요. 자존심과 욕심이 우리 마음을 몰래 조금씩 파고드는 것을 허용하기 쉽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해보는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세요. 그리고 우선순위와 최고 목표의 재설정을 도와주시도록 주님께 구하세요.

추가요절; 롬 5:4

기도: 실패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29 일

제목 ; 친절한 행동

갈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친절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의미가 약해 보이나요. 아니면 구체성이 없어 보이나요. 친절은 문자적으로 착함, 온유, 자비롭다는 뜻이고 보통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표현할때 사용합니다.

기독교 의사인 우리들은 친절을 보여줄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너무 업무 지향적, 환자의 생의학적인 필요에 집중하거나, 그리고 치료과정 목록 작성, 병실회진 환자목록, 그리고 오후 회의 의제때만 쓰여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치료하는 연약한 환자에게 친절하기 위해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중지하기를 잊을 수 있습니다. 친절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각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일 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졌음을 기억할때, 그리고 다른사람들이 그런 가치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려고 노력할때 친절에 도움이 됩니다. 항상 자동적으로 친절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몹시 우리가 지쳐있거나,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는 환자를 대할때는 친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친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 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 이중 가장 작은자" 에게 한것이 곧 내게 한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추가요절:미가:6:8

기도:친절히 행함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자 됨을 알게 하소서 .이 엄청난 특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30 일

제목 ; 우리 안에 있는것들

시 51: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화창한 토요일 오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남서쪽으로 50 키로 떨어진 40 헥타르의 Alcsuti Arboretum 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니다가 나는 엄청 큰 아름다운 나무가 최근에 넘어져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베어버리기엔 너무 좋은 나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니 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죽었거나 기껏해야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겉모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교회안에도 이런 사고방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함정에 빠지면서 의롭다는 외관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위해 우리 행동을 위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접근방식은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빠앗아, 마귀의 시험에 취약하게 합니다. 결국 어느날 일어나보면 그 나무처럼 되어 곁은 건강하나 속은 죽어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 23:26 -28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 다같이 외관 유지하려는데 관심을 집중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시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기를 힘쓰시다. 내면의 진실을 위해 외면적인 것들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합시다.

추가요절:히:10:19-23

기도:주님 정직하게 내면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저를 주님으로 부터 분리시키는 생각과 태도들을 바로잡게 도와주세요 .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0 월 31 일

제목 ; 자수

우리는 알바니아 티라나 대학병원 현직 혈액학 과장인 타티아나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분의 동료였던 전임 과장에게 그가 은퇴할 때까지 20년 이상 나는 그리스도를 전도했었습니다. 내 절친한 친구이지만 절대 그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타티아나 교수와 그분의 남편 파토스와 마주 앉아서 나는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자수로 새겨진 아름다운 스카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 분은 매일 병원에 출근할 때마다 그 스카프를 했는데 여러 색깔로 된 스카프에는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자수를 놀라운 색깔의 실들로 꿰매십니다. 20년 동안 그렇게도 티라나 대학의 혈액학 과장을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애써 왔지만 실패했는데, 전혀 내가 알지도 못하던 새로운 혈액학 과장이 예수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실로는 꿰매어 질 수 없는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가 새겨진 주님의 위대한 자수를 깨닫고 감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타래에서 실을 뽑으셔서 사랑스럽게 끊임없이 자수가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서 중요합니다. 알바니아에서의 나의 25년이 중요하고, 혈액학 과장이 된 타티아나 의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고르실 실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우린 충성을 다해 주님과 함께 자수를 놓습니다. 만일 우리가 포기하고 주님이 홀로 그분의 일을 하시게 한다면 왠지 그분의 색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언젠가 자수는 완성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 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아름다움을 직면하고 얼굴을 숙이고 엎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실을 지적 하실때 우리는 심지어 고개를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추가요절: 잠 3:5-6

기도: 주님, 제 실도 당겨 주소서. 저를 이끌어 당겨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런 디자인을 완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1 일

제목 ; 제자훈련은 한걸음씩

골 1:28 -29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orthodontic"(치아교정학)이란 말은 그리스어 "orthos" 에서 유래했고, 바르게 하다,세우다,고치다 라는 뜻입니다. 교정치료에서 치과의사는 치아의 배열에 대한 치료결과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을 갖고 시작해야 하며 그 목표를 향해 브라켓을 위치하고 치아 이동을 합니다. 모든 교정 브라켓을 붙인후 철사를 가지고 부정교합 치아들을 정위치를 향해 당기기 시작합니다. 환자는 매 2 주마다 혹은 한달마다 내원해서 새로운 힘을 철사에 가해 주어야 하며 이때마다 1-2 퍼센트씩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치아가 일정량 움직인 후에는 처음 철사에 가했던 힘이 빠져서 다음번 내원때 새로 활성화 될 때까지 치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한 치아에만 너무 많은 힘을 주면 그 치아는 흔들려 빠지게 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2년간 대략 40-50 번 내원하게 되면 치료 전후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교합이 정상교합으로 치료되어 아름답게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독특하게도 "리테이너"라는 가철성 장치를 만들어서 교정치료된 치아들의 위치가 유지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리테이너" 를 불성실하게 사용하면 처음 부정교합 상태로 일부 ,또는 전부 되돌아 갑니다.

제자도의 원리도 같습니다. 새로 신자가 되면 긴 시간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 신자들을 제자화하는 위치에 있는 분은 언제나 다음 세가지를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1.명확한 비전: 궁극적인 비전은 예수그리스도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 2.인내: 단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 3.헌신: 헌신된 지속적인 제자교육이 없다면, 발전이 없거나 거의 없을 것입니다.

추가요절:딤후 4:7

기도:자기 자신이 제자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 봅시다, 다른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역할을 되돌아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방향으로만 나가야 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2 일

제목 ; 응답받지 못한 기도

빌 3: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 자신의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견디셨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일부를 공유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맡은 환자들 뿐만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 명백한 이유없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이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의 저자 피터 그레이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깊고 활발한 임재를 가진분들은 모두 "대답없는 기도의 침묵" 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의 은혜를 언제나 입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더 깊은 삶을 위해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것은 고통과 좌절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라는 찬송곡을 쓰신 존 뉴턴이라는 노예선장은 "고통이 빨리 기도하도록 돕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오랜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변화없이, 편하고 번영을 누리면 우리의 은밀한 예배에서 우리를 차갑고 형식적으로 만드는 불행한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도록 압박합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팔요를 느끼게 됩니다." 피터 그레이그 라는 분은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도록 자극한다" 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그 동기를 검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구할 때, 주님은 그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추가요절: 요 5:14-15

기도: "주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 영혼의 치열한 싸움에서 견디게 하소서, 의심과 반항의 탄식을 참게 하소서,

응답없는 기도의 인내심을 가르쳐 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3 일

제목 ;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렘 32:17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퍼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희귀한 난치병의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외래환자 방에 갓 결혼한 30 대 초반의 부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상담하기도 힘들어 할 정도로 혼란스러워하고 고민스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아내는 희귀한 다발성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국내 어디서도 치료할 수 없고 다만 일시적 완화치료만 권유받고, 수술을 해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의료보험 치료 보장이 안되는 상황이어서, 보통 이하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환자의 손을 잡고 침묵속에 앉아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진단을 나도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린 기도 할 수 있고, 증상을 완화시키고 편안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치료법에 대해서도 약값이 비싸서 혹시 비싼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내가 좋아질 수 있다면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긴 치료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주사제 투입을 시작 할때 남편은 "얼마나 살수 있을까요?"라고 물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6 개월에서 1 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기도할 겁니다." 놀랍게도 1 년후 환자를 만났는데, 그 환자는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거의 3 년간 지속되었고 ,그 사이 임신해서 건강하고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매년 이 환자를 볼때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10 년이 지난후 원인 질병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요절; 행 3:1-16

기도: 주님은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의 경험으로 환자들을 인도하게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4 일

제목 ; 어린이는 하나님의 유업

막 10:14 -15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요즘 현대 시대는 아이들을 짐으로 여깁니다. 불편하게 여기고, 어떤 경우는 마치 실수해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한 시간, 즉 경제적인 안정 등이 이루어 진후 아기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새로 바뀌어야 합니다. 위의 요절에 보면 어린이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어린이는 싸울 때 쓰는 우리 화살통 안에 든 화살과 같다는 말씀 (시 120:4) 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때 그들의 삶의 초기에 우리와 함께 집에서 사는 동안 경건하게 양육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활에 화살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자라서 집을 떠날 때면, 적진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사단과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과 맞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이 소명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주님의 선물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 2 장 15 절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경건한 자녀를 구하고 계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계획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보내 맡기실 만큼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들을 주님께 되돌려 보낼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14-15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추가요절: 시 127:3-5

기도: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좋은 부모와 어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새로운 경건한 세대를 일으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5 일

제목 ;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 되리라

창 22: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는 모두 모리아산에서 희생제물을 예비하신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약속은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우리 구속을 위해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신성한 섭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순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환경을 어떻게 유익한 상황으로 바꾸셨는지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병원은 뉴델리 대학원생 (DNB) 교육을, 뉴델리에 있는 DNB 본부에서 심사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재 승인을 받아 인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선배 수련의를 구할 수 없어서 승인취소를 곧 받게 되었습니다. 내 친구가 수련 승인취소를 막기 위해 서류만 존재하는 "유령 선배 수련의" 를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거절하고 기도로 하나님 도움만 열심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시험을 높여 주셔서 대학원생 교육 승인이 되었을 뿐아니라 선발인원이 두배로 늘어 났습니다.

추가요절: 히 4:16

기도: 하나님, 특히 우리의 청렴을 시험하는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섭리하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6 일

제목 ; 우리 행동의 결과와 함께 사는 법

마 27:4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위의 말씀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중의 하나인 비참한 대화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택하셔서 3년간 함께 지냈던 가망성이 없는 제자들 무리의 재정을 맡은 사람의 마지막 몇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가롯유다는 그의 행동과, 빠르게 이루어진 결과들을 후회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악을 느슨하게 가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개는 아니지만 깊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은 30량을 돌려주러 갔을때 대 제사장의 대답의 의미하는 바가 큼니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네가 당하라." 잠언 14 장 12 절 말씀을 살펴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누가복음 15 장 21 절에 방탕한 아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결과들은 더 달라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우리의 후회, 우리의 실수를 다루도록 신뢰하고 말길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분 예수님뿐 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만이 고치시고 우리 과거에 대해 "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결과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 아직도 고치시고 다시 시작하시고, 앞에 있는 목표에 맞춰 다시 조율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린 과거의 결정을 후회합니까, 아니면 말과 다른 행함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주님만이 과거의 짐들을 잘 다루실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롬:6:23

기도: 주님 저희는 완전하지 않으며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는 결과물들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 짐을 주님께 가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 주님만이 우리의 행실을 수정하고 바꾸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7 일

제목 ;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대하 29:36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어떤일"이 갑자기 우리 삶에 벌어지면 마음이 급해져서 하나님께 의지하기 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을 끝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예민해 집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추측과 걱정 에 위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지성, 교육이나 의학 훈련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의 뜻이 있으며,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우리 삶에 벌어지면 종종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 에 대해 벌써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못합니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응을 미리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갑자기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준비되지 못한 "사건" 이 없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 가요?

히스기야 왕은 25 세에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첫해 첫달부터 그의 아버지가 닫아두었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다시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우리도 만일 사건이 벌어진 그 해, 그 달,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전파되는 방법으로, 그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필요한 일들을, 즉시 이루실 것이 명백합니다.

추가요절: 시 84:11-12

기도: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실 능력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마음과 영혼이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8 일

제목 ; 가장 위대하신 의사

출 15: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군대에서 끔찍한 경험때문에 악몽과, 생생한 환각재현, 불안, 공황을 초래하는 환자가 독립기념일날에 내원 했습니다. 그 분은 언제나 용맹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심리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이 심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의심되는 분의 심리상담에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삶의 질을 현저하게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도 역시 기도가 위안이 되며 기적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서로 대화를 한 후에 그리고 그 분이 어려울때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후, 하루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아내도 남편을 격려하며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주님만이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나도 역시 그분을 의지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치료받으러 온날 환자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남편과 부인은 내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기념일 날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앞의 환자와 같이 군대에서 봉사했다가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도 나아서 이날을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는 손길이 그 환자에게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병원의 의료진들이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할수있는 최선의 치료를 그에게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때로 환자를 한번에 고치지 못할 수 있고, 완전한 치료를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의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추가요절:고후:11-14

기도:주님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올바른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9 일

제목 ; 영적 성장

시 119:1 -2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여호와와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의사들은 절차를 따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의과대학생때 부터 다양한 의학적 절차들을 배워왔습니다. 그 절차들을 반복해서 암기해야 했고, 맨 처음 단계를 수행할 때는 한 단계씩 사려깊게 시행해야 했습니다. 몇번후 그 단계를 반복하면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수십만번 해본 후에는 전문가가 됩니다. 열정에 이끌려서 계속 그 치료 절차들을 업데이트 하고 , 결국은 그 치료절차에 전문의사가 됩니다.

;의료분야처럼 성서에는 많은 인생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을 조심스럽게 읽다보면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찾고 또 규칙적으로 그 안에서 걷다보면 시편 119:1 절 처럼 "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라는 말씀같이 우리 삶의 리듬이 하나님의 절차의 단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있는 자라고 불릴 겁니다.

의학적인 치료처럼 , 모든 과정을 조심스럽게 지켜 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간다면, 사단을 포함하여 그 아무도, 우리를 해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치료처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즐거운 경험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계속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면, 주님은 우리 삶의 발자취에 간증거리를 남길겁니다. 주님을 간증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맞는 인생의 절차들을 연구하고, 그 과정들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여정에서 충만함을 발견하게 될겁니다.

성경읽기를 얼마나 즐거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여행이 달라질 겁니다.

추가요절:히 6:1-2

기도:주님 ,당신의 말씀을 잘 먹고, 매일 영적 성수기를 향해 성장하게 도와주세요.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10 일

제목 ; 영적 걸음

시 18:33-34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못 활을 당기도다

의학 연구와 실습으로 이뤄진 우리분야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그래서 의학이나 승진시험을 치룰때 모르는 것을 접하는 두려움이 쌓여 갑니다. 때로 우리 자신을 믿기도 합니다. 즉 뛰어난 지성, 과거 수상경력, 끊임없는 칭찬, 많은 추천등입니다. 심지어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자신이 시험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승진하기 위한 준비과정보다 의대 수련의 수련과정은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매우 주관적 싸움입니다. 짧은 시간에 책 안의 엄청난 분량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시험질문에 답하거나, 임상에 응용하기 위해 그 지식을 기억해 내도록 위협받습니다. 두려움과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많아지면서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극도의 자신감이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보여지게 되어, 외면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중에 예상치 못했던 실수로 인해서 임상 의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깨달습니다. 시 18:28 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의료인들의 지식의 학습과 실습, 연구의 정확성과 속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 학문적인 우수함을 넘어 전인 치유를 할수 있는 뛰어난 경지에 이르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반성;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 합시다. 임상 치료에서 검사와 판단할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늘 간구합시다.

추가요절;요 2;1-9

기도;주님,우리가 배우고,치료하고,검사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11 일

제목 ; 치매환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롬 1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령사회가 되면서 치매 발병율이 늘고 우리 자신도 치매가 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됩니다.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보면 오늘날 암보다 사람들은 치매를 더 무서워 합니다. 존 스윈톤이라는 분은 기독교인이자 이 치매라는 문제에 대해 세속적인 생각에만 전념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치매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매가 자신의 기억력과 사회적 기술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이하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에 결함이 있으며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그리고 총체적으로 기억하십니다. 시편 139 편 1-2 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또 시 139:8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치매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간병인들과, 가족들에게 우리의 기억력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속에 머무는 것은 중요한 보증입니다. 이사야 49:15,16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매환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의 기억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치매는 우리를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 질 수는 없습니다.

추가요절; 시편 71:18-19

기도;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과 간병인들과, 이 질병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료인들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늘 신실하심에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12 일

제목 ;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렘 3:22 -23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늘 되새겨야 할 주님의 중요한 속성중 하나는 주님의 지속적인 신실하심입니다. 참으신다는 말은 의도적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반하여 행한 일과 또는 그분이 구체적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은 일도 참으셔야 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입니다.

오늘날 대차대조표를 사용해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보는게 적절합니다. 수익과 지출말고, 왼쪽엔 순종, 오른쪽엔 불순종을 기록해 봅시다. 보다 솔직해지기 위해 자신의 방에 혼자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와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시다. 우리의 불충실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계속 신실하심을 유지하셨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 처럼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언의 전반적인 맥락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그분의 은혜의 시대는 끝납니다. 오늘날은 그분의 은혜와 자비의 새로운 날 입니다.

그분의 지속적인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오늘부터 1년후엔 대차대조표가 순종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 합시다.

추가요절; 하박국 2:3

기도; "언제나 변함 없으신 주님,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13 일

제목 ; 사랑으로 말하기

고전 16:14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과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을때는 가혹하거나 불친절 하지않게,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중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만, 진실을 말하기 보다,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사람들에게 진실을 말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생각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무감을 가지고 중간 길을 밟아야 합니다. 인기가 없거나 어려운 것을 말할 때, 사랑과 온화함을 가지고 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하는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그들이 일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자주 다른 사람을 불평했지만 우리는 그 사람과 직접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번이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불평을 털어 놓지말고, 직접 당사자에게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나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말하면 문제가 직접 해결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에베소서 4:15

기도: 주님, 주님처럼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15 일

제목 ; 사람에게 투자하기

마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건강 분야와 심지어 한 국가의 진료에 장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의료교육과 진료에서 의학의 규범들의 급속한 감소를 볼때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때 같은 도전에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시스템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 종교 의식화되고, 권력 투쟁화 되었습니다. 400 년동안 여호와와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로마제국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온세상을 위해 변화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사회구조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소수의 제자들에게 투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동일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고 하셨습니다. 나는 두 달전 두 의과대학생을 멘토링하기 시작했습니다. 2 주일에 한시간 정도 모였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 함께 만났고, 그들과 내 생활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면에서 그들은 내게도 축복이 되었으며, 여러 교훈을 배웠습니다. 의과대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은 멘토링을 필요로 합니다. 변화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며,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투자하고 제자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시작한 방법이며, 함께 이 사역을 계속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사람들을 보내 주셔서 멘토링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추가요절: 잠언 22:6

기도: 하나님, 우리가 젊은이들의 모범과 멘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큰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16 일

제목 ;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림

롬 8: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의료나 다른 분야의 일을 하면서 민감함을 잃는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환자 관리나 기타 치료의 바쁜 일정들이나, 치료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상호 작용에서 그것이 환자이건 동료 직원들이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민감함" 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있거나, 일의 결과가 아직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에 어떻게 맞는지에 대해 "큰 그림" 을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리더쉽 위치에 있고 "데스크 작업" 에만 관여하는 사람들은 "숫자" 와 편집하고 대조하는 "통계자료" 로 사람들을 여기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능력이 크건 작건 의료 및 개발 프로그램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가난과 불의에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고아, 과부,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동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선지자는 여러해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 에서 온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해야 했습니다. 선지자 자신이 "상처" 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자신의 인생이 백성들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다. 그는 매춘부와 결혼했고 그 여자는 그를 떠났습다.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그 백성의 죄" 와 그 집안의 불충실에 대해 그에게 늘 상기시켜 주었습다. 예수님은 "상처를 가진 치유자" 로 묘사되는데, 평생동안 핏박과 십자가의 상처를 지니셨습다.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깨지기 쉬운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가요절; 이사야 53:1-7

기도: 바쁜 우리 일상 생활속에서 "전인 치료"를 위해 "시간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17 일

제목 ; 중요한 일 찾기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최근에 이사회에 참석해서, 중요한 내용이 없는 기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회의 끝부분에, 젊은 회원이 의장에게 이사회에 연설할 시간을 요청하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가 왜 이런 일을 다루나요? 우리가 논의한 일들은 내 관심 밖의 일 들입니다. 이사회에 참석할 열심을 불러 일으킬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이사회가 다루어야 합니다". 그가 한 말에 나는 동의합니다. 이사회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도,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계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모든 것을 다 계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 했습니다. "중요한 모든 것을 다 계측할 수 없다." 는 아인슈타인의 뒷부분 말에 의존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무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을 측량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아인슈타인의 첫번째 말 "계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에 주의하여 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바쁩니다. 주어진 짧은 인생동안 주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과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할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가 속한 기관들이 덜 중요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이웃를 행동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뜻보다 그 분의 뜻을 얼마나 구하고 있을까요?

내 삶 안에 그 분의 뜻대로 산다는 신뢰함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오래 시간을 사용하고 있나요?

추가요절: 시편 15:1-5

기도: 주님,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 일들 가운데 결여된 부분들을 측정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17 일

제목 ; 중요한 일 찾기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최근에 이사회에 참석해서, 중요한 내용이 없는 기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회의 끝부분에, 젊은 회원이 의장에게 이사회에 연설할 시간을 요청하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가 왜 이런 일을 다루나요? 우리가 논의한 일들은 내 관심 밖의 일 들입니다. 이사회에 참석할 열심을 불러 일으킬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이사회가 다루어야 합니다". 그가 한 말에 나는 동의합니다. 이사회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에서도,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계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모든 것을 다 계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 했습니다. "중요한 모든 것을 다 계측할 수 없다." 는 아인슈타인의 뒷부분 말에 의존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무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을 측량 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아인슈타인의 첫번째 말 "계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에 주의하여 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바쁩니다. 주어진 짧은 인생동안 주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날과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할지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가 속한 기관들이 덜 중요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이웃를 행동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뜻보다 그 분의 뜻을 얼마나 구하고 있을까요?

내 삶 안에 그 분의 뜻대로 산다는 신뢰함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고 있나요?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오래 시간을 사용하고 있나요?

추가요절: 시편 15:1-5

기도: 주님, 중요한 일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 일들 가운데 결여된 부분들을 측정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월 19일

;

;제목 ; 갇혀 있지 마세요

;

;눅 24:2-3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

;진료를 위해 검사하기 전에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환자는 의자에 구부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

;서로 안부 인사후 그는 "나는 이혼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안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

;"나는 그 여자가 더 나은 생활을 원한다고 추측합니다. 아직 내게 조언을 구하지만, 단지 그 여자는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

;"이런 일을 겪게되어 (going through) 유감입니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

;"바로 그겁니다. 나는 겪고 나아가길 (going through) 원해요. 중간에 갇혀 있기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

;우리는 무엇을 이겨 나가고, 무엇에 갇혀 있는 걸까요?

;

;예수님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있어도 결코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

;성경에는 그러지 못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

;다윗은 갓 지역에 갇혀 있었습니다.(삼상21장)

;

;삼손은 가자 지역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사기16장)

;

;모세는 미디안 지역에 갇혀 있었습니다. (출2장)

;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일까요?

;

;1.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속에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

;2.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았습니다.

;

;3.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셨습니다.

;

;이러한 헌신의 결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안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때, 그분의 목적은 막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우리의 실패와 관계있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결코 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스왈드 챔버는 그것을 "주님의 발걸음에 합류하기" 라고 말했습니다.

;

;추가요절: 예레미야 7:23

;

;기도: 하나님, 제가 주님의 발걸음에 합류하게 하시고, 결코 저 자신 안에 간혀서 아무 일도 못하는 일 없게 해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20 일

제목 ; 동맥혈 잡기

마 25:31-40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Keith 는 내 아들의 장인입니다. 어릴때 보이 스카우트 시절 그와 친구가 뒤틀린 불모지 길을 트럭 뒤에서 타던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가파른 길로 밀려나고 한 소년이 뒷바퀴 아래에 떨어져서 한쪽 다리는 뭉개지고 다른 다리는 찢어졌습니다. Keith 는 대퇴동맥이 찢어져서 맥박에 따라 사방에 엄청나게 피가 뿜어져 나온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Keith 는 트럭이 필라델피아 미시시피로 돌아가는 25 분동안 동맥 끝을 움켜쥐고 피를 멈추고 있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거기서 헬리콥터로 후송되어 가장 가까운 잭슨시의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케이트는 아직도 오랫동안 동맥을 눌렀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학교에 돌아 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리를 절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일 언젠가 이땅에서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중요한 일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한 주님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정말 구원 받았을까요? 또는 굶주리는 동료 신자들을 먹였으며, 목마른 이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았나요? 우리는 생명을 중요시 여겨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중 살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훗날 주님은 우리의 실패뿐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이 성취하신 모든 일들도 우리 앞에 세워 보이실 겁니다.

추가요절: 딤편 1:12

기도: 하나님, 신실한 믿음을 주세요.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21 일

제목 ;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마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오늘의 스트레스를 처리할 준비가 된 치과 진료실로 내려왔습니다. 먼저 기도한 후에 하루종일 해야 할 절차들을 머리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내 친한 친구의 친척중 한분이 하악 매복 사랑니를 뽑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서 그 수술을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본 내 동료의사는 겁에 질려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치아의 충치가 심합니다. 확실히 발치 도중 골절될 겁니다...아주 힘든 케이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록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치료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치료 도중 계속 기도하면서 치아가 파절되지 않기를 바랐는데 감사하게도 파절되지 않았습니다. 한시간이 넘게 시술을 했지만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내 동료의사는 외과의사로서의 내 용기에 놀랐습니다. 나는 그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그 수술중 전혀 아프지 않아서 행복해 했습니다. 그 여자는 기뻐함이 넘쳤고, 마음깊이 감사했습니다. 3일 후 내 친구에게 환자상태를 물어 봤고, 그 친구는 그녀의 사촌이 의사의 뛰어난 의술을 그 여자의 친척들에게 칭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칭찬의 말을 듣고 자랑스러워 할때, 성령께서 내가 칭찬과 명성을 받기위해 일부러 환자에게 대화를 유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주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힘을 실어 주신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즉시 침묵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나를 통해 성취하신 일에 대해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예수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추가요절: 시편 115:1-11

기도: 주님, 당신께서 저를 통해 이루신 일들로 주님을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22 일

제목 ; 다른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다

고전 3:6-7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르완다에서 유학온 은가보라는 바짝 마른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난 8 개월동안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은가보와 그의 여동생은 여러가지 다양한 치과치료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그가 다른 곳에 몰두해 보이는지 궁금했고,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짓도록 하기 위해 나는 고군 분투했습니다.

오늘 은가보가 나를 만나러 오는 마지막 날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공부가 끝나 르완다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은가보와 내 신앙을 나누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심한 억양으로 그는 내게 말했습니다."선생님 다른 방문때는 내 마음을 열어볼 용기가 없었는데요, 오늘 선생님을 만나러 오면서, 선생님은 제 무서운 과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리화나와의 고통스러운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희망이 없는 그의 삶에 대해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바꾸고 싶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가진 신념체계에서는 그를 도울만한 어떤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간단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하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나는 오늘이 그에게 중요한 날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병원에 코드블루가 발표된 것처럼 병원복도 맞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목사님을 만나 은가보에 대해 설명 했습니다. 우리는 은가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은가보와 그의 여동생은 원목님과 오후를 함께 지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때, 그 세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가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뻐하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가보는 크게 외쳤습니다." 부인 오늘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제 짐을 대신 들어 주셨습니다." 은가보와 그의 여동생은 그날 저녁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28:19_20

기도: 주님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23 일

제목 ; 가난한 지역에서 일하기

잠 14: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카메룬의 북서부와 남서부에 있는 침례교 병원에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진료의사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진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는 환자들의 진료 추구 행동입니다. 재정, 종교, 전통은 환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독교인 의사로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은 나의 책임이지만, 문제는 거의 모든 환자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비를 가지고 오지 않으며, 음빙고 침례교 병원이 선교병원이기에 무료로 치료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병원이 빈곤층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믿음의 치료를 하는 분들인데 모든 질병이 악령에 의해서 생긴다고 기독교인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려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병에 걸리면 기도해서 몸 안의 마귀를 쫓아내다가, 병이 악화되면 병원을 찾아 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환자들은 교회나 가정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의료보험을 만들어서 환자의 치료비를 감당한다면 환자의 병을 고치려는 습관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똑같이 중요한 것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감성등 건강의 6 가지 요소들을 모두 다루는 전인 치유의 중요성에 관해 교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추가요절: 시 41:3, 마 10:8

기도: 주님,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정심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치료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24 일

제목 ; 경건의 연습

딤후 4:7-8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매일 경건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힘듭니다. A.W.TAUSER 라는 분은 " 가끔 하는 일 말고,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가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연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생명력은 적절한 경건 연습과 습관을 확립하는 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이란 말을 반발하고 일상적인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생산적인 일은 일상적인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의 생활에 간단한 경건의 연습을 더해 보면, 그의 신앙생활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될겁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은 "매일 하는 일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의 성공의 비밀은 매일 하는 일에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 예수님 안에서의 내 모습이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예수님과 함께 매일의 경건연습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기도, 예배, 서적읽기 , 전도, 봉사, 일, 교육, 식사, 운동, 자고 깨는 일,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하는 정해져 보호된 시간 등입니다. 이것들은 다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시편:62:1-2

기도: 규율이나 짐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안에서 생명을 주고, 주를 사랑하는 관계속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영적 훈련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25 일

제목 ; 즐거운 에벤에셀

삼상 7: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프랭크 갈릭박사는 60년대 70년대의 우리중 많은 사람들을 위한 친구이자 멘토이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나는 그분으로 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시절의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쓰는 단어가 나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는 "즐거운 에벤에셀" 단어를 말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마침내 이 말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존뉴튼이라는 분이 자신의 자서전적인 찬송가 "불신은 사라지고"에 있습니다. 이 곡 3절 가사입니다.

"과거 나를 사랑하신 기억이 현재의 고민들을 몰아냅니다

마지막에는 제 어려움들을 떨쳐 주실 겁니다.

과거 즐거운 에벤에셀들을 나는 각각 되새겨 봅니다.

나를 도와주신 그분의 즐거움을 확인시켜주어 환난을 견디게 도와줍니다"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미스바에서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념하는 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것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럴때 즐거운 에벤에셀을 들어 올리세요. 과거 승리했던 기억들을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때 시련을 통과 하면서 신앙이 얼마나 자란 것과 예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 갔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지금 받는 잠간의 가벼운 환난이 장래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몇년 밖에 안되는 고난은 영원한 즐거움에 비해 미약한 것입니다.

추가요절: 시편:77:10-15

기도:주님, 제가 낙심될 때, 과거에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26 일

제목 ; 선한목자처럼 살기

시 23:1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모두는 시편 23 편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라" 시편 23 편은 주로 인생의 마지막에, 장례식에 암송되는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 여정의 처음부터 영원까지 전체에 걸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 편의 목자되신 예수님 대신 나 자신을 목자로 비유해서 생각하여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시편 23 편의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23 편을 한번 가상적으로 의역 해보겠습니다.

나는 환자들의 목자라. 내 환자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함쓰노라.

나는 내 환자들이 좋은 치료환경에 누어 있도록 하리라.

치료의 물 곁으로 환자들 늘 인도하여 환자들의 신체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의 회복을 도우리라.

나는 환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비록 환자들이 고통중에 있거나, 병과 때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날마다 그들을 돌보고, 만져주고, 함께 대화하고, 위로하고, 강하게 하리라.

나는 환자들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리라.

내가 환자들과 함께,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노니, 하나님의 임재를 내 환자들이 경험하게 하리라. 그들의 컵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넘치게 하리라.

진실로 내 환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날마다 함께하기를 간구 하노라.

내 환자들이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위해 최선을 다 하리라.

내가 의역화 한 것처럼 시편 23 편을 여러분 자신에게 말한다면, "어휴, 나는 시편 23 편의 선하신 목자와는 거리가 멀어" 라고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각 사람은 그 말씀대로 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요 21:15-20

기도: 선한 목자의 모범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27 일

제목 ; 탕자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야기의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두 사람 모두가 아들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서도 불만족스럽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는 아들로 사는 것이 제한을 받는 것 처럼 생각해서 새로운 경력을 쌓기 위해 집을 나가는 "의로운" 일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추구하면서 그는 자유로운 길이 사실은 노예의 길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그는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 팔 벌려 그를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아버지 집" 에서 당연히 누렸어야 했던 정당한 자유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자유는 그가 처음부터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불리울 때부터 그가 당연히 누렸어야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풍성함과 자유를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혹시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짐으로 여기지는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욕망들, 꿈과, 권리의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큰 아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 집에 살기는 했지만. 그 자신의 삶 자체는 노예와 다름없다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자유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분노와, 분개, 괴로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관계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선교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며,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인식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추가요절: 롬 8:19

기도: 주님, 저희들이 우리 자신이 만든 욕망과 인식의 노예로 살기보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함임을 알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28 일

제목 ; 주와 함께 하는 삶

마 4: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의사의 하는 일은 거의 필연적으로 존경을 받게 되어 있으며 내과의사이건 외과의사이건 모임의 리더이며 송배는 아니어도 존중받습니다. 특히 우리 직업에서 성공했다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존경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크건 작던 전문 의료인으로서 실패하게 되면, 마치 수많은 벽돌처럼 그 실패는 우리를 때리게 됩니다. 실패한 수술 과정, 환자 감소, 실직등은 영혼을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그대로 굶게 놔두면 ,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거나, 혹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의심 할 때까지 천천히 눈에 띄이지 않게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최고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나 실패는, 단지 이차적인 관심사 일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의 필요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주님을 사랑으로 따르고 순종하며 걸으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으며, 기도하고 그분과 교통하며,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공을 추구하거나 , 실패와 절망에서 이것을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님을 계속 따르고 신뢰하십시오

추가요절:누가복음 12:31

기도:

주님 나를 사로 잡으소서.

그러면 내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내 칼을 버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속에 내가 빠질때,

내 힘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의 팔로 나를 가두어 주소서

내 손이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29 일

제목 ; 한가지 필요한 일

눅 10: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의사의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은 명예로운 훈장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바쁜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쁜것은 의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레지던트 선생님은 의료차트 작성및 "잔료 준비" 에 바쁘고, 고참의사는 외래 환자 부서에서 바쁘고, 외과의사는 수술실에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심야 한밤중에 바쁘게 의사는 중요하고 , 위급한 활동에 관여 합니다. 의사는 언제나 "비상 대기중" 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직업에서 그 스위치를 끄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위치를 끄는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막달라가 사는 소박한 집에서 익숙한 장면이 전개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중요한 손님이 있었고 마르다는 중요한일,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여러가지 중요한 것들로 바빴습니다. 그 여자의 여동생 마리아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그여자가 주인에게 불평했을때 그 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가 택한 오직 한가지 일은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가지 만이라도 족하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 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중에도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생명을 주는 시냇물에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쁜 임상치료의 압박과 긴장속에서 매일 필요한 일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읽습니까.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삶과 죽음, 열매를 맺기 또는 소진해 타버리기의 차이 입니다.

추가요절: 요한복음 15:5

기도: 주님, 제 우선순위 올바르게 잡도록 도와 주십시오. 주님과 의 올바른 관계만이 저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1 월 30 일

제목 ; 예배

골 3:23-4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주말에 교대로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원 환자는 24 시간 치료가 필요하며, 이 일을 위해서 항상 임상 의사가 대기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자주 주일도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일날은 안식일로 지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병실에서 근무하는 것은 예배에서 멀어지게하는 것으로 봐야 할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가지는 것과, 믿는 성도간의 교제는 확실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 의식 그 이상입니다. 예배는 또한 우리 주님께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포기하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드릴 가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 장 1 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자신의 의도로 온 것이 아니고,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의 귀중한 휴식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예배이며, 주님이 그렇게 받으십니다. 그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거나

혹은 휴식시간으로 쓰지 못한 것을 아까와 하지 맙시다. 그들에 대한 봉사는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로 주님께 봉헌될 것입니다.

골 3: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온 마음을 다해 매일 내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일이나, 주중의 다른 날이나) 성도들과 함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것이 매일 연속해서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예배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추가요절: 전도서 3:12-13

기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소서.

사람을 섬기기로 보냄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신앙과 일이 하나로 통일 되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2월 1일

제목 ; 하나님의 형상

창 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의사로서 진료하면서 우리는 매일 모든 종류의 환자들을 대하게 됩니다. 매우 사랑스러운 환자도 있고, 잊어버리고 싶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인생의 당연한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는 자비롭지 못한 생각을 억제하기 힘듭니다. 어떤 환자는 의사소통 할 수 없고, 항상 조용히 있어서 인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자들을 불멸의 영혼을 소유한 인간으로서 대하기를 잊지 맙시다. 특히 몸이 수축되어 침대에서만 누워있는 환자들이나 심한 치매환자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때로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임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C.S Lewis 의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존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각 사람은 후세에 받을 영광의 자신의 잠재력이 대하여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받을 영광에 대해 과도하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 이웃의 영광을 위한 짐 또는 무게, 어려움을 매일 내등에 져 줘야 합니다. 그 짐은 겸손한 사람이나 겨우 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 짐은 교만한 사람의 등은 부서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따분하고, 가장 재미없다는 사람이 언젠가는 어떤 생명체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그걸 본다면 숭배하고 싶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강한 반감과 타락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악몽속에서만이라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남신과 여신이 될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종일 이런 압도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서로 항상 경외함과 신중함을 가지고 모든 거래를 이행해야 합니다. "

불멸자들----C.S Lewis

하나님이 그들 각사람을 보는 방식으로 서로 바라보기를 배웁시다. 그 분의 눈에는 정말 사랑스럽고, 그들의 삶은 소중합니다. 함께 우리는 영원을 향해 여행을 할 겁니다.

추가요절: 마태복음 25:31-46

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듯 우리도 서로 영접하게 도와 주세요.

;

형제로서 자매로서 서로를 포용하게 해 주십시오.

;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임을 받아들여,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2 월 2 일

제목 ; 섬기는 종 의사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병원에서 야간 근무 후 피곤한 날이었습니다만 약속은 약속입니다. 늘 매달 한번씩 모여서 의과대학 후배와 성경공부를 해왔는데 바로 이날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경공부 교재를 펴고 제 후배가 선택한 성경 구절을 공부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전에 여러번 읽고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왔습니다. 성령께서 절대 잊혀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주제는 "섬기는 종 의사" 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 장 1-10 절 말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신분 자체를 종으로 여겼습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활동으로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많이 배우고, 높은 학위, 교육때문에 실제로 종이 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비협조적인 환자와 보호자를 접하거나, 병실에서 느끼고, 혼란스러운 간호사들을 대하거나, 다른 동료의사들과의 갈등을 다룰 때, 늘 겸손하며, 섬기며, 사랑하고, 이해하는 성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면 깊숙히 우리도 모르게 자신을 높게 생각해서 오만해지고, 명예를 추구하기 쉽습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의사는 더 존경받기 때문에 종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취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취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돕든지, 누구에게 친절할 답변을 하든지, 그것들이 주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도와줍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섬기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가 감탄해서 단지 바라 보도록 함이 아니고 우리도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는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고 어디 있든지 주님을 섬깁시다.

추가요절: 요 13:1-17

기도:

겸손하고 온유한 종이 되게 하소서.

연약한 분들을 일으키게 하소서.

종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기도가 "오늘 나를 종으로 삼으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켈리 윌라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2 월 3 일

제목 ; 협력하여 선을 이룸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의 "유명한" 구절에 친숙해 있다 보면, 그 의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추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행복한 일 뿐 아니라 슬픈 일도 포함하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좋아하는 일과 좋아하지 않는 일도 포함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맞도록 만들어 질 수 있으며, 그분의 뜻대로만 재 정리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설이 아닌 확실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옴기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압니다." 주님이 내 삶의 문제들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생각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웁니다.

주님은 점들을 연결하십니다. 그분은 주권과 지혜로 섭리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후회도 주님께 헌신할 때 은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분은 그 모든 점들에 대한 유일하신 관할권과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작을지라도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분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 간다면, 거기에는 유효한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 을 위해 점들을 연결하십니다. (롬 1:7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지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다니.... 하나님은 당신들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일 하시는 중이십니다.

추가요절; 시편 37:5-6

기도; 주님,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2 월 4 일

제목 ; 위로의 무지개

계 4: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어느날 저녁 내 마음의 어려움에 정신이 팔려 있는 채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쿠말이란 환자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어둡고 음산한 구름이 하늘에 몰려왔는데, 내 무거운 감정을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나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늘 돌봐주심을 압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있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계단을 올라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멍하니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환자의 더 나쁜 예상된 각본순서가 내 머리 속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천천히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알아차렸습니다.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와서 신기하게도 온 세상을 노랗게 황혼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의 햇빛이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퍼져 나갔습니다. 뒤 돌아보니 하늘 이편 수평선에서 저편 수평선까지 완전한 반원을 그리며 완벽하게 형성된 무지개가 펼쳐졌습니다. 비도 오고, 햇빛도 비추이고, 무지개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 내게 주는 것일까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 뿐만 아니라 내 환자도 돌보아 주셨습니다. 나는 그 환자가 상처 감염이 원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후 며칠은 환자 쿠마르의 열이 요동쳤습니다. 차트에 기록된 열이 오르내릴 때에 맞춰서 내 기분도 흔들렸습니다. 무지개의 장엄한 기억은 내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결국 환자 쿠마르는 항생제 투여나 추가적인 외과 수술개입없이 회복되었습니다.

노아는 힘든 시간을 방주에서 보냈습니다만,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무지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 보좌를 두르는 또 다른 무지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가요절: 창 9:13-16

기도: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의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고 희망을 보여주는 당신의 무지개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2 월 5 일

제목 ; 도구들

딤후 2:20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모든 숙련된 장인들은 가장 좋아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어떤 것은 특별하게 쓰는 것들이고, 일반적으로 쓰는것들도 있습니다. 도구를 잡을때마다 손가락 사이에 익숙하게 맞아 들어가서 편안하고 안심이 됩니다. 과거에 신뢰할 수 있었던 쓰던 무게의 기억이 안심을 시켜줍니다 . 숙련공은 그의 사업에 그의 도구들을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그의 뜻대로 휘두르며 , 모양을 내고, 절개, 찢어내기, 굽어내기, 꺾매기를 합니다. 도구들은 주인의 뜻대로, 인도하는대로 합니다. 그리고 종종 불쾌한 방법으로 물질 속에 들어가 작업을 수행합니다.결과적으로 생명, 치유하는 아름다움, 기능회복, 온전함이 이루어 집니다.

낡고 녹슨 뾰뾰한 도구들은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움직임을 왜곡시키고, 유동성과 아름다움을 깨뜨립니다. 해야할 당면한 작업보다 도구 자신에게 주의를 끌게 합니다. 잘 작동될 때까지 새로운 도구로 길들여야 합니다.

툴박스에있는 다른 도구에 대해 불평하는 공구는 없습니다. 일을 완수하기 위해 도구들은 함께 사용됩니다. 한 도구는 자르고, 다른 도구는 광내고, 또 다른 도구는 연마합니다. 모두 다 협력하여 일하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모두 다 필요합니다.

우리도 역시 가장 위대한 숙련공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도구들 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모양을 빚어가고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 역할을 하고 있나요, 어떤 도구가 되고 싶나요. 혹시 녹슨 도구는 아닌가요. 단련 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연장통에 함께 거하고 있는 다른 도구들을 불평하고 있나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대하신 숙련공이신 주님의 명령을 주님이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충성스럽게 전달하고 있나요.

누구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추가요절:사도행전:9:15-16

기도: 하나님의 치유사역에 일할 수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유용한 도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2 월 6 일

제목 ; 내 모든 시간이 사라진 것 같을때

막 1: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는 종종 극도의 피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씩 피로의 축수가 우리 삶을 둘러싸 버리기 시작해서 결국 녹초가 됩니다. 의과대학생이 되면서 "시간의 순교" 라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매일, 매주의 생활이 환자치료와 문제해결 목록, 그리고 후속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일정표에 독서과제가 없거나, 시험 날자가 멀다면, 알람시계 없이 좋은 잠의 휴식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아닙니다. 친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른 꿈과 야망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자주 아들로서, 친구로서,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오가며, 학생으로서 책임들을 위해 씨름합니다. 내 "시간찾기" 는 매우 요원한 작업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35) 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꼭 해야할 일 목록은 결코 작은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로 뻑뻑한 스케줄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시간의 주관자로서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때때로 너무 바빠서 주님을 찾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모든 창조물을 섭리하시는 (내 의학교육을 포함하여)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번거롭고 분주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쉬라고 하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부르시고, 그 고요함이 지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물가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더욱 담당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신성한 은총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품에서 언제나 우리자신을 발견하게 되도록 노력합시다.

추가요절: 시 119:47-49

기도: 제 짧은 순간의 시간이나 긴 시간의 날들을 헌신하게 하소서. 그 시간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2 월 7 일

제목 ;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마 7: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새로운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방탕한 면을 보지말고 그의 부러워하는 면을 살펴 배워봅시다.

이 청년은 그의 아버지가 가진 부와 지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 뿐아니라, 게다가 아들의 권리와 아버지 재산에 대한 그의 상속권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에게 아들로써 첫번째 요구를 했고, 결국 방탕하게 허비하고 말았지만 아들이라는 지위는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의 아버지의 지위를 인정했고, 아버지의 용서하는 마음을 인식하고, 노예로 생활을 낭비하기보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다른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아들" 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반면에 큰아들의 경우는, 열심히 일했고, 지칠줄 모르고 아버지 시중을 하였지만, 결코 아무 요구도 하지않은 형이 있습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아버지것이 다 그에게 속한 것이었지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 한마리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 할 수 있고, 아마도 무제한으로 인해 권한이 있음에도, 얼마나 많이 주님께 구하기를 거절했나요? 주님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착한 아들로써 살기보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받을 것입니다.

추가요절: 고전 3:21, 눅 15:11-32

기도: 오 주여! 내가 구하는 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2 월 8 일

제목 ; 시기적절한 판단력

갈 5: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척수신경을 다쳐서 양측하지마비를 입은 한 교회 교인을 나는 치료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교통사고후 구조과정에서 잘못된 후송조치의 희생자였습니다. 2 주 후에 또 한 청년이 예배하는 동안에 내가 의료 봉사하는 교회 진료소로 급히 실려 왔습니다. 그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몸통이 접혀졌었습니다. 의식이 없어서 나는 급히 그에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척추 부상을 입었고, 잘 고정해서 내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나는 지난번 교회 교인처럼 잘못된 후송조치로 인해 척추부상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몸통을 구부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학병원 신경외과의사는 다단계의 척수손상으로 그를 진단했고 비슷한 주의 사항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은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나는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간증하면서 꿈에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의사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는지와,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지 간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운전해오면서 한편으로는 그분의 믿음의 불꽃을 끄는 잘못을 했는지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내가 가진 의학지식으로 교우의 척수 손상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예방하려고 적절하게 행했다는 것 사이에서 궁금함을 가졌습니다.

많은 경우 임상 치료시 언제, 얼마나 기독교적 신앙이 우리의 판단을 지배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직면 할 때가 있습니다 . 기독교인 의사는 의학적인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신앙적인 기적에 의한 치유를 다룰때 성령의 역사에 민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합법성의 체계의 혼란이 없이 전인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주님 , 내가 진료할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2 월 9 일

제목 ; 자존심들이 만나서 충돌할때

빌 4: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신약성서의 유오디아와 손드게처럼 (빌 4:1-3)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 끼리 만나서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료인들도 우리시대의 윤리적 문제나, 다른 문제들에 직면할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관심사는 권력이나 지위에 관계하지 않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채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도력은 남을 섬기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허리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말씀하셨습니다."가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요한복음 13:14). 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신분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향상시켜 줍니다. 잠언 22 장 4 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화치료와 말기환자 의료를 담당 하면서 나의 경험은 특히 의료인들이 우리의 환자들의 복지에 집중하는 나머지 동료 의료인들의 민감성과 요구를 의식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의료인 간의 불협화음과 진료 서비스에서 낮은 사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12 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을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사도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사역 뿐만 아니라 의료사역하는 우리의 일에도 꼭 적용되어야 합니다.

추가요절:히브리서 10:24-25

기도:

"우리는 서로 협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동등하게 일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존엄을 지키고, 각자의 자존심을 살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보고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될 것 입니다.

그렇습니다.그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12 월 10 일

제목 ; 스트레스와 탈진에서 회복하기

히 12: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학생이건, 젊거나 나이든 의사이건, 의료인들은 의학 지식과 임상 습득시에, 그리고 선생님들이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정상입니다. 우리의 실적을 향상 시킵니다. 그러나 지나친 스트레스는 기능 장애와 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복원력은 회복을 유지하게 해주는 특성중의 하나입니다. 복원력이란 말은 라틴어에 뿌리가 있으며 그 뜻은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 가는 힘을 의미했습니다. "난세에는 강한 사람들이 살아 남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원력이 곧 강인함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복원력에는 적어도 세가지 즉, 성찰 (reflect), 조언 (refer), 보강 (reinforce) 요소가 있습니다.

어렵고 긴장되는 상황이 닥치면, 먼저 우리는 창조의 타락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약점과 취약점을 반성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며 우리 삶이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조언과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추천의 필요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 공동체의 지원에 따른 희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친구들의 사랑이 넘치는 도움은 고독함을 이기도록 하고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용서, 능력으로 우리의 희망이 만들어 집니다.

추가요절: 마 11:28-30

기도: 주님, 주님께만 계속 집중하게 도와 주셔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월 11일

진전이 없을때

롬 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집중치료실에서 종종 환자들을 다룹니다. 그 중 일부 환자들은 우리의 치료에도 거의 또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환자 상태의 작은 변화도 감지하기 위해 더많은 매개 변수 검사를 해서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환자가 안정이 된 후에는 일반 병동에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진행과정의 전체적인 그림을 얻기 위해서 좀더 긴 간격을 두고 관찰합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우리 삶이 잘 안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승진이 안되거나, 재정상태의 개선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이번 계절의 목표는 어떻게든 나를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라 자신의 문제와 행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 차이를 생각조차 하지 못 할 정도로 세상문화에 너무 잘 잘 적응해서는 안됩니다, 그 대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어 합니다." 인생의 이번 계절에서 하나님은 외부나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기 보다 먼저 우리 내면을 바꾸는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세밀한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내 마음의 작은 것들이나 매개 변수는 무엇일까요 . 우리가 그것을 식별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인식할 수 있고 빨리 그것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이 계절은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고, 올바른 상식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추가요절:로마서 12:1-12

기도: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받으시고 만드소서.

그때까지 주님께 기다리고 행복하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 월 12 일

금전 문제

잠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환자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개인 특실에 가겠다고 선택했으니 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만 하고 중지했어야 했습니다. 환자의 아들도 하고 싶은 말을 했고, 그에 따라 나도 도중에 화를 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병원에서 경제는 의사 결정을 하게 하는 추진력입니다. 선교병원안에 있는 우린 다른가요? 사실 우리는 운영비에 대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환자가 지불해야 할 청구서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자선병원에서 일하는 우리는 압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시절 이것 때문에 나는 꽤 불평했습니다. 몇가지 고려를 하니 일이 더 쉬워졌습니다. 우선 이 사역이 주님의 일이며 재정도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우리가 환자들에게 관대하게 대할때, 심지어 우리가 알고있는 환자들까지도 우리를 속일때도 관대하면 부담이 줄어들고 주님도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로 맡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도할때 두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주님께서 우리마음 속에 일하셔서 적절한 말을 하게 해주셔서 환자와의 관계를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주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수증 의무를 다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내가 말다툼을 했던 그 사립 병동 환자의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간호사들이나 관리자처럼 다른 의료팀원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변화시킬 부드러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돈보다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며, 혹시 환자가 적은 비용의 돈을 지불해도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진짜 가난한 한 사람을 쥐어짜지 않아도 되니 괜찮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 선교병원을 하는 이유니까요.

추가요절:신명기 15:7-11

기도: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관대하심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셔서 그분들도 주님께 이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 월 13 일

내 직업이 내게 미친 영향

고후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퇴직은 되돌아 보는 시간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두려운 이정표일 수도 있고 예정된 해방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날에 대한 약속, 또는 음울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식에서 앞으로 퇴직하거나, 이미 퇴직한 분들의 다양한 업적을 칭찬하면서 많은 찬사를 노래합니다, 동료 직원들이 지나간 날들의 좋고 눈물어린 일들을 공유합니다. 업적들이 나열됩니다. 재미있던 사건들이 자세히 회고됩니다. 웃음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의 눈물이 얼굴에 자국을 만들고 손수건으로 콧물을 훔쩍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직장이 퇴직하려는 사람에 대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직업과 일은 성격 형성 요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의 다루어지는 분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토기장이처럼 주물을 붓고,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듭니다. 삶의 교훈을 배우고 그것들은 우리 영혼에 녹아 들어와서, 우리 인격을 형성합니다. 퇴직하는 사람이 두고 가는 것은 작업물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에대한 기억입니다. 이것은 향기 또는 불쾌한 냄새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섞인 특이한 혼합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퇴직이 갖는 찬사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험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내부의 문을 열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것은 예쁘지지 않을 수도 있고, 비말의 향기가 가득한 냄새의 정원 일 수 있습니다.

나는 현재의 자리에서 지난 8년 일해 왔습니다. 이 시간들은 많은 것, 특히 나 자신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직장을 통해 배운 것들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요절:골로새서 1:9-10

기도:주님, 나의 일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 월 14 일

최고의 의사

막 2: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 의사는 저희병원에 수술하러 왔었습니다. 큰 수술이었습니다. 내가 외과의사로 일할때 수술방에서 그 분을 만났고, 수술과정을 알려주었고, 위험한 부분도 알려주었고, 질문을 있는지 물어 보았고 수술과정에 대해 논의후 서로 동의과정을 거쳐 수술했습니다. 통상 어떤 수술을 하던 하는 절차입니다. 그 분은 매우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암 수술을 받기위해 외과 수술을 시작을 위해 누워있는 일반적인 환자보다 더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지금 나는 내가 알고있는 가장 훌륭한 의사이신 예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겼습니다".

수술은 잘됐고 환자는 보조치료를 받는 부서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말은 내게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이신 예수님 " 물론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그 말은 내가 매일 환자들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돕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어떤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감정, 그리고 그 어떤 방법보다도 마지막으로 내 삶과 환자들의 삶을 예수님의 손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게 해 주는 훌륭한 말입니다.

;

추가요절:마가복음:5:25-34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은 주님이시고, 치유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날마다 당신의 강한 손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살도록 일깨워주십시오 .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월 15일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어느나라든지 그 나라의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목표는 좋고, 안전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동기는 성취감인 것 같습니다. 정해진 목표가 성취되면 중요성의 인식이 생깁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임상 신학자인 프랭크 레이크 박사는 이러한 성취 과정을 '중요성', '유지', '받아들임'이라는 진행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일치하는 반복 주기를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과 전문의로서 일하면서 그는 성직자들과 선교사들에게 감정적인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 증상은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 자신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소진으로 고통받는 많은 성직자들과 선교사들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프랭크 박사는 기독교의료협회 (CMS) 로 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실패를 느끼는 분들은 성취만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삶에 기초한 역동적인 은총의 순환주기를 창안했습니다. (은총의 순환주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기초를 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자원이 고갈되면 예수님은 군중들로 부터 물러가서 쉬면서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능력과 힘을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임' 은 은총의 순환주기의 시작 단계입니다. 보존자이시며, 보호자되시며, 공급자되시는 아버지로부터 양분을 '받아들임' 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 됩니다. 우리의 '중요성' 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입니다.

추가요절: 요 15 장

기도:

주님, 도와주소서.

매일 주님이 살아간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소서.

당신이 사랑한 방식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이 섬긴 방식으로 섬기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 월 16 일

휴식

마 11:28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휠체어에 앉아서 나를 올려다 보는 그분의 몸은 비만으로 휠체어에 딱 끼이고도 옆으로 살이 빠져나올 정도였습니다. 사실 4년전 처음 만났을때보다 그는 50킬로그램 줄어들었는데도 휠체어에 딱 끼었습니다. 그분은 내원할 때마다 얼마후 죽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새 약이 계속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은 버텨 냈습니다. 오늘 그분의 태도는 이전과는 달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는게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장 쉬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당신의 인생이 어깨에 올려놓은 짐이라서, 그리고 내려놓기에는 너무 중요해서 벗지 못하나요?

이 세상에 사는 다른이들과 비교해서 대부분 우리 의료인들은 더 좋은 삶을 누립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무릎을 구부리게 하는 예기치 않은 불청객의 짐을 견디지 않고 사는 삶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중 몇몇은 우리 삶속에 우리들만이 질 수 있는 우리의 책임, 그럼에도 너무 무거운, 책임져야 할 사람들과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들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대신 내 멍에를 매거라.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를 따라 오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힘겹게 하는 짐들을 나는 너보다 더 잘 지고 갈 수 있다. 사실 우리는 함께 짐을 운반할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들어 올릴 것이다. 내 어깨로 그 짐을 지고, 너는 나를 바라본다면, 너의 부담은 줄어들고, 가벼워질 것이다."

추가요절: 막 6:31

기도: 하나님, 나홀로 지고 가던 짐과 함께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 월 17 일

;

수치심

롬 10: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세계보건 해외봉사회 소속으로 니카라과에 의료봉사를 갔을 때 한 젊은 여자의 눈물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분은 매춘부의 굴레에서 이겨 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는 동안 통역을 위해 함께 있던 그 지역 사람들을 모두 그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그 여자가 구원받은 지나간 시간들을 빛으로 밝혀보는 놀라운 치유의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수치심에 가득 싸여있는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간증을 할 때 그 방은 온통 눈물이 고였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말하기를 "죄의식이라는 말은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고 수치심은 현재 짓고 있는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의료인들만 있는 이 방에는 나 말고는 수치심을 겪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수치심이 있어도, 우리 중에는 그걸 세상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잘 감추고 사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파급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완전주의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더 완전하게 배우고 더 완전하게 일하고 더 완전하게 말 한다면 수치심이 가라 앉을 수 있습니다. 수치심은 가짜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 줄 안다면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비웃거나, 헐뜯까지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

;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요. 수치심은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죄의식은 우리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이끌 수 있지만 수치심은 파괴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오직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사위 크리스는 손자 이삭과 자기전에 침대에서 하는 작은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쌍을 이루어 이 의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을 잡거나, 상대방 팔에 손을 대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사위 크리스가 손주 이삭에게 매일 이야기 하듯이 큰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무개씨,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당신을 덜 사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

그리고 잠깐 정지후 역할을 바꾸어서 같은 말을 합니다.

병원에서 이 연습에 참여한 간호사가 하루는 환자를 돌보다가 큰 고통을 겪게 만드는 실수를 했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비명소리에 간호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잠시후 그 간호사의 얼굴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때 나는 다음과 같은 찬송으로 끝 맺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제임스 스몰 MD.

추가요절: 시편 103:8-12

기도: 주님 십자가에 내 수치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아멘

믿음 깃발

고전 3: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는 기독의사와 치과의사들이 모였습니다. 한 치주과 전문의가 자신과 환자와의 토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제 수술의 결과는 여러분이 안고 있는 스트레스에 의해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환자에게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었는지를 묻고, 의사 자신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어려운 상황들에서 평안을 찾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의 간단한 계획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중 실제로 매일 만나는 환자들에게 안 믿는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도록 이끄는 분은 실제로 거의 없다는 것이 나의 의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씩 단계별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해야할 책임 역할이 있고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을 신실하게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은혜 처방이라는 이름의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 새겨 놓은 처방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손님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웨이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고객이 음식을 맘에 안들어 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주방장 책임입니다. 물론 식사 환경을 좋게 해야 하는 약간의 책임은 있고 손님을 놓친 슬픔도 약간은 느낍니다."

우리가 누굴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일은 손님 마음에 드는 태도로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데 충실하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때도 있습니다. 추수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추가요절: 롬 8:16

기도: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기 바빠서 주님의 정원에서 일하기를 회피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어리석음

요일 5:18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환자는 회색 수염의 웃는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폐암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려고 그곳에 있었고 그분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꽤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담배를 피운 연수에 대해 말하면서 "나는 나자신에게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시다시피 무지와 어리석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무지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음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그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대해 어리석었던 적이 있습니까?

탐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합니까?

자부심이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합니까?

정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조용히 있었습니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고 있습니까?

나로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데 있어서 분명히 어리석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셨지만, 지금도 주님의 영광의 반대쪽에서 우리를 찌르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싸울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과 결국에는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싸워야 합니다.

워치만 니는 말하기를 "죄가 여전히 여기 있지만, 그 죄의 힘으로부터의 구원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믿음에 있어서 덜 어리석음을 가지도록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확고한 선택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음은 줄어들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스리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일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극복하기 원하는 어리석음은 무엇인가요?

추가요절: 마 6:26-28

기도: 사랑의 주님, 내가 잘 압니다. 내 죄를 극복할 의지와 힘을 내게 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월 20일

폭풍을 잠잠케 하심

막 4:39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어떤 때 병동에 출근해서 보면 스트레스와 혼란의 분위기를 느끼는 아침이 있습니다. 며칠 자리를 비운 관계로 명확히 업무 의사 결정들이 지연된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환자들이 동시에 악화되는 경우, 말기 동요가 심한 환자의 경우, 보호자들의 지나친 요구, 사고가 생긴 경우, 약물 오류, 동료들의 어려움과 불화 등입니다.

혼란된 환경에서 우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은사는 침착한 태도입니다. 나의 중요한 역할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 잠시후 병실의 분위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선배로서, 경험자로서, 신뢰하는 동료로서 내가 기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보다 더욱 특별하게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35-41 절에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는 동안,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허덕이며 공포에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어떤 풍랑도 잠재울 수 있는 권세를 우리도 가지고 있고 예수님처럼 잘 잠들 수 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일을 통찰해 봅시다. 우선 본질적으로 주님은 모든 상황에서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 나서서 개입해 주시고, 평안의 내적 본질을 나누어 주십니다. 외적 상황의 현실을 바꿉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힘으로 분위기를 평안하게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내적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27). 그러기에 이것은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 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잘 인식하고, 우리 안에 더 경험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안을 나누어 주어야 할 권위를 가진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이사야 26:1-4

기도: 하나님 내 안에 당신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게 도와 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월 21일

나는 당신을 봅니다

창 16: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과도한 병원 일들과 ,수술들, 외부 현장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주위를 얼마나 살펴 보나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살펴 보나요. 청소부들, 짐나르는 분들, 주방 일군들을 살펴 보고 있나요. 그들을 인정하거나, 미소지어 준 적이 있나요. '환자'라는 명찰 뒤에 있는 그분들의 인격을 살펴 봅니까. 하루를 견뎌 내야만 하는 동료들을 뒤에서 살펴 볼 수 있나요?

의료직업의 영역에서 우리가 가진 책임이 긴급하고 바쁘다는 것을 부풀리기 쉽고, 관계를 맺는 일이 결여되는 것을 정당화 합니다. 당장 당면한 업무에만 집중하다가 그외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거나 압도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의 삶에 다가갈 기회를 만드신 성령의 속삭임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일이 어려운 노력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소, 인사, 격려의 말 한마디. 걸으러 보기에 작은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관계를 맺음으로서 그들이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눈에 띄지 않고 대수롭지않게 여겨진다고 느낍니다. 때로 우리도 그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살피시고, 못본체하지 않습니다. 줄루족의 인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 그 대답은 "나는 여기 있습니다"입니다 . 그 뜻은 나는 살아있고, 당신에게 중요하게 여겨짐을 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깊은 곳에서 살피십니다. 그런 주님의 시선을 우리의 눈이 느끼면 우리는 정말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위 사람들을 새롭고, 흥미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추가요절: 로마서 12:16-21

기도: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시선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 월 22 일

인내의 경주

히 12:1-3 이렇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당신은 지쳐서 낙담한 적은 없나요? 무엇보다 애당초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결심한 것을 후회한 적은 없나요. 일은 끊임 없이 많고, 고마움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 기여하는 영향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나는 위의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각자 놓여진 경주"가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각자 느끼는 기쁨의 종류가 다르고 , 도전이 다르고, 인간관계와 환경이 다릅니다. 하나님만은 언제나 우리 각자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지치고 낙담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 바라보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현재의 상황을 주신 것이고 , 거기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고난을 받거나,육체적,정신적,영적인 고통을 받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기꺼이 이 일을 겪으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시선이 목표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망과 유혹에 빠질때, 우리의 완전한 모델이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상기해야 합니다.

이 일이 쉬우리라고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자주 장거리 달리기 경주에 참여 했었습니다 . 비나 진흙탕을 뚫고 달리려면, 그리고 찌는듯한 열기를 뚫고 달리려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싸움이 요구됩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인내하면서 경주하기" 를 잘 하려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쉽게 할 수 없으며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께 공급해 달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요절 계시록 2:2-3

기도;주님 피곤하여 낙망될때 주님을 바라봅니다.경주를 계속하게 도와 주시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 월 23 일

나 자신의 인품과 재능을 나누기

롬 8: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요한복음 1:12).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즉 우리 가족, 부모님들, 직장 동료,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독특한 은사와 기술, 인품, 특색, 경험의 조합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세상은 독특한 무엇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소중한 재능, 자원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통해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거나, 환자를 치료하거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할때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대하게 당신 자신과 기술과 재능과 시간을 베푸세요.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투자할 기회를 의식적으로 찾아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때 이 세상 창조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추가요절 : 요한 1 서 3:1-3

기도: 오늘 하루 제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빕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 월 24 일

앞을 바라 봅시다

빌 3:13-14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격동과 혼란이 올해의 상황이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로 보면 다가오는 내년에도 또 다른 격동의 한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기대치나 상황변화,인력 자원 문제라는 도전이 잠재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상황, 도전과 난기류속에서 의료기관들이 제도적, 프로그램적 안정성과 지속적인 안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에서 변치않고, 인내하는 가치들을 지켜감으로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한번에 하루씩 붙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안정과 유지하는 힘은 주님께서서

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시대의 안정성입니다.

성탄절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격동하는 이 세상의 왕과 왕국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견고한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왕국의 일부분에 속해있습니다. 사람들은 견고하고 변치않는 가치를 가진 보살핌의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에 빠른 변화와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맞추어 우리는 유연하고 변화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늘 두렵고,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낡은 것을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일하려면 운영상의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할 일도 있겠지만, 포기해야 할 일도 있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포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요절;이사야 4:18-19

기도; 주님 다가오는 새해의 잠재적인 난기류 속에서 바틸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포기 할 의지와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 월 25 일

예수님의 탄생

눅 1: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전혀 내가 알지 못한 예수" 라는 책을 쓴 필립안시는 성경을 다시 읽을때 마치 처음 처럼 읽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예수님의 모든 이미지와 삶에 대한 이전의 생각을 버리고, 적절한 역사적, 지리적 맥락에서 주님의 탄생, 삶, 죽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지 않은 혼전 임신을 한, 겁에 질린 경험이 없는 10대 소녀였습니다. 존경할 만한 노동자 계급인 요셉은 마리아를 받아들여 결혼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래서 친구들의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마굿간에서, 오랜 고된 여행후에 간호해 주는 어머니 누이가 없이 마리아는 출산을 홀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목동들과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사들의 합창과 신비한 별의 등장으로 이 그림은 완성됩니다.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처럼 함께 모이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재적인 순종, 그리고 고난과 핍박까지도 의심없이 견디려는 의지의 반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서로 매우 다른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았습니다. 공통된 소명과, 그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목적으로 연합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뭉치게 한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도 같은 성령을 주셔서 순종과, 믿음을 갖게 해 주시길 빕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실 것입니다.

추가요절: 요한복음 1 장

기도: 주님, 이번 성탄절을 통해, 제 인생이 재 편집되고 갱신의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 월 26 일

시험적으로 맡겨보기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임상 차트를 컴퓨터에 입력하는중 우연히 행정비서가 아마도 가족 누군가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부터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제목이 계속 생각나면 점심때도 기도해야 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과 반대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다루도록 맡겨보세요. 2 주 동안만 시험삼아 이렇게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 될거예요."

어떤 주제로 나의 행정 비서가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쟁중인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은 당신의 갈등에 간섭하셔서, 헤쳐나가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시험해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지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진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시험적으로 맡겨 볼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잠시 나의 헌신의 예를 바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잠시 범사에 감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잠시 용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잠시 습관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죄를 벗어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시 실행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시험적으로 잠시 한걸음 신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헤쳐 나갈 능력이 없지만 2주 동안만 시험적으로 잠시 해 볼 믿음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헤쳐 나가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시험적으로 헤쳐나갈 기회를 주어서 아들의 병을 낫게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실까봐 나는 시험적으로 말기기를 두려워 하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간절히 예수님께 시험적으로 잠시 맡겨볼 것이 있나요.

기도: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월 27일

교회의 아름다움

히 12: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나는 은혜병원의 라이브 생방송 세미나에서 카터씨 옆에 앉았는데, 그분은 평생 위장병학에 대해 진료해 온 예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몇년전 두경부 암으로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복합해서 받는 개인적인 시련을 겪었습니다. 병과 싸우면서 그의 신앙이 더 성장했고, 그의 간증도 깊어졌습니다. "대장암 환자를 치료할 때 이젠 나도 말 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역시 암에 걸렸어요. 그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신했어요. 암에 걸리고 나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나는 주님이 나를 끝까지 돌볼 것이라고 믿을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며 내가 주님을 믿어서 나를 끝까지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처음 믿음의 씨가 심겨지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양육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가정과는 다른 공동체에서 양육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개인의 경험으로 인해 그 믿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서 직면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자라는 믿음이 내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다는 경험의 간증이 그들을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역경속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로 키워져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요절: 롬 1:17

기도: 하나님, 당신의 성도들의 간증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간증이 되게 하소서. 아멘 .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월 28일

고갈된 채로 일하기

엡 3:17-18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나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고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서 "고갈된 채로 일한다" 는 것은 꽤 흔한 경험으로 보일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즉 "직업" 이 1위를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직업은 중요합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7, 고린도전서 10:31). 그러나 이러한 칭찬할 만하고 유익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일의 원동력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도바울은 몇가지 전제조건을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그의 편지에서 몇가지 전제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한사람의 삶과 마음 속에 몇가지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안의 원칙입니다. 말씀 충만의 내재함과 노래로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생활입니다.

잠깐 만요. 다른 사람이 아닌 구세주께서 그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마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고 잠시 쉬라." 이렇게 그분에게 다가가는 이 일을 통해 우린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고갈된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에베소서 3: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바울은 이 말씀에서 자유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보좌" 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갈된 채로 위험하게 일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추가요절; 엡 3:14-21

기도: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서 나의 내면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을 덧입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들이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그 안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원합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지식을 뛰어 넘는지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데 까지 내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 월 29 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엡 4: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다페스트에 있는 헝가리 목사님을 방문하는 동안 그분이 목회하시는 루터교회 견학을 제게 시켜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1950년대 초에 이천명의 교인들이 이 교회에 출석했고 순전히 그 교회 성도들의 노동으로만 건축된 건물에 대한 고마운 기억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1956년 혁명 후 공산 정부는 많은 시민들을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 시켰습니다.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적은 수의 교인들만 출석하면서, 지방 정부는 건물을 부수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 파괴팀이 도착했을때 교회 건물 수용문서에 쓴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교회는 남아있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현장감독이 이 문서를 정부관리들에게 전달했고, 그들은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교회의 본질, 예수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숙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루터교회의 콘크리트 벽은 공산주의 정부의 명령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교회 존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신 분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단지 예수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함께 교회에서 예배, 교육, 친목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할 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요절: 에베소서 2:19-22

기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교회는 가파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휴식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당신이 교회이고,

우리 모두 함께 교회입니다.

전세계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입니다.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월 30일

늙은자의 지혜

욥 12:12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중동의 한 의과대학에서 세미나를 마치고 몇몇 학생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몇 살인지 추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학교 직원들 평균 나이보다 많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중동 문화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문화를 즐겼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우리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또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인들은 자주 보이지도 않고, 문제로 간주됩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서에는 자기 역할을 다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모세를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심지어 모세 자신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크게 많았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굉장히 늙은 분으로서, 그의 민족을 구원하실 분을 증거할 큰 특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시므온도 역시 아마도 꽤 나이든 분이었습니다.

주석을 찾아봐도 성경에 퇴직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들 중 나이 많은 분들은 매우 어렵게 얻은 지혜와 이해력, 장수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다양한 경험들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보지 못해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와 이해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어렵고, 적대적인 환경에 처한 젊은 동료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 안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추가요절: 시 92:12-14

기도: 늙은 나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도록,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소서.

DAILY DEVOTIONAL READING FOR DOCTORS LIFE SUPPORT FROM ICMDA 12 월 31 일

가장 강한 믿음

눅 22: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친구 톰 블루머는 최근에 죽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암의 발견, 초기 수술과 화학적 항암 치료, 재발, 전이 부위 수술 과 치료, 그리고 투병이 끝나고 살 날이 이제 얼마 안남았다고 내가 그에게 말해주던 그때까지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약한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 살려주실 것" 이라는 믿음도 있지만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뜻대로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톰의 장례식에서 제리라는 이름의 동료 집사는 톰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톰에게 암에 걸린 다른 친구 이야기를 하자 "내가 그에게 전화해도 되겠니?" 톰은 그렇게 했고 제리의 친구가 톰보다 3주 먼저 죽을때까지 계속해서 대화를 계속 했습니다. 제리는 장례식에서 "내 친구는 전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톰이 마지막 남은 그의 시간을 내 친구와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그를 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믿음의 부류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도와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이러한 신뢰의 각 영역은 진실되고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건들은 모두 우리가 수혜자입니다.

가장 강력한 믿음은 나의 유익이 하나님의 영광만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믿음은 내 유익이 주님의 영광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창조물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계획보다 의미가 깊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계획의 중심에 나를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고, 나와 이웃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계획입니다.

추가요절: 히브리서 11:6

기도: 하나님 제가 가장 강한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소서. 아멘